

第二篇 先史 및 古代



大邱達城(史蹟 第62號)

- 第1章 青銅器時代 以前の文化情況
- 第2章 青銅器時代
- 第3章 初期鐵器時代
- 第4章 三韓時代の 大邱
- 第5章 三國時代の 大邱
- 第6章 統一新羅時代の 大邱

第二篇 先史 및 古代

第1章 青銅器時代 以前の 文化情況

第1節 新石器時代 以前の 大邱

대구라는 총체적 호칭은 시대에 따라 많은 변천이 있어 왔다. 뿐만아니라 그 호칭의 구체적 대상이 지리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인 것에 기준을 둔다면 더욱 복잡한 변천이 있었음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그 예로 경제적, 문화적 기준에서 대구라 했을 때, 그것은 행정에서 구획한 대구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쉬 발견할 수 있다.

대구의 발상지가 되는 達句伐, 達句火縣, 大丘縣은 지금의 대구에서 본다면 보잘 것 없는 좁은 구역에 지나지 않는다. 역으로 지금의 대구는 오랜 세월을 격는 동안 達句伐로 출발했던 당시보다 몇 배가 되는 넓이로 확대되었다. 이는 지금의 대구라는 것이 근세, 중세, 고대, 선사때의 대구와는 크게 달리하고 있다는 것이고, 과거에 대구가 아니었던 넓은 지역이 대구의 이름으로 변신하게 되었음을 말한다.

이러한 역사적 변천 사실을 잘못 이해하면 發祥地 대구의 근간을 잃게 하거나 대구지역내에 위치한다 뿐 비대구적인 것으로 조명하게 될 염려가 있다. 다시 말해서 대구의 역사는 달구벌을 근간으로 하고 주변의 비달구벌 집단이 흡수되는 과정의 당위성을 기술하는 것으로 되어야 한다. 문헌에 나타나는 가장 오랜 대구 지명은 達佛城, 達句火縣, 大丘縣이었다. 위치는 지금의 新川에서 서쪽으로 성서와 금호강까지를 경계로 한 구역이라 추측된다. 하지만 이 구역도 역사시대에 들어와서 형성된 범위였고, 그 이전의 선사 시대에 있어서는 대구지명의 핵심지가 어디였는지 기록으로서는 알 길이 없다. 다만 지금의 達城에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까지 官衙가 있었다는 사실에서 그 이전의 어느 시기까지도 달성이 대구의 핵심지였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그 上限에 대해서는 達城에서 출토되는 고고학적 자료에 의해 추정이 가능하리라 본다.

달성에서 발견된 고고학적 자료를 보면, 청동기시대의 무문토기문화층은 뚜렷하지 않으나 초기철기시대에 해당하는 문화층 및 유물은 갑자기 큰 규모로 형성되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주변지역의 동시대적 유적과 비교하더라도 월등히 큰 생활유적이고 뿐만아니라 유물도 질 높은 기술에 의해 제작된 것들이다.

이 현상은 達句伐의 중심지가 달성토성지이고, 이 달성은 초기철기시대부터 중심지적 위치를 형성하였음을 말해준다.

대구가 신라에 併合된 때가 언제였는지 분명하지 않으나 그때 대구의 핵심지는 達城土城址였다. 그리고 기원 3세기 후반기에 쓰여진 《魏志》東夷傳에는 弁辰 二十四國의 존재를 기록하고 있다. 달성의 정착집단이 이 二十四國 가운데 1國이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달성 및 주변유적의 정황으로 보아서는 二十四國과 비슷한 규모였다고 추측된다.

청동기시대에 접어들게 되면 금호강과 그 지류상에 자연발생의 취락이 형성되고, 그 자체가 生活共同體로서의 한 단위가 되어 생활을 했다. 그후 취락들은 인구의 증가, 생활무대의 확대 등으로 취락공동체적 생활단위도 개개의 자연취락의 단위를 벗어나서 인접한 취락과 결속하게 되는 단위로 확대하고 이 추세는 동일 하천유역을 한단위로 한 사회공동체로 형성하게 된다. 達句伐의 지명도 이 무렵에 발생 된 것으로 추측된다. 이 상황은 공통의 자연환경으로 이해를 같이 하는 광역의 지역 공동체적 집단 사회로 발전한다. 그리고 이 추세는 마침내 원삼국시대에서 보는 小國의 사회로 발전한다.

대구에 사람이 정착하고 자연취락이 형성하게 되는 시기가 언제였고, 그 최초의 유적이 어디였는지 지금의 자료로서는 언급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인류가 지구상에 정착해서 취락을 형성하게 되는 것은 전체 인류역사에서 본다면 극히 짧은 기간에 지나지 않는다. 대체로 洪積世의 마지막 氷河時代가 끝나고 지구상의 기후가 온난해지고, 사계절이 분명해지는 지역이 확대될 무렵부터이다. 이때에 비로소 사람들은 이전의 생활방식에서 벗어나게 되고 인구도 불어나게 된다. 또 취락이 형성되어 사회가 커지게 된다.

정착생활을 하게 되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식량을 생산하는 기술을 알지 못했고, 오직 자연의 산물에 의존하는 생활을 해왔다. 즉 食料는 자연의 산물을 채집하거나 수렵해서 해결했고, 住居는 자연동굴이나 숲을 이용하였다. 즉 사람들의 생활은 자연의 식료를 얻기 위해서 대개 한곳에 오랫동안 머물지 못하고 식료를 따라 이동생활을 하였다. 또 이 때의 사람들은 생활에 필요한 도구의 하나로써 打製로 된 석기를 이용했다. 인류는 100만년이 넘도록 이러한 생활상태를 유지해 왔다.

고고학에서는 고전적이기는 하나 인류문화의 發展段階를 三時期法에 따라 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로 구분한다. 또 석기시대는 석기제작방법에 따라 문화시기를 二分한다. 석기를 타제상태로 써 왔던 때를 打製石器文化期라 하고, 석기를 갈아서 쓰게 된 때를 磨製石器文化期라 하고 있다.

이 시대구분은 일반적으로 타제석기문화기를 석기시대 가운데 구시대의 석기문화라는 의미에서 구석기시대라 하고, 마제석기문화기는 신시대의 석기문화기라는 의미에서 신석기시대라 한다. 인류의 조상들은 100만년이 넘는 인류역사 가운데 약 1만년 정도만을 제외하고는 구석기시대를 살아 왔다.

대구에서는 아직 구석기시대의 문화유적을 찾지 못하였다. 하지만 대구 주위에서 확인되는 구석기문화 유적의 존재와 자연환경으로 미루어 본다면 유적의 존재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정황을 뒷받침하기 위해 주변지역에 대한 구석기시대의 자연과 문화유적에 대한 자료를 개괄해 두고자 한다.

우선 구석기시대의 전시기를 차지하는 第四紀의 홍적세 기상을 본다면 地史의 전역사에 비해서 극히 짧은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극심한 기온의 변화가 있었던 시기였다.

한반도나 한반도 남부지방에 한정시킨 제4기의 기상을 구체적으로 연구한 자료는 없다.

그러나 일반적이고 고전적이기는 하나 제4기 기상은 대륙에서 발생한 빙하현상의 消長에 근거를 두어 개괄적인 설명은 가능하다.

고전적이기는 하나 그것은 유럽의 알프스산에 형성된 氷河堆石이나 融氷流水堆積物에 의해서 네 차례의 氷河期와 세 차례의 間氷期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 현상과 깊은 관계가 있다. 빙하기는 지구 양극에서 발달한 빙하가 적도쪽으로 확대되는 시기이고 간빙기는 반대로 확대된 빙하현상이 양극쪽으로 후퇴하는 현상이다. 이러한 빙하현상의 확대나 후퇴는 지구상에 살고 있는 동식물의 분포와 動植物相에 많은 변화를 가져 온다. 또 빙하현상은 바다의 해면높이를 달리 하게 한다. 즉 빙하현상이 후퇴하면 해진현상을 일으켜 바다물이 불어나서 수면이 높아지고 빙하현상이 확대하면 반대로 해퇴현상을 일으켜 해면이 하강한다. 해면의 상승과 하강과의 차이는 심할 경우 100m가량 된다.

지금의 한반도는 유럽과 미주대륙의 高中緯度지역에서처럼 대규모의 빙하현상이 발달하지 않았다. 하지만 해면의 상승과 하강에 따라 해안이나 하천변의 지형에는 많은 변화를 가져 왔다. 또 지금과는 달리 화산활동, 지각변동에 의한 지형변화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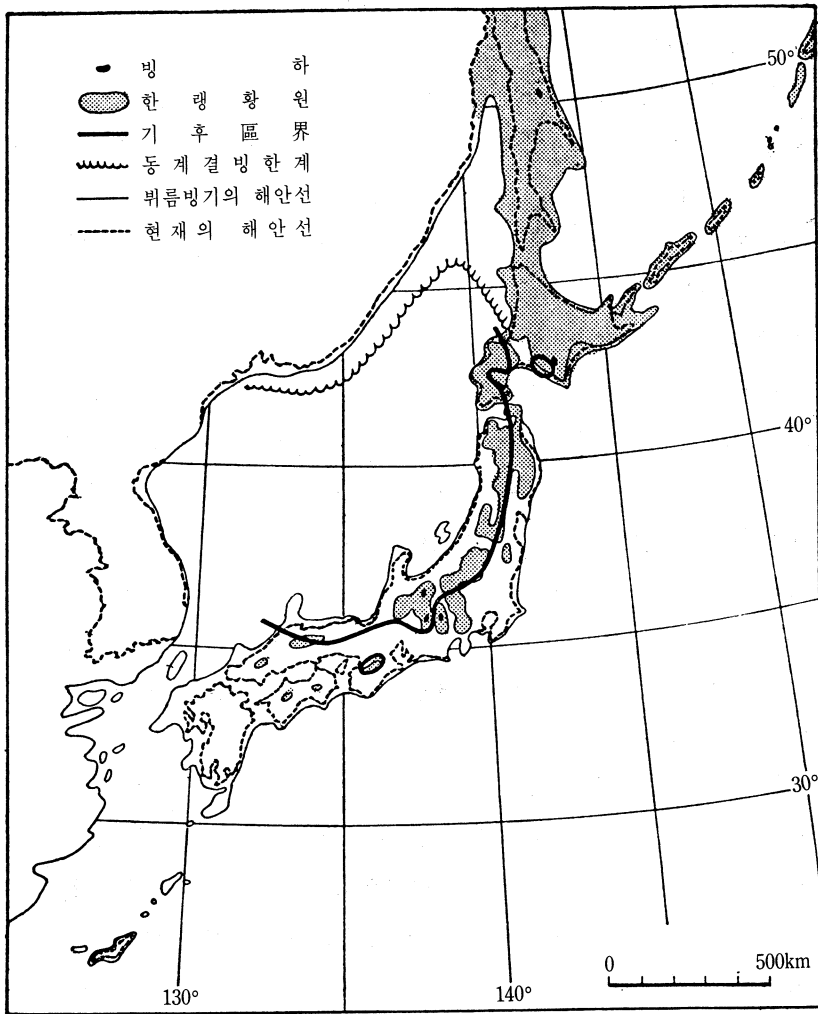
빙하로 인한 해면의 상승 및 하강선을 고려한다면, 제4빙기에 해당하는 뷔름(Würm)빙기

때는 지금의 한반도는 대륙에서 삼면이 바다로 둘러 쌓여지는 반도형이 아니라 지금의 서해는 해면이 하강해서 육지가 되어 한반도가 아닌 대륙의 저지대가 된다. 그리고 동해안만이 대륙의 해안으로서 바다와 접한다. 그래서 빙하현상을 직접 받지 않았던 지금의 서해는 식물로 숲을 이루고 동물의 서식지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한반도 남부지방은 대륙의 동쪽에 위치하여 북부보다 남쪽과 서쪽에서 접근하기 쉬운 지형상의 위치에 있게 된다. 중국대륙에서 구석기 시대인의 활동흔적이 많이 발견되는 정황에서 볼 때도 한반도 남부지방이나 대구 지역은 대륙의 동쪽끝이 되거나 또 반도가 되더라도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곳이므로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제4기에서는 빙하현상, 화산활동, 지각변동을 직접 받지 않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침식과 퇴적작용으로 말미암아 지형에 많은 변화를 가져온다. 즉, 내륙지방은 隆起部인 산지로부터 降部인 낮은지대나 海底에 퇴적한 土砂로 평야의 構成層을 이룬다. 다시 말해서 지금의 평야나 산곡은 오랜 세월을 겪는 동안 생겨난 변화의 소산이다. 대구에서 구석기유적이 발견되지 못한 이유의 하나는 지금의 대구분지나 주변산지의 계곡 및 하천, 평야가 구석기시대인이 살던 지면이 아닐뿐 아니라 유실되거나 깊이 퇴적해 있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表 1-1〉 유럽의 홍적세와 구석기시대의 주요구분

지	질	연	대	시	대	와	문	화
충적세	후	빙	기	(B.P)10.000	중	석	기	Azilian
상부 홍적세	뷔름(Würm)Ⅳ 빙기 뷔름(Würm)Ⅲ 빙기 뷔름(Würm)Ⅱ 빙기 뷔름(Würm)Ⅰ 빙기 에마인(Eemian) 간빙기				상부구석기	막달레니안(Magdalenian) 솔루트레안(Solutrean) 원 막달레니안(Proto-magdalenian) 오리나시안(Auriqnacian) 페리고디안(Perigordian) 무스테리안(Mousterian)		
					중부구석기	후기 아舍利양(Acheulean) 중기 아舍利양(Acheulean) 전기 아舍利양(Acheulean) 아베빌리양(Abbevillian)		
중부 홍적세	리스(Riss) 빙기 홀스테인(Holstein) 간빙기 민델(Mindel) 빙기		230.000 500.000		하부구석기			
하부 홍적세	크로메니안(Cromerian) 간빙기 귄즈(Günz) 빙기 선 귄즈(Pre Günz) 빙기 빌리프랑키안(Villafranchian)		2.000.000					



〈圖 1-1〉 뽕뽕국의 기후 및 地形區(〈先土器時代〉《日本考古學》1, 1965)
해안선은 100m (等深線에 의해서)

第2節 新石器時代の 情況

한반도에서 가장 오랜 토기문화는 지금까지의 조사에 따르면 용기문토기와 빗살문토기를

標識으로 하는 문화로서 신석기시대의 문화이다. 이는 지금까지 조사된 토기 가운데 용기문 토기나 빗살문토기는 토기유적으로서는 최하층에 존재하고, 토기 외의 공반유물로는 마제석 기만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유럽에서는 신석기시대문화의 요건을 농경과 가축 그리고 거석분묘의 조성 또, 토기와 마제석기의 사용을 들고 있다. 이와 같은 요건을 용기문토기나 빗살문토기 문화에 조명해 본다면, 토기와 마제석기의 사용, 농경과 가축의 존재에 있어서는 유럽의 신석기시대 문화요건과 비슷하다 하지만 거석분묘의 존재만은 한반도 신석기시대문화에서 볼 수 없는 요소이다.

이러한 차이는 유럽의 신석기문화와 한반도의 신석기문화간에 시기차는 물론 문화 내용에서도 달리함을 말해 준다.

한반도에서 용기문토기나 빗살문토기의 출현과 그것의 소멸에 대해서는 분명한 정의가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 토기가 사용되던 시기는 한반도의 지형이 지금과 비슷한 형태로 형성된 후임은 확실하다. 그 근거는 빗살문토기나 용기문토기의 유적이 해안이나 강의 하구 또는 하안지대에 분포를 많이 하고 있는 현상에서 뒷받침된다.

홍적세의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고 충적세의 후빙기가 시작되면서 해진현상에 따르는 해면상승으로 넓은 저지대의 육지는 지금과 비슷한 서해로 변하고 이로 인해 寒期動物은 감소하게 되거나 북상한다. 이에 따라 한반도 및 주변인종들의 생활양식도 기후및 지형에서 보여주는 변화처럼 크게 바뀌어진다.

특히 한기동물의 감소로 인한 식료부족은 漁撈로 대체하게 된 듯하다. 용기문토기와 빗살문토기 유적의 분포가 해안지대이거나 하안지대에 많이 분포하는 사실은 이와같은 식료획득의 변화를 말해 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오랜 세월 동안 관찰해 왔던 식물의 生滅에 대한 지식을 활용하여 채집경제단계에서 새로운 생산경제단계가 되는 원시적 농경을 시작하게 된다. 또, 이러한 새로운 식료공급의 발생으로 사람들의 주거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오게 했다. 또, 주거방식에 있어서도 채집경제시대의 이동생활에서 식료생산경제시대가 시작되면 정착생활로 바뀌어진다.

한반도에서 신석기시대가 시작되는 시점은 용기문토기나 빗살문토기의 출현 시점과 비슷하다. 하지만, 용기문토기나 빗살문토기의 自生說 또는 傳播說을 막론하고 현재 주변 신석기시대의 유물과 관련시켜 연대를 알아보려고 해도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자료가 없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정때문에 용기문토기의 기원은 그 이전에 존재했을 토기를 갖지 않았던 문화와의 관계를 찾아 고찰하거나 아니면 주변 신석기시대 문화와의 간접적인 관계를

이용해서 고찰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 모두가 상대적인 편년설정에 그칠뿐 분명한 연대를 밝히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더우기 지금으로서는 용기문토기나 빗살문토기의 출현 사정조차 분명하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한반도에서의 신석기시대 개시에 대한 연대를 논한다는 것은 심히 곤란하다.

다만 지구상의 마지막 빙하기가 약 1만년전에 끝이 나고 그 후 후빙기가 시작됨과 동시에 빙하기 동안 육지의 저지대였던 지역이 바다로 변한다는 사실에서, 海進現象에서 오는 해안선의變動時曆이 과학적으로 규명이 된다면 또 放射性炭素 同位元素에 의한 유적들의 연대측정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면 상한과 하한 및 그간의 추이가 상세하게 밝혀질 것이다.

한반도 신석기문화에서는 개략적으로 보아 용기문토기와 빗살문토기의 두 종류가 있다.

용기문토기는 토기 표면에 덧띠를 붙이거나 바깥표면을 짚어 눌러 용기된 무늬로 장식한 그릇이고, 빗살문토기는 빗살문양의 시문구로 토기 바깥 표면을 각종 기하학 문양으로 새겨 장식한 그릇이다.

용기문토기는 남해안이나 남해도서에 집중 분포하고, 그 범위는 서해쪽으로는 서해남부인 소흑산도까지, 동해쪽은 강원도 오산리까지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 빗살문토기의 분포는 지역적 특성이 있기는 하나 대륙북방으로부터 계속 이어져서 半島南端과 日本의 九州海岸까지 확인된다. 용기문토기와 관계는 한반도 남부 지방에서 본다면, 부산 삼동동, 상도대도 등의 유적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층위상으로 용기문토기가 아랫층을 형성하고 빗살문토기는 윗층을 형성한다. 이 현상은 빗살문토기문화가 남부지방으로 전파되기 전에 용기문 토기문화가 존재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그리고 빗살문토기문화가 전파된 후에는 용기문토기가 소멸되었거나 흡수되어 버린다.

그런데 중국대륙의 신석기시대 標識土器인 彩色土器나 黑色土器는 신석기시대의 한반도에서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는 서해가 지금처럼 渡海가 어려우리만큼 넓게 형성된 후에 한반도 신석기문화가 출현했다고 하겠고, 또 彩色土器가 한반도 북쪽인 중국동북지방에 전파되기 전에 빗살문토기가 남하하여 정착했음을 말해 준다.

또, 용기문토기에 있어서 그것이 남해지방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는 것과 日本九州地方의 繩文土器文化 초기유적에서 출토되는 용기문토기와 비슷한 종류라는 점을 근거로 용기문토기 문화가 남쪽으로부터 한반도로 전파된 것으로 추정하는 학자가 있다. 그러나, 용기문토기가 동해의 강원도 양양군 오산리유적의 아랫층에서 출토되었고, 근년에 충북이나 경남 거창, 경북 운문과 같은 내륙지방에서도 출토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멀리 중국 동북지방과 아무르(黑龍

江)중류유역에서 일찌기 크게 유행한 토기였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남해지방의 용기문 토기도 남방설보다 대륙의 북방으로부터 동해안을 따라 남하한 것으로 보게 되었다. 이는 빗살문토기와 같이 남하하였으나 전파경로를 달리했고 남해안지방에 전파되는 사정은 용기문토기가 앞섰던 것이다.

그리하여 신석기문화의 초기에서는 용기문토기와 빗살문토기가 지역을 달리하고 전파경로를 달리하여 공존하다가 차츰 빗살문토기계문화로 통합되어 확산한다. 그리고, 빗살문토기문화는 지역성을 갖게 된다. 지역성은 토기속성이나 문양에 따라 한반도중서부지방, 동북지방, 서북지방, 남부지방으로 4개권역으로 구분되는 현상을 나타낸다.

대구지역이 영향받은 남부지방의 특색은 용기문토기를 먼저 사용했던 지역이었고 뒤에 중서부지방의 빗살문토기의 영향을 받은 지역이 되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지리적위치로 말미암아 동해안을 통한 동북 지방과 日本九州地方과의 교류의 여파로 屬性에 있어서 복합된 특색있는 지역문화를 형성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는 해안에서 하천을 따라 내륙으로 확산되어갔다.

대구지방에서는 구석기문화의 정황처럼 신석기문화의 유적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구석기시대 이래로 인적이 없었던 지역이었는지 아니면 내륙에 일어나는 침식과 퇴적에 의한 매몰로 발견할 수 없는 것인지 지금으로서는 속단할 수 없는 처지이다.

한반도남부지방으로서 내륙에 위치하는 신석기문화유적 가운데 대구에 가까운 곳을 든다면, 낙동강유역에서 발견된 유적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金陵 松竹里와 淸道 梧津里遺蹟은 남해안에 유입되는 洛東江水系의 지류에 자리하고 대구에서 가장 가까운 유적이다. 신석기문화인이 정착할 수 있는 입지로서 대구의 위치는 낙동강에 근접했고 또 같은 水系인 금호강 및 그 지류상에 위치하고 있어서 충분히 유적의 존재를 예측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금릉 송죽리나 청도 오진리 유적에서처럼 奧地에서의 신석기유적이 청동기시대유적과 겹쳐 존재하는 현상이 확인되는 점에서 청동기시대의 유적이 많이 분포하는 대구에서도 신석기문화유적이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第2章 青銅器時代

第1節 青銅器時代의 設定

낙동강유역에서 신석기시대 다음으로 나타나는 標識遺物은 無文土器이고 고고학적 編年으로는 청동기시대가 된다.

아직 신석기시대의 빗살문토기문화에서 무문토기문화로 옮겨지게 되는 사정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없다. 예를 든다면 빗살문토기를 사용하던 사람이 시대가 달라지면서 자체에서 무문토기를 개발해서 사용하게 되었는지 아니면 빗살문토기를 사용한 사람 따로, 무문토기를 사용한 사람 따로였다가 빗살문토기 사용자들이 무문토기를 사용한 사람에게 밀려서 자리를 넘겨준 것인지 이 과정을 명쾌히 설명해 줄 수 있는 유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아무튼 빗살문토기 표지유물에서 무문토기 표지유물로 바뀌어졌다는 것은 層位上에서 확인된다.

낙동강유역에서 빗살문토기 문화층 위에 무문토기문화층이 형성되어 있는 유적은 여러 곳에 있다. 그 가운데 대구에서 가까운 유적으로는 淸道郡 雲門面 梧津里의 岩陰유적이 있다.

이곳 유적에 퇴적된 문화층을 관찰하면 최하층에는 太線沈線文, 短斜線文, 隆起文, 押印文 등 신석기시대의 빠른시기 것이 퇴적되어 있고 중간층에는 斜格子文, 退化沈線文, 二重口緣 등의 빗살문토기가 퇴적되어 있으며 상층에는 빗살문토기와 더불어 토기편년상으로 初期무문토기로 분류되고 있는 口唇刻目文과 단사선문의 토기가 시차가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층위상으로 공반되어 출토한다.

이처럼 층위에서 보는 자료만으로는 빗살문토기와 무문토기가 교체되는 사정을 밝혀주지 못한다. 하지만 빗살문토기 다음에 무문토기로 교체되었다는 사실만은 입증해 주었다.

한편 청동기시대가 되면 유적분포는 낙동강유역 전역에 확산된다. 신석기시대의 유적이 해안지대나 일부 江岸에 영성하게 분포되었던 것과는 판이하게 청동기시대가 되면 유적의 분포 범위가 급격히 확대되고 조밀해지게 된다. 이러한 변화를 주는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아직 밝히지 못하고 있다. 다만 인구가 증가한 것만은 분명하다 하겠다. 이 인구의 증가현상은 지구상의 기상이 온난하게 되는 환경의 변화인지, 産兒와 幼兒의 사망율을 줄일 수 있게한 의학적 지식의 발달에 있는지 또는 생산기술의 발달에 있었는지 지금의 고고학적 자료로서는 꼬집어서 설명하기가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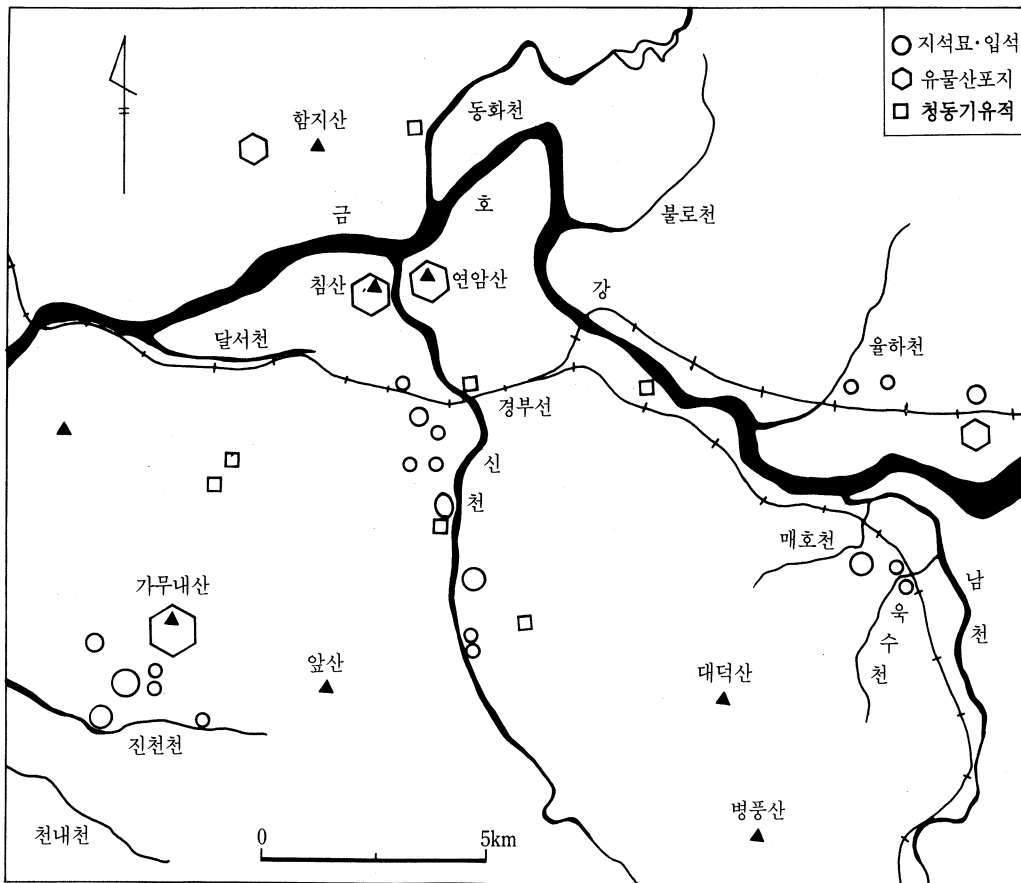
청동기시대란 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의 三時期法을 시창한 토펜의 정의처럼 청동으로 된 利器를 만들어 쓰던 시대를 말한다. 이 시대의 선진지역에서는 城廓都市의 발생, 王, 僧侶, 常備軍의 존재, 계급의 형성, 분업, 교역의 발생, 문자의 발명, 동물을 이용한 농경의 발달을 볼 수 있는 특징을 갖는다. 그러나 한반도의 청동기시대는 선진지역과는 사정이 좀 다르다. 성곽도시, 왕, 상비군 등이 존재했다는 징후가 없고, 오직 靑銅利器를 만들어 썼다는 기본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만족하는 정도이다. 그리고 청동기시대의 開始에 있어서도 선진지역과는 많은 시차가 있다. 한반도 여러 곳에서 발견되는 遼寧式銅劍의 사용 시기를 근거로 하여 기원전 7~8세기경으로 보고 있다.

한반도에서 청동기시대 유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북부지방의 팽이형토기, 半月形石刀, 청동제 유물을 공반하는 住居址이고, 남부지방은 무문토기, 단도마연토기, 반월형석도, 석부를 공반하는 주거지를 들 수 있다. 그리고 墓制로는 石棺墓, 支石墓가 있다.

대구지방의 청동기시대 유적은 무문토기, 단도마연토기, 마제석기가 공반하는 유적이라 하겠다. 하지만 이 시대의 청동제품이 출토된 유적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당시 대구의 유물은 대개가 한반도 남부지방에서 발견되는 무문토기, 마제석기의 일반형에 분류되는 유형의 것이다. 그러나 같은 유형의 토기 및 석기라 할지라도 세세한 속성에서는 지역적 특색이 반영된 사실이다. 이러한 지역성의 차이는 공동체사회의 독자성을 반영하는 것이고, 또 이러한 지역적 차이는 지역범위를 확대하면 할수록 커져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현상은 한반도의 남부지방이라 하더라도 동부와 서부간에 큰 차이가 인정되고, 또 한반도 남부와 북부 사이에 더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데서도 입증된다. 이는 지역에서 형성되는 문화의 원류가 시베리아지방, 中國東北지방, 內蒙古지방의 문화영향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하는 것과, 지역집단간의 교류빈도, 거리, 전파속도 등 여러가지 요인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대구의 청동기시대문화는 무문토기문화 편년 가운데 빠른 시기에 나타나는 구순각목문토기와 공렬토기가 출토되고 또 지석묘군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요녕식동검이 발견되지 않았을 뿐 무문토기 문화의 초기부터 정착집단을 여러곳에 조성하여 생활했음을 말해준다.

또 종말시기는 개시의 사정처럼 역시 분명하지 않으나, 대체로 기원전 3세기경으로 비정된다. 그것은 철기시대 초기에 나타나는 다량의 靑銅製利器, 儀器, 異形銅器가 철기와 공반되어 출토되는 것이 기원전 2세기 경이고 또, 이 무렵에 다음 표지토기가 되는 漢式技術의 瓦質土器와 교체되는 데서 추측된다.



〈圖 2-1〉

청동기시대 및 초기철기시대 유적 분포도

第2節 遺蹟과 遺物

이 시대의 표지유적은 생활유적과 墓유적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생활유적은 주거 유적과 무문토기 및 석기산포지로 다시 분류할 수 있다. 묘유적은 묘제의 유형에 따라 支石墓, 石棺墓, 石槨墓로 분류된다. 대구에서 조사된 이 시대의 중요유적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I. 住居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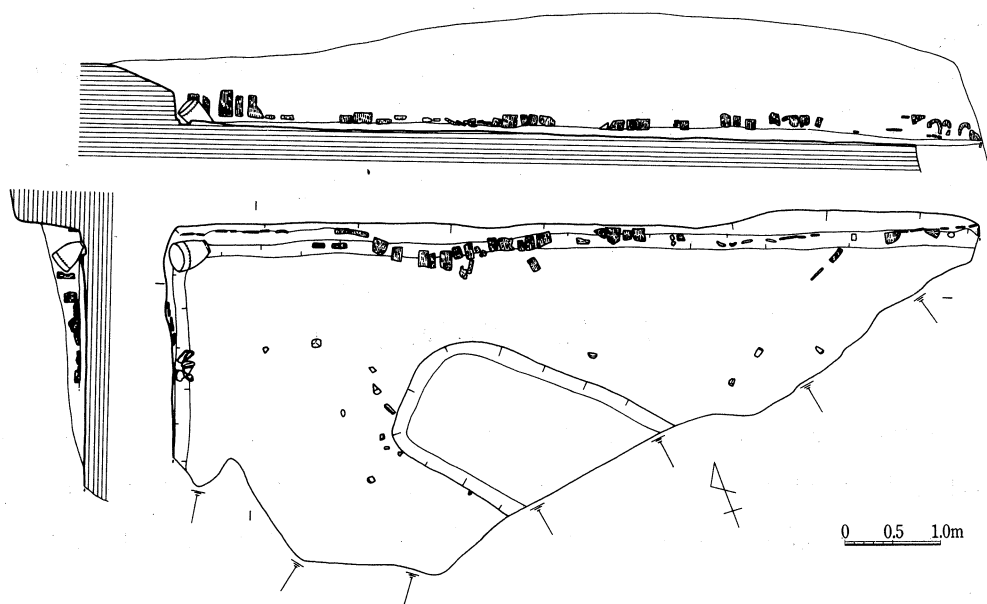
1. 月城洞 1호주거지(달서구 월성동 산 10-1)

가무내산 서쪽 산봉의 산기슭의 끝자락에 위치한 주거지이다. 전망은 동쪽으로는 가무내산으로 이어지는 구릉이 시작되고 남쪽과 서쪽은 비슬산 西麓에 형성된 扇狀地와 낙동강까지 이어지는 퇴적평야가 전개되는 접경지이다.

주거지는 산자락을 잘라 논밭을 조성하느라 일부 잘려 나가 버렸다. 그래서 완전한 형태로 조사하지 못하였다. 남아있는 것에서 알아 볼 수 있는 자료를 적어 보면 주거지는 평면형태가 抹角長方形이고 규모는 장벽길이가 610cm이고, 단벽길이는 알수 없으나 남아있는 것만으로도 180cm이다. 장벽은 남북선상에 두었다. 塹穴의 깊이는 경사지인데다가, 포토가 많이 유실된 상태였으므로 윗쪽과 아랫쪽이 다르다. 현지표에서 높은 쪽은 60cm이고 낮은 쪽은 30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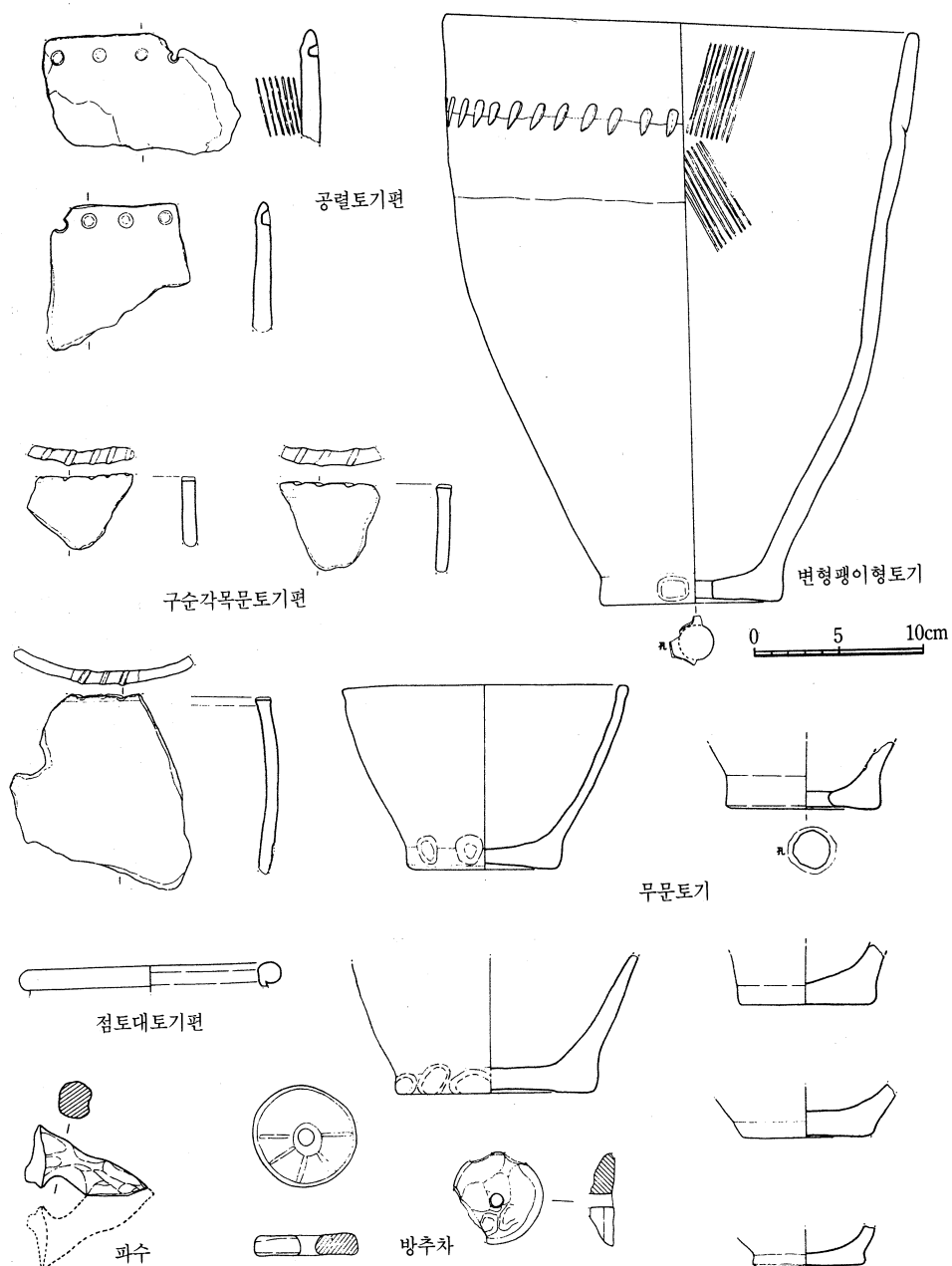
바닥은 석비레층을 깎아서 수평면을 만들었고, 출입구는 남쪽 단벽에 비스듬하게 파서 설치했다. 바닥에는 전면에 재가 깔려서 얇은층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 현상은 화재로 인해 폐기된 것으로 추측된다.

출토된 유물은 무문토기 口緣部片과 底部片, 그리고 석부, 석촉, 방추차, 숫돌 등이다. 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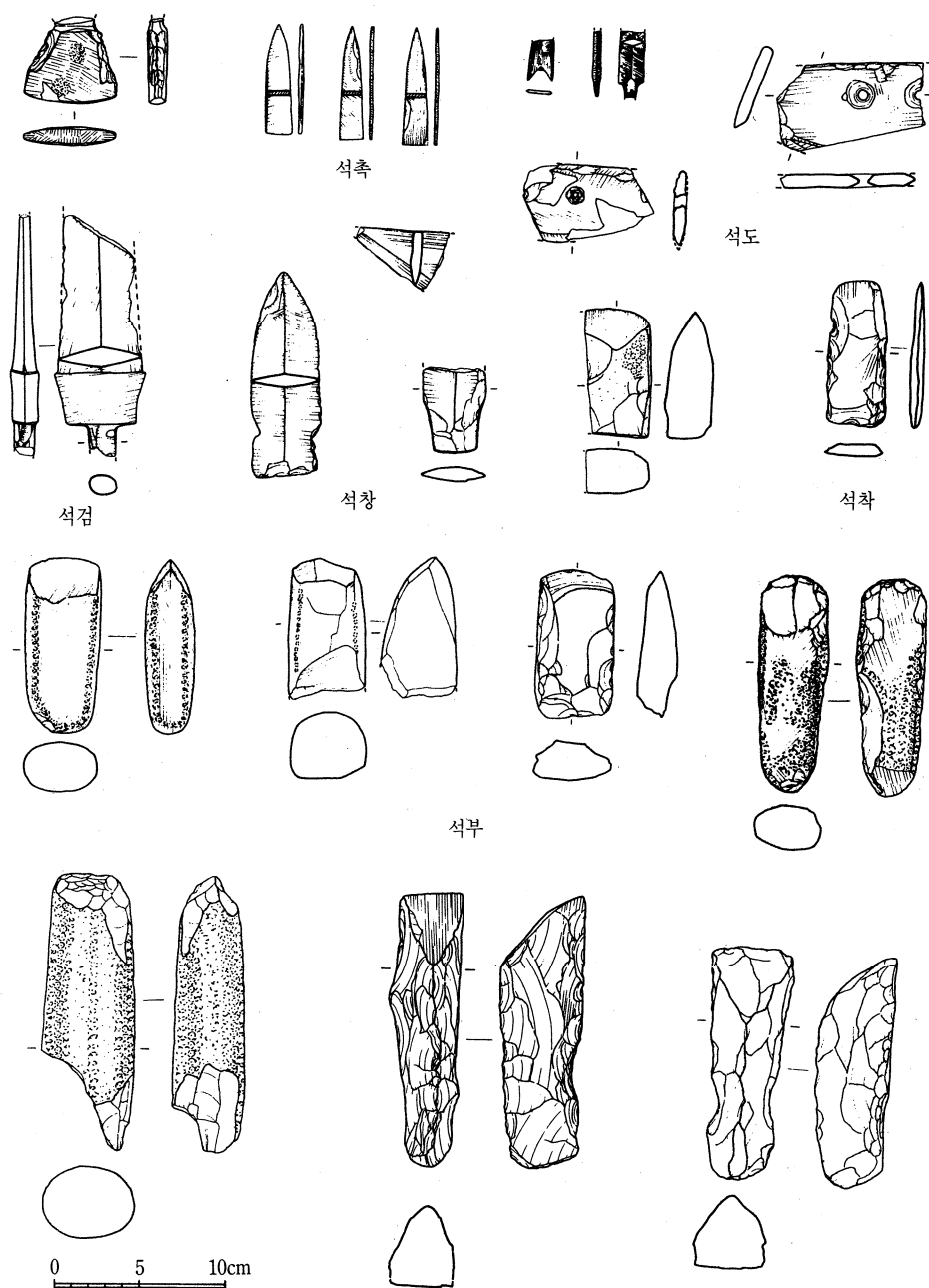


〈圖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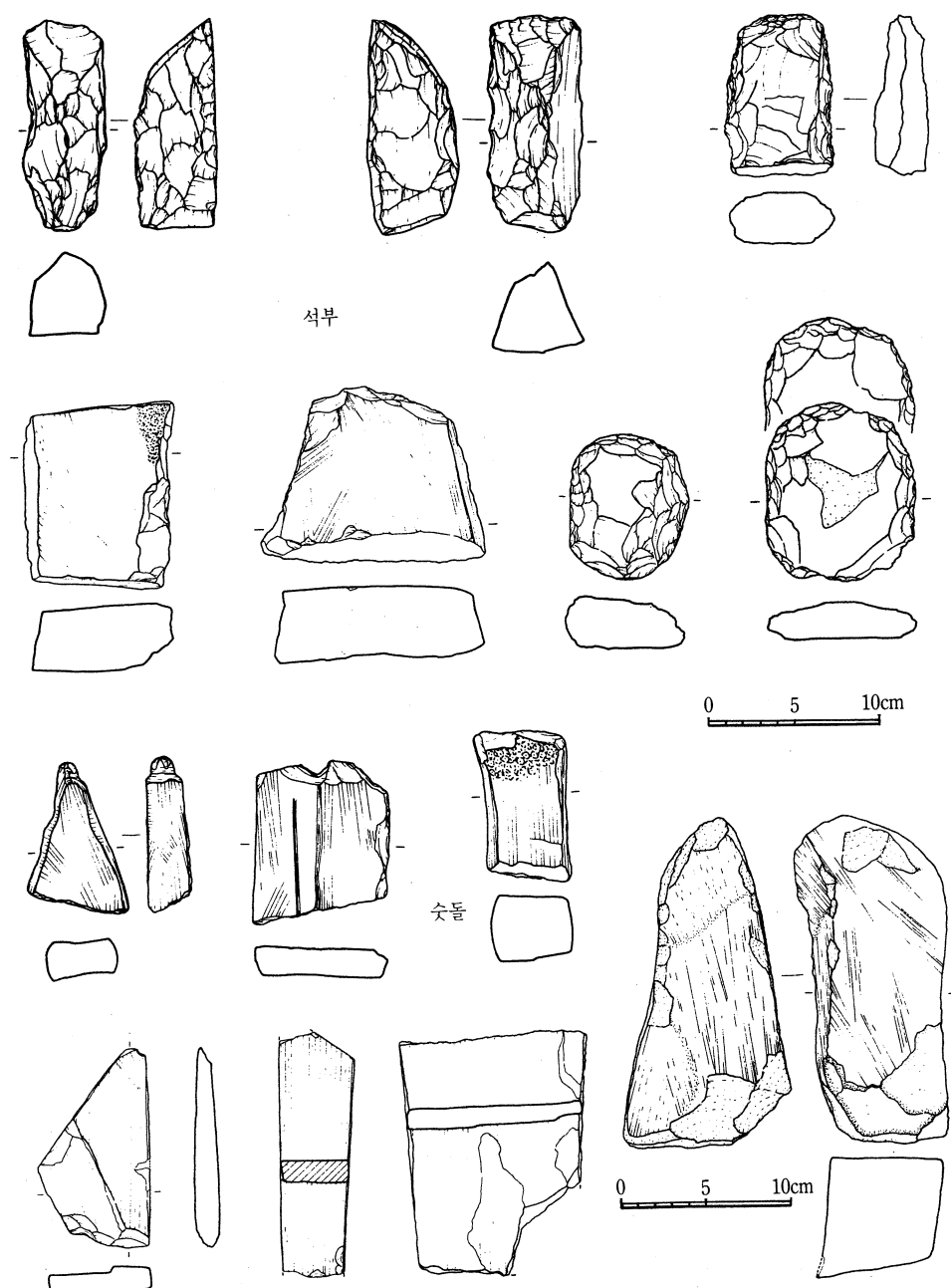
월성동 2호주거지 평면도 및 단면도(《月城洞 先史遺蹟》, 1991)



〈圖 2-3〉 월성동 주거지 및 유물산포지 출토 토기류(《月城洞 先史遺蹟》, 1991)



〈圖 2-4〉 월성동 주거지 및 유물산포지 출토 석기류(《月城洞 先史遺蹟》, 1991)



〈圖 2-5〉 월성동 주거지 및 유물산포지 출토 석기와 숫돌류(《月城洞 先史遺蹟》, 1991)

문토기는 무문토기문화기 가운데 빠른 시기에 사용되었던 口唇刻目文의 토기와 孔列文이 있는 토기이다.

2. 月城洞 2호주거지(달서구 월성동 산6)

같은 가무내산 서쪽 산봉의 끝자락에 가까운 약간 높은 지대에 자리한 주거지로서 앞 1호 주거지와는 50m가량 떨어져 있다. 대구상업고등학교 야구장을 조성하면서 주거지 절반을 잘라버렸다. 남아있는 것에서 알아볼 수 있는 것은 평면형태가 장방형이고 장벽은 남북선상에 앉아 있는 구조이다. 규모는 장벽길이가 865cm, 남아있는 폭이 375cm, 수혈의 깊이는 현재의 지면에서 35~50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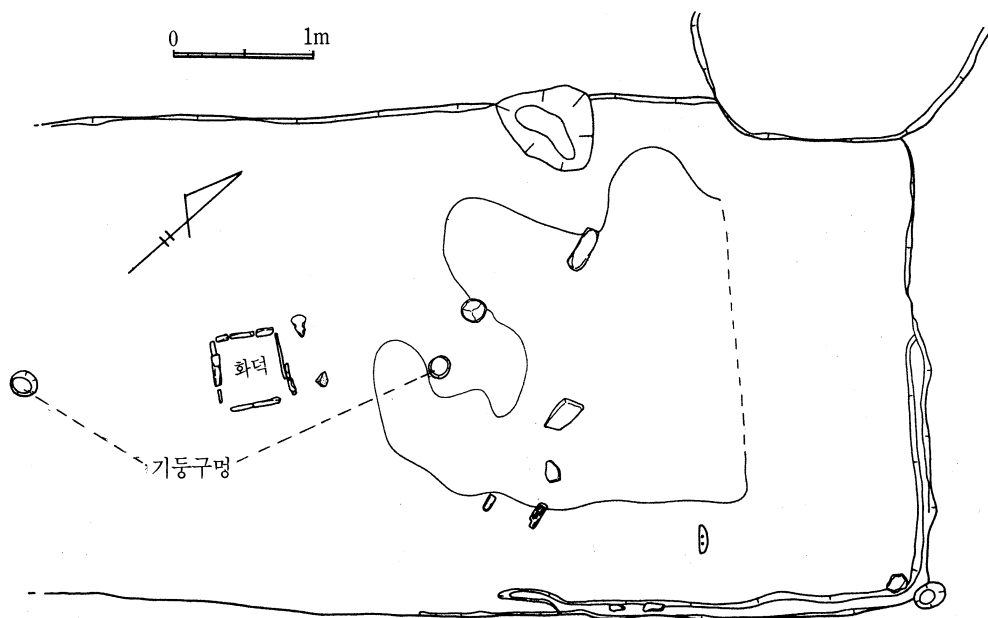
주거지는 석비레층을 약 50cm깊이로 수직에 가깝게 파내려 갔고, 벽은 폭 15cm, 두께 3cm내외되는 판자를 세워 나무 壁體를 만들었다. 그리고 판자벽체 안쪽에 폭 13cm내외, 깊이 6cm내외가 되는 물홈(周溝)을 파서 주거바닥에 침수되지 않도록 했다. 바닥은 생토층을 그대로 이용했다. 월성동 산10-1주거지처럼 전면에 재가 층을 이루다시피 두껍게 깔려 있었다. 이는 1호주거지처럼 역시 화재로 폐기된 것으로 추측된다.

출토유물은 완형에 가까운 변형팽이형 토기와 석부, 二段柄式 磨製石劍片, 숫돌 등이었다.

3. 東川洞 4호주거지(북구 동천동)

삼국시대의 팔거산성과 구암동고분군이 유존하는 함지산의 서북쪽 산록끝에 형성된 팔거천유역의 퇴적평야에서 발견된 주거지이다. 이곳은 삼국시대의 聚落址가 발견된 구역이고 4호주거지는 삼국시대 취락지 아랫층에 조성되었던 주거지이다. 이 일대의 무문토기주거지는 삼국시대에 취락을 조성하면서 제거되었거나, 파괴해 버렸다.

발견된 주거지는 인접해서 여러채가 배치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 중 4호주거지는 윤곽은 뚜렷하나 삼국시대 취락지의 지면과 지금의 경지의 조성으로 수혈의 어깨벽이 거의 없어지고 주거지 바닥가까이까지 교란되어 버린 상태이다. 그리고 한쪽 단벽도 잘려나간 상태였다. 그러나 노지와 실내 중앙에 세웠던 기둥구멍위치는 살아 있어서 이를 통해 평면형태는 복원이 가능하였다. 규모는 단벽의 길이가 3.8m이고 장벽의 길이는 복원해서 10m가 된다. 실내의 중앙에 화덕이 있고, 화덕에서 양단벽쪽으로 각각 1.6m와 1.4m의 간격을 두고 기둥구멍이 1개씩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모서리 벽의 안쪽에 'L'자형으로 좁은 흠이 파여 있고 모서리 바깥쪽에 기둥구멍 하나가 있다. 즉 네모서리에 큰 기둥을 한개씩 세우고 또 화덕 좌우에 기둥을 1개씩 세워 架構한 구조이다. 또 벽안쪽에 周溝를 파서 바닥에 침수하지 않도록 했다. 화덕은 얇고



〈圖 2-6〉

동천동 4호주거지 평면도

작은 판석을 네모로 세워 틀을 만들었다. 규모는 일변이 50cm와 46cm이고 판석은 바닥을 약간 파서 세웠으나 바닥보다 10cm높이까지 돌출되어 있다.

출토유물은 반월형석도, 小形扁刃石斧, 무문토기저부 등이다.

4. 東川洞 3호주거지(북구 동천동)

4호주거지와는 7m간격을 두고 위치하며 수혈식이고 평면구조는 장방형이다. 장벽의 길이는 4.2m, 단벽의 길이는 2.3m로서 소규모이다. 깊이는 20cm가량 남아 있다. 주거바닥은 생토층이고 잘 다져 두었다. 그러나 화덕시설이 없고, 구지표의 교란때문인지 柱穴의 흔적도 없었다.

출토유물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무문토기편들과 격지돌 몇 점 뿐이었다. 규모가 작고 화덕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작업실이거나 4호주거지의 부설건물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5. 東川洞 2호주거지(북구 동천동)

4호주거지에서 5m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수혈식이고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다. 장벽의 길이는 3m, 단벽의 길이는 잘려버려서 알 수 없다. 바닥은 생토층이고, 잘 다져져 있다. 화덕의

시설은 없다.

4호주거지에는 바닥에 화덕이 있었고, 면적도 넓다. 이에 비해서 3호와 2호 주거지는 화덕이 없고, 면적도 좁다. 이러한 현상은 4호주거지와 인접했고 거리가 아주 가까운 위치에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주거가옥과 부속가옥 관계처럼 보이기도 한다.

동천동 주거지는 有溝石斧, 半月形石刀, 片刃石斧, 무문토기, 단도마연토기가 공반하는 유적이다. 이러한 출토유물로 보아 무문토기문화말기의 주거지로 추정된다.

6. 時至洞 주거지(수성구 시지동)

時至洞支石墓群II에 인접해서 발견된 주거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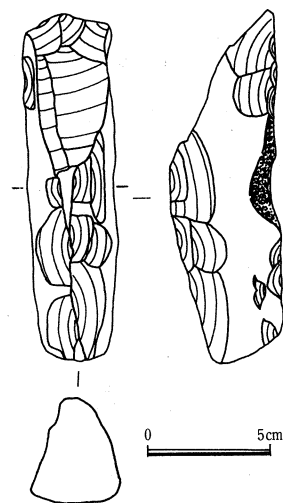
주거지는 時至洞支石墓群II에서 북동쪽으로 15m 떨어져 위치한다. 규모형태는 길이 460cm, 폭 400cm, 벽높이 20~30cm의 평면 말각방형이다. 내부는 소토와 목탄이 섞여진 황색사질토로 채워져 있었다. 바닥면에서 청석 4매를 나란히 놓고 주위에 할석을 돌린 노지와 직경 20~30cm, 깊이 20cm인 원형 기둥구멍 2개가 확인되었다. 유물은 무문토기 鉢과 壺, 石鑿이 출토되었다.

II. 遺物散布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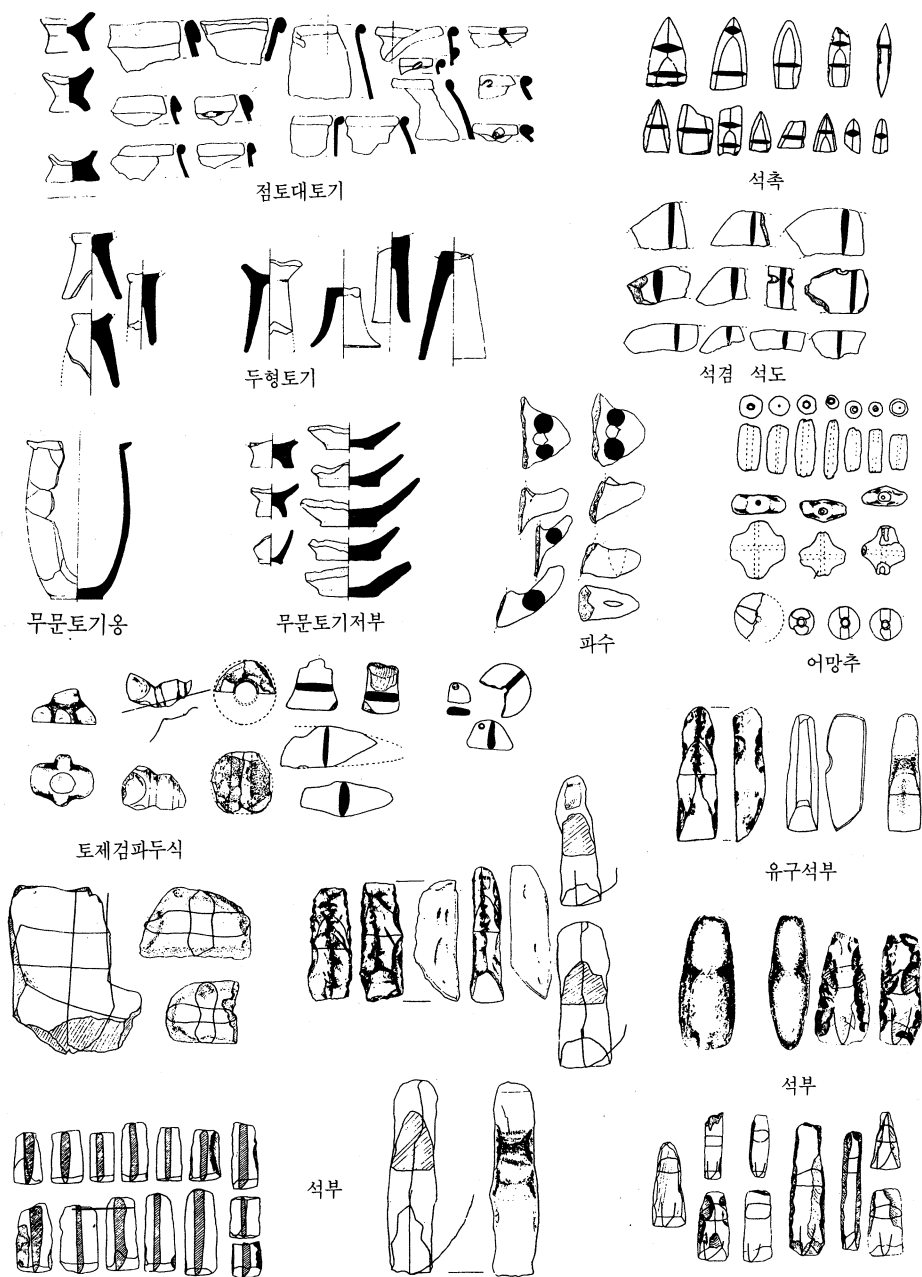
1. 燕岩山 유물산포지

유적의 위치는 북구 산격동이며 금호강과 대구분지를 관류하는 신천이 합류하는 곳의 동안 구릉이다. 이 구릉은 해발 135m로서 연암산이라 불리우고 있다. 구릉의 지형은 서쪽과 북쪽이 신천과 금호강에 접해서 높은 수직절벽 또는 급사면을 형성하고, 남동향만은 완만한 경사로 정상에서 산록쪽으로 부채꼴모양으로 벌어진다.

유물산포지는 남동향의 완만한 사면 전역이다. 너비는 정상에서 구릉아래까지가 약 100m, 아랫쪽 너비는 약 200m이다. 지표상에서 주거지는 발견되지 않으나 각종 土器와 未完品을 포함한 각종 石器들이 다량으로 산포되어 있다. 그리고, 산록하단부에는 삼국시대 석관묘군이 넓게 분포한다. 이곳 산포지는 토기, 석기의 산포밀도가 높고, 특히 석기제작에서 버려진 石片이 무수히 산재한다. 석기로서는 未完成品, 破損品, 再生品, 完成品이 굉장히 많다. 이러한 현상은



〈圖 2-7〉 연암산 출토 유구석부



〈圖 2-8〉

연암산 유물산포지 출토유물 각종(《古文化》5·6합, 1968)

이곳이 石器製作場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유적지이다. 산포된 토기와 석기의 내용으로는 無文土器文化末期의 유적이다.

그리고, 주변유적과 결부시켜 보면 이곳 유적지는 무문토기문화 후기부터 三國時代까지 줄곧 사람들이 가까이에 큰 聚落을 두고 살아왔음을 말해준다. 이 곳 무문토기문화기의 유물은 石製로서 有溝石斧, 鎌形石刀, 石鑿, 兩刃石斧, 有肩石斧, 石鏃, 磨製石劍, 細形銅劍의 石製柄頭飾 등이 있고, 土製로는 黑色磨研土器, 丹塗磨研土器, 無文土器가 있으며 器形으로 甕形土器, 豆形土器, 碗形土器, 網錘, 紡錘車, 銅劍의 土製柄頭飾 등이 있다.

2. 砧山 유물산포지

유적의 위치는 북구 침산동이며, 금호강과 신천이 합치되는 곳의 서안구릉이다. 신천을 사이에 두고 연암산유적지와는 對岸이 되는 구릉이다. 이 구릉은 정상이 해발 120m이고, 남북향에 가깝도록 길게 앉아 있다. 둘레가 약 2km가량 된다. 구릉은 신천에 면하는 동쪽이 급사면을 이루고 서쪽면은 비교적 완만하다. 유물이 산포된 구역은 주로 구릉의 북반부이고, 석기의 산포는 주로 북쪽 최정상부 둘레이다.

현재 경희여자고등학교 부지 조성으로 또 채석과 공원조성으로 산포지의 대부분이 파괴 교란되어있다.

유물은 연암산 유적에 비한다면 종류와 수량이 적으나, 石器로서 片刃石斧, 有溝石斧, 石刀, 石鏃이 있고, 土器는 豆形土器, 鉢形土器類가 대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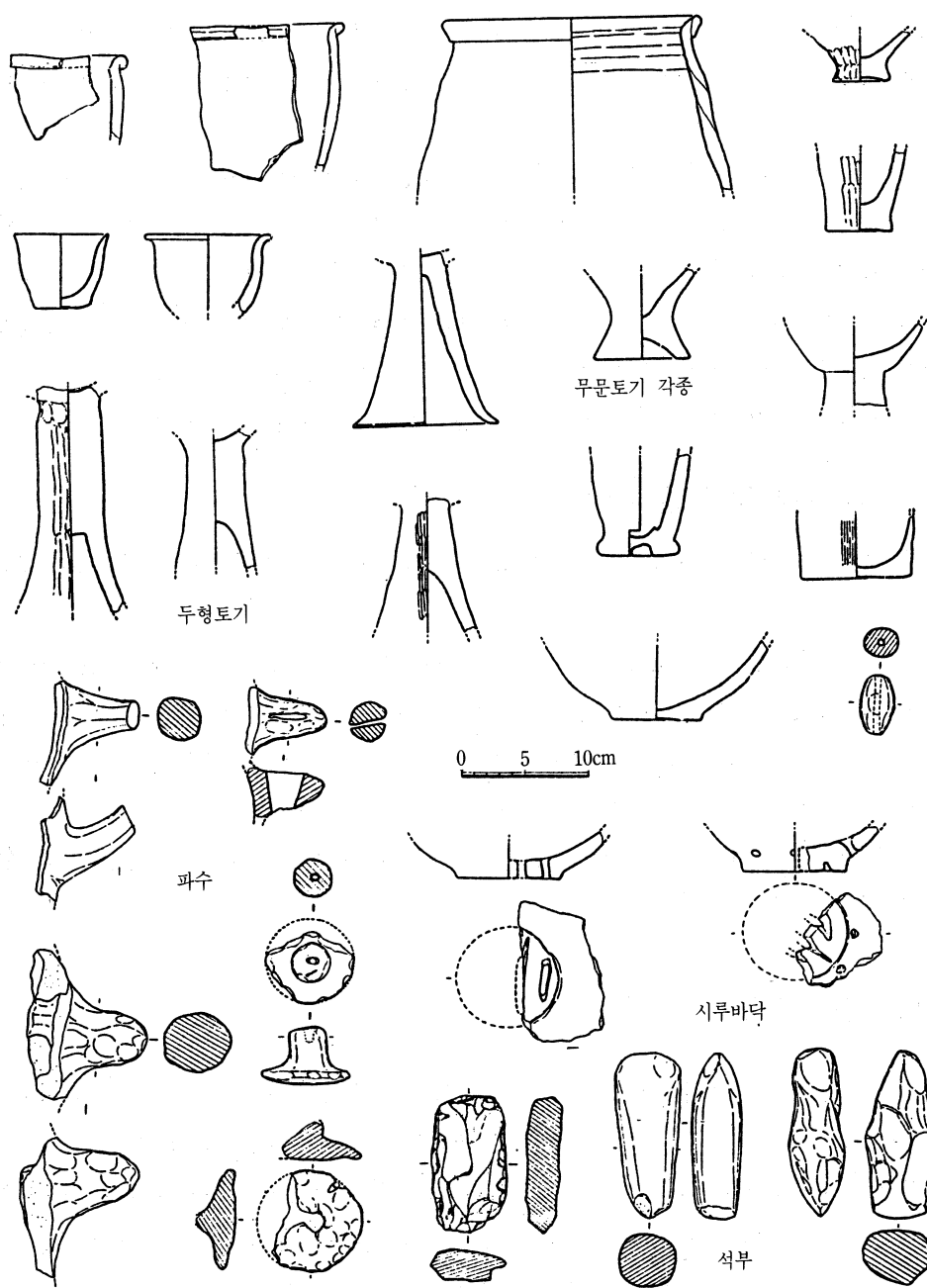
3. 檢丹 유물산포지

유적의 위치는 북구 복현동 산 1-5이며, 대구분지의 북쪽을 흐르는 금호강변에 형성된 구릉지이다. 연암산유적지에서 금호강을 따라 약 2km가량 거슬러 올라간 곳이다.

구릉의 동, 북, 서쪽은 모두 금호강으로 에워싸였고, 남쪽과 서쪽 일부만이 대구분지쪽의 저구릉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地勢를 이용해서 삼국시대는 토성을 쌓았다. 인접해서 복현동 석관묘군이 분포한다. 이와 같은 유적의 분포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면 이곳 토성이 있는 강변의 구릉지는 선사시대부터 줄곧 취락을 두고 활동했던 곳으로 판단된다.

유물의 산포지는 지금의 성광고등학교와 도로 및 공단을 조성하면서 파괴해 버린 구릉과 그 서편경사면이다.

유물은 연암산에서 볼 수 있는 有溝石斧, 石刀, 無文土器類이다.



〈圖 2-9〉

과전동 유물산포지 출토유물 각종(《嶺南考古學》2, 1987)

4. 槐田洞 유물산포지

위치는 대구시역의 동쪽 경계에 가까운 동구 괴전동의 佳南池 주변일대이다. 이곳은 금호강과 팔공산의 環狀山脈과의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저구릉지대이다. 계남지는 두 구릉사이의 골을 막아 만든 근세의 저수지이다.

유물의 산포지는 계남지를 중심으로 서쪽은 송정국민학교의 구릉, 북쪽은 동내동 앞을 통과하는 철도까지, 동쪽은 국도, 고속도로, 철도가 교차하는 지점의 구릉, 남쪽은 금호강변까지의 범위이다.

이 일대에는 青銅器時代의 支石墓群, 原三國時代·三國時代의 土壙墓, 石棺墓, 石槨墓群이 있다. 石器, 無文土器의 산포현상과 이 일대의 다른시대의 유적과 결부시켜 본다면, 무문토기문화기에서 삼국시대까지 줄곧 생활무대로 이용되었던 지역임을 쉬 알 수 있다.

유물은 石器가 많이 발견되지 않으나 豆形土器, 鉢形土器類의 토기는 많이 발견된다.

5. 月城洞 유물산포지

대구 분지에 분포하는 선사 유물산포지 가운데 규모나 산포된 밀도에 있어서 남서쪽을 대표하는 유적이다.

위치는 시가지로 형성되기전까지는 대덕산 서록에서 서북쪽으로 길게 돌출되는 저구릉지이다. 넓은 월배선상지의 북측경계를 이루는 구릉지이다. 지금은 시가지의 조성으로 石器, 土器의 산포지로서 흔적을 거의 잃고 겨우 대구 상업고등학교,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 대서중학교, 송현국민학교로 둘러싸인 130m 山峰의 서편사면만이 남아 있다.

유물은 磨製石劍, 有溝石斧, 石槍, 片刃石斧, 石鏃등의 석기와 토제품으로 豆形土器, 鉢形土器등의 無文土器類가 산포되어 있다.

III. 墳墓遺蹟

대구에서 확인되는 청동기시대 묘제는 上石이 있는 支石墓와 상석이 없는 石棺墓이다. 이들 묘의 분포상황은 크게 4개 구역으로 나누어 진다. 첫째는 대구앞산의 북쪽 분수를 모아 대구분지를 관류하게 되는 신천의 유역, 둘째, 대구앞산의 서쪽분수를 모아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진천천 및 월배선상지의 작은 하천유역, 셋째, 경산의 대덕산 북쪽 분수가 모여 형성된 옥수천유역, 네째, 팔공산환상산맥에서 흐르는 울하천 유역 및 주변 구릉지이다.

이 가운데 대구분지를 흐르는 신천의 유역에 분포한 지석묘군은 일찍부터 알려졌고, 남방

식지석묘 묘제의 대표적 유적으로 유명하다. 이 지석묘군은 1920년대의 초기만 하더라도 옛 대구읍성 바깥에 분포해서 장관을 이루었다. 그러나, 1927년 첫 지석묘발굴조사가 있었을 때에는 이미 상당수의 지석묘상석이 일본인들의 정원석으로 많이 이용하게 되어 원위치에서 이동되었다. 그 후에도 시가지의 확장으로 상석의 대부분이 제거되었다. 뿐만 아니라 대구지역의 확장으로 진천천유역, 옥수천유역, 율하천유역의 반야월지역 지석묘군마저 최근의 갑작스러운 경제성장에 따르는 대규모공단지 조성, 시가지확장 등 국토개발로 거의 흔적을 잃어 가고 있다.

현재 유존하고 있는 지석묘와 기록으로 추정이 가능한 것을 통해서 4개구역에서의 분포 상태와 조사된 것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新川유역의 지석묘군

신천유역의 지석묘군은 신천의 서안쪽과 동안쪽 것으로 크게 2분되고 서안쪽은 현 신천을 따라 이천동(구 대봉동), 대봉동, 봉산동, 삼덕동, 동내동, 태평로 (구 칠성동) 등지에 크게는 10여기, 작게는 2·3기가 집단묘군을 형성하여 신천을 따라 길게 배치되어 있었다. 또, 동안인 수성구의 경우도 신천을 따라 파동, 상동, 중동 등에 역시 몇기씩의 집단묘군을 형성하여 배치되어 있었다.

〈表 2-1〉 新川유역의 지석묘군

유 적 명	소 재 지	비 고
파동지석묘	수성구 파동 676일대	'83이후 파괴됨
상동Ⅰ 지석묘	수성구 상동 501	4기가 유존
상동Ⅱ 지석묘	수성구 상동 29	1967년 발굴후 이전됨
상동Ⅲ 지석묘	수성구 상동 80 정화여고 내	1972년 조사됨
중동 지석묘	수성구 중동 400-1	2기중 1기만 현존
이천동Ⅰ 지석묘	남구 이천동 308	1938년 고적조사보고서
이천동Ⅱ 지석묘	남구 이천동 299-2	〃
이천동Ⅲ 지석묘	남구 이천동 299-2	〃
이천동Ⅳ 지석묘	남구 이천동 297-1	1990, 1993년 재발굴됨
이천동Ⅴ 지석묘	남구 이천동 238-6	1938년 고적조사보고서
사대부고内 지석묘	중구 대봉동 60-10.19	3기 《대구부사》
월전산 지석묘	중구 봉산동 230-1	현재 1기이전 《대구부사》
삼덕동 지석묘	중구 삼덕동 28-1.2	1기
동문동 지석묘	중구 동문동 41-6, 교동 67-12	2기, 《대구부사》
칠성동 지석묘	중구 태평로 2가 1-1	7기 1971년 발굴후 이전

이 가운데 조사된 지석묘를 통해서 특징을 살펴본다면 이천동 제4구 지석묘군의 조사내용으로서 설명이 되리라 본다. 이 제4구 지석묘군은 두 차례나 조사한 유적으로서 지상의 上石은 3기 뿐이었으나 주변지하에 많은 석관을 배치한 묘제이다.

3기의 상석은 편삼각형상으로 배치되어 있다. 가운데에 가장 큰 제3상석을 두고 남쪽으로 5.5m 떨어져서 제2상석이 위치하고, 동북쪽으로 4m 떨어져서 제1상석이 위치한다.

제1상석은 평면이 능형으로서 장축길이 1.75m, 단축길이 1m, 높이 85cm의 규모이고, 그 아래에 지석을 두지 않고, 牛頭, 犬頭大 크기의 넷돌로 積石段처럼 깔아 두었다. 적석의 층은 평면이 방형에 가깝고 넓이가 동서로 약 5m, 남북으로 약 6m이다. 그리고, 地下墓構는 상석 바로 아래에 두지 않았으나 적석층아래에 5기의 石棺을 의도적인 듯한 모양으로 배치하였다. 즉, 가운데에 가장 큰 규모의 것을 두고, 그 둘레에 卍字形으로 4개의 석관을 배치했다. 일제시대에 있었던 1차발굴에서는 4기만을 확인하였으나, 1991년의 재조사에서 1기가 더 발견되었다. 석관의 규모는 아래 표와 같고 배치상태는 도면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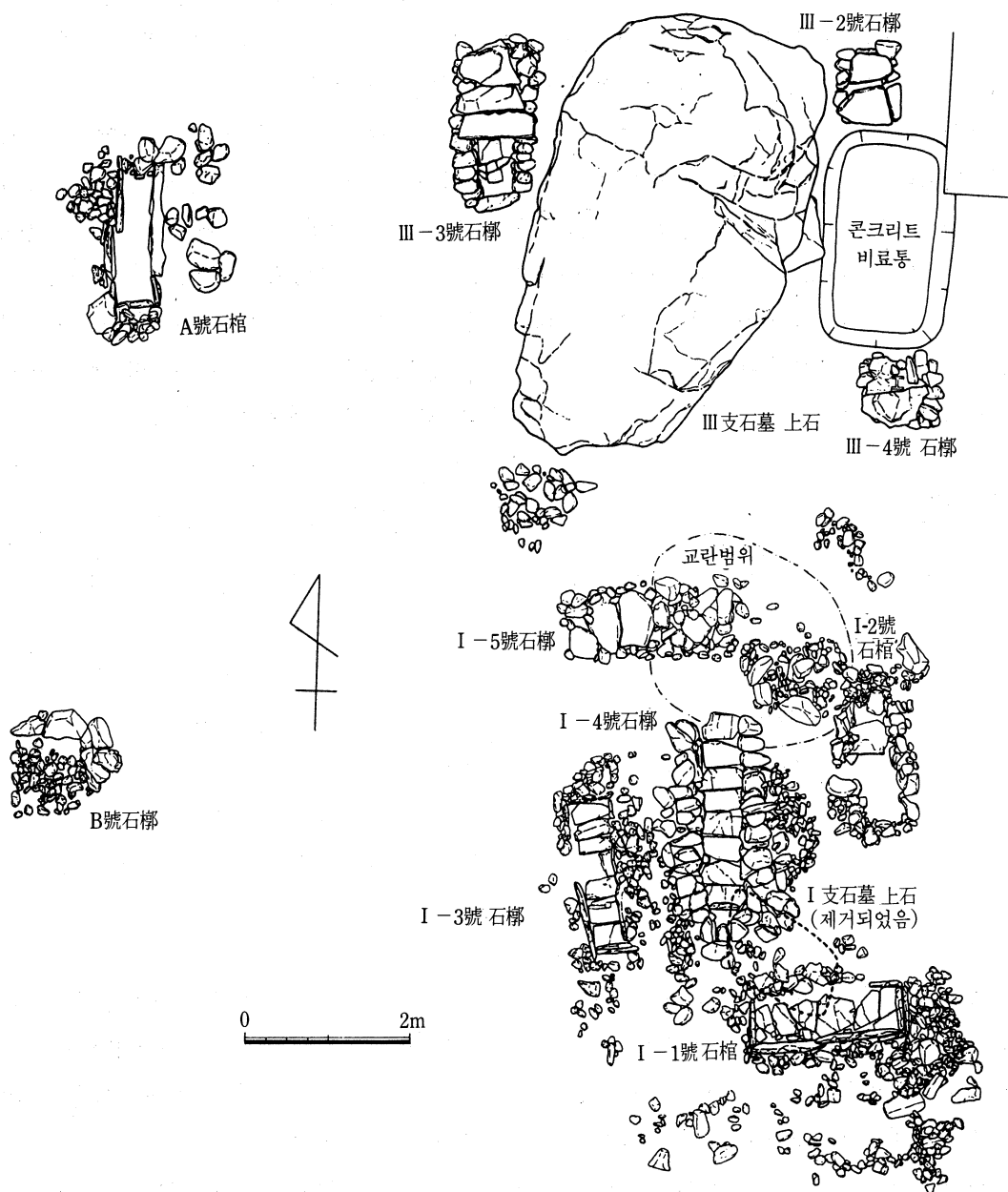
〈表 2-2〉 제1상석 둘레의 석관

석관호수	길 이	폭	높이	석 재	개석	바 닥	부 장 품
1호	180cm	54cm	37cm	점판암 측벽	있음	점판암	미상
2호	170cm	30cm	30cm	점판암 측벽	있음	점판암	석축3점, 토기편
3호	175cm	50cm	35cm	점판암 측벽	있음	점판암	미상
4호	227cm	55cm	75cm	천석으로 장벽축조	있음	점판암	석축10여점
5호	파손 현 85cm	33cm	35cm	천석으로 장벽축조	있음	점판암	미상

石棺은 일제시대에 조사한 내용에 많은 착오가 있어 재조사에서 얻은 수치로 기록하였다.

이에 의하면 석관은 판석으로 짠 것과 장벽을 넷돌로 쌓은 두 종류가 있었으나 그 외의 축조과정은 같은 방식에 의해 축조되었다. 즉, 모두 토광을 파고 그 속에 석관을 짠 다음 土壤과 석관 사이를 토석으로 채웠고, 바닥과 蓋石은 모두 판석으로 깔고 덮었으며 단벽은 모두 한 장의 판석을 세워 막음했다.

제2상석은 양 끝이 뾰족해서 평면상으로는 나뭇잎모양을 하고 있다. 크기는 장축이 2.8m,



〈圖 2-10〉

이천동 제4구 지석묘 유구배치도(《大鳳洞支石墓》, 1991)

단축이 1.7m, 높이 0.9m이다. 상석 아래에는 支石인 듯한 큰 돌이 놓여 있으나 墓構가 없고 구 지면인 사질점토층으로 되어있다. 지하묘구는 상석북단의 바깥쪽에 석관1기가 마련되었을 뿐이다. 규격은 길이가 2m, 폭이 0.5m, 깊이 0.45m이고, 형태는 장방형으로서 장축벽은 평석으로 반듯하게 쌓아 올렸고, 단벽은 1매의 판석을 세워 막음했다. 그리고, 바닥에 평석을 깔아 두었고, 개석은 평석으로 덮었다. 부장품은 관내에서 토기편만이 검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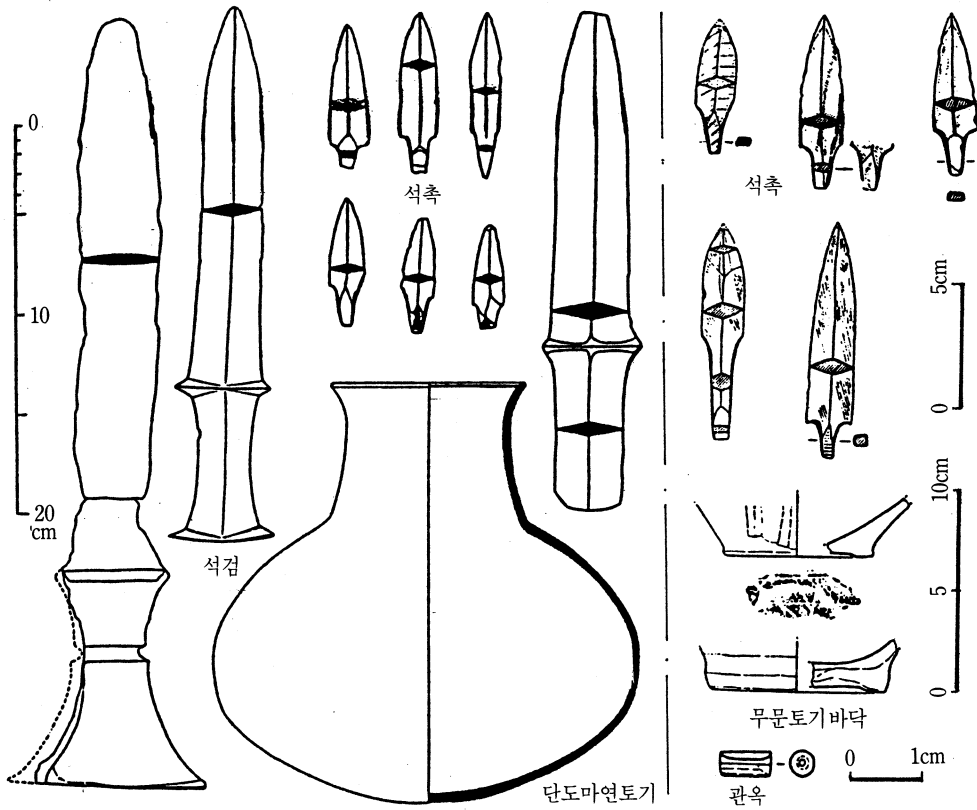
제3상석은 신천유역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것으로, 장축이 5.6m, 단축이 3.3m, 높이 0.8m의 편마암이다. 상석아래에는 한 변이 50cm내외가 되는 큰 돌로 약 3m 간격으로 4개 고아 두었을 뿐 묘구는 설치하지 않았다. 지하묘구는 모두 상석 바깥쪽 둘레에 설치되어 있었다. 묘구는 모두 석관형이고, 일제시대의 조사에서는 2기만이 확인되었으나, 1991년의 재조사에서 2기가 더 있음이 발견되어 모두 4기가 되었다. 이들 석관은 장축벽을 모두 반듯한 넷돌로 쌓아 올렸고, 단벽만을 1매의 판석을 세워 막음했다. 그리고, 1호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바닥에 평석을 깔았으며 개석은 모두 구비했다. 규격은 다음 표와 같고 배치상태는 도면과 같다.

〈表 2-3〉 제3상석하의 석관

석관호수	길 이	폭	높이	축 벽	개석	바 닥	부 장 품
1호	100cm	25cm	35cm	천석으로 횡적	있음 (5매)	없음	없음
2호	파손됨 82cm	36cm	25cm	천석으로 횡적	있음	평석을 깔았음	없음
3호	165cm	40cm	35cm	천석으로 횡적	있음 (6매)	평석을 깔았음	석축5점
4호	파손됨 70cm	38cm	50cm	천석으로 횡적	있음	평석을 깔았음	석축5점

제4구역에서는 3개의 상석둘레에 배치한 석관 외에도 가까이 2기 이상의 석관이 유존하고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이들 석관은 제1상석과 제3상석으로부터 서쪽으로 약 6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이곳에 또 다른 상석이 있었던 것을 제거해 버린 것인지 알 수는 없다. 이들 2기의 묘구 가운데 1기는 완전한 상태로, 1기는 반파된 상태로 발견되었다.

2기의 석관 중 A관은 제3상석의 제3호석관에서 서쪽으로 3.4m 떨어져 있다. 크고 작은 판석을 이어 장축벽을 만들고, 단벽의 경우 한쪽은 판석 1매를 세워 막음하였고, 다른 한쪽은 천석을



〈圖 2-11〉 이천동 1·2區(a) 및 4區(b)지석묘 출토유물(《大鳳洞 支石墓》, 1991)

쌓아서 막음한 구조였다. 바닥에는 잔자갈을 전면에 깔았고 개석은 없었다. 깊이로 보아 경작이나 건축공사시에 제거된 듯하다. 규격은 길이 145cm, 폭 45cm, 높이 50cm이다. 부장품은 벽옥제 관옥 44점이 관내 중앙에서 발견되었다.

B관은 A관에서 남서로 4.5m 떨어져서 위치한다. 교란으로 석관 측벽은 거의 제거되고 일부만이 남아 있다. 남아 있는 것에서 측벽은 모두 할석으로 쌓았고 바닥에는 잔돌을 깔았다는 것이 확인된다.

2. 辰泉川유역의 지석묘군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월배의 넓은 선상지를 흐르는 진천천과 월성, 상인동의 작은 하천변에 많은 지석묘가 곳곳에 군집되어 분포하고 있었다. 그러던 것이 지금은 공단지 조성,

〈表 2-4〉 辰泉川유역의 지석묘군

유 적 명	소 재 지	비 고
상인동 I 지석묘	달서구 상인동 1434	현재없음
상인동 II 지석묘	달서구 상인동 128-1.2, 129	3기가 유존
월성동 I 지석묘	달서구 월성동 1257-3	2기
월성동 II 지석묘	달서구 월성동 1284-7	현재없음
월성동 III 지석묘	달서구 월성동 1302	〃
월성동 IV 지석묘	달서구 월성동 1321-1.2	〃
진천동 I 지석묘	달서구 진천동 700	1기
진천동 II 지석묘	달서구 진천동 713	2기
진천동 III 지석묘	달서구 진천동 653, 658	2기
진천동 IV 지석묘	달서구 진천동 645	1980년 발굴됨
월암동 입석	달서구 월암동 415-2	5기
상인동 입석	달서구 상인동 1218-5	현재없음

시가지 확장 등의 토지개발로, 이 지역의 넓은 평야에 장관을 이루고 있었던 지석묘 상석들이 거의 제거되고, 지금은 분포위치조차 확인할 수 없게 되었다.

지금까지 이지역에서 조사된 지석묘는 진천천변에 분포했던 진천동 지석묘군의 일부¹⁾, 그리고 월성 상인동 일대에 분포했던 지석묘 가운데 대구상업고교 서쪽 담장에 인접해서 매몰되어 있었던 상인동 지석묘²⁾ 정도이다.

이 가운데 상인동 지석묘군은 조사결과 규모가 크고 유구도 비교적 잘 남아 있었다. 또 다양한 형태의 묘제로 구성된 유적이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유구의 내용은 진천천유역 지석묘의 특색을 충분히 대변한다.

상인동 지석묘군의 위치는 달서구 상인동 51-3번지 보성 은하아파트 단지내였다. 유구가 분포한 넓이는 한변 25m내외되는 방형구역내이다. 발굴조사가 있기 전에는 지상에 아무런 유적 흔적이 없었고, 구릉에 인접된 흔히 볼 수 있는 논밭이었다. 그러나 이곳 입지를 보면 앞산을 발원지로 한 무명의 작은 하천이 구릉자락을 따라 유적옆을 흐르고, 하천동쪽으로는

1) 姜仁求, 〈達城 辰泉洞의 支石墓〉《韓國史研究》28, 韓國史研究會, 1980.

2) 慶北大學校 博物館, 《大邱 上仁洞·梨泉洞 支石墓 發掘調査報告書》, 1994.

저구릉에 이어 높은 앞산이 자리하고, 서쪽으로는 멀리 낙동강까지 넓은 평야와 선상지가 전개된다. 유적은 구릉과 평야가 접하는 경계부위에 위치한다. 이러한 자연환경은 선사인들이 생활하기에 좋은 입지이다. 외형상으로 아무런 유구 흔적이 없었던 곳에서 지하유구의 존재를 알게된 것은 1992년 5월, 이 일대를 아파트 단지로 개발하기에 앞서 유적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시굴조사를 한데서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다. 즉, 이 시굴조사에서 敷石層이 넓게 자리하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부석층은 지표에서 40cm내외의 깊이에 매몰되어 있었고 부석층의 형태는 평면이 장방형이고 규모는 길이가 약 26m, 폭이 약 5m, 두께가 50cm내외였다. 그리고 부석내역에 상석이 없는 5기의 묘곽이 일렬로 설치되어 있었다. 또 이 부석을 돌린 묘곽외에, 부석경계로부터 2m, 8m간격을 두고 상석이 있는 석곽과 상석이 없는 석곽묘구가 배치되어 있었다.

여기서 상석이 없고 묘곽둘레에 부석이 깔려있는 묘제를 지석묘 범주내에 넣어서 설명하게 된 것은 매몰되기 전에는 석곽위나 주변에 상석을 두었다고 추측되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이천동(구 대봉동) 4구 지석묘군의 경우와 합천 저포리 지석묘군 유구의 경우가 외적형태에서 유사하기 때문이다. 이들 지석묘군은 묘곽둘레에 이곳 상인동 지석묘군처럼 네모양으로 부석을 깔았고, 그 위에 상석을 안치해 두고 있다.

즉, 상인동 지석묘군은, 상석이 없다는 것 외에는 이천동, 저포리 지석묘군과 같은 외적형태를 갖추고 있다. 다만 상인동 지석묘군에 상석이 없는 것은 농지를 정리할 때 제거해 버렸다고 생각된다는 것이다. 부석층이 지하 40cm내외에서 노출되고 상석이 남아있는 지석묘의 경우도 상석의 윗면이 부석상면과 같이 지하 40cm에서 노출되었다. 경지에 필요한 토층은 대체로 30cm내외이다. 따라서 그 아래에 있는 부석층이나 상석은 남아있게 되고 그 윗쪽으로 돌출하게 되는것은 제거당하게 된다. 상인동 지석묘는 바로 이 경우라 하겠다.

상인동 지석묘군의 유적은 상석을 구비한 묘구가 1기, 상석이 없고 부석을 돌린 단독묘곽이 1기, 그리고 상석이 없고 부석으로 연결시킨 5기의 집단묘구가 있다. 집단묘구는 석곽의 장축방향을 모두 같이하고 또 각 석곽은 개개묘역을 마련했다. 다만 부석이 연결되어 한 부석 유구처럼 되어 있는 것은 시기적 차이는 있을지 모르나 개개 묘구의 부석을 연결시켜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천동 4구 지석묘군의 경우는 석곽을 卍자상으로 5기를 배치하여 부석으로 연결되어 있고, 합천 저포리의 경우는 일렬로 석곽이 배치되었으나 부석은 개개묘곽별로 간격을 둔 형태이다. 따라서 이곳 연결식의 부석설치형식과는 달리하고 있다.

이곳 지석묘군의 개별묘곽의 구조와 출토유물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상인동 지석묘

1호 석곽묘는 집단석곽묘의 최북동끝에 위치한다. 4m×4m의 方形區域내에 부석을 깔고 그 중앙에 장축이 N-60°-E방향인 石槨을 마련하였다. 석곽은 지하에 抹角長方形의 土壙을 파고 그 속에 川石을 이용하여 장방형으로 곽벽을 쌓고, 개석은 7매의 板石을 덮은 형태이다. 석곽의 크기는 길이 175cm, 폭 52cm, 깊이 80cm였다. 북동쪽 短壁은 허술하나 다른 3벽은 정연하게 쌓아올렸다. 바닥에는 납작한 냇돌을 한겹 깔았고 蓋石 위에도 부석 상면높이와 같게 냇돌을 덮었다.

유물은 有段柄式 石劍 1점과 有莖式 石鏃 10점이 출토되었다.

2호 석곽묘는 3.5×3.5m 方形區域내에 敷石을 깔고 그 중앙에 석곽을 설치하였다. 석곽은 1호 석곽으로부터 3.3m의 간격을 두고 위치한다. 石槨은 抹角長方形의 토곽을 파고 그 속에 냇돌을 이용하여 장방형으로 곽벽을 쌓고 蓋石을 덮은 형태이다. 석곽은 장축방향이 N-50°-E이고, 크기는 길이 177cm, 폭 40cm, 깊이 75cm이다. 蓋石은 板石과 큼직한 川石으로 덮었고 바닥에는 냇돌을 한겹 깔았다. 南西쪽 短壁은 허술하게 쌓았으나 그 외의 3벽은 비교적 정연하게 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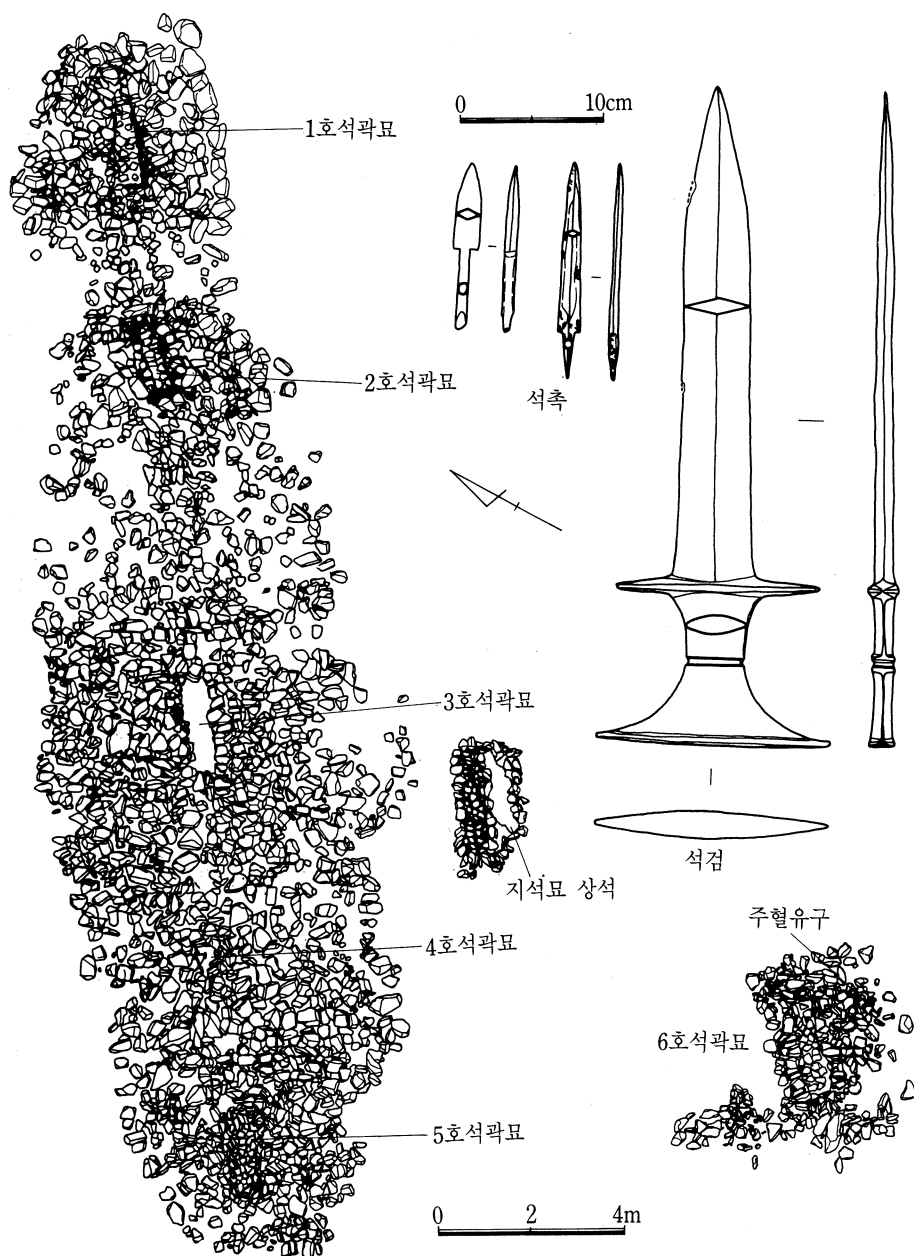
유물은 석곽내의 함몰교란토층에서 부러진 석촉 1점이 수습되었다.

3호 석곽묘는 集團묘구의 부석 중앙에 위치한다. 南北 6.5m, 東西 5m의 방형구역내에 부석을 깔고 그 중앙에 석곽을 설치하였다. 2號 石槨과의 거리는 5m이다. 이 石槨은 다른 석곽과는 달리 舊地表 위에 바로 축조되었다. 長軸方向은 N-60°-E이고 크기는 길이 195cm, 폭 45cm, 殘存깊이 30cm이다. 바닥에는 돌이 깔려 있지 않았다. 노출된 현상으로 보아 石槨의 上部는 경작등으로 인해 後代에 제거된 것으로 추측된다. 부장품은 없었다.

4호 석곽묘는 3호 석곽묘의 敷石에 잇대어 5m×3.8m의 넓이에 부석을 깔고 그 중앙에 墓構를 설치한 형태이다. 墓構는 장방형이 아니고 逆圓錐形의 土壙을 파고 그 내면을 납작한 큰 냇돌로써 3段 내지 4段정도로 두껍돌과 잇듯이 한겹씩 쌓아올렸다. 縱斷面은 V자모양을 이룬다. 역원추형의 석곽규모는 위쪽이 남북 110cm, 동서 80cm이고, 깊이는 80cm이다. 중간위치의 넓이는 동서 80cm, 남북 60cm이다. 바닥은 직경 30cm가량의 평저로 되어 있다. 이 墓構는 형태로 보아 앉은 자세의 屈葬墓槨이라 추측된다.

遺物로는 유입토 속에서 단도마연토기편이 발견되었다.

5호 석곽묘는 集團묘구의 가장 남쪽에 위치하며 4호 墓構의 敷石 南西境界石에 잇대어 5m×5m의 넓이에 부석을 깔고 그 중앙에 石槨을 마련하였다. 4號 墓槨과는 2.9m의 간격을 두고



〈圖 2-12〉 상인동 지석묘 유구배치도 및 출토유물(1호·5호 석곽묘)

위치한다. 石槨은 抹角長方形의 토광을 파고 그 속에 川石으로서 長方形石槨을 축조했다.

석곽의 크기는 길이 160cm, 폭 50cm, 깊이 70cm이고, 長軸 方向은 N-70°-E이다. 바닥에는 평평한 川石을 한겹 깔았고, 윗면에는 蓋石을 덮었다.

遺物은 南西 短壁에 접해서 丹塗磨研土器 2점이 출토되었고, 北西쪽 長壁에 붙어서 2段 柄式磨製石劍 1점이 출토되었다. 그리고 북쪽 단벽 부근에서 석촉 8점이 출토되었다.

6호 석곽묘는 집단묘구의 屈葬槨에서 남동쪽으로 10m간격을 두고 위치한 독립된 石槨墓이다.

장방형의 토광을 파고 그 속에 냇돌로서 長方形의 石槨을 쌓았다. 石槨의 장축은 N-50°-E 방향이고, 규모는 길이 200cm, 폭 50cm, 깊이 53cm이다. 石槨 주위에는 長軸 약 3m정도가 되는 넓이에 扶角長方形모양으로 境界石을 돌리고 그 內域에 敷石을 깔아 두었다. 蓋石은 교란되어 石槨에서 벗어나 북서쪽에 흩어져 있었다. 이 石槨墓에서 특기할 사실은 石槨의 東南쪽 長壁에서 南으로 90cm떨어진 지점에 석곽묘와 동시에 설치되었다고 추정되는 柱穴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 柱穴은 圓筒形이고, 그 속에 길쭉한 川石을 세워서 둘레에 꽂아 두었다. 마치 원주 구멍에 기둥을 꽂고 기둥을 고정시키기 위해 빈틈에 돌을 밀어서 꽂아 올랐을 형상이다. 바닥은 생토면이었다. 柱穴의 크기는 上部의 지름이 30cm, 바닥의 지름이 20cm이며 깊이는 45cm이다.

유물은 석곽에서 1段柄式石劍 1점과 有莖式石鏃 3점이 출토되었다.

5호 支石墓는 6호의 단독 석곽묘와 집단묘구의 부석과의 사이에 위치하며 6호 석곽으로부터 북으로 약 7m의 간격을 두고 독립유구를 형성한 지석묘이다. 토광을 파서 마련한 석곽은 사람머리크기의 냇돌로 장방형으로 쌓았다. 장축방향은 N-65°-E로 두었고 규모는 길이 230cm, 폭 60cm, 깊이 55cm이다. 석곽둘레에는 부석을 깔았으나 북쪽만이 남아있고, 남쪽은 교란되어 제거되었다. 그리고 석곽위에서 약간 벗어난 부석위에 지석묘 上石이 놓여 있다. 상석의 상면은 표토면에서 50cm가량되는 깊이에 있었다. 상석이 남아 있게 된 것은 40cm이상의 깊이에 있었기 때문이라 하겠다. 석곽의 바닥에는 납작한 냇돌을 깔았고 개석은 있었으나 교란되어 일부만이 남아 있었다.

부장품은 유경식 석촉 10점과 곡옥 1점이 출토되었다.

2) 辰泉洞 지석묘

달서구 친천동 645번지에서 발견되어 1980년에 조사된 석관으로서 3기가 모여 있다. 파괴가 심해서 정확한 구조는 알길이 없으나 이 중 3호석관의 경우는 남부지방에서는 예가 없는 複式石棺의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 상인동 석곽묘군의 구조와 더불어 특이한 묘제이다.

석관은 판석으로 장방형의 관을 짜고 중앙에 간벽석을 세워서 2인용 관으로 만든 구조이다. 규격은 동벽이 두께가 고르지 않은 120cm의 판석이고, 서벽은 길이 116cm의 판석이다. 북벽은 두터운 판석으로서 길이 74cm이고 남벽은 길이 80cm의 판석이다. 그리고 석관은 간벽을 두고 한쪽 바닥에 판석을 깔고, 다른 한 쪽에는 자갈돌을 깔았다. 판석이 깔린 쪽의 관 규격은 길이 116cm, 바닥폭이 22cm, 깊이가 31cm이고, 자갈돌이 깔린 쪽의 관 규격은 길이 110cm, 바닥폭 47cm, 깊이 40cm이다. 복식석관 둘레에는 적석처럼 두텁게 석관을 보강할겸 부석을 깔았다.

3. 旭水川유역의 지석묘군

금호강과 그 지류인 남천이 합류하는 일대에 형성된 넓은 충적평야 가운데 남천의 서쪽에 분포한다.

이 일대는 경산의 대덕산과 병풍산을 발원지로 한 옥수천과 매호천의 유역이 된다. 이 일대에서 외형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석묘는 다음표와 같다.

〈表 2-5〉 旭水川유역의 지석묘군

유 적 명	소 재 지	비 고
사월동Ⅰ 지석묘	수성구 사월동 272-3	6기가 유존
사월동Ⅱ 지석묘	수성구 사월동 469	4기가 유존
매호동Ⅰ 지석묘	수성구 매호동 843-2, 844-1	1992년 발굴됨
매호동Ⅱ 지석묘	수성구 매호동 836	1992년 발굴됨
매호동Ⅲ 지석묘	수성구 매호동 806-1, 809	1992년 발굴됨
시지동 지석묘	수성구 시지동 묘 285	1992년 발굴됨

이 가운데 조사된 것은 시지동과 매호동 지석묘군이다. 이곳에서 조사된 지석묘를 보면 부석시설이 없고 석관은 이곳에서 채석되는 경질의 청석을 사용했다. 크기로 볼때 대부분 伸展葬의 석관을 쓰고 있으나 그 중에는 骨葬이라 생각되는 소형의 석관이 있다. 이러한 묘제의 양상은 지역성을 보이는 것이라 하겠다. 1992년 시지·매호동 택지개발에서 조사된 매호동 지석묘군의 구조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時至洞 지석묘군 I

3개의 상석아래에서 모두 유구가 확인되었다. 1호와 2호는 석관이고 3호는 석곽이다. 그리고 주변 평지에서 상석이 없는 15기의 석관이 발견되었다.

1호는 장축을 남북으로 하고 청석판석을 바닥에 깔고, 4매의 청석판석을 세워 4벽을 만들었다. 뚜껑돌은 없었고 크기는 길이 35cm, 폭 20cm의 소형이었으며 깊이는 3cm정도만 남아 있었다. 부장품은 없었다.

2호는 장축방향이 동서이고 청석판석을 바닥에 깔고 그 위에 각 1매의 청석판석을 세워 네벽을 만들었다. 뚜껑돌과 부장품은 없었다. 크기는 길이 45cm, 폭 40cm, 깊이는 현재 9cm이다.

3호는 묘광을 판 다음 할석을 6~8단 쌓아 네벽을 축조하였다. 바닥에는 주먹크기의 자갈돌을 1~2겹 정도 깔았고 뚜껑돌은 청석판석을 이용하였다. 크기는 길이 220cm, 폭 80cm, 깊이 90cm이다. 부장품은 二段柄式 마제석검 1점, 마제석촉 1점, 丹塗磨研土器壺 2점이 출토되었다.

상석이 없는 석관과 석곽은 경작으로 인하여 윗쪽이 손상을 입고 있다. 구조는 묘광을 판 다음 청석판석을 바닥에 깔고, 벽은 청석판석을 수직으로 세우거나 수평으로 쌓아서 만들었다. 뚜껑돌은 청석판석을 이용하였다. 크기는 길이 55cm, 폭 20cm, 깊이 20cm의 소형에서 길이 160cm, 폭 55cm, 깊이 40cm정도의 것으로 다양하다. 부장품으로는 마제석검과 무문토기 底部가 출토되었다.

2) 시지동 지석묘군 II

상석은 1개뿐이나 지하에 3기의 묘구가 있는 지석묘이다. 상석아래에서 장방형석곽 1기가 있고 상석은 없었으나 지석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석관과 석곽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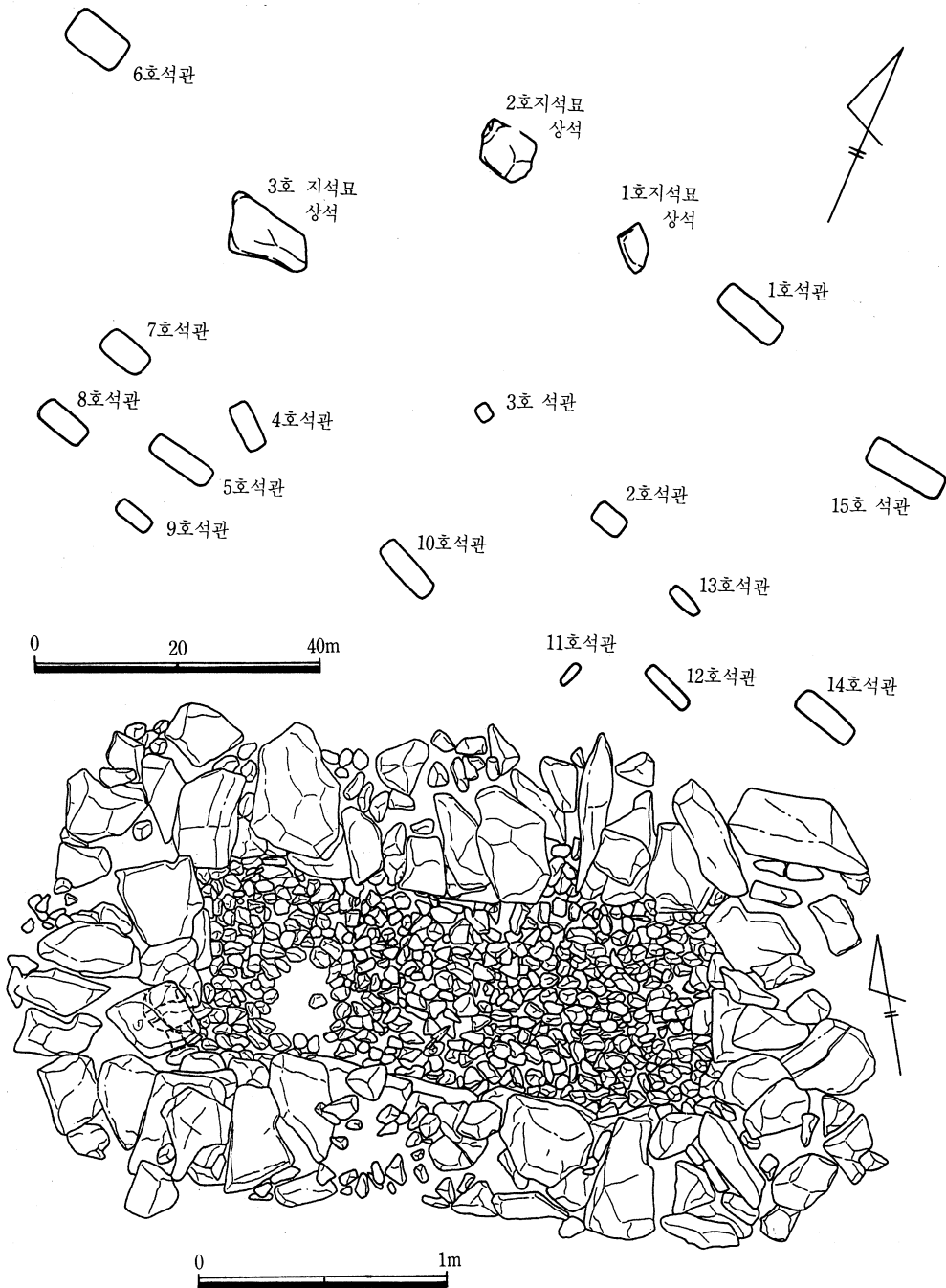
상석아래의 석곽은 할석과 청석을 이용하여 만들었고, 바닥은 생토면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크기는 길이 145cm, 폭 45cm, 깊이 46cm이다.

상석이 없는 2기는 1기가 심하게 파괴되었고, 다른 하나는 묘광을 판 후 자연석과 할석을 쌓아 벽을 만든 석곽이며 뚜껑돌은 청석을 이용하였다. 크기는 길이 122cm, 폭 25cm, 깊이 30cm이고 부장품은 단도마연토기호 1점, 석촉 1점, 관옥 11점이 출토되었다.

3) 梅湖洞 지석묘군 I

4개의 상석이 있었으나 상석아래에서는 묘구를 볼 수 없고, 주변에서 2기의 석관이 발견되었다. 상석과 지하묘구가 따로였는지, 상석이 이동되었던 것인지, 또, 상석보다 묘구의 수가 적은 것이 묘구의 교란으로 인한 것인지 알 수 없다.

2기의 석관 가운데 하나는 토광을 파고 바닥에 청석을 깔 다음 청석돌로 수평쌓기를 하여 4벽을 만들고 그 위에 개석을 덮은 형식이다. 敷石시설은 없었다. 석관의 크기는 길이 135cm, 폭 40cm, 깊이 20cm이다. 다른 하나의 석관은 구조에 있어서는 앞 석관과 같이 4벽을 수평



〈圖 2-13〉 시지동 지석묘군 I 배치도 및 2호 지석묘 하부구조(영남대학교, 《시지택지개발지구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중간보고서》, 1992)

쌓기하였다. 크기는 길이 115cm, 폭 55cm, 깊이는 교란되어 미상이다. 부장품은 마제석촉 15점이 출토되었다.

4) 매호동 지석묘군 II

상석은 2개이나 상석아래에는 묘구가 없고 주변에 석관 2기, 석곽 1기를 두었다. 구조는 토광을 파고 판석을 깔고 4벽을 만든 다음 개석을 덮은 형식이다.

1호석관은 바닥에 청석을 깔고 장벽은 판석을 세우고, 단벽은 수평쌓기하여 4벽을 만들고 개석을 덮었다. 크기는 길이 130cm, 폭 45cm, 깊이 15cm이다. 부장품으로는 단도마연토기호 1점, 마제석촉 3점이 출토되었다.

2호석관은 토광바닥에 청석을 깔고 판석을 수직으로 세워서 4벽을 만들었다. 크기는 길이 15cm, 폭 16cm, 깊이 17cm로서 극히 소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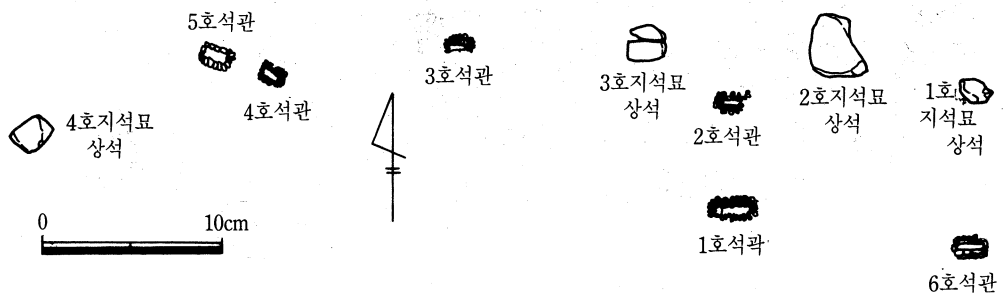
석곽은 토광바닥에 청석을 깔고 4벽은 아랫쪽을 천석으로 하고 윗쪽을 판석으로 쌓은 형식이고, 뚜껑은 판석으로 덮었다. 크기는 길이 205cm, 폭 60cm, 깊이 80cm이다. 부장품은 마제석검 1점, 마제석촉 4점이 출토되었다.

5) 매호동 지석묘군 III

상석은 4개이고 그 아래에 묘구를 설치해 두었다. 뿐만아니라 상석주변에도 석관이 설치되어 있다.

1호석관은 토광을 파고 수평쌓기로 4벽을 만들고, 바닥에 청석을 깔고, 개석도 청석으로 덮었다. 크기는 길이 50cm, 폭 30cm, 깊이 18cm이다. 부장품은 단도마연토기호 1점이 출토되었다.

2호석관은 판석을 수직으로 세워 4벽을 만들고, 바닥에 청석을 깔고, 개석도 청석으로 덮었다. 크기는 길이 85cm, 폭 23cm, 깊이 17cm이다. 부장품은 없었다.



〈圖 2-14〉 매호동 지석묘군Ⅲ 유구배치도(영남대학교, 《시지택지개발지구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중간보고서》, 1992)

3호석관은 4벽의 한쪽 장벽만을 수직으로 판석을 세우고 다른 3면은 수평쌓기한 형식이다. 개석은 판석으로 덮었고 부장품은 없었다.

4호석관은 3호석관처럼 한쪽 장벽만 판석을 세우고 나머지 3벽은 수평쌓기 하였다. 크기는 길이 107cm, 폭 25cm, 깊이 25cm이다.

5호석관은 4벽 모두를 수평쌓기하여 만들었고, 바닥에 청석을 깔고 뚜껑도 판석으로 덮었다. 크기는 길이 135cm, 폭 50cm, 깊이 27cm이다. 부장품은 마제석검 1점, 마제석촉 7점이 출토되었다.

6호석관은 4벽 모두를 수평쌓기하고 바닥에 청석을 깔고, 개석은 넓적한 청석으로 덮었다. 크기는 길이 130cm, 폭 35cm, 깊이 11cm이다. 부장품으로는 단도마연토기호 1점이 출토되었다.

4. 栗下川유역의 지석묘군

이 지역의 지석묘군은 금호강 북안의 울하천유역인 각산·용계동, 그리고 그 동쪽의 동내천 유역인 동내·신서동에 분포하는 것들이다. 모두 팔공산 환상산맥에서 발원하는 작은 하천의 유역에 분포한다.

이곳 지석묘군은 신천, 진천천, 옥수천처럼 큰 지류가 분포단위가 되지 못하나 금호강에 인접해 있다는 지역적 공통성을 지니는 지석묘군이다. 아직 이 구역의 지석묘에 대한 발굴은 없었다. 그래서 외형상 남방식 지석묘에 분류된다는 것과 상석에 性穴을 새긴 것이 많다는 것 외에는 상석과 지하묘구와의 관계 및 구조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없다. 알려져 있는 지석묘의 위치는 다음표와 같다.

〈表 2-6〉 栗下川유역의 지석묘군 현황

유	적	명	소	재	지	비	고
동내동 I	지석묘		동구	동내동	423	3기가 유존	
동내동 II	지석묘		동구	동내동	191	1기	
동내동 III	지석묘		동구	동내동	388-1	1기	
각산동	지석묘		동구	각산동	518-2	1기	
울암동	지석묘 I		동구	울암동	305, 216	9기중 2기가 유존	
신서동	지석묘 I		동구	신서동	田	9기가 유존	

第3節 社會와 文化

한국청동기시대 편년설정은 그 개시와 종말의 시기에 대하여 아직 논란이 있기는 하나 대체로 개시를 고조선의 땅인 중국동북지방을 포함할 경우 기원전 10세기경이고, 한반도남부를 한정했을 경우는 기원전 700년경으로 편년하고 있다. 그리고, 종말은 철기문화가 들어오게 되는 기원전 3세기경으로 잡고 있다.

한반도 청동기문화의 원류는 대체로 요동지방의 청동기문화에 두고 있다. 그러나, 요녕식동검의 문화로서 대변되는 요녕지방의 청동기문화가 어떠한 경로로, 또 어떠한 형태로 한반도에 전파되었고, 이것이 한반도 각지에서 발견되는 청동기시대 유물과는 어떠한 유형의 관련을 갖는 것인지 아직 분명히 하지 못하고 있다.

한반도 남부지방에 분포하고 있는 지식묘나 무문토기문화 유적은 요녕식동검을 동반하는 데서 청동기시대의 유적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의 지식묘나 무문토기문화 유적도 청동기시대 유적으로 편년하고 있다. 그리고, 그 시기를 기원전 7세기에서 기원전 3세기경으로 비정하고 있다.

달서구 월성동 선사 1호주거지에서 구순 각목문토기와 공렬토기가 출토되었다. 이 토기는 무문토기 형식분류에서의 편년에 따르면 기원전 6세기경까지 소급되는 이른 시기에 유행한 기형이다. 또, 2호주거지에서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가 출토되었다. 이것 역시 빠른 시기에서만 볼 수 있는 토기이다.

공렬토기는 평안도 황해도 지방에서는 사용된 바가 없고 두만강유역을 포함한 함경도지방에서 빗살문토기문화의 말기부터 출현

〈表 2-7〉 중부이남지역의 무문토기편년³⁾

	時期 年代	前 期	中 期	後 期	末 期	A.D. 0
		B.C. 600 500	400	300 200	100	
無文土器						
甁形土器	I					
	II					
口 唇 部 刻目土器	I					
	II					
孔列文土器	I					
	II					
	III					
	IV					
赤色磨研土器						
松菊里型土器						
彩 文 土 器						
粘土帶土器	I					
	II					
黑 色 土 器						
環 形 把手付土器	I					
	II					
牛角形手付土器						
高 杯 形 土 器						
甌 形 土 器						

3) 李康承, 〈彌生時代開始期の 無文土器〉《韓日交渉의 考古學》, 1991.

하여 청동기시대가 되면서 동해안을 따라 남하하는 토기이다. 또,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는 황해도 평안도지방에서 사용된 팽이형토기의 변형으로서 서울출토의 가락식토기와 닮는다. 즉, 월성동주거지에서 출토된 토기의 원류를 찾는다면 한반도 동북지방과 서북지방의 것에서 찾을 수 있다. 대체로 남한의 무문토기문화는 이 두 북방지방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 그리고 영향을 받는 경로는 두 북방지방의 토기문화가 남하하여 한강유역에서 접촉융합한 다음 이것이 후기무문토기가 형성하기까지 남부지방에 파급하여 분포하게 된다. 그러나, 유적 가운데는 口唇刻目文만 보이는 유적, 口唇刻目文·孔列文이 조합되는 유적, 또 口唇刻目孔列文·口唇刻目文·孔列文으로 조합되어 있는 유적이 있다. 이는 남부지방으로 파급되는 경로나 시차에 의해 생겨난 지역적 현상이라 하겠다.

대구 월성동 선사1호주거지와 2호주거지는 약 50m간격을 둔 가까운 위치에 있으나 각기 소장했던 유물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는 양자간에 문화의 파급경로가 다르거나 또는 시차가 있는 유적이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말해준다. 월성동 1호주거지에서는 구순각목문 및 공렬토기와 같이 출토된 미완성의 석촉이 있었다. 無莖이고 능각이 없는 細長의 柳葉形으로서 두께가 아주 얇은 석촉이다. 이는 비실용의 석촉이며 儀器的이거나 부장용으로 쓰이는 것들로서 당시의 정신문화의 일면을 반영하는 유물이다. 석촉은 형식분류에 따르면, 무문토기 문화기에서도 빠른 시기의 것이다. 석촉형식과 토기형식에 의해서 월성동의 두 선사주거지는 대체로 기원전 5세기 이전의 유적으로 추정된다.

월성동 선사주거지 주변은 앞들에 지석묘군의 분포를 볼 수 있고 뒷구릉에서 토기, 석기가 산포된 구릉을 볼 수 있다. 뒷구릉지에서 채집된 것으로는 血溝가 있는 마제석검을 위시해서 一段·二段柄式石劍, 有莖細長葉形石鏃, 鑿狀石斧, 반월형석도, 片刃扁平石刀, 有溝石斧, 無文土器, 丹塗磨研土器 등이 있다.

이러한 유적 및 유물의 내용을 보면 월성동의 선사주거지가 분포한 구릉 일대는 청동기시대 전시기에 걸쳐 정착생활의 한 중심지가 되어 있었음이 인정된다.

대구시 관내에 있어서 청동기시대 분묘를 제외한 큰 유적은 월성동 선사유적지외에 북구 산격동의 연암산, 침산동의 침산, 검단동의 검단토성지, 동구의 괴전동, 수성구의 시지동유적을 들 수 있다. 모두 금호강변에 위치한 유적이 있다.

이 가운데 산격동 연암산유적은 아직 발굴조사를 한 바가 없어서 주거지 확인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하지만 산포된 유물을 통해서 청동기시대 후기의 것으로 알려진 유적이다. 여기서 채집되는 유물은 종류가 다양하다. 석제품으로는 마제석검, 세형동검의 把頭飾, 석촉,

낫모양의 석도, 크고 작은 편평편인석도, 石鑿, 柱狀石斧, 有肩石斧, 유구석부, 有孔球狀의 棍棒石頭, 石槌, 방추차가 있고, 토제품으로는 우각형파수토기를 위시해서 후기에 사용되는 점토대토기 및 각종 무문토기, 단도마연토기, 흑색마연토기, 각종 어망추가 있다.

전국적으로 분포예가 많지 않은 유전석부는 중국동북지방의 유전석부와 더불어 그 곳 문화와의 관계를 추구하는데 중요한 석기이다. 그리고, 더 주목되는 석기는 유구석부이다. 이곳 유구석부는 단순히 한두점이 공반되어 출토되는 것이 아니고, 수백점이 반제품, 재가공품, 파손품, 原石등의 형태로 대량 산포되어 있다. 이는 유구석부 제작을 전업으로 한 匠人集團이 존재하였음을 말한다. 이곳 유구석부의 원석은 4km가량 떨어진 桐華川 중류에서 채석되는 석재였다. 연암산 유물산포지는 채집되는 석기의 종류 및 수량과 무수히 산포되어 있는 박편석의 분포현상으로 보아 무문토기문화 말기를 전성기로 했고 또, 琴湖江水系에서의 지리적 위치로 보아 생활용구의 생산지인 동시에 교역장이었다고 볼 수 있는 장소이다.

이곳의 채집유물을 통해서 당시 토착인들의 생활을 그려 보면 이들은 농경, 수렵, 어로가 계절에 따라 차이를 달리하였다 하더라도 모두가 큰 비중을 차지한 생업이었다. 농경은 석기의 작업 능력으로 보아서 범람의 위험이 적은 하천상류나 작은 하천변에서 보를 이용한 작은 규모의 농작을 했다. 반월형석도, 石鏃의 존재가 이를 뒷받침한다. 또 금호강 및 지류의 풍부한 담수어를 어획하여 식료의 부족을 채웠다. 이는 각종 어망추의 존재로 이해가 된다. 또, 석도, 석촉등의 존재를 통해 수렵과 자연 과실을 채집해서 역시 식료부족에 대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마제석검 등에서 추측할 수 있는 것처럼 권위와 권력으로 묶여지는 사회로 발전하였음을 인정하게 된다.

대구에는 큰 하천유역별로 지석묘군이 분포한다. 이것들은 모두 외형상의 분류로는 남방식 지석묘에 속한다. 대체로 신천유역, 진천천유역, 옥수천유역, 율하천유역을 지역단위로 하여 묘군이 형성되어 있다. 이들은 유역별로 지하묘구의 구조를 조금씩 달리 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지금은 대구시역으로 되어 있으나 당시는 생활풍속을 조금씩 달리하고 독자성을 갖는 정착집단이 큰 하천별로 생활하고 있었음을 반영한다. 그리고, 유역을 단위로 한 독자적 생활권이 계급사회의 전단계인 족장사회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리고, 당시의 대구는 지석묘 분포상이나 무문토기유적의 분포상에서 추측되는 것처럼 청동기시대에서는 낙동강 수계에서도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이었다. 이는 이곳이 정착생활에 풍부한 식료를 제공하는 자연환경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과 교통의 요충지였음을 반영한다.

第3章 初期鐵器時代

第1節 初期鐵器時代의 設定

지석묘, 석관묘, 무문토기문화로 標識되는 청동기시대는 철기문화의 전파로 새로운 문화, 시대를 맞이한다. 이는 魏志東夷傳에 묘사되는 삼한사회에 앞서거나 초기단계에 해당되며, 대체로 기원전 3세기에서 기원 1세기까지의 사이로 비정한다.

이 시기의 중요유물은 철기 및 이와 공반되는 훌륭한 청동기이다. 한반도 남부지방을 무문토기 문화기라 하기도 하는 청동기시대에서는, 청동기의 존재를 뚜렷이 부각시키지 못하다가 초기철기시대가 되면서 비로소 각종의 훌륭한 청동기를 생산하게 된다. 아마 산격동 연암산 석기산포지는 청동기시대 취락집단들이 새로운 철기문화를 전수받아 탈바꿈하게 되는 과도기까지 이어지는 유적이라 하겠다. 대구에는 이러한 시기의문화를 대변해 주는 유적이 여러 곳에서 확인된다.

지석묘의 분포밀도는 당시로서는 높은 지역이다. 하지만 초기철기시대 청동기유적의 분포도 다른 지방에 비해 높다. 이는 대구가 廣域사회 의 중심지로 형성되어 가고 있음을 반영하는 한 현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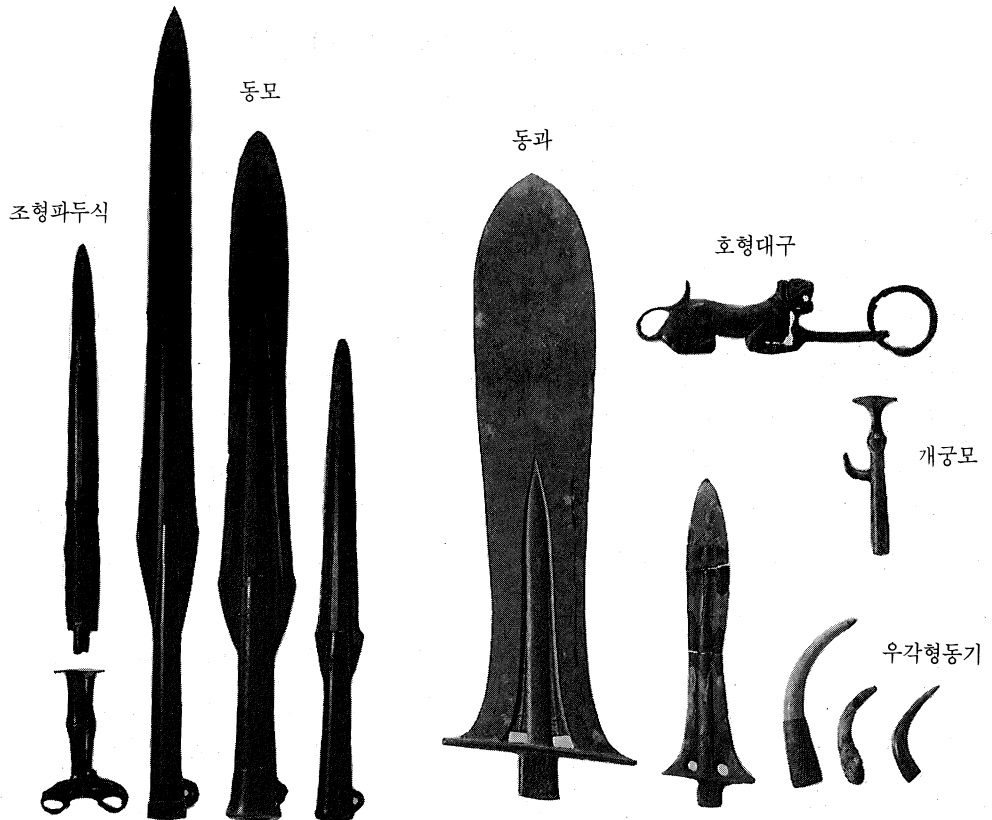
지금까지 발견된 청동기유적은 1920년대에 이천동 대구중학교 내에서 발견된 세형동검을 시작으로 해서 그 후 1956년 8월 비산동 와룡산 기슭에서 50여점의 청동기유물이 발견되었고, 1964년에는 서변동 산계곡에서 靑銅斧 1점이 발견되었고, 1966년 만촌동 금호강변의 구릉에서 細形銅劍, 銅戈 등이 발견되었고 1974년 신천동 신천변 구릉에서 銅戈, 銅鐸, 竿頭鈴이 발견되었고, 같은 해에 평리동 와룡산 기슭에서 청동기일괄유물이 발견되었고, 또 같은 해에 지산동 구릉에서 세형동검을 위시한 청동기 유물이 발견되었다.

第2節 遺蹟과 遺物

1. 大邱中學校庭 청동기유적¹⁾

大邱府史에 소개된 것으로 대구에서는 최초로 보고된 청동검이다. 정확한 출토 경위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기형으로 보아 세형동검의 형식분류로는 말기의 것이다.

1) 藤田亮策, 〈石器時代의 大邱〉《大邱府史》, 大邱府, 1943.



〈圖 3-1〉 비산동 청동기유적 출토유물(국립중앙박물관, 《한국의 청동기문화》, 1992)

2. 飛山洞 청동기유적²⁾

1956년 와룡산 북쪽 산자락 평지에서 발견되었다. 유물은 점판암의 돌 무지속에서 출토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정황은 석곽에 매장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발견 당시의 신문기사에서는 石器및 細形銅劍, 비수 등 칼 종류 7점, 馬工具로 추정되는 장식품, 石具등 약 50점이었다. 일괄유물의 전체내용은 알 수 없으나 일부는 그 후 삼성재단의 湖岩미술관에서 소장하게

2) 金良善, 〈再考를 要하는 磨製石劍의 形式分類와 祖形考定の 問題〉《古文化》1, 1962.

金元龍, 〈鳥形안테나式 細形銅劍의 研究〉《白山學報》8, 1970.

되었고, 국보 제 141호로 지정되었다. 국보로 알려져 있는 청동기를 보면, 銅鉞 3점, 銅戈 2점, 鳥形把頭飾이 있는 細形銅劍 1점, 蓋弓帽 1점, 牛角形銅器 3점, 虎形帶鉤 5점이다. 동모는 신천동 청동기 유적에서 출토된 동모처럼 예리하고 장대하며 크기는 全長 67cm, 56.5cm, 39cm이다. 동과는 큰 것이 만촌동 출토 동과처럼 儀器化된 형태이며 크기도 길이 36.7cm로서 비슷하다. 세형동검은 검파두식이 별도로 주조되었고 劍身은 형식분류상 후기의 세장형이다. 검파두식은 鳥形인데 원류를 스키타이족 단검에서 찾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유물이다. 한국청동기문화의 원류가 비중국계의 청동문화에 속한다는 견해를 뒷받침하는 것이 있어 주목된다.

3. 西邊洞 청동기유적³⁾

1964년 서변동 동리 북쪽산 계곡에서 발견되었다. 하지만 유구에 대한 자료는 알려져 있지 않다. 공반유물의 유무도 모르고 靑銅斧만이 신고되었다. 도끼는 길이가 9.4cm이고 어깨가 있는 주머니도끼로서 초기의 几字形도끼에서 변형된 후기 양식이다.

4. 晩村洞 청동기유적⁴⁾

이 유적은 1966년에 발견되었는데 금호강의 아양교에서 상류쪽으로 500m가량 올라간 동구 만촌동 산 5번지인 동촌유원지 경내의 나직한 구릉 경사면에 매장되었던 것이다. 매장시설의 구조는 분명하지 않으나 출토유물은 세형동검 3점, 中廣形 銅戈 1점, 劍把頭飾金具, 칼 코부속구 등이다. 이 가운데 세형동검은 형식분류상으로는 후기에 속하는 기형이고 동과는 실용성에서 벗어난 儀器化한 동과로서 길이가 39.7cm이다.



〈圖 3-2〉 서변동 출토 청동도끼

5. 新川洞 청동기유적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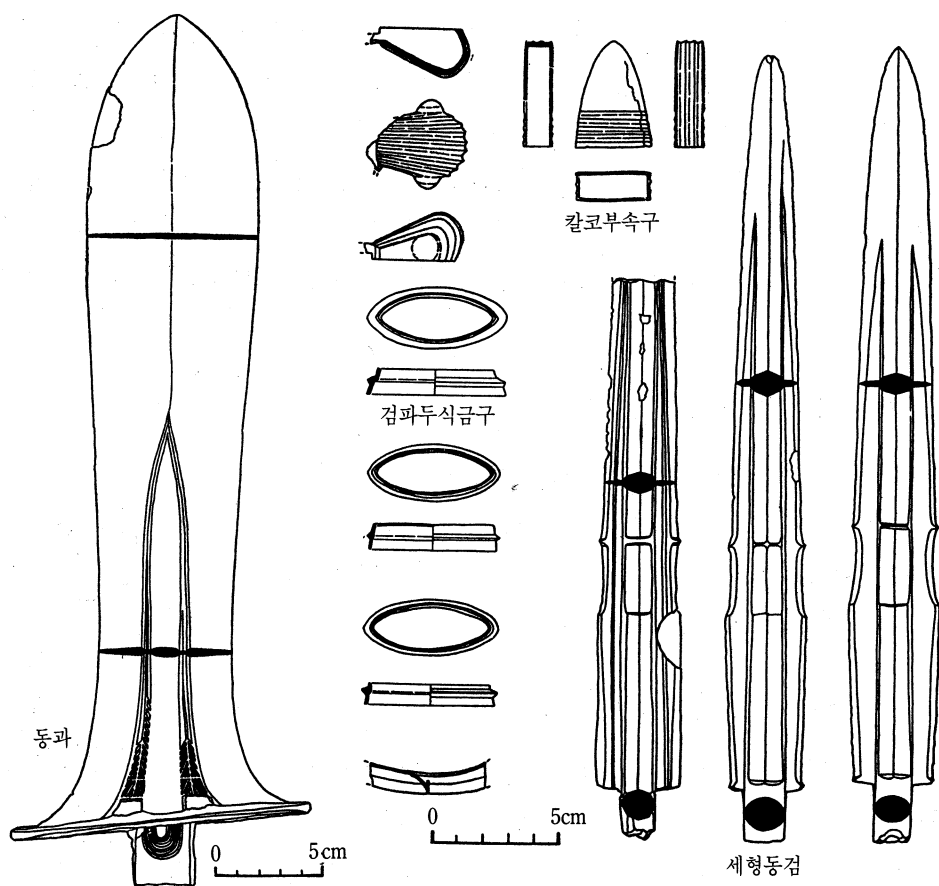
1974년에 발견되었으며 위치는 동신교에 가까운 동구 신천동 589-205번지의 신천강변 구릉사면이다. 매장구조는 알 수 없으나 출토유물은 동과 2점, 동모 2점, 銅鐸 2점, 靑銅竿頭鈴

3) 尹武炳, 〈大邱發見의 靑銅斧〉《考古美術》5-6·7合, 1964.

4) 尹容鎮, 〈大邱市 晩村洞出土 靑銅遺物〉《考古美術》7-11, 19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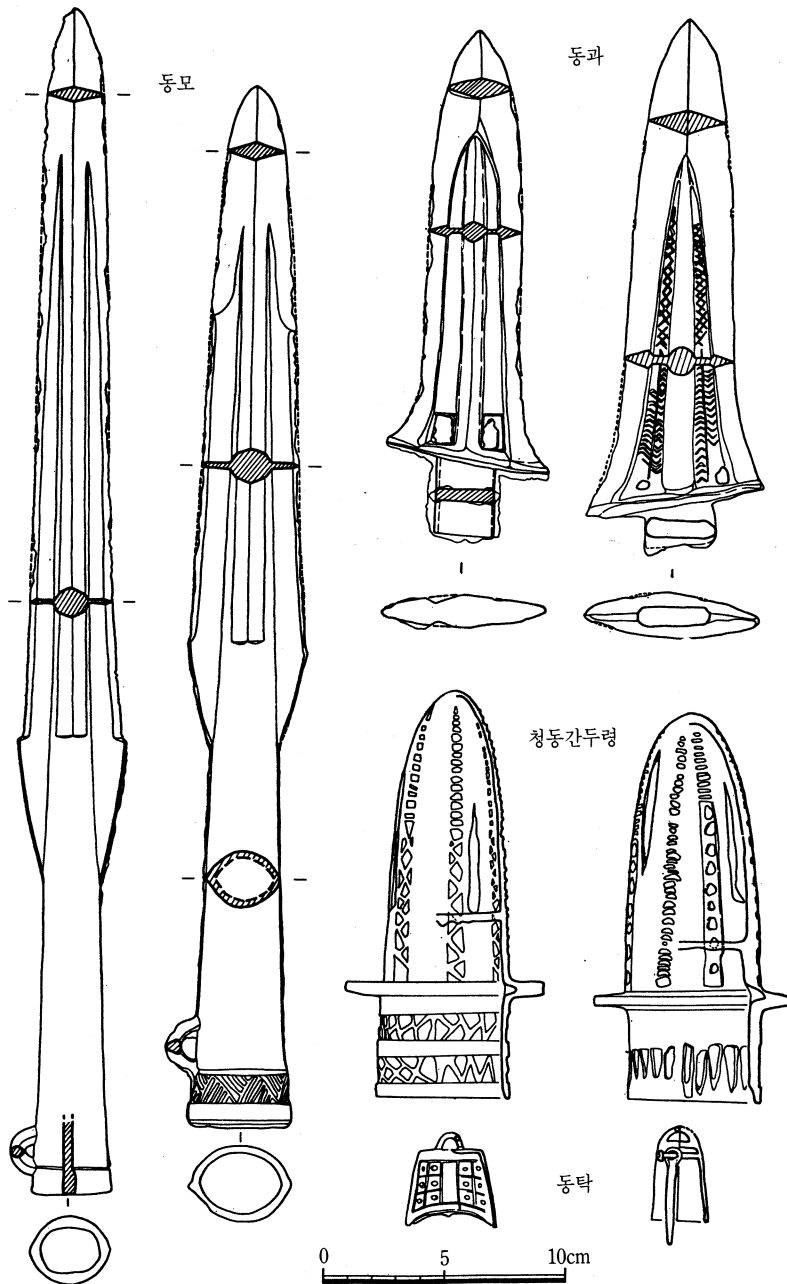
金載元·尹武炳, 〈大邱 晩村洞出土의 銅戈·銅矛〉《震檀學報》29·30合, 1966.

5) 慶北大博物館, 《慶尙北道文化財地表調査報告書》I, 1980.



〈圖 3-3〉 만촌동 청동기유적 출토유물(국립중앙박물관, 《한국의 청동기문화》, 19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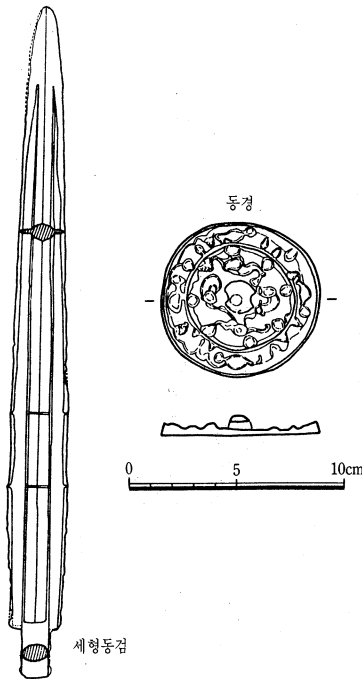
2점이다. 동모 2점은 양편에 날카로운 날을 세운 예리한 利器로서 全長 42.8cm, 49cm의 장대한 기형이다. 동과 2점은 全長 22cm, 21cm로서 하나는 등대에 능각을 세웠고 다른 1점은 능각을 세우지 않고 血溝에 斜線紋을 넣었다. 청동간두령은 2점 출토되었다. 국내에서도 출토예가 많지 않은 儀器이다. 모양은 포탄처럼 생긴 것에 갓의 테를 돌린 모양이다. 표면에 격자문이 있다. 막대끝에 꽂아서 소리가 나게 하는 鈴具로 추측된다. 크기는 높이 16.7cm, 밑지름 4.5cm의 것과 높이 16cm, 밑지름 5.4cm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또, 동탁 2점은 소형으로서 1점은 표면에 乳頭모양의 돌기장식이 있고 밑이 들렸으며 다른 1점은 민무늬이고 밑이 직선이다. 크기는 높이가 3.5cm와 3.9cm이다.



〈圖 3-4〉 신천동 청동기유적 출토유물(《大邱의 文化遺蹟》, 1990)

6. 池山洞 청동기유적⁶⁾

이 유적은 1974년 수성구 지산동 1065-51번지의 구릉지에서 발견되었다. 출토유물은 鐵鋌이라 추정되는 철판과 세형동검, 그리고 포도문 鏡이다. 철물은 발견직후 고물로 폐기되어 형태가 전하지 않으나 세형동검은 전장 32.9cm이고 형식분류상 후기에 속하는 유형이다.



〈圖 3-5〉 지산동 청동기유적출토유물

7. 坪里洞 청동기유적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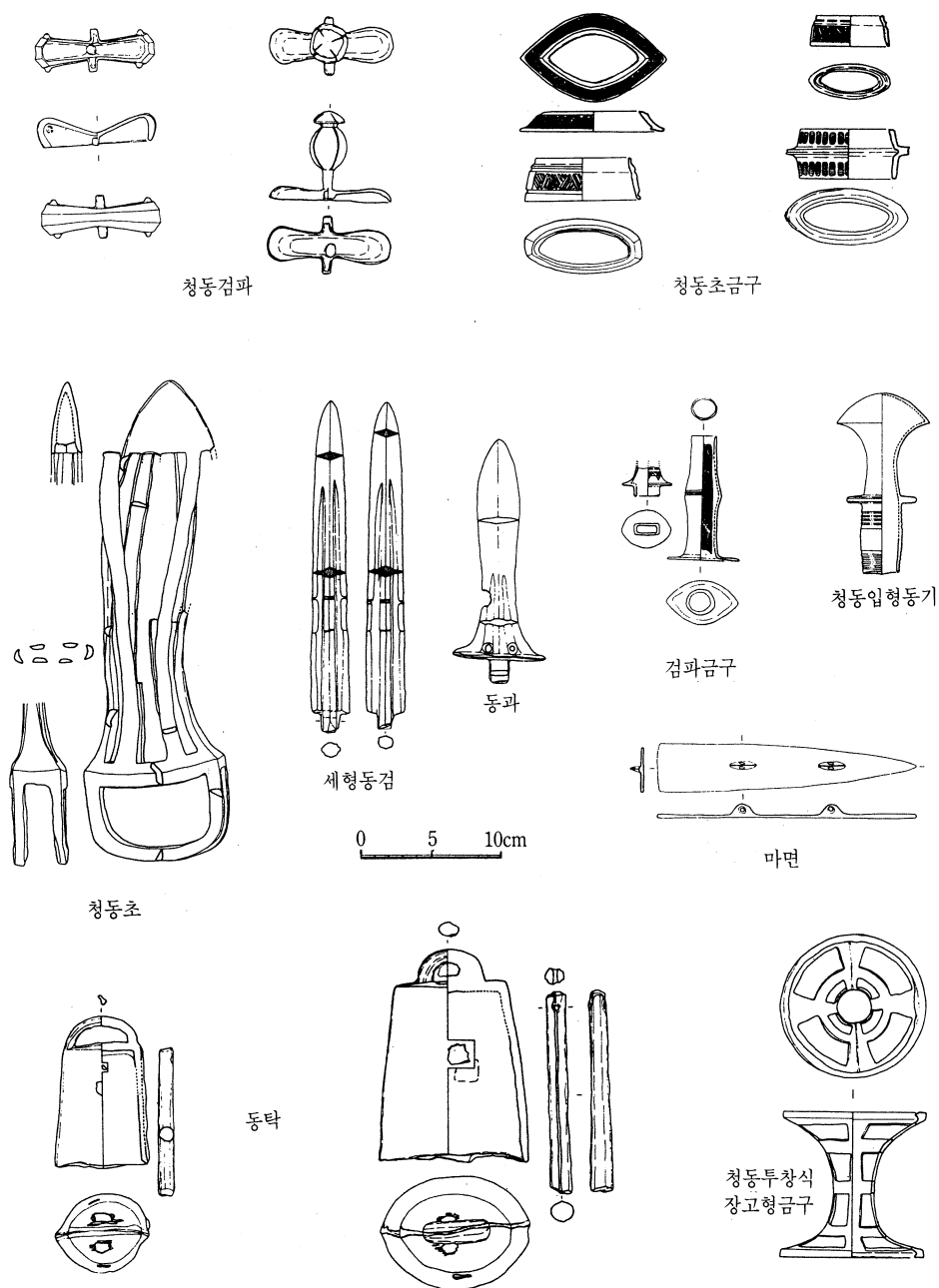
1974년에 발견된 유적으로써 유물출토지는 서구 평리동의 와룡산과 달성토성의 중간지점이 되는 곳이며 평리동 1409번지 평리아파트 단지내이다. 주변지형은 와룡산 동록에서 달성토성의 구릉까지 완만한 기복을 이루는 저구릉으로 이어지고 유적이 발견된 곳은 중간지점이 되는 약간 높은 구릉지이다.

1970년 아파트 건립공사시, 구릉을 깎아 내리면서 매장시설도 같이 잃어버렸고 흩어진 유물만을 수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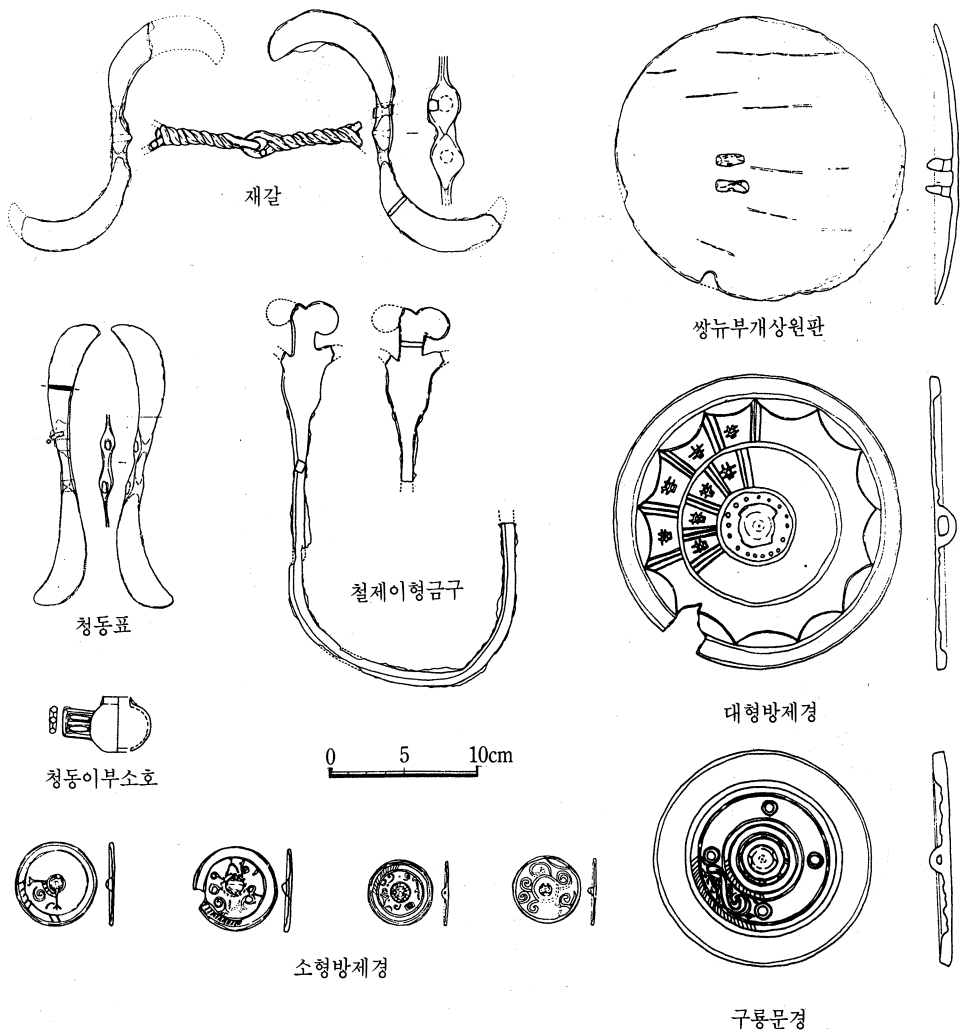
하였다. 출토유물은 일부 분실하였으나 수습된것 가운데 중요유물을 보면 세형동검(3점), 동과(1점), 동탁(1점), 虬龍紋漢鏡 (1점), 靑銅十字形劍把頭飾, 靑銅立柱笠附十字形劍把頭飾, 靑銅劍把, 靑銅笠形銅器, 靑銅透窓飾長鼓形金具, 靑銅鞞金具(18점), 靑銅鞞尾金具(2점), 靑銅環狀金具(19점), 靑銅細橢圓形金具, 靑銅圓筒形小金具, 管形鐵金具(2점), 靑銅鑣(4개), 鐵製銜(2점), 靑銅馬面, 동탁(4점), 鐵製異形金具, 靑銅耳附小壺, 靑銅鞞(2개), 大形彷彿鏡, 小形彷彿鏡 등이다. 이 가운데 세형동검은 형식분류에서 후기에 속하는 기형이고, 규룡문 한경은 기원전 1세기의 것으로 제작시기가 한정된 것이어서 매장유물의 연대고증에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이다. 또 이 곳 일괄유물은 다양한 기종이어서 당시 청동기 제작기술을 엿볼 수 있고, 또 청동기 용도를 규명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

6) 慶北大博物館, 《慶尙北道文化財地表調査報告書》I, 1980.

7) 尹容鎮, 〈韓國靑銅器文化研究—大邱 坪里洞 出土 一括遺物 檢討〉《韓國考古學報》10·11合, 1981.



〈圖 3-6〉 평리동 청동기유적 출토유물(《한국고고학보》10·11합, 1981)



〈圖 3-7〉

평리동 청동기유적 출토유물(《한국고고학보》10·11합, 1981)

第3節 社會와 文化

초기철기문화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근년의 일이다. 그것은 한반도의 선사문화 가운데

청동기문화의 존재가 분명해졌고, 이 청동기문화는 철기를 동반하지 않은 청동기문화와 철기를 공반하는 청동기문화로 구분하게까지 되었다. 그래서, 前者를 철기 출현 전에 존재했던 문화로서 一次靑銅器文化로 구분하고, 청동기시대로 편년하고 있다. 그리고, 後者는 철의 파급에 동반한 청동기문화로서 二次靑銅器文化라 구분하고 초기철기시대로 편년하고 있다.

초기철기시대는 대체로 요녕식동검이 소멸하고 전기 세형동검이 출현하는 시점을 시작으로 하고, 세형동검이 靑銅儀器, 동모, 동과, 中國銅鏡과의 공반이 없어지고 철기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되는 시점을 종말로 한다. 연대상으로는 기원전 3세기에서 기원 1세기경까지의 시기이다.

한반도에서 1차청동기문화의 원류는 非中原系 文化의 북방문화였다. 그러나, 2차청동기문화기에 들어서면 비중원계 문화의 청동기문화가 일부 계승되기는 하나, 철기문화를 위시해서 중국중원계문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문화가 된다. 이 시기의 비중국계 청동기를 든다면 청동제의 竿頭鈴, 八珠鈴, 雙頭鈴, 細文鏡, 동검, 검과두식금구 정도이고, 중원계의 청동기는 동탁, 車馬具, 漢鏡, 靑銅鈔 등이다.

대구에서 이 시기의 유적, 특히 청동기를 동반하는 유적은 新川이 관류하는 대구분지에 집중되어 있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묘제는 토광묘이고, 토기는 흑색토기 또는 연질의 회색토기이다. 그리고, 철기와 공반한 청동기는 장대하거나 儀器化한 것들이다.

토광묘를 통해서 알아 볼 수 있는 문화와 사회상은, 우선 토광묘는 석관이나 지석묘와는 판이하게 다른 묘제이다. 석관묘나 지석묘는 매장시설을 돌로서 만들었지만 토광묘는 나무를 사용한 매장시설이다. 다음으로 토광묘에 부장되는 무기류를 보면 주무기가 세형동검이고, 동과, 동모가 있을 경우 동모를 공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는 토광묘가 이색 묘제이기는 하나 이차청동기문화의 주체도 일차의 청동기문화전통을 이어 받은 사회집단임을 반영한다. 또, 토광묘에는 높은 분구가 없다. 이는 고총고분처럼 강력한 전제왕권적 권력이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은 사회임을 비쳐준다. 그리고, 토광묘에 부장된 유물은 漢式鏡과 중국제라 추측되는 것들을 공반한다. 이는 중국과의 접촉을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가졌던 것으로 해석되고, 토광묘에 많은 철기와 새로운 기법에 의한 토기가 부장되는 것에서 부와 권력을 갖게 되는 계층의 출현이 있음을 엿보게 한다. 또, 토광묘의 부장품에는 청동제무기와 철제무기가 공반한다. 그런데, 이들 무기는 삼국시대고분에 부장되는 무기와는 달리 비실용적이고 의기적인 것이 많다. 이는 부장용으로 제작되었다고도 할 수 있겠으나 피장자의 사회적 지위와 권위의 정도를 표현해 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때의 권위는 무기의 비실용적이고 의기적인 것에서 무력과 같은 힘을 배경으로 한 권력자로서가 아니고 공동체의 족장으로서 읍락의 정치적 장로격인 臣智, 邑借로서 또 巫覡적인

권위도 결들인 자이다. 토광묘의 입지는 대체로 평지속에 있는 臺地이거나 구릉 하류의 舌狀 突出臺地로서 군집한 공동묘지로 조성되는 경우가 많다. 慶南 茶戶里·良洞里的 경우를 보면, 군집한 공동묘역안에는 호화스러운 부장품을 대량으로 부장한 토광묘도 있고 빈약한 유물을 부장하는 토광묘도 있다. 이러한 공동묘지적 현상은 계급간에 격리되는 계급사회라기 보다 아직 공동체적 골격이 잔존한 정치사회임을 반영한다 하겠다. 즉, 非征服的인 토착사회로서 본격적인 계급사회에 이르지 못한 정치사회였음을 뜻한다.

대구의 이차청동기문화기인 초기철기시대는 신천유역과 와룡산 산록에서 출토된 청동기유적의 유물로 추측할 수 있듯이 靑銅儀器나 非實用的 武器로서 권위와 부를 표현하기는 했으나 아직 고대 전제국가적인 표현의 징후는 뚜렷하지 않은 辰韓의 문화, 사회단계였다.

이는 곧 3세기 이후에 나타나는 팔달동 토광묘군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儀器나 非實用的 武器가 철기로 잠시 대체되는 사회로 되었다가 고대 전제국가적 사회로 이행하게 된다.

第4章 三韓時代의 大邱

第1節 辰·弁韓의 成立과 小國의 性格

한반도에서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舊石器時代부터였지만 대구지역에서는 언제부터 사람들이 집단을 이루어 살기 시작하였는지 확실하지가 않다. 그런데 新川의 中上流 堤防 부근인 大鳳洞, 七星洞, 上洞, 斗山洞 등의 지역과 飛山洞, 上仁洞, 月城洞 등 그 인근지역에서 청동기시대의 標識의 묘제인 支石墓가 조성된 것이나 琴湖江邊 구릉지대인 砬山, 燕岩山 일대에 널려 있는 磨製石器나 無文土器片 등으로 미루어 보면¹⁾ 늦어도 靑銅器時代에는 대구에도 사람들이 聚落을 이루어 살았음이 분명하다. 현재로서는 그보다 앞서는 新石器나 舊石器 유적지가 발견되지 않고 있으므로 대구지역에 사람이 살았던 시기가 더 이상 소급될 수 있을 지 어떨 지는 새로운 자료의 출현을 기다려 보아야 하겠으나 경상남도 해안지역이나 洛東江 유역의 경상북도 내륙지역에서도 신석기 혹은 구석기 유적지의 존재가 확인 보고되고 있으므로 대구지역에서도 그 가능성은 높다고 하겠다.

지석묘의 존재는 당시 대구지역이 階級社會로 돌입하였음을 반영한다. 물론 계급사회로 진입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原始共同體社會가 해체되고 계급분화에 바탕한 國家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동일한 지석묘 축조시기라도 그 내부를 들여다 보면 시기에 따라 또는 지역에 따라 사회발전에는 상당한 偏差를 보인다. 같은 청동기시대라도 초기와 후기는 사회발전의 정도가 다르며 동일한 시기라도 지역에 따라 지석묘의 규모나 그 副葬品에서 많은 질적인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석묘 자체가 개인의 묘제라는 점, 청동기라는 새로운 금속기를 소유하는 개인이 존재한다는 점 등에서 지석묘가 축조된 단계에는 어느 정도의 계급분화가 인정된다. 대구지역의 지석묘 단계 계급분화 양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도리는 없지만 적어도 政治體가 출현할 수 있는 단초는 이 때부터 마련되었다고 보아도 되겠다. 물론 초기청동기 단계에서 계급분화는 시작되었더라도 아직 原始共同體의인 지배질서가 여전히 강인하였을 것이므로 이 시기에 곧바로 國家가 성립하였을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러나 점차 후기에 이룰수록 생산력의 향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 계급분화가 보다 진전되면서

1) 大邱直轄市·慶北大博物館, 《大邱의 文化遺蹟》 先史·古代, 1990, 참조.

비로소 國家가 형성되어 갔을 것으로 보인다.

韓國史에서 국가가 최초로 성립된 시기나 그 성격, 형태에 대해서는 70년대초 이래 상당한 논란이 있어 왔으며 아직까지 합의된 견해는 도출되지 못한 실정이다. 논자에 따라 초기국가의 성격에 대한 이해에서도 일정한 차이를 보이며 그 국가형태를 部族國家, 邑制國家, 君長國家, 城邑國家, 邑落國家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러 한결같지가 않다.²⁾ 후술하듯이 3세기 전반의 사정을 전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三國志》권 30, 魏書 東夷傳에 의하면 북방 先進地域이었던 高句麗나 夫餘社會는 물론이고 그보다 정치적 사회적으로 발전이 약간 뒤늦은 三韓을 구성한 小國家들의 基礎單位도 역시 邑落이었던 점을 참작하여 여기서는 최초로 성립된 국가를 편의상 邑落國家라 불러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겠다.

지리적인 위치로 말미암아 보다 선진지역이었던 한반도 북부 이북 지역에서 邑落國家가 성립된 시기는 상당히 빨랐던 것으로 생각되지만 한반도 남부지역에서는 그보다 늦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원전 3세기 말, 2세기 초 무렵에는 남부지역에도 문헌상으로 政治勢力의 존재가 확인되므로³⁾ 읍락국가의 형성시기를 아무리 늦게 잡아도 이 때 이전으로 추정할 수 있다. 초기의 정치세력들은 이들 지역에서 출토되는 고고학적인 성과에 의하면⁴⁾ 기본적으로 청동기에 바탕하여 성장하였을 것임이 분명하다. 그 후 鐵器文化의 파급 등으로 정치세력의 성장은 진전되고 그 결과 보다 많은 지역에서 국가가 성립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관련문헌이 빈약하기 짝이 없고 또 고고학적인 성과가 축적되지 못한 형편이므로 한반도 남부지역 전역에 걸쳐 이 시기 정치세력의 성장 정도를 구체적으로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이후 秦의 中原統一이나 秦漢의 交替, 衛滿朝鮮의 성립과 準王의 南下, 衛滿朝鮮의 멸망과 漢四郡의 설치 등 기원전 3세기 말엽에서 2세기 말엽의 1세기 동안에 걸쳐 진행된 북방지역의 정치적인 변동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流移民의 대대적인 파동은 한반도 남부지역에서 정치세력의 성장을 가속화시키는 큰 動因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 지역에서 청동기 또는 철기에 바탕하여 꾸준히 성장하고 있던 정치세력은 유이민 파동에 따른 선진문물이나 그를 경험한 인간들의 포섭을 통하여, 또는 이러한 정치 파동에 대응하기 위하여 세력을 결집함으로써 성장하고 있던 邑落國家가 급속히 발전되거나 또는 새로운 읍락국가들이 출

2) 이 문제에 대해서는 朱甫墩, 〈韓國古代國家形成에 대한 研究史的 檢討〉《韓國 古代國家의 形成》, 민음사, 1989, 참조.

3) 《三國志》권 30, 魏書 東夷傳 韓條 참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후술함.

4) 李賢惠, 〈馬韓地域 諸小國의 形成〉 및 〈辰·弁韓地域 諸小國의 形成〉《三韓社會形成過程研究》, 一潮閣, 1984, 참조.

현하였을 것으로 이해된다. 이와 같은 과정을 밟아 성립하였던 각 읍락국가들은 성장기반이나 성립시기가 달랐으므로 자연 발전정도가 한결같지는 않았을 것임이 분명하다. 이처럼 각지에 산재하며 그 우열에 차이가 나는 읍락국가들에 바탕하여 성립한 것이 바로 三韓이었다.

三韓이란 馬韓, 辰韓, 弁韓을 일컫는다. 일반적으로 기원 전후부터 대략 300년 전후까지를 三韓時代라 한다. 고고학에서는 이 시대를 흔히 金海時代, 또는 原三國時代라고도 하며 본격적인 철기문화단계로 이해하고 있다. 삼한은 각각 다수의 邑落國家들로 구성되었으며 그 수가 이 기간 동안 고정불변하였던 것인 지는 알 수 없으나 3세기 초기에는 馬韓은 54개국, 辰韓과 弁韓은 각각 12개국 도합 78개국으로 이루어져 있었다.⁵⁾ 馬韓을 구성한 54개 읍락국가 가운데 하나인 伯濟國이 古代國家 百濟로, 진한 12개국 가운데 하나인 斯盧國이 新羅로 발전하였으며, 弁韓은 加耶의 모태였다. 이들 삼한의 위치에 대해서는 논자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마한은 京畿道, 忠清道, 全羅道 일대, 辰韓과 弁韓은 경상남북도에 걸쳐서 존재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삼한의 實體나 그 區分의 근거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삼한으로 구분되는 이유를 種族的인 기반의 차이 또는 文化的인 차이에 두는 견해도 있고 또 유이민 이동에 따른 국가형성과정에서 찾는 견해도 있지만 3세기의 시점에서 본다면 정치적인 데서 찾는 것이 가장 타당할 듯하다. 3세기 三韓의 실정을 전하는 《三國志》나 《後漢書》의 東夷傳에 의하면 종족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문화나 생활상에서는 이들을 구별할 만한 근본적인 차이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⁶⁾ 따라서 三韓의 구분을 가져 오게 된 요인은 일단 정치적인데 있다고 하겠다.

각지에 산재한 邑落國家들을 규합하여 하나의 정치세력으로 기능하게 되는 三韓의 성립 시기나 그 과정은 뚜렷하지가 않다. 일반적으로는 이들 삼한이 읍락국가들의 정치적인 통합에 의해 성립된 것으로 이해하나 이미 북부지역에서 삼한으로 구분되어 있었고(北三韓) 그 주민이

5) 《三國志》 권 30, 魏書 東夷傳 韓條에 의하면 마한은 55개국, 진한은 13개국, 변한은 12개국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마한의 읍락국가 명칭은 찬자의 잘못으로 2중으로 기재되었으며 진한 13개국도 중복으로 보아 전체 78개국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진한의 읍락국가를 중복으로 보지 않고 13개 국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千寬宇, 〈辰·弁韓 諸國의 位置 試論〉《白山學報》20, 1976; 〈加耶史研究〉, 1991 참조).

6) 지리적으로 보다 선진적이었을 馬韓이 辰韓과 弁韓에 비해 후진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등 지역에 따른 약간의 편차는 있었음이 확실하나 이것이 三韓을 구분짓게 한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보기에 그 차이가 너무나 미미하다. 마한이 진한과 변한 보다 후진적으로 기술된 원인에 대해서는 千寬宇, 〈三韓攷 第2部-「三國志」韓傳의 再檢討-〉《震檀學報》41, 1976; 〈古朝鮮史·三韓史研究〉, 一潮閣, 1989, pp. 214~218 참조.

남으로 이동 정착함으로써 남부지역의 삼한이 성립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⁷⁾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삼한을 구성하는 읍락국가들이 문헌으로나 고고학적으로 보아 청동기, 철기에 바탕하여 자체 성장을 한 경우도 있고 또 주민 이동의 영향을 받아 성립하였던 경우도 있어 그렇게 간단히 처리될 문제는 아닌 듯하다.

삼한 가운데 가장 일찍 그 실체를 드러낸 것이 마한이었음은 분명하다. 이는 고고학적으로 馬韓 지역에서 가장 초기의 발달한 청동기가 출현하였던 사실에서도 알 수가 있거니와⁸⁾ 문헌상에서도 입증된다. 辰韓은 《三國志》 권 30, 魏書 東夷傳 弁辰條에 의하면

辰韓在馬韓之東 其耆老傳世自言 古之亡人避秦役 來適韓國 馬韓割其東界地與之

라 하여 秦役을 피한 도망자들이 馬韓의 영역에 들어와 그로부터 영토를 할양받음으로써 성립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古之亡人避秦役’을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통일왕조 秦代인 기원전 3세기 말⁹⁾ 혹은 이동의 시간적인 여유를 고려하면 그보다 약간 늦은 때로 비정할 수도 있겠다. 여하튼 이 기사를 토대로 할 때 진한이 건국되기 전 한반도 남부지역에는 이미 마한이라는 정치세력이 성립하여 있었던 셈이다. 그런데 위의 기사에 보이는 ‘韓國’에 의하여 알 수 있듯이 진한이 성립되기 이전까지는 이들 정치세력을 마한이라 하지 않고 ‘韓’이라 하였다. 이는 다음의 기사에서도 확인된다.

侯準既僭號稱王 爲燕亡人衛滿所攻奪 將其左右宮人 走入海居韓地 自號韓王 其後絕滅 今韓人猶有奉其祭祀者
(《三國志》 권 30, 魏書 東夷傳 韓條)

기원전 2세기초 위만에 의해서 쫓긴 古朝鮮의 準王이 그 左右宮人을 거느리고 韓地에 왔으며 스스로 韓王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 기사를 바탕으로 위만에 밀려난 준왕의 姓이 韓氏이고 이 준왕의 南下 정착으로 비로소 韓王을 칭함으로써 韓이라는 명칭이 생긴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¹⁰⁾ ‘走入海居韓地’로 볼 때 준왕의 남하 이전에 이미 韓이 성립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7) 千寬宇, 〈三韓攷 第1部—三韓의 成立過程—〉《史學研究》26, 1975; 《古朝鮮史·三韓史研究》, 一潮閣, 1989, 참조.

8) 李賢惠, 앞의 책, 참조.

9) 盧重國, 〈馬韓의 成立과 變遷〉《馬韓·百濟文化研究》10, 1987, p. 27 참조. 다만 씨는 이를 馬韓의 成立으로 보았지만 이는 ‘古之亡人避秦役’의 주체가 辰韓이므로 이 때에 성립된 것은 진한으로 보아야 한다.

10) 李丙燾,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1976, pp. 249~255.

타당하다. 준왕이 한왕이라 자칭하였다는 것은 그의 남하로 말미암아 이 지역에 세력교체와 같은 정치적인 변동이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¹¹⁾

이처럼 남부지역에서 제일 처음 성립된 정치세력을 마한이라 하지 않고 통칭 韓이라고 하였는데 한편 馬韓으로도 불리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이 韓이 곧 馬韓의 전신이었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이 韓(마한)으로부터 영토를 할양받았던 정치세력도 처음부터 辰韓이라 불리웠던 것은 아니었던 듯하다. 그것은 다음의 사료에서 확인된다.

韓在帶方之南 東西以海爲限 南與倭接 方可四千里 有三種 一曰馬韓 二曰辰韓 三曰弁韓 辰韓者古之辰國也
 (《三國志》권 30, 魏書 東夷傳 韓條)

이 기사에 의하면 辰韓의 전신은 辰國이다. 말하자면 기원전 3세기 말엽 秦役을 피하여 남하해 온 亡人들에 의해 韓으로부터 영토를 할양받아 만들어진 정치세력이 곧 辰國이었던 셈이다. 辰國의 性格, 位置, 實體 등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논란되어 왔지만 이는 주로 《후한서》와 《삼국지》의 기록상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삼국지》에서는 辰國을 진한의 前身이라고만 하였으나 《후한서》에서는 그와는 달리 마한 진한 변한 등 三韓의 전신이 곧 진국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¹²⁾ 그러나 《삼국지》가 《후한서》보다 150년 정도 먼저 기록되었으며 또한 양자를 대비하여 보면 《후한서》의 三韓관계 기사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삼국지》의 기사를 축약하여 정리한 데에 불과하므로 대체로 《삼국지》 쪽이 정확한 것으로 보고 있다.¹³⁾ 따라서 辰國은 三韓의 前身이 아니라 辰韓의 전신으로 보는 편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기원전 3세기 말엽에 辰國이 성립되었을 가능성은 그와 관련되는 몇몇 기록에서도 확인된다. 辰國에 관한 최초의 구체적인 기록은 《史記》권 115, 列傳 朝鮮傳의 다음 기사이다.

傳子至孫右渠 所誘漢亡人滋多 又未嘗入見 眞番傍辰國 欲上書見天子 又擁闕不通

이 기사에 보이는 辰國을 《史記》의 판본에 따라 衆國이라고 한 경우도 있으나 진국으로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 황해도 일대로 지정되고 있는 眞番의 곁에 있던 辰國이 漢과 통교하려

11) 盧重國, 앞의 논문, pp. 32~33.

12) 《後漢書》권 85, 東夷傳의 관련 기사는 다음과 같다. 韓有三種 一曰馬韓 二曰辰韓 三曰弁韓 馬韓在西 有五十四國 其北與樂浪 南與倭接 辰韓在東 十有二國 其北與濊貊接 弁辰在辰韓之南 亦十有二國 其南亦與倭接 凡七十八國 伯濟是其一國焉 大者萬餘戶 小者數千家 各在山海間 地合方四千餘里 東西以海爲限 皆古之辰國也.

13) 千寬宇, 〈三韓攷 第2部〉, pp. 229~232.

하였으나 위만의 손자 右渠王의 방해로 실패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기원전 2세기 말엽에 있었던 사실인 셈이다. 《三國志》가 인용한 《魏略》에도 다음과 같이 辰國이 보인다.

初右渠未破時 朝鮮相歷谿卿以諫右渠不用 東之辰國 時民隨出居者二千餘戶 亦與朝鮮 貢蕃不相往來(《三國志》 권 30, 魏書 東夷傳 韓條)

朝鮮相이었던 歷谿卿이 우거왕에게 반발하여 2千戶의 무리를 이끌고 辰國으로 갔다는 것이다. 이로 보아 진국이 위치한 지역은 경기도 이남인 韓의 동북 방면이면서 평안도에 있었던 衛滿朝鮮과 상당히 가까운 거리였음을 알 수가 있다. 아마도 辰國은 기원전 2세기 말까지 漢江流域을 중심으로 하는 경기도 일대에 위치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다.¹⁴⁾

요컨대 북방에 위치한 古朝鮮이 정치적인 변동을 겪고 있던 시기에 한반도 남부지역에는 청동기 또는 철기에 바탕한 읍락국가들을 중심으로 韓이란 보다 큰 정치세력이 성립되어 있었다. 그것은 늦어도 기원전 3세기 후반 이전의 일이었다. 그런데 기원전 3세기 후반부터 북방에서의 정치적인 변동으로 이주민 파동이 일어나 이들이 南下하여 옴으로써 韓에도 영향을 미쳤다. 韓이 이들 流移民들에게 그 동북지역을 할양함으로써 한강유역을 중심으로 하는 부근일대에 辰國이란 정치세력이 성립되었으니 이것이 곧 후일 辰韓의 모태였다. 그러나 이때에는 아직 三韓이 성립되었던 것 같지는 않다. 마한은 韓으로 불리웠으며 진한은 없었고 진국이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기원전 2세기 말엽까지는 그와 같은 상태였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그 후 북방으로부터 기원전 2세기 말 衛滿朝鮮의 멸망과 漢郡縣의 설치 등 정치적인 변동으로 말미암아 歷谿卿의 이탈에서 알 수 있듯이 대대적인 유이민 파동이 발생하면서 그 영향이 기존의 韓, 辰國에도 파급되었을 것임이 틀림없다. 이로 말미암아 기존의 질서는 변화를 겪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 과정은 잘 알 수가 없으나 이러한 재편의 과정을 거치면서 三韓이 성립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

남한지역의 재편은 기원전 2세기 말엽 이후에 진행되었던 듯하다. 辰韓이 경상남북도에 걸쳐서 존재한 것으로 보는 통설적인 견해에 따르면 한강유역에 있던 그 전신인 辰國을 구성한 세력들은 이러한 파동의 영향으로 경상도 지역으로 이동한 셈이 된다. 이들 진국이나 고조선의 유이민 세력들이 남으로 이동하지 않고 경상도 지역으로 이동하였던 것은 그곳에는

14) 盧重國, 앞의 논문, p. 28.

이미 보다 강력한 韓(마한)세력이 위치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이는 상대적으로 진국의 이동을 저지할 정도로 강력한 정치세력이 경상도 지역에서는 아직 결집되지 못하였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보다 발달한 문화와 정치를 경험한 辰國세력이나 또는 古朝鮮의 유민들이 대거 경상도 지역으로 몰려오면서 이 지역에 새로운 움직임이 일어났을 것임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그런데 이들 진국 세력들의 이주로 경상도 지역의 정치세력은 복잡하게 구성되게 되었다. 그것은 이들이 남하하여 오기 전에 이미 경상도지역에서도 큰 정치세력은 아닐지라도 역시 청동기 및 철기에 바탕한 읍락국가가 성립하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辰國 등의 유이민 세력이 先住民을 일방적으로 정복함으로써 진한이 성립한 것으로 설명할 수는 없을 듯하다. 아마도 다음의 세 가지 경우를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첫째, 先住한 세력에 의해 성장하고 있던 읍락국가가 외부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더욱 발전하였던 경우이다. 둘째, 移住民의 정복에 의하여 새로이 국가가 만들어졌을 경우가 예상된다. 셋째, 先住民과 移住民의 결합에 의해서 국가가 성립하였을 경우이다. 진한지역에는 처음 읍락국가가 6國 있었다가 뒤에 12國이 되었다는 기록이 그 점에서 참고가 된다.¹⁵⁾ 이처럼 진국지역에 있던 이주민의 파동으로 성장하고 있던 경상도 지역에서는 정치적인 변동을 겪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새로이 12국의 읍락국가가 성립하는 것이다. 진한은 바로 이들 12국을 규합함으로써 성립된 것이라 하겠다.

弁韓도 구체적으로는 알 수가 없으나 역시 진한과 유사한 과정을 밟아 성립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변한을 弁辰이라고도 하여 마치 진한에서 기원하고 있는 듯이 표현된 점, 변한과 진한이 雜居하고 있었던 점¹⁶⁾ 그리고 실제 국명의 나열에서 양자가 복잡하게 뒤섞여 있는 점 등은 이들 사이의 구분이 불가능할 정도로 비슷하였음을 보여 준다. 양자 사이의 구분은 아마도 3세기에서 멀지 않은 시기에 정치적인 이유에서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 점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보면 기원전 3세기 이전까지 청동기와 철기에 바탕한 정치세력이 한반도 남부 지역에 성장하고 있었고 그것이 韓으로 불리웠다. 기원전 3세기말에서 2세기 초에 걸쳐 중국에서

15) 《三國志》 권 30, 魏書 東夷傳 韓條에 辰韓을 설명하여 ‘始有六國 稍分爲十二國’이라 하였다. 이 기사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해가 가능하나 처음의 6국은 선주한 세력에 의하여 자체적인 성장 과정을 거쳐서 성립한 국가로, 나머지 6국은 이주민 세력이나 또는 이주민과 선주민의 연합에 의하여 세워진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듯하다.

16) 《三國志》 권 30, 魏書 東夷傳 韓條에 ‘弁辰與辰韓雜居’라 하였음.

秦에 의한 戰國의 統一과 멸망, 漢에 의한 재통일, 古朝鮮과 위만조선의 교체 등의 정치적인 혼란으로 유이민 파동이 일어나고 그들이 한반도로 이주해 오면서 韓의 영역에 들어와 辰國이 성립되었다. 또 기원전 2세기말 위만조선의 정치적인 혼란과 그 멸망으로 말미암아 주민이 대거 남으로 이주하면서 그 결과로서 韓과 辰國이 재편되면서 삼한이 성립되었던 것이다. 특히 진한과 변한은 그 북방의 파동이 일단락되는 기원전 1세기 이후의 어느 시기에 先住한 세력과 새로이 이주해온 진국세력에 의해 편성된 읍락국가들에 바탕하여 성립된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三韓의 성립시기는 언제인가, 그리고 삼한 자체는 각각 어느 정도의 정치적인 기능과 결속력을 가졌으며 그 성격은 어떠한가 등등에 대해서 확실치 않은 점이 많다. 《史記》나 《漢書》 등에는 三韓과 관련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고 《三國志》에 이르러 처음 나타나며 《後漢書》가 비록 《삼국지》를 거의 轉寫한 형태로이기는 하지만 그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한반도 남부지역의 정치세력이 마한 진한 변한의 세 세력으로 재편된 것을 後漢代로 보는 인식이 적어도 3세기 초반 이후에 자리잡았던 것은 틀림이 없다. 따라서 기원 후 어느 시기에는 삼한이 分立하여 중국과 통교하였던 것은 분명하다고 하겠다. 그것은 《삼국지》에 보이는 辰韓 右渠帥 廉斯鏹說話¹⁷⁾나 《후한서》에 보이는 廉斯邑君 蘇馬謨의 존재¹⁸⁾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1세기초의 後漢代에는 辰韓이 존재하였음이 분명한데 기원전 2세기 후반에서 기원후 1세기초에 이르는 어느 시기에 존재하였던 辰國이 이 진한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가 있다. 이제 진국의 명칭은 소멸하고 대신 辰韓이 자리잡게 된 것이다. 따라서 그와 비슷한 시기에 기존의 韓도 馬韓이라고 불리웠을 듯하다. 그렇다면 이들 사이의 구분의 근거는 무엇인가.

三韓의 구분이 단순히 지역적인 데에 있었던 것이 아님은 진한과 변한이 구별되면서도 이들을 구성한 邑落國家들이 지역적인 구별없이 雜居하였다는 사실을 통하여 짐작할 수가 있다. 廉斯鏹說話나 蘇馬謨의 예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三韓 각각은 중국과의 外交나 交易을 행하는 단위였으므로 이들 사이의 구별을 가져 오게 된 요인은 정치적인 데에서 찾아야 한다. 삼한 성립 당초의 사정을 알려주는 기록이 전혀 없으므로 3세기 초반의 사정을 전하는 《삼국지》를 통하여 이들의 정치적인 관계를 유추할 수밖에 없다.

《삼국지》에 의하면 3세기에는 삼한 가운데 마한에만 辰王이 존재하였다. 이 진왕은 馬韓 54개국 중 目支國의 실질적인 지배자이면서 동시에 마한 전역의 지배자로 되어 있다. 마한이

17) 앞의 책, 魏書 東夷傳 韓條.

18) 《後漢書》권 85, 東夷傳 韓條.

다수의 읍락국가로 구성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마한이란 이들 읍락국가의 聯盟體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겠다. 말하자면 마한은 目支國을 盟主로 하는 연맹체였던 셈이며 진왕은 바로 그 연맹장이었다. 1세기초부터 3세기까지 목지국이 계속하여 맹주가 되었던 것인지는 알 수가 없다.

그런데 3세기의 진한은 12개의 邑落國家로 구성되었으나 이들은 모두 辰王의 통제를 받고 있었다 한다. 말하자면 진한의 12국은 마한의 제약 아래에 놓여 있던 셈이다. 《三國志》권 30, 魏書 東夷傳 馬韓條의 辰王을 百濟王으로, 辰韓條의 진왕을 新羅王으로 보아 양자를 구분하는 견해도 있으나¹⁹⁾ 이는 《三國史記》초기기록을 그대로 긍정한 데서의 추측일 뿐 확실하지가 않으므로 따르기 어렵다. 여하튼 《삼국지》에 의하면 3세기의 辰韓에서는 盟主는 존재하지 않았고 대신 마한 진왕의 통제 아래에 있었다.²⁰⁾ 辰王이 ‘世世相繼’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辰韓이 馬韓의 제약을 받았던 기간이 제법 오래 계속되었던 듯하나 성립 당초부터 그러한 관계였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1세기 초 辰韓에 右渠帥가 있었던 것으로 보면 左渠帥의 존재를 예상할 수 있고 또한 辰王과 같은 盟主의 존재도 유추되기 때문이다. 아마도 1세기 이후의 어느 시기에 모종의 원인에 의하여 진한에서는 독자적인 盟主의 존재가 없어지게 되고 마한의 제약 아래에 놓이게 된 것이라 생각된다. 한편 그러면서도 이들이 여전히 馬韓과 구분되었던 것은 무언가 동일하지 않았기 때문일 듯하다.²¹⁾ 아마도 마한의 제약을 받으면서도 상당한 독자성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한편 弁韓은 진한과 마찬가지로 12개의 邑落國家로 구성되었으며 그들과 雜居하였으면서도 마한 진왕의 직접적인 제약을 받지는 않았다. 오히려 독자적인 王이 존재하였던 것 같다. 그것은 변한에서는 ‘十二國亦有王’이라 한데서 알 수 있다.²²⁾ 약간 애매하게 표현되어 있으므로 이것이 12국을 아우른 변한연맹체에 1인의 왕이 있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12국 각각에 왕이 있었다는 것인지 단정짓기가 어렵다. 그러나 변한이 마한에 예속되지 않고 독자적인 연맹체로 기능하고 있었다면 그를 아우른 맹주로서 王의 존재를 예상하여 볼 수 있겠다. 여하튼 3세기 당시 변한은 진한과는 달리 마한으로부터 독자적이었다는 점에서 양자는 구분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그 이전 변한의 사정에 대해서는 잘 알 수가 없다.

19) 千寬宇, 〈三韓攷 第2部〉, pp. 234~243 참조.

20) 그런데 마한의 진왕이 진한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는 지는 분명하지가 않다.

21) 후일 《隋書》나 《北史》에 신라가 백제에 부庸되었던 것처럼 기록한 것도 바로 이 기록 때문이었던 것이다.

22) 《三國志》권 30, 魏書 東夷傳 韓條.

3세기의 삼한을 구성하는 바탕은 여전히 邑落國家였다. 이들 邑落國家의 규모는 동일하지 않았으며 국가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마한의 54국 가운데 큰 것은 萬餘家, 작은 것은 數千家로 구성되었으며 辰韓과 弁韓 24국의 큰 것은 4, 5千家, 작은 것은 6, 7百家に 지나지 않았다. 이들 나라에는 각각 지배자로서 渠(長)帥가 있었으며 그 명칭은 國의 규모에 따라 달라 臣智, 險側, 樊濊, 殺奚, 邑借 등으로 불리웠다.²³⁾ 한가지 이상스럽게 여겨지는 것은 읍락국가의 渠帥가 진한과 변한은 5개로 분화되었던 반면 마한은 臣智와 邑借밖에 없었던 점이다. 이는 三韓이라는 보다 큰 연맹체 내에서 國이 가지는 자립성의 강약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지배자 명칭의 수가 적다는 것은 그만큼 중앙 집중화되었음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들 國들은 다수의 邑落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읍락의 수는 國의 규모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났을 것임은 틀림없다. 큰 國의 인구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읍락으로 구성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규모가 작은 國의 경우에는 하나의 읍락으로 구성되기도 하였을 것이다. 하나의 國을 구성하는 읍락 가운데 정치적인 중심 읍락이 바로 國邑이라고 불리웠다. 국읍은 말하자면 國의 지배자가 장악한 기반이 되는 읍락이었던 셈이다. 각 국읍 이외의 읍락에도 지배층들이 있었다. 國을 구성하는 읍락들의 자립도가 3세기 무렵에도 상당히 강하였던 듯하다. 그것은 ‘國邑雖有主帥 邑落雜居 不能善相制御’라 하여²⁴⁾ 국읍 主帥의 읍락에 대한 지배력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각 國들마다의 결합도는 차이가 있었을 터이지만 3세기 전반 무렵까지 그렇게 강하였던 것 같지는 않다. 그런 의미에서 邑落國家란 곧 邑落聯盟體라고 하여도 좋다. 國에는 국읍과 읍락 이외에 別邑이 존재하였으니 이를 蘇塗라고 하였다. 소도에는 大木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鈴鼓를 걸었으며 귀신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신성한 곳이었다. 소도를 관장하는 자가 天神에 대한 제사를 주관하였기 때문에 이를 天君이라고 불렀다. 三韓 사이에, 또는 國에 따라 어느 정도 차이가 있었을 것은 분명하지만 읍락국가는 대체적으로 이상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었다.

삼한에서는 선진적인 고구려나 부여에 비하여 계급의 분화 정도가 상당히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고구려나 부여에서는 국왕을 정점으로 하여 加계급이 존재하며 이 加계급도 3세기에는 大小로까지 구별되어 있었다. 고구려 부여의 국가를 구성하는 바탕도 역시 읍락이었지만 읍락 내에서는 民들 사이에도 이미 계급의 분화가 있었으니 읍락의 성원들인 일반 民들은 下戶라 불리웠고 이들의 상층부에는 豪民이라는 계급이 있었다. 읍락공동체의 성원인 民의 아래에는

23) 위와 같음.

24) 위와 같음.

노비가 존재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三韓의 경우는 계급분화 정도가 상당히 미미하였던 것 같다. 기본적으로 읍락공동체의 일반성원들과 지배층의 계급분화는 분명히 존재하며 지배층들 사이에는 세력의 차이는 있었을 터이지만²⁵⁾ 아직 그들 사이에 계급분화가 되었던 지 어떤 지의 흔적은 뚜렷하지 않다. 그리고 민들 사이의 계급분화도 그렇게 선명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민인 下戶가 漢郡縣과 교섭하는 주체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그들의 상위에 豪民은 보이지 않는다. 下戶들은 거수의 印綬와 衣幘을 빌려서 漢郡縣과 交易하였다. 교역 관계를 주도하는 下戶는 이후 그를 통해 축적한 경제력을 배경으로 점차 豪民으로 성장하여 갔을 것이다. 이밖에 이 시기에는 농업생산력에 바탕하여 民으로부터 호민으로 성장하는 세력도 존재하였을 것임이 틀림없다. 따라서 3세기 삼한에서는 아직 하나의 독자적인 계급으로서 호민은 존재하지 않았고 교역이나 농업생산력의 향상을 통하여 호민으로 성장하고 있었던 下戶가 존재하였던 시기라 하겠다. 이상과 같은 의미에서 삼한은 지배 피지배 관계가 성립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내부의 계급분화가 진행되어 가고 있던 과도기적인 시기였다.

삼한을 구성한 78개국은 이상과 같은 형태와 내부의 계급관계를 가진 邑落國家였다. 이러한 읍락국가들에 바탕한 삼한의 정치연맹체란 결국 느슨한 형태를 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삼한이 구분되는 所以도 그런 의미에서 고정불변한 연맹관계가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인 필요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형태를 지닌 연맹체였던 데에 있다고 하겠다. 특히 진한과 변한의 경우 수백년 동안 그 구성이 불변하였던 것은 아니라 생각된다. 다만 3세기 무렵에는 각기 12개국으로 편성되었을 따름이며 이들 사이에 결속관계는 끊임없는 변동이 있었을 것이다. 진한과 변한이 잠거하였으며 이들 사이의 구별이 쉽지 아니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다. 《삼국지》에 보이는 기록은 바로 당시의 진, 변한의 구분을 의미할 뿐이다. 이처럼 이합집산하였을 것이므로 대구가 진한이었는지 변한이었는지 판별하기는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의미할런지도 모른다.

第2節 大邱地域의 小國成立

대구지역에서 邑落國家가 어느 시기에 형성되는 지는 잘 알 수가 없으나 기원전 3~2세기 경에 이르면 그 전과는 다른 어떠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난다. 그것은 이때의 것으로 편년되는

25) 漢郡縣으로부터 臣智는 邑君의 칭호를, 그 다음은 邑長의 칭호와 印綬를 받았는데 이들이 결국 분화의 단초가 되었을 것이지만 아직 그 자체를 지배계급의 분화로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

有肩銅斧나 靑銅竿頭飾과 같은 청동기 유물들이 琴湖江 유역의 西邊洞과 新川洞에서 발견된 데서 알 수가 있다. 지석묘단계에서는 청동기가 거의 출토되지 않고 주로 石器類만 출토된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이들 청동기 유물의 출현은 이제 대구지역에서도 그를 소유할 수 있는 보다 장대한 지배권력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다. 이들 청동기들은 충남이나 전라지역에서 발견된 것들과 동일한 것들이므로 자체에서 제작된 것이 아니라 交易을 통하여 구입된 것으로 생각되기는 하나 지석묘의 주인공들보다는 좀 더 발달된 경제적 기반을 가진 정치세력이 대두해 있었음을 상징한다.²⁶⁾ 그러나 아직 그 양이 미미하므로 지석묘단계의 정치적 수준과 질적 차별성을 운 위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그런데 기원전 1세기경에는 대구지역에 청동기와 鐵器의 流入量이 크게 증가하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 무렵의 것으로 편년되는 細形銅劍을 비롯한 청동기들과 철기들이 新川洞, 飛山洞, 坪里洞, 晩村洞, 斗山洞에서 출토되었다. 이들 지역에서 발견된 대부분의 청동기 유물들은 이 시기에 속하는 것들로서 대구는 경상도 지역에서 慶州와 함께 발달한 청동기가 집중적으로 출토되는 지역이다. 이들 유물들의 구성을 보면 이 지배자집단의 문화계통은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곳에서 발견되는 蓋弓帽, 小銅鐸, 立形金具, 鐵製銜 등과 같은 車馬具類이나 細形銅劍들은 형태상으로 衛氏朝鮮系統의 것들이다.²⁷⁾ 이처럼 이 단계 대구지역 청동기 철기 유물들은 위씨조선계통의 영향을 강하게 반영하면서 동시에 앞선 문화단계의 요소도 적지않게 내포하고 있다. 예컨대 新川洞에서 발견된 靑銅竿頭飾과 坪里洞에서 출토된 圓形銅具는 세부적인 면에서는 서로 계통을 달리하는 것이나 儀式用具라는 면에서 공통적으로 충청 전라지역 청동기문화와 맥을 같이하는 것들이다. 그리고 飛山洞에서 출토된 虎形帶鉤나 대구지역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하는 觸角式 劍把頭飾은 北方系들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이전 단계의 대구지역 지배집단의 문화기반을 암시하는 것인 지 또는 주변지역 세력집단과의 다양한 교역관계에 기인한 것인 지는 아직 분명하지가 않다.

이처럼 기원전 1세기 경에는 대구지역에도 지석묘 축조단계와는 다른 새로운 지배세력이 형성되고 있었으며 지배집단의 구성에도 어떤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당시 대구분지 지역에는 晩村洞 琴湖江邊 구릉, 新川洞 구릉, 臥龍山 기슭의 坪里洞, 飛山洞 그리고 斗山洞 구릉지대를 중심으로 각기 풍부한 청동기와 철기를 소유하는 정치집단들이

26) 李賢惠, 앞의 책, pp. 76~77.

27) 李賢惠, 위의 책, pp. 77~78.

존재하고 있었다.²⁸⁾ 지배자 개인이 副葬하는 청동기나 철기 양의 현저한 증가는 지배권력 강화와 지배기반의 상대적인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후 어느 시기에는 정치적인 통합과정이 진전되면서 이들 단위집단들 간에도 세력의 격차가 발생하고 주도적인 지배세력이 대두하기 시작하였을 것이다. 그를 반영하는 것은 이 시기에 존재한 土城의 존재이다.

대구지역의 토성으로는 鳳德洞의 龍頭山, 금호강변의 檢丹, 達城洞의 達城公園 등이 있다. 이들 토성들은 인접한 지역의 고분군들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이라 한다.²⁹⁾ 이를테면 龍頭山土城은 大明洞古墳群, 達城은 飛山洞古墳群, 檢丹土城은 伏賢洞古墳群과 관련된다.³⁰⁾ 이 시기에 이르러 유물의 양이나 내용으로 보아 아마도 와룡산 기슭의 비산동 평리동 일대를 근거지로 하는 세력집단들이 대구지역의 읍락국가를 성립시키는 주체였을 것이다.³¹⁾ 약간 뒤늦은 시기이기는 하지만 대구분지의 중심을 이루는 비산동 내당동 평리동 일대에 남아 있는 石室墓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그 규모나 부장유물이 보다 풍부한 것으로 보아 대구분지의 정치적 통합을 이루어내는 주도세력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치적인 통합이 완성되어 읍락국가가 이루어진 시기는 분명하게는 알 수가 없으나 적어도 《三國志》가 보여주는 3세기 이전이었을 것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장기간에 걸치는 과정에서 읍락국가가 이루어졌을 것이기 때문에 특정한 시기를 잡는 것은 무의미한 일인지도 모른다.

이상과 같이 기원전 1세기 이후부터 기원후 3세기 사이에 대구지역에도 국가형성이 이루어져 읍락국가가 성립되었다고 한다면 이 국가의 명칭은 무엇이며 또한 국읍과 읍락의 구성은 어떠한하였을까.

대구지역에 읍락국가가 성립되어 있었던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그 國名은 분명하지 않다. 각 지역에 있었던 읍락국가의 국명에 대해서는 《三國史記》나 《三國遺事》《三國志》 등에 보이지만 대구와 관련하여서는 뚜렷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논자에 따라 《삼국사기》에 보이는 多伐國을 대구로 비정하기도 하나³²⁾ 그렇게 볼 확실한 근거가 없다. 대구가 독자적인 국가로서의

28) 尹容鎮, 〈大邱의 初期國家 形成過程－考古學的 資料를 중심으로－〉《東洋文化研究》1, 慶北大, 1974; 《韓國史 論文選集》2, 歷史學會, 1976 참조.

29) 尹容鎮, 위의 논문, p. 44.

30) 이들 대구분지의 고분군 분포에 대해서는 大邱直轄市·慶北大學校博物館, 앞의 책, pp. 118~211 참조.

31) 尹容鎮, 앞의 논문. 李賢惠, 앞의 책, p. 79.

32) 《三國史記》권 1, 新羅本紀 婆娑尼師今 29年條에 ‘遣兵伐比只國多伐國草八國并之’라 하여 比只國 草八國과 함께 신라에 병합된 多伐國이라는 國名이 보인다. 李丙燾는 이를 達句伐의 약칭으로 보고 대구로 비정하였다 (《國譯三國史記》, 乙酉文化社, 1977, p. 17). 만일 다벌국이 대구로 비정된다면 이는 대구에 관한 최초의 기록이 될 것이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상을 상실하고 신라에 편입된 이후에 達伐, 達弗 또는 達句伐로 불리워졌음은 다 이는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곧 국명이었던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대구 인근의 慶山에 근거한 정치세력이 押督國 혹은 押梁國으로서 후일에 이르기까지 그 국명이 보이고 그 명칭이 계승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한때 그에 버금가는 정치세력으로까지 성장한 대구의 읍락국가 명칭이 보이지 않는 것은 이상하다. 《삼국지》에 열거되어 있는 진한 변한 24개국 가운데 대구지역에 위치하였던 邑落國家로 冉奚國으로 비정하는 견해가 있으나³³⁾ 이는 종래 흔히 蔚山の 鹽浦나 達城郡 河濱 등에 비정하여 왔던 것으로서 대구로 볼 만한 근거는 달리 없다. 지금까지 대구에 비정될 만한 국명이 없는 데서의 추정일 따름이다.

그런데 또 하나 대구의 국명으로 비정되어온 것은 《日本書紀》에 보이는 任那諸國 가운데 하나로 6세기초에 신라에 병합되는 喙己呑 또는 喙國과 卓淳이다. 탁 또는 탁기탄은 대구나 慶南 昌寧의 靈山 또는 경북 慶山으로 비정되기도 하는데 대체로 경산에 위치하였던 押督國(押梁國)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三國史記》에 의하면 압독국은 일찍이 신라에 의해 병합되었던 만큼 6세기초까지 경산지역이 독자세력으로서 加耶諸國의 하나였는 지는 의심스러운 측면이 있어 최근 이를 靈山이나 密陽 부근으로 비정하는 견해가 제기되어 있다.³⁴⁾

卓淳을 대구로 비정하는 견해는 일본학계에서 거의 통설이 되다시피하여 왔으며 우리 학계에서도 이를 널리 받아들여 왔다. 물론 이를 경남 咸安郡의 漆原, 또는 경남 昌原으로 비정하는 견해도 있었지만 대구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³⁵⁾ 탁순이라는 국명이 《일본서기》에 처음 보이는 것은 神功紀 49年條(369)로, 新羅征伐을 위한 병력이 모였다는 곳이 바로 이곳이었다. 이 때 신라를 복속시킴과 함께 比自休, 南加羅, 喙, 安羅, 多羅, 卓淳, 加羅 등 소위 加羅 7國도 평정되었다고 한다.³⁶⁾ 물론 이를 우리 학계에서는 전혀 사실로서 받아들이고 있지 않거니와 여하튼 이로 보아 탁순은 가야 제세력 가운데 유력한 세력의 하나였던 것은 분명하다. 이후 《일본서기》에서 탁순에 관한 기록은 보이지 않다가 6세기초에 이르러 喙己呑, 南加羅(金海의 金官加耶)와 함께 530년대 전후하여 신라에 의해 병합된 것으로 되어 있다. 521년의 것으로 추정되는 梁職貢圖 百濟國使臣圖經에는 百濟의 곁에 있는 小

33) 千寬宇, 〈辰·弁韓 諸國의 位置 試論〉《白山學報》20, 1976; 《加耶史研究》, 一潮閣, 1991, pp. 95~96.

34) 金泰植, 〈加耶諸國聯盟의 成立과 變遷〉, 서울大 博士學位論文, 1992, pp. 198~199.

35) 卓淳의 위치 비정에 대한 여러 견해들에 대해서는 金泰植, 위의 논문, p. 186 참조.

36) 《日本書紀》권 9, 神功紀 49年條.

國으로서 叛波, 多羅, 前羅, 斯羅 등과 함께 卓이 보이는 바 이는 바로 卓淳으로 이해되고 있다.³⁷⁾

그렇다면 卓淳은 6세기초까지 독립된 국가로 존속하였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삼국사기》에 의하면 沾解尼師今 15年(261)에 達伐城을 축조하고 奈麻 克宗을 그 城主로 삼았다고 하는 바³⁸⁾ 이 達伐城은 일반적으로 대구로 비정되고 있다. 이에 따른다면 적어도 대구지역은 261년 이전에 신라에 편입된 셈이 된다. 물론 이 기록의 연대를 그대로 따르기에는 문제가 있지만 적어도 대구지역이 일찍이 신라에 편입되었던 것만은 틀림없다. 그를 방증하여 주는 것은 바로 대구에 이웃한 경산지역의 동향이다.

경산의 압독국이 婆娑尼師今 23年(102)에 신라에 투항하였고³⁹⁾, 逸聖尼師今 13年(146)에는 반란을 일으켰다가 南部지방으로 徙民을 당하였다는 것이다.⁴⁰⁾ 물론 이 연대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압독국이 보다 일찍이 신라에 의해 병합되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따라서 대구나 경산에 위치한 세력이 6세기초에 이르기까지 독립된 가야세력의 하나로 존속하였다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대구지역은 기원 전후부터 경주와 유사한 문화적인 기반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⁴¹⁾ 4, 5세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土器나 金銅冠, 冠帽類등의 유물들이 신라계통의 것이라고 한다.⁴²⁾ 게다가 대구지역의 5세기대 대표적인 묘제인 堅穴式石槨들도 외형적인 면만을 고려한다면 加耶系이지만 그러나 가야의 전형적인 수혈식석곽들은 細長形인데 비하여 이들은 長方形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고 한다.⁴³⁾

요컨대 이상과 같이 문헌상으로는 고고학적으로 《일본서기》에 보이는 卓淳을 대구로 비정하여 6초에 이르기까지 대구가 독자적인 정치세력으로서 가야 제세력의 하나였다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⁴⁴⁾ 그렇다면 대구를 기반으로 하는 읍락국가의 국명은 여전히 문제가 된다고 하겠다.

37) 李弘植, 〈梁職貢圖論考－특히 百濟國使臣圖經을 중심으로－〉《高大60周年紀念論文集 人文科學篇》, 1965; 《韓國古代史의 研究》, 新丘文化社, 1971 참조.

38) 《三國史記》권 2, 新羅本紀 沾解尼師今 15年條.

39) 《三國史記》권 1, 新羅本紀 婆娑尼師今 23年條.

40) 《三國史記》권 1, 新羅本紀 逸聖尼死今 13年條.

41) 李賢惠, 앞의 책, pp. 75~79.

42) 金泰植, 앞의 논문, pp. 191~192.

43) 金鍾徹, 〈北部地域 加耶文化의 考古學的 考察－高靈·星州·大邱를 중심으로－〉《韓國古代史研究》1, 1988, pp. 236~250.

44) 근자에는 卓淳을 문헌과 고고학적 자료를 근거로 대구로 보는 견해를 비판하고 昌原으로 비정하는 유력한 견해가 제기되었다(金泰植, 앞의 논문, pp. 184~199).

고고학적인 유적 유물을 통하여 볼 때 5세기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기반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대구지역 정치세력의 국명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잘 알 수가 없다. 물론 기록상의 누락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대구와 가까운 경산의 압독국을 비롯하여 경주 인근의 骨伐國(永川), 伊西國(淸道)과 대구에 비하여 경주로부터 훨씬 멀리 떨어진 召文國(義城), 甘文國(金陵), 沙伐國(尚州) 등에 대한 기록은 남아 있는데 왜 하필이면 대구지역만 보이지 않을까를 생각하면 단순히 기록의 누락으로만 돌리기 어렵다. 따라서 달리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다.

경주에 위치한 斯盧國을 중심으로 초기기록이 서술된 것으로 여겨지는 《三國史記》나 《三國遺事》에 대구지방과 관련되는 국명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구에 위치하였던 읍락국가들은 일단 사로국에 의해서 직접 복속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생각하여 볼 수가 있다. 지금까지 진한지역의 정치적인 통합과정을 검토할 때 대체적으로 경주에 위치한 斯盧國 중심으로만 생각하여 온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사로국 중심으로 정치적인 통합운동이 진행되었을 시기에는 辰韓 지역의 또 다른 유력한 세력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에 대한 정치적인 통합운동도 역시 동시에 진행되었을 것임이 틀림없다. 따라서 각 지역에서 진행되어 왔던 정치적 통합운동의 결과 그 최후의 승자가 사로국이었을 따름이다. 가령 骨伐國이나 伊西國 등 경주와 至近거리에 있는 정치세력은 초기부터 사로국과 대립하였을 것이나 경주로부터 멀리 떨어진 召文國이나 沙伐國 甘文國 등은 먼저 그 주변세력을 통합한 일차적인 승자였을 것이며 결국에는 사로국에 의해 통합되었던 것이다. 沙伐國 등의 주변에도 그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나 유력한 邑落國家가 존재하였을 것이고 이들이 일단계에서 사벌국에 의해 복속되었기 때문에 국명이 보이지 않는 것이라 하겠다. 예컨대 안동지역의 古陀郡이나 善山지역의 一善郡 경우 초기부터 신라 중앙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던 지역이었고 또한 현재 이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고분을 통하여 보면 유력한 정치세력이 존재하였을 것임이 분명하나 그 지역에 대한 국명의 기록이 전혀 남아 있지 않는 것은 이 지역들이 일단계에서 인근의 유력세력에게 먼저 복속되고 난 다음에 사로국에 편입되었을 것이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이처럼 사로국에 직접 복속되지 않았을 경우 그 국명이나 복속과정에 대해서는 기록에 남지 않았을 것임이 분명하다. 이는 초기의 모든 기록이 사로국 중심으로만 정리되었던 데서 오는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이상과 같이 이해하면 대구에 위치한 읍락국가에 대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로 사로국에 직접 복속된 것이 아니라 다른 주변의 유력한 세력에 의해 일차적으로 복속

되고 난 그 다음 단계에 사로국에 편입되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그렇다면 진한지역에 정치적인 통합운동이 일어났을 때 대구지역과 대립하였고 결국 이를 복속시킨 세력은 어디였을까. 地理的인 위치나 遺蹟 遺物의 분포로 보아 경산지역을 빼어 놓고 달리 생각하여 볼 여지가 없다.

경산과 대구지역은 5세기대의 고분구조나 土器등의 출토유물에서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기는 하나 慶州系 양식을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구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유사성을 띠고 있다.⁴⁵⁾ 그런 의미에서 5, 6세기대 이 지역의 동향을 고고학적으로 접근하는데 대구와 경산을 묶어서 파악하는 것도 일견 유력한 하나의 방법이라 하겠다.⁴⁶⁾ 그리고 양자 사이에 정치적인 통합이 진전되어 어느 시기에는 하나로 쉽게 통합되었을 가능성은 이들 사이에는 거리도 가까울 뿐만 아니라 또한 정치적인 통합을 방해할 만한 자연적인 지형 지물이 거의 없다는 사실에서 찾아진다. 대구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던 정치세력과 경산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던 정치세력사이에 어느 시기에 이르게 되면 영역을 둘러싼 싸움이 불가피하였을 것이다. 5세기대를 기준으로 한다면 양 세력의 고분규모가 유사한 것으로 분류되는⁴⁷⁾ 경산지역과 대구지역의 고분분포나 출토되는 유물의 質量を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은 경산지역의 우세를 시사한다. 그리고 문헌기록에 경산지역의 읍락국가 동향은 뚜렷하게 보이는 반면 대구에 대해서는 찾아볼 수 없다는 점도 양자의 대립에서 경산세력이 우위에 있었을 것임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요컨대 대구의 邑落國家는 경주의 斯盧國에 통합되기에 앞서 먼저 慶山의 押督國에 복속되는 과정을 거쳤고 다시 압독국이 사로국에 복속되면서 2차적으로 신라에 편입된 것이며 그 까닭으로 대구의 읍락국가 명칭이 남지 않게 된 것이라 생각된다. 그렇다고 대구지역 읍락국가의 발전 정도가 압독국에 비하여 현격한 차이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복속 후 대구에 達伐城을 축조한 것을 보면 일찍부터 이 지역이 정치적으로 상당히 중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그 전 단계에서도 이 지역의 비중이 그만큼 높았기 때문이라 하겠다.

대구가 하나의 邑落國家를 형성하였다면 앞서 언급하였듯이 기본적으로 國邑과 邑落을 갖는 구조로 되어 있었을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면 대구의 읍락국가의 구조는 과연 실제로 어떠하였을까. 이를 밝힐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는 없지만 신라에 의해서 통합된 읍락국가는 기

45) 金龍星, 〈慶山·大邱地域 三國時代 古墳의 階層化와 地域集團〉《嶺南考古學》6, 1989, pp. 38~40.

46) 金龍星, 위의 논문 참조.

47) 金龍星, 위의 논문, pp. 40~42.

본적으로 郡으로 편제된다는 주장을⁴⁸⁾ 고려하면 다음의 사료는 그를 생각하는데 참고가 된다.

壽昌郡(壽一作嘉) 本喟火郡 景德王改名 今壽城郡 領縣四 大丘縣 本達句火縣 景德王改名 今因之 八里縣 本八居里縣(一云北耽長里一云仁里) 景德王改名 今八居縣 河濱縣 本多斯只縣(一云沓只) 景德王改名 今因之 花園縣 本舌火縣 景德王改名 今因之(《三國史記》 권 34, 地理志 尚州條)

이 기록을 근거로 하면 8세기의 대구지역은 壽昌郡과 그에 領屬된 大丘縣, 八里縣, 河濱縣, 花園縣의 4領縣 등 도합 다섯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壽昌郡은 8세기 당시 대구지역의 郡治가 위치해 있던 지역으로서 현재 新川의 上流지역에 해당한다. 大丘縣은 新川의 中下流 지역이며 오늘날 대구의 중심부 지역이다. 八里縣은 원래 漆谷郡 漆谷面이었으나 지금은 대구로 편입된 지역이다. 河濱縣과 花園縣은 각각 達城郡에 속하여 있다. 이들 지역에는 모두 5, 6세기의 古墳群이 분포되어 있다. 壽昌郡의 경우 斗山洞古墳群, 大丘縣의 경우에는 內唐洞 飛山洞 古墳群을 위시하여 그 주변에 大明洞古墳群, 八里縣에는 鳩岩洞古墳群이, 河濱縣에는 竹谷洞 鳳村洞古墳群이, 花園縣에는 城山洞, 舌火洞古墳群이 존재하여 있고 각각 주위에는 山城들이 축조되어 있어⁴⁹⁾ 이들이 당시 유력한 정치적인 중심지였음을 증명하여 준다.

그렇다면 원래 대구의 邑落國家의 범위는 어떠하였을까. 흔히 이 기록에 보이는 壽昌郡과 大丘縣을 포함하는 지역만이 대구에 위치한 읍락국가의 영역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였으나 이는 잘못이다.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하나의 邑落國家가 郡으로 편제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다섯 개의 郡縣이 하나의 읍락국가를 이루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들 郡縣은 7세기 郡縣制가 도입되기 이전까지는 모두 동등한 城村으로서 본질적인 차이는 없었으며 어떠한 지방관이 파견되느냐에 따라 郡이나 城村으로 구별되었을 따름이다. 5, 6세기까지는 이들 5개 지역은 모두 城村으로 불리웠다. 그를 방증하는 것은 《新增東國輿地勝覽》 大丘都護府 屬縣條에는 壽城縣을 본래 喟火郡이라고도 하고 일명 上村昌郡이라고도 하였다는데⁵⁰⁾ 이 上村昌의 上村은 壽昌郡이 원래 上村에 근원하였음을 의미한다.

48) 木村誠, 〈新羅郡縣制의 確立過程と村主制〉《朝鮮史研究會論文集》13, 1976, pp. 13~14. 李宇泰, 〈新羅의 村과 村主〉《韓國史論》7, 1981, pp. 100~101. 朱甫墩, 〈新羅 中古期の 郡司와 村司〉《韓國古代史研究》1, 1988, pp. 41~44.

49) 金龍星, 앞의 논문, p. 37.

50) 《新增東國輿地勝覽》 권 26, 大丘都護府 屬縣條의 ‘壽城縣’ 항 挾注에 보이는 관련 기사는 다음과 같다. 在府南十二里 本喟火郡 一云上村昌郡 新羅景德王改壽昌郡 一作嘉昌 高麗初改今名(下略).

통일기에 들어와 신라가 지방지배체제를 정비하면서 郡縣의 領屬관계에 어떠한 변동이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만일 영속관계에 변화가 없었다고 한다면 대구의 읍락국가는 일단 이들 다섯 지역으로 구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순리이겠다. 그 중의 하나는 읍락국가의 國邑이었으며 나머지는 邑落이었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어느 지역이 국읍이었겠는가 문제가 된다.

얼핏 보면 達句伐, 혹은 達伐로 불리웠던 大丘縣이 國邑이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8세기 당시 郡治는 壽昌이었다. 그러나 대구가 대체로 達句伐이라고 불리웠던 점이나 또 달구벌이 7세기 후반 일시적으로 신라 王都의 대상지였던 점이나 현재 고분의 규모나 수량 등 고고학적인 면으로 미루어 보아도 大丘縣이 원래 國邑이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수창군이 위치한 신천의 상류지역은 고분의 수량이나 그 규모가 지극히 빈약하여 위의 다섯 지역 가운데 가장 보잘 것 없었다.⁵¹⁾ 대구현은 비록 외형적이기는 하지만 그 고분의 분포를 보면 비산동 내당동 평리동을 중심으로 대명동 복현동 고분군을 아우르고 있었다. 따라서 대구현을 원래의 국읍이 위치하였던 곳으로 보아 큰 잘못이 없을 듯하다. 이처럼 원래는 국읍이 대구현으로서 그곳에 郡治가 두어졌을 것이나 이후 어느 시기에 壽昌으로 郡治가 변동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 시점은 달구벌로의 천도문제와 관련되지 않을까 싶다.

7세기 후반 통일을 달성한 신라는 高句麗 百濟民을 포섭하기 위한 통일정책을 추진하였다. 고구려 백제 신라의 영토를 각각 3州로 균등하게 하여 전영토를 9州로 나누었다거나 중앙군을 9誓幢으로 하여 고구려 백제민을 의도적으로 배치한 점, 그리고 고구려 백제민을 대상으로 본국에서의 官等에 준하여 신라의 관등을 지급한 것 등은 모두 被服屬民을 新羅民으로 포섭해 내기 위한 통일정책의 일환이었다. 이러한 토대 위에 신라는 一統三韓意識 즉 삼국을 통합하였다는 의식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비록 고구려의 영토를 대부분 상실한 불완전한 통합이었지만 신라인 스스로는 이러한 정책을 통하여 비로소 삼국을 통합하였다는 의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통일정책은 대체적으로 神文王 9년(689)에 이르러 거의 마무리되었던 듯하다. 687년에는 文武官僚들을 대상으로 職田인 官僚田을 지급하였으며⁵²⁾ 689년에는 内外官이 가지고 있던 祿邑을 혁파하였다.⁵³⁾ 이로써 신문왕대에 추진되어 왔던 통일과업은 완성을 보게 된 것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토대 위에 신문왕은

51) 大邱直轄市·慶北大博物館, 앞의 책 및 金龍星, 앞의 논문 참조.

52) 《三國史記》권 8, 新羅本紀 神文王 7年條.

53) 위의 책, 新羅本紀 神文王 9年條.

왕도를 達句伐로 천도하려 하였으나 실패로 끝났다. 천도가 실패로 끝났던 것은 아마도 귀족들의 반대가 심하였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다.⁵⁴⁾ 신문왕의 통일정책을 지원하고 있던 귀족들조차 그들의 근거지였던 경주를 떠나는데 반대를 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 때 천도의 대상이 壽昌이 아니라 達句伐이었던 것으로 보면 역시 郡의 중심은 大丘였을 듯하다. 그런데 천도의 실패가 기록에 남게 된 것은 단순히 계획의 단계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한 官府의 설치나 道路建設, 築城事業, 佛寺建立 등의 기초적인 작업들이 추진되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다. 게다가 통일국가 왕도로서의 면모를 과시하기 위하여 피복속민들에 대한 徙民도 상당히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달구벌로의 천도는 계획의 단계에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마무리 단계에서 실패하였고 그 까닭으로 그것이 기록으로 남게 된 것이라 생각된다. 그럴 가능성을 방증하여 주는 것은 5小京의 설치이다.

小京은 6세기초부터 설치되기 시작하였는데 아마 그 설치목적은 통일 이전과 통일 이후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던 듯하다. 소경의 숫자가 다섯에 그친 것은 고구려나 백제의 영향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9州에 비해 보면 어딘지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이 든다. 그런데 소경 가운데 옛 고구려와 백제의 영토에 각각 두 개씩 설치하고 가야 영토(신라)에는 하나밖에 설치하지 않아 9州와는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마도 신라영토에 1개 더 설치하지 않았던 것은 이미 이때에 달구벌로의 천도를 기획하고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결국 경상북도의 중심지로서 달구벌이 천도의 대상으로 선정된 것이며 그 까닭으로 이 지역에는 소경을 설치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 아닐까 싶다. 천도 후 경주는 別都로서 운영하려 하였을 지 모르겠다.

여하튼 달구벌로의 천도는 689년에 계획된 것이 아니라 그 자체 전국을 9州 5小京으로 편제하던 초기단계에서 계획된 것이며 따라서 신문왕의 천도는 단지 계획이 아니라 시행 그 자체였던 것이다. 그를 위해 그 동안 소경의 정비와 함께 새로운 왕도로서 달구벌을 정비하여 왔던 것이라 하겠다. 신문왕이 천도에 실패한 후 여기에 기반을 가진 세력들을 그대로 두었을 리가 없는 것이다. 아마도 달구벌의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천도 실패 후 그 규모를 축소하는 작업이 불가피하였을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이 때에 정치적인 중심지로서의 달구벌을 약화시킬 목적으로 정치적인 비중이 가장 약하였던 壽昌을 郡治로

54) 신문왕의 정책에 찬성하였던 귀족들조차 천도에 반대하였던 것은 바로 같은 해에 행해진 녹읍의 혁파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와 같은 귀족들의 경제적인 기반에 대한 제약은 신문왕의 정책을 지지한 귀족들에게조차 반발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고 이들이 결국 천도를 반대하였던 것이라 하겠다.

삼고 大丘縣의 세력을 의도적으로 약화시켰던 것이 아닐까 싶다. 이 까닭으로 7세기 후반 이후 수창이 郡治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대구지역의 읍락국가는 원래 하나의 國邑과 4개의 邑落으로 구성되었으며 국읍은 達句伐이었다. 달구벌은 국읍이었던 만큼 다른 지역에 비하여 고분의 분포나 수에서 나타나듯이 그 규모도 컸을 것이다. 아마도 보다 많은 수의 취락으로 구성되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싶다. 그런데 통일기에 이르러 신라가 왕도의 偏在를 탈피하고 나아가 통일에 걸맞은 지배체제를 구축하면서 왕도의 천도로서 그 大尾를 장식하고자 하여 달구벌을 그 대상지로 삼아 정비하였으나 결국 귀족들의 반대로 실패하고 말았다. 이로 말미암아 달구벌의 정치적인 위상을 약화시킬 필요에서 郡治를 新川의 상류인 上村昌(喟火)에 두었던 것이라 하겠다.

第3節 小國時期的 信仰形態와 大邱地域의 原始信仰

I. 天君의 出現과 祭儀

고대 사회는 처음 祭政一致의 형태를 띠고 있었으나, 정치적 권력의 성장에 따라 마침내 祭祀와 政治는 분리되게 되었다. 그것은 정치적 지배자인 君長과 祭祀長의 칭호가 서로 다르고, 그 말은 바 지역도 달랐던 데서 찾아볼 수 있다. 君長(長帥·渠帥)의 칭호에 대해서는 《三國志》 魏書 東夷傳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馬韓에는] 각 나라마다 長帥가 있어서, 세력이 강대한 사람은 스스로 臣智라 하고, 그 다음은 邑借라 하였다.
[弁辰에는] 각 나라마다 渠帥가 있는데, 세력이 큰 사람은 臣智라 하고, 그 다음에는 險側이 있고, 그 다음에는 樊濊가 있고, 그 다음에는 殺奚가 있고, 그 다음에는 邑借가 있다.

즉 臣智·險側·樊濊·殺奚·邑借 등은 비록 격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삼한 諸小國 君長의 칭호였다고 할 수 있겠다.

祭祀長의 칭호와 祭祀地域에 대해서도 역시 다음과 같은 《삼국지》 위서 동이전의 기사에서 살필 수 있다.

[馬韓에서는] 鬼神을 믿기 때문에 國邑에 각각 한 사람씩을 세워서 天神의 제사를 주관케 하였는데, 이를

天君이라 부른다. 또 여러 나라에는 각각 別邑이 있으니 그것을 蘇塗라 부른다. 그곳에 큰 나무(大木)를 세우고 방울과 북을 메달아 놓고 鬼神을 섬긴다. [다른 지역에서] 그 지역으로 도망은 사람은 누구든지 돌려보내지 아니하므로 도적질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다. 그들이 蘇塗를 세운 뜻은 浮屠와 같으나 행하는 바의 善惡은 차이가 있다.

큰 제사장을 天君이라 하였고, 각 國邑마다 한 명씩 있었다는 것이다. 또 제사지역은 蘇塗라 하여 각국의 특별지역에 설치하였다고 한다. 여기서는 마한의 사실로 되어 있지만, 이는 삼한 전체에 공통된 사실일 것이며⁵⁵⁾ 天君은 古朝鮮의 檀君과 같은 존재로 보아 무방할 것이다.⁵⁶⁾ 蘇塗는 처음 樹木崇拜 사상에서 제사지역에 세우는 大木(솿대) 그 자체를 의미하였으나, 뒤에 天神이 내려오는 階段 및 그 사는 곳, 내지는 神聖地域을 가리키는 것으로 점차 개념이 확대·변천되어 갔다고 한다.⁵⁷⁾

蘇塗는 달리 別邑이라고도 하였는데, 이곳에는 大木을 세우고 방울과 북을 달았다고 한다. 大木은 檀君神話에 보이는 神檀樹와 같은 것으로 天上의 존재가 地上으로 내려오는 下降路인 동시에 인간의 소원을 天上으로 전달해 주는 기능을 갖고 있었으며,⁵⁸⁾ 방울과 북은 神을 맞이하고 즐겁게 하는 神樂의 도구로 天君의 祭儀(굿)에 사용되었을 것이다.⁵⁹⁾ 또한 別邑은 일종의 신성불가침의 靈場으로 여겨져서 죄인이 도망하여 이곳에 숨더라도 잡아가지 못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서양의 遁避所 *Asile, Asylum*와 같은 것으로 고대 사회의 공통된 法俗이라 여겨진다.⁶⁰⁾ 또한 소도 설립의 의의가 마치 浮屠와 유사하나 행하는 바의 선악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우상숭배라든가 신성관념 내지 제사의식이 불교와 비슷한 점이 있으나 실제 행동과 생활방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었음을 말해준다.⁶¹⁾

三韓 諸小國의 이같은 祭政 분리 현상은 농업의 발달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 大田 槐亭洞 출토의 農耕文靑銅器나 金堤의 碧骨池, 尙州의 恭檢池, 義城의 大提池, 提川의 義林池,

55) 李丙燾, 〈三韓의 社會相〉《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1976, p. 281.

56) 檀君은 몽고어에서 天과 巫를 뜻하는 *tengri*와 서로 통하고 天君과 같은 것이라 한다. 崔南善, 〈不感文化論〉《六堂崔南善全集》2, 玄岩社, 1973, p. 60.

57) 李丙燾, 〈三韓의 社會相〉, 앞의 책, p. 281. 씨는 蘇塗는 ‘高臺’ ‘高墟’의 뜻인 솿터의 音譯이라 하고, 이는 祭壇이 山上·山麓 혹은 高臺 위에 설치된 까닭이라 하였다.

58) 徐永大, 〈佛教受容과 土着宗教〉《韓國古代 神觀念의 社會的 意味》, 서울대 문학박사학위논문, 1991, pp. 271~273.

59) 李丙燾, 〈三韓의 社會相〉, 위의 책, p. 281.

60) 위와 같음.

61) 李丙燾, 〈三韓의 社會相〉, 위의 책, p. 282.

密陽의 守山堤 등의 존재에서 알 수 있듯이,⁶²⁾ 농업이 경제의 기간산업이 되어가면서 이른바 人文神인 農業神이 太陽神과 더불어 비중이 커지게 되었다. 사람들은 이들을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생활을 지켜주는 은혜의 神으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이에 따라 주술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감소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이 직업적인 전문 제사장인 天君의 출현으로 종래의 原始信仰(巫覡信仰)은 점차 변화되지 않을 수 없었다. 즉 자신의 힘으로 神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한 呪術師로서의 임무보다도 神에게 기원하는 祭祀長으로서의 임무가 강해졌고, 원초적인 주술에서 祭祀儀禮로 형태가 바뀌어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임무는 祖上과 天神地祇에 대한 제사와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君長이 맡을 필요는 없었다. 이렇게 해서 삼한 제소국의 제사와 정치는 분리되었고, 이는 대 구지역도 예외는 아니었다고 하겠다.

종교적 祭儀 가운데 가장 큰 것은 파종기와 추수기에 행하는 季節祭였다. 이의 모습은 《삼국지》 위서 동이전의 다음 기록에서 살필 수 있다.

[馬韓에서는] 해마다 5월이면 씨뿌리기를 마치고 鬼神에게 祭祀를 지낸다. 때를 지어 모여서 노래와 춤을 즐기며 술마시고 노는데, 밤낮을 가리지 않는다. 그들의 춤은 수십 명이 모두 일어나서 뒤를 따라가며 땅을 밟고 구부렸다 치켜들었다 하면서 손과 발로 장단을 맞추는데, 그 가락과 율동은 [중국의] 鐸舞와 흡사하다. 10월에 농사를 마치고나서도 그렇게 한다.

[弁辰의] 풍습은 노래하고 춤추며 술마시기를 좋아한다. 비파(瑟)가 있는데 그 모양은 筑과 같고 연주하는 音曲도 있다.

씨뿌리기가 끝난 5월에는 神에게 祭祀하고 가무와 음주로 밤낮으로 쉬지않고 놀았으며, 추수가 끝난 10월에도 역시 그러하였다는 것이다. 이때에는 수십 명씩 함께 어울려 춤을 추고, 손발을 박자에 맞추었다고 한다. 이는 木鐸(木舌鐸)을 들고 무용하는 중국의 鐸舞와 비슷하였고, 특히 弁辰에서는 筑을 닮은 비파(瑟)란 악기까지 사용하였다고 한다. 비파는 오늘날 전하는 가야금의 가장 오랜 古形으로, 또 그들의 무용은 오늘날 농촌에서 유행하고 있는 農樂歌舞의 始原形으로 각각 추측되고 있다.⁶³⁾

5월과 10월에 열리는 계절제는 전자가 풍년을 기원하는 祈豐祭로서의 의미를 가졌다면, 후자는 秋收感謝祭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10월제는 삼한뿐만이 아니라 高句麗·夫餘·東

62) 이들 堤池는 모두 삼한 이래의 유적으로 추정된다. 李丙燾, 〈三韓의 社會相〉, 앞의 책, pp. 285~286.

63) 李丙燾, 〈三韓의 社會相〉, 위의 책, p. 289.

濊 등에서도 행해졌는데, 東盟·迎鼓·舞天 등이 그것이다.⁶⁴⁾ 고구려나 부여의 경우로 미루어 이때에는 군장(국왕)의 親祭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도 있겠다. 이밖에도 봄철에 씨족원들이 강가에 모여 씨족장의 주재 아래 집단적으로 禊飮하는 의례가 있었다. 이는 豫祝祭의 성격을 띤 것으로 이때 그들의 부족장을 선거하지 않았는가 한다.⁶⁵⁾ 이상과 같은 종교적 제의가 삼한 소국에서 행하여지고, 또 상하의 구별없이 이를 즐길 수 있었던 것은, 아직 종교적인 면에 있어서 씨족공동체의 전통이 계승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삼한에서는 또한 靈魂의 불멸을 믿고 葬禮를 후하게 하였다. 그들이 厚葬을 한 것은 죽음을 영원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계로 이어지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비록 삼한의 사례는 아니지만, 夫餘에서 停喪 기간이 보통 5개월에 이르렀고, 여름에는 얼음을 써서 시체의 부패를 막았다 함은 그들의 신앙의 일면을 말해줄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많은 副葬을 하였고, 심지어 殉葬까지 하였는데, 高靈 등지의 가야 고분에서 순장의 흔적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⁶⁶⁾ 삼한에서도 순장이 행해졌을 가능성은 크다고 하겠다.

또한 삼한에서는 새나 말이 死者의 영혼을 天界로 운반한다는 신앙에서 새의 깃이나 말을 그린 항아리, 혹은 말 모양의 토기를 副葬하기도 하였다. 《삼국지》위서 동이전에

[弁辰에서는] 큰 새의 깃털을 사용하여 장사를 지내는데, 그것은 죽은 사람이 새처럼 날아다니라는 뜻이다.

[馬韓에서는] 그들의 장례에 棺은 있으나 槨은 사용하지 않는다. 소나 말을 탈줄 모르기 때문에 소나 말은 모두 장례용으로 써버린다.

라 한 것은 새와 말이 天界와 現世를 연락해 준다고 믿고 있었음을 나타낸다고 하겠다.⁶⁷⁾ 삼국시대의 冠帽·冠飾에 새의 모양이 흔히 쓰이고 있는 것은 이러한 신앙의 유풍으로 생각되지만, 신라 赫居世說話의 白馬는 곧 하늘을 나는 天馬로 생각되었으며, 경주 天馬塚에서 출토된 다래(障泥) 위의 白馬 그림, 경주 鷄林路 고분에서 나온 항아리의 말 그림, 혹은 낙동강 하류 연안지방에서 발견되고 있는 馬形土器 등도 모두 이러한 신앙을 대변한다고 하겠다. 경주 金

64) 다만 부여의 迎鼓는 殷曆 正月 곧 12월에 행해졌는데, 이는 원시 수렵사회의 전통 때문이라 하겠다. 李基白, 《韓國史新論》改正版, 一潮閣, 1976, p. 48.

65) 李基東, 〈城邑國家와 聯盟王國〉《韓國史講座》古代篇, 一潮閣, 1982, p. 118.

66) 尹容鎮·金鍾徹, 《大伽倻古墳發掘調査報告書》, 高靈郡, 1979, pp. 105~107. pp. 274~275. 신라에서는 지증왕 3년(502)에 순장이 금지되었다.

67) 마한에서 소나 말을 탈줄 몰랐다는 것은 牛馬를 승마용보다 운반용으로 주로 사용한 데서 생긴 오해일 것이다. 李丙燾, 〈三韓의 社會相〉, 앞의 책, p. 292.

鈴塚에서 출토된 騎馬形土器가 말탄 사람의 생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바로 영혼의 세계로 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라든지, 역시 같은 무덤에서 나온 舟形土器가 冥府로 건너가는 渡船을 표시한 듯하다는 해석은⁶⁸⁾ 이같은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 무덤 속에 쌀을 넣어두는 신앙도 있었는데, 이는 경주 飾履塚이나 皇吾洞 제16호분에서 탄화된 벼의 낱알이 나오는 것으로써 알 수가 있다.

삼한시대의 祭儀에는 이상 설명한 것 외에 占卜의 의식도 있었다. 경남 창원군 熊川貝塚에서 6점의 卜骨이 출토된 사실은 이를 나타낸다고 하겠다. 또한 牛蹄占法도 유행했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먼저 부여의 사례를 《삼국지》 위서 동이전 부여조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쟁을 하게 되면 또한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소를 잡아서 그 발굽을 보아 길흉을 점친다. 발굽이 벌어지면 흉하고 합하면 길하다고 생각한다.

즉 전쟁이 있을 때 祭儀를 행하고 소를 죽여 길흉을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占卜은 殷의 甲骨占法과도 유사한 것인데, 신라에서도 이같은 祭儀가 행해진 사실이 최근 확인되었다. 근자 경북 울진 봉평리에서 발견된 居伐牟羅碑(법흥왕 11년 건립, 524)와 이보다 시기가 앞서 건립된 경북 영일 냉수리 발견 節居利碑에 나타난 殺牛儀式은 곧 이를 말한다고 하겠다. 이로 보아 牛蹄占法은 한국 고대의 보편적인 신앙으로서 삼한에서도 행해졌으리라 생각된다.

이상 삼한시대 소국의 신앙형태를 天君의 출현과 祭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대구지역만이 가진 독특한 신앙을 추출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대구가 삼한 諸小國의 하나였다는 점에서 대구지역의 원시신앙은 삼한의 그것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고 하겠다.

II. 山岳信仰과 山神崇拜

小國時期的 공동체적인 질서는 혈연적인 관계만이 아니라 地緣적인 요소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고구려에서 社稷에 대해 제사한 것은 그 예의 하나라 하겠지만, 이 밖에도 각 나라마다 촌락공동체를 단위로 하여 산악신앙 내지 산신숭배사상이 유행한 사실 또한 구체적 예의 하나가 될 것이다. 가령 서기 85년에 세워진 평안남도 龍岡 소재 粘蟬縣神祠碑가 山神을

68) 金元龍, 《韓國 古美術의 理解》, 서울대출판부, 1980, p. 219.; 李殷昌, 〈馬刻文土器와 馬形土器〉《考古美術》 138·139 합, 1978, pp. 242~259 및 〈新羅 馬刻文土製品과 伽耶 鎧馬武人像土器—古代 韓國人의 騎馬風習과 神馬思想과 관련하여—〉《新羅伽耶文化》 11, 1980 참조.

제사하기 위한 것이었다든가,⁶⁹⁾ 《삼국지》 위서 동이전 濊 조에

그 나라의 풍속은 山川을 중시하여 산과 내마다 각기 구분이 있고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다. …해마다 10월이면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데, 주야로 술마시며 노래부르고 춤추니 이를 舞天이라 한다. 또 호랑이를 神으로 여겨 제사지낸다.

라 한 사실 등은 이 시기 산악신앙의 유행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그러나 산악신앙 내지 산신숭배사상은 삼한에서 크게 유행하였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이나 《晉書》東夷傳 馬韓 조 등에서, 도처에 그들이 ‘鬼神’ 섬기기를 좋아한다고 하였거니와, 이 ‘鬼神’이란 신앙자에게는 의인화되어 관념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되었을 뿐, 실제로는 山神靈을 가리키는 것이었다.⁷⁰⁾ 이러한 산신숭배는 그 자체 종교적·주술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부락이나 국가의 수호신이 대개 산악을 본거지로 삼고 있다고 믿는 데서 생겨난 것이다. 이러한 전통은 고구려·백제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만 특히 신라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신라에서의 산악신앙을 엿볼 수 있는 자료는 《三國史記》권 32, 雜志 祭祀條를 들 수 있다. 여기에는 “三山五岳已下名山大川 分爲大中小祀”라 한 뒤, 大祀·中祀·小祀의 三祀의 대상으로서의 名山들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였다.

大祀 三山 一奈曆_{習比部} 二骨火_{切也火郡} 三穴禮_{大城郡}
 中祀 五岳 東吐舍山_{大城郡} 南地理山_{青州} 西雞龍山_{熊川郡} 北太伯山_{奈己郡} 中父岳_{一云公山押督郡}
 四鎮 東溫洙_{牙谷郡} 南海_{耽也里一云悉帝推火郡} 西加耶坪_{馬尸山郡} 北熊谷岳_{比烈忽郡}
 四海 東阿等邊_{一云斤鳥只居德山郡} 南兄邊_{山郡} 西未陵邊_{尿山郡} 北非禮山_{悉有郡}
 四瀆 東吐只河_{一云契浦退火郡} 南黃山河_{重良州} 西熊川河_{熊川州} 北漢山河_{漢州}
 俗離岳_{三年山郡} 推心_{火加耶郡} 上助音居_{西林郡} 烏西岳_{結巴郡} 北兄山城_{大城郡} 清海鎮_{助音島}
 小祀 霜岳_{高城郡} 雪岳_{遼城郡} 花岳_{斤平郡} 鉗岳_{七重城} 負兒岳_{北漢山州} 月奈岳_{月奈郡} 武珍岳_{武珍州} 西多山_{伯海郡難知縣}
 月兄山_{奈吐郡沙熟伊縣} 道西城_{萬弩郡} 冬老岳_{進禮郡丹川縣} 竹旨_{及伐山郡} 熊只_{屈自郡熊只縣} 岳髮_{一云髮岳于珍也郡} 于火_{生西良郡于火縣} 三岐_{大城郡} 卉黃_{辛梁}
 高墟_{沙梁} 嘉阿岳_{三年山郡} 波只谷原岳_{阿支縣} 非藥岳_{退火郡} 加林城_{加林縣一本有靈岳山虞風山無加林城} 加良岳_{青州} 西述_{辛梁}

즉 大祀에는 奈曆·骨火·穴禮의 三山이 있고, 中祀에는 東南西北의 4방과 중앙에 위치한 吐舍山·地理山·雞龍山·太伯山·父岳(公山)의 5岳을 비롯하여 四鎮·四海·四瀆 및 標題가 없는

69) 李丙燾, 〈樂浪郡考〉《韓國古代史研究》, 1976, p. 148.

70) 李基東, 〈新羅 花郎徒의 起源에 대한 一考察〉《新羅 骨品制社會와 花郎徒》, 1984, p. 317.

6개소의 山·城·鎭이 있으며, 小祀에는 전국에 걸쳐 霜岳 등 24개소의 山이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들 산악이 숭배된 것은 그 산악의 主宰者가 山神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을 것이지만,⁷¹⁾ 이중 大祀인 三山과 中祀의 五岳은 가장 중요시되었다고 하겠다. 먼저 大祀는 三祀 가운데 가장 으뜸가는 제사로 《三國遺事》 권 1, 紀異 1, 金庾信 조에

우리들은 奈林·穴禮·骨火 등 3곳의 護國之神입니다.

라 한 기사에서 보듯이, 三山の 神인 護國神에 지내는 제사였다. 奈林(奈曆)·骨火·穴禮의 三山은 신라 국가형성기 핵심적 역할을 한 3개 집단(부족국가, 小國)의 시조 誕生地로서, 大祀는 곧 이들 始祖神에 대한 제사였다고 한다.⁷²⁾

五岳은 중국의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신라의 삼국통일 직후에 성립되었다.⁷³⁾ 五岳에는 뒤에 義湘이 傳敎계 했다는 ‘華嚴十刹’이 창건되어 불교의 중심이 되었지만,⁷⁴⁾ 이는 기존 山神의 위치를 神格化된 佛敎의 諸佛이 차지함으로써 고유의 山神崇拜 사상이 변형된 결과였다. 五岳에는 산 신의 존재가 거의 모두 확인되고 있다.

먼저 東岳 吐含山은昔씨의 시조 脫解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삼국유사》에는, 탈해가 동해안에 상륙하여 경주평야로 진출할 때 토함산 위에 올라가서 石塚을 짓고 7일간 머물렀다고 한다. 또 문무왕은 탈해신의 현몽 부탁에 의해 그의 遺骨을 수습하여 塑像을 만들었고, 이를 토함산에 안치하여 國祀를 지냈다고 한다. 이는 토함산이昔씨 세력의 상징으로 신성시되었고, 吐含山神이 脫解였음을 말한다고 하겠다.

南岳 地理山(智異山)은 가야세력을 대표하는 산으로, 山神 老姑를 제사지내는 老姑檀이 남아 있고, ‘화엄10찰’의 하나인 華嚴寺가 창건되었다. 이곳 산신을 모신 聖母祠는 삼국통일 이전은 물론⁷⁵⁾ 삼한시대에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西岳 雞龍山은 백제를 대표하는 산으로, 이 산의 존재는 중국에까지 알려졌다고 한다. ‘화엄10찰’의 하나인 甲寺가 창건된 사실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다.

71) 《舊唐書》 권 199, 新羅傳 “好祭山神” 및 《新唐書》 권 220, 新羅傳 “好祠山神” 참조.

72) 文暉鉉, 〈新羅國形成過程의 研究〉 《新羅史研究》, 慶北大出版部, 1983, pp. 80~83.

73) 李基白, 〈新羅 五岳의 成立과 그 意義〉 《新羅政治社會史研究》, 一潮閣, 1974, p. 205. 씨는 문무왕 말년 혹은 적어도 신문왕대에는 성립되었을 것이라고 하였다.

74) 李基白, 〈新羅 五岳의 成立과 그 意義〉, 앞의 책, pp. 210~214.

75) 위의 논문, p. 209.

北岳 太伯山은 고구려를 대표하는 산으로, 義湘의 ‘화엄10찰’의 중심인 浮石寺가 창건되었다. 《삼국사기》에 逸聖麻立干 5년(138)과 基臨麻立干 3년(300) 각각 왕이 親祭하였다고 한 것으로 보아⁷⁶⁾ 일찍부터 숭배되었으며, 山神에 대한 제사였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中岳인 父岳은⁷⁷⁾ 大邱의 八公山을 말하는 것이다. 中岳의 山神에 대해서는 《삼국유사》 권 4, 義解 5, 心地繼祖 조의 다음 기사가 주목된다.

心地가 簡子를 머리에 이고 팔공산으로 돌아오니 岳神(山神)이 두 仙子를 거느리고 나와 마중하여 산꼭대기로 가는 것이었다. 岳神은 心地를 인도하여 바위 위에 앉히고 그들은 바위 아래 엎드려서 삼가 正戒를 받았다. 心地가 말하되 “이제 땅을 택하여 신성한 簡子を 奉安하려 하는데, 우리들만으로 정할 일이 아니니 三君(山神과 두 仙子)과 함께 높은 데 올라가서 간자를 던져 점을 치자”하고, 神들과 함께 높은 데 올라가 서쪽을 향해 간자를 던지니 간자가 바람에 날려 갔다.

여기서는 山神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내세우지는 않았지만, 이로써 中岳 山神의 존재를 신라인들이 믿고 있었다는 것은 확실히 알 수가 있다. 또한 이곳에는 桐華寺 외에 ‘화엄10찰’의 하나인 美理寺가 창건되기도 하였다.

中岳의 중요성은, 앞서 제시한 《삼국사기》 祭祀 조에 中岳이 오늘날의 慶山인 押督郡에 있다고 하였으므로, 押督國과 관련하여 살필 수 있다. 압독국은 2세기 초 신라에 병합되었지만, 신라가 가야연맹의 기반인 낙동강 지역으로 진출하려 할 때 거쳐야 하는 길목이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중악도 압독국 만큼 일찍 주목되었다고 하겠으며, 압독국과 같은 小國을 대표하는 존재였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⁷⁸⁾ 선덕여왕 때에는 大耶州 등 40여 명이 백제에게 함락되었는데 이때 낙동강 동쪽으로 후퇴한 신라는 押督郡을 근거지로 삼았다. 그리고 통일 뒤 신문왕이 達句伐인 대구로 수도를 옮기려 했다가, 신라 하대 祐徵(뒤의 神武王)이 張保臯의 군대를 이끌고 경주로 쳐들어오자 國王軍이 大邱에서 防禦陳을 폈다는 사실, 또한 신라 말 후삼국시대에 견훤군이 경주로 쳐들어 왔다가 돌아갈 때에 王建의 군대와 팔공산 아래서

76) 여기에 나타난 연대를 신라의 사실로 믿기는 어렵다. 이를 후대에 태백산신앙이 투영되어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측한 견해도 있으나(洪淳昶, 〈新羅의 三山·五岳에 대하여〉《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4, 1983, p.47), 아마 그 지역 소국의 왕이 제사한 것이 신라의 사실로 부회되지 않았는가 한다.

77) 父岳을 公岳의 잘못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文暉鉉, 〈所謂 中獄石峯에 대하여〉《新羅史研究》, p. 224 및 대구직할시·경북대학교, 《八公山》, 1987, p. 27, 〈八公山과 名稱〉

78) 李基白, 〈新羅 五岳의 成立과 그 意義〉, 앞의 책, p. 199.

짜웠다는 사실 등은 대구평야를 굽어보는 중악이 신성시되었음을 말해준다고 하겠다.⁷⁹⁾

요컨대 팔공산을 비롯한 五岳에 모두 山神이 있었고 이들 산악들이 신라 사회에서 중시된 것은, 산악신앙 및 산신숭배사상의 결과이지만, 이러한 현상은 후대에 와서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上古 이래의 遺制였음을 말한다고 하겠다.

III. 藝術活動에 反映된 原始信仰

청동기·철기의 사용과 이에 따른 농업의 발달로 이 시대 사람들은 보다 안정된 생활을 누리면서 활발한 예술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리하여 여러 가지 靑銅製品, 土製品, 岩刻畫 등을 남겼는데, 청동제품과 토제품 등은 대구지역에서도 많이 출토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예술품들은 신석기시대의 전통이 강하게 남아 있어서 종교의식과 밀착된 성격을 띠고 있었다.

청동기 중에는 그 모양이나 장식에서 美的인 감각이 엿보이는 것이 많다. 가령 銅劍의 경우를 보더라도 劍身 그 자체의 변화보다는 劍裝具의 정비에서 그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들은 칼자루(劍柄)의 장식으로 새나 말의 조각을 붙이거나 혹은 쌍방울을 붙였으며, 그 뒷머리(劍把頭)의 확대된 板狀部에 십자형 장식을 하기도 했다. 大邱 飛山洞에서 발견된 오리모양의 칼자루 장식은 잠든 白馬를 연상케 하는 뛰어난 솜씨를 과시하고 있다.

한편 이 시대 사람들은 방패 모양이나 둥근 용기의 뚜껑모양, 나팔 모양의 靑銅儀器를 만들었고, 이러한 것들은 大田, 牙山, 禮山 등지에서 출토되었다. 현재 이들 의기는 일종의 장신구로 생각될 뿐 확실한 용도를 알 수 없는데, 이 가운데는 따비로 발을 갈거나 혹은 추수한 곡물을 항아리에 담고 있는 사람의 모습, 또한 두 마리의 새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모습 등을 조각해 넣은 것도 있다. 大邱 晩村洞에서는 전체가 얇고 끝이 더욱 넓어진 廣形銅戈가 출토된 바 있는데, 이 역시 의기로 권위의 상징이나 종교적 용도로 만들어진 듯하다.⁸⁰⁾

또한 두 개(雙頭鈴)나 여덟 개(八珠鈴)의 특이한 형태의 방울을 단 의기, 곧 鈴具도 각지에서 발견되었다. 이는 전남 和順, 慶州 入室里 등에서 발견되었는데, 이는 馬具의 일종으로 보기도 하나 방울이 반드시 쌍인 것으로 보아 巫覡이 두 손으로 들고 흔드는 종교의식용 도구이었을

79) 李基白, 〈新羅 五岳의 成立과 그 意義〉 앞의 책, pp. 199~200.

80) 尹容鎮, 〈大邱市 晩村洞出土 靑銅遺物〉 《考古美術》 76, 1966.

尹武炳, 〈大邱 晩村洞出土의 銅戈·銅劍〉 《震檀學報》 29·30合, 1966.

가능성이 크다.⁸¹⁾ 아마 방울에 달린 꼭지의 존재로 미루어 靑銅儀器나 巫覡의 옷자락에 부착해서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특히 대구 新川洞에서는 유례가 드문 2점의 靑銅竿頭鈴이 출토되었다. 처음은 칼자루 끝 장식에도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방울이 가진 招神의 기능 때문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밖에 동물 모양의 청동기도 있는데, 이러한 것 중에는 말이나 범의 모양을 한 帶鉤, 사슴·범 등의 동물무늬를 새겨 넣은 肩甲形具 등이 있다. 대구 비산동에서는 50여 점의 청동기·철기 유물과 함께 虎形帶鉤가 발견된 바 있다. 그러나 이 시대 예술품 중에는 놀랄만큼 정밀한 幾何文을 장식한 한국 특유의 잔무늬 거울(多鈕細文鏡) 같은 청동거울의 존재도 주목되고 있다.

이러한 청동제품은 대개 질이 좋은 청동에 密蠟型 등의 방법에 의해서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져 당시의 높은 주조 기술을 엿보게 하고 있다. 또한 동물 모양의 조각은 매우 사실적이며, 線刻의 무늬는 기하문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청동제품 중에는 종교적인 목적을 위한 의기들이 적지 않아, 아마도 天君을 비롯한 巫覡이 어떤 의식을 행하는데 썼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비록 정치적 지배자들의 실용품에 부착된 장식들이라 할지라도 본래 주술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만큼, 결국 宗教的·寶器的 성격의 것이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토제품 중에는 土器와 土偶가 있으나 생활용구로서 가장 오랜 기간에 걸쳐서 만들어진 것은 토기였다. 청동기시대에 만들어진 민무늬토기는 형태는 다양하나 종류는 매우 단순하였고, 또한 손으로 빚어서 만든 비교적 소박한 것에 불과하였다. 중국식 灰陶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만들어진 이른바 김해식토기는 종류도 다양하며 제작 기술도 매우 발달되었다. 이러한 토기의 표면에는 노끈무늬나 格文을 나타낸 다음 다시 그 위에 같은 간격의 橫走 평행선을 사방에 돌리고 있는데, 이 역시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어떤 주술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한편 토우는 장례를 행할 때에 무덤에 함께 묻는 明器로서의 성격을 지녔다고 생각되지만, 농경생활이 시작되면서 大地의 풍요를 기원하는 주술적인 상으로서도 만들어진 듯하다. 이의 사례로는 함경북도 雄基, 羅津 등지에서 나온 작은 女像, 돼지像이 알려져 있다. 전반적으로 이들 토우는 작고 소박한 솜씨의 것들이지만, 종교적인 偶像의 조각으로서 주목되고 있다. 토우는 뒤에 삼국시대 신라에서 신앙적·종교적 목적과 장식적 의미를 갖고 많이 만들어졌다.

암각화는 최근 학계의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이다. 대구 인근인 高靈郡 開津面 良田洞 알터(卵峴) 마을의 암각화는 특히 유명한데, 3중으로 된 동심원과 십자형, 짐승얼굴 모양 혹은 사람얼굴

81) 《三國志》魏書 東夷傳 韓條 참조.

모양과도 같은 가면 등이 도안과 같은 방법으로 그려져 있다.⁸²⁾ 또한 경남 蔚州 川前里 암각화도 원·삼각형 등 도안 무늬의 그림이 그려져 있고, 大谷里 盤龜台 암각화에는 고래·거북 등의 물고기, 사슴·범·곰·멧돼지·토끼·여우 등의 짐승과 사람 외에, 사냥하는 장면이나 배를 타고 고래잡이 하는 장면들도 그려져 있다.⁸³⁾ 이들 그림들은 어떤 종교적 의미를 나타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동심원은 농경과 관련하여 태양을 상징한 듯하다. 또한 동물의 그림들은 대개 쌍으로 그려져 있고 생식활동을 상징하는 것도 있어서 풍요한 생산을 비는 주술적인 신앙이 반영되어 있다.

이상의 예술품 중에는 대구지역에서 발견되지 않은 예도 있지만, 장차 발견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을 것이다.

第4節 遺蹟·遺物로 본 三韓時代의 大邱

I. 考古學上的 三韓時代

고고학에서 삼한시대는 기원전 2세기 또는 기원 전후부터 서기 300년까지를 일컫고 있다. 이 시기를 문헌에서는 삼한시대, 부족국가 시대, 성읍국가시대등의 이름으로 불리워 왔고, 고고학에서는 原三國時代, 金海時代, 熊川期등으로도 불리우고 있다.⁸⁴⁾ 이 가운데에서 고고학쪽에서는 원삼국시대란 용어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⁸⁵⁾ 고구려에서는 이미 기원전후에 고대국가의 체제를 갖추고 있다는 문헌쪽의 연구 성과에서 보면 원삼국시대란 용어도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여기에서는 종래의 문헌쪽에서 많이 사용되어 온 삼한시대⁸⁶⁾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이 삼한시대에 있어서 고고학상의 특색으로는 청동기의 소멸, 철기 생산의 보급, 새로운 토기의 출현, 농경의 발전, 석곽묘의 발달, 목곽묘의 출현 등을 들 수가 있다. 이 삼한시대의 유적으로는 의창 다호리, 김해 양동리, 합천 저포리, 부산 노포동, 경주 황성동, 경주 조양동, 경산 조영동, 춘천시 중도, 해남 군곡리, 대구 八達洞, 達城公園 최하층 등을 들 수가 있다. 이들은 크게

82) 李殷昌, 〈高靈 良田洞 岩畫 調査略報〉《考古美術》112, 1971.

83) 文明大, 〈蔚山の 先史時代 岩壁刻畫〉《文化財》7, 1973 및 黃壽永·文明大, 《盤龜台》, 東國大出版部, 1984.

84) 金元龍, 《韓國考古學概說》1986, p. 128.

申敬澈, 〈熊川文化期 紀元前土限說再考〉《釜山史學》4, 1980.

武末純一, 〈慶尙道の瓦質土器と古式陶質土器〉《古文化談叢》15, 1985.

85) 이 원삼국 시대의 용어에 대한 비판은 다음의 논고가 참고가 된다.

86) 삼한시대의 標識的인 유물로 알려진 와질토기가 현재의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발견되고 있다.

패총, 주거지, 분묘로 대별된다.

이 시기의 묘제로는 토광묘, 목관묘, 목곽묘, 옹관묘, 석곽묘 등을 들 수가 있다. 이 유구에서는 철촉, 철모, 철검, 철도, 철과 등의 철제무기와 철검, 철삽날, 주조철부, 철부, 철착, 철도자 등의 철제농공구가 출토되고 있다. 철제무기와 철제농기구는 대부분 단조품이나 철부의 경우는 단조품 뿐만이 아니라 주조품도 출토되고 있다.⁸⁷⁾ 곡옥, 다면옥, 주판알모양의 옥, 소형판옥, 판옥 등의 다양한 장신구도 출토되고 있다. 이 시기의 문묘 등에서는 와질토기가 출토되어서 이 삼한시대의 고고학적인 편년에 한 기준이 되고 있다.⁸⁸⁾ 〈圖 4-1참조〉

이 시기는 《三國志》, 韓傳의 기록이나 출토유물과 유적으로 볼 때 무격적인 신앙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했고, 또 거대한 봉토분이 축조되지 않아서 고대국가나 전제왕권이 형성되지 못 승했다⁸⁹⁾고 판단된다.

II. 主要 遺蹟

1. 達城土城

大邱市 中區 達城洞에 자리잡고 있는 달성공원은 대구의 新川지류변에 말굽 모양으로 형성된 자연 구릉을 이용하여 축성했던 삼국 시대의 전후의 토성이며, 신라와 고려에 이르기까지 줄곧 관아가 있었던 곳이다.

달성공원내에 선사·시대와 고대의 유적·유물이 유존함은 1917년의 조사에서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그 뒤엔 1959년에 위 조사의 일부가 학계에 소개되었다.⁹⁰⁾

1968년 대구시에서 달성공원 입구 남쪽에 문화회관을 건축하기 위해 성벽의 일부를 삭토하면서 유물이 발견되어 학계에 알려지게 되었다.⁹¹⁾

1968년 대구시에서 달성공원 입구 남쪽에 문화회관을 건축하기 위해 성벽의 일부를 삭토하면서 유물이 발견되어 학계에 알려지게 되었다.⁹²⁾ 그 뒤에 이 유적에 대한 상세한 조사 결과가 공

87) 철기 제조에 있어서 주조철의 이른시기부터 존재하는 것은 중국의 철의 특징이므로 이 시기 철기의 계보는 중국과 관련된다고 판단된다.

88) 崔鍾圭의 견해로 金元龍, 앞의 책, p.139에서 전제하였다.

89) 尹容鎮 등, 〈原三國時代의 文化〉《古文化》37, p.4.

90) 有光教一, 〈慶州月城·大邱達城의城壁下の遺跡について〉《朝鮮學報》14.

91) 尹容鎮, 〈大邱達城 城壁調査〉《考古美術》, 100.

포되었다.⁹²⁾ 이에 따르면 달성토성 성벽과 城基層의 구조는 성벽절단면을 이용해서 작성한 측면도(圖 4-2)에서 보면, 유물의 포함 내용과 퇴적 상태를 고려해 크게 4개의 문화층으로 나누고 있다. 이를 위에서부터 第Ⅰ期層, 第Ⅱ期層, 第Ⅲ期層, 第Ⅳ期層이 되나 第Ⅰ期層은 성벽에 해당된다.

제2기층에서는 鉢形器台(〈圖 4-5〉의 1), 鉢形器台(〈圖 4-5〉의 2), 高杯(〈圖 4-4〉)의 13, 高杯(圖 4-4)의 12, 廣口杯(圖 4-4)의 9, 10 등이 출토되었다.

제3기층에서는 短頸壺(〈圖 4-3-10-11〉의 10, 11), 甕(圖 4-3)의 24, 有孔短頸壺(〈圖 4-5〉의 4), 把手附甕 및 把手片(〈圖 4-4〉의 23), 蓋, 台脚片, 印文土器 등이 출토되었다.

제4기층에서는 甕片(〈圖 4-3〉의 2, 3, 5, 12), 圓底片(〈圖 4-3〉의 9), 器底片, 短頸壺(〈圖 4-3〉의 6), 骨鏃(〈圖 4-6〉의 1, 2) 등이 출토되었다.

1970년 대구시에서는 달성공원내에 동물원을 조성하게 되었다. 그 일환으로 동물사육장을 만들기로 하였다. 이 때에 연못 한 가운데를 택하여 pit를 파고 토층 변화를 관찰하기로 하였다.⁹³⁾ pit의 위치는 현재 방사장 한가운데에 있는 민공으로 만든 섬의 중심부에 해당되는 곳이다. pit의 규모는 한변이 2m의 방향으로 깊이는 3.5m정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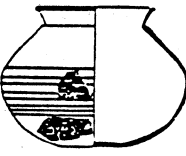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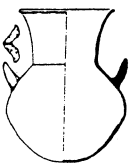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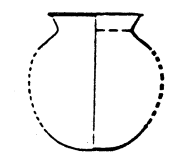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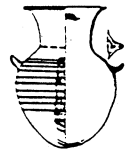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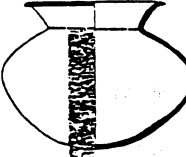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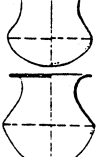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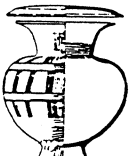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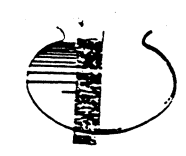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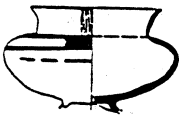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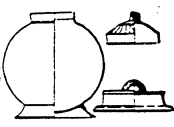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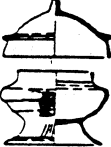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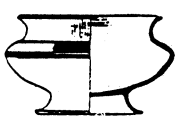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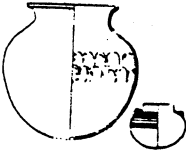

여기에 조사된 최하층의 유물이 전기한 제4기층과 같다고 한다. 중요한 유물은 黑色磨研四足盃(〈圖 4-3〉의 1), 瓦質小甕(〈圖 4-3〉의 8), 瓦質甌, 牛角形把手(〈圖 4-4〉의 1), 塗漆磨研土器盃(〈圖 4-3〉의 7), 塗漆木器, 塗漆木櫛 및 木櫛(〈圖 4-5〉의 3, 5등)이다.

달성토성에서 출토된 유물들은 그 층위와 함께 각 층위별 변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곧 달성토성은 시기상으로 크게 3층으로 구분된다. 먼저 가장 윗층인 제1층(제2기층)에서는 상부에서 陶質의 高杯, 坩台등이 출토되고, 하부에서 瓦質土器가 출토된다. 중간층인 제2층(제3기층)에서는 陶質土器인 廣口小壺등도 발견되지만 瓦質土器가 주로 발견된다. 최하층인 제3층(제4기층)에서는 黑色磨研土器, 瓦質土器, 骨鏃등이 출토되었다. 이와 유물의 출토 양상은 城山貝塚, 朝島貝塚, 郡谷里貝塚 등에서도 비슷한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달성토성 출토의 흑색마연토기는 法泉里 2號墳, 可樂洞 2號墳, 夢村土城2號墳土墳墓, 朝島貝塚下層 등에서도 출토되고 있다. 달성토성 출토의 흑색마연토기는 4발이 달려 있어 기형상으로는 몽촌토성의 것과 연결이 되는 듯하나 마연기법 문양 형태, 시문기법 등이 조도패층의 것에 가깝다. 조도패층 출토품은 이른바 신석와질토기로 파악되는 3세기의 것이고, 法泉里2號墳

92) 尹容鎮, 〈韓國初期鐵器文化에 관한 研究—大邱地方에서의 初期鐵器文化—〉《韓國史學》11, 1990.

93) 尹容鎮, 위의 논문, 1990.

	長 頸 壺	短 頸 壺	小 形 甕	火爐形土器	年代 主要遺蹟
I					0 ・慶州朝陽洞38號 ・日本對馬小姓島3 ・釜山久瑞洞 AD 50
II					・大邱八達洞 ・金海池內洞 ・慶南密陽 AD 100
III					・慶南密陽 ・固城松川 ・對馬白岳 AD 150
IV					・蔚州下垵 ・城山東區中層 AD 200
V					・慶州朝陽洞 3號 ・城山東區中層 ・蔚州下垵 AD 250
VI					・朝陽洞申告品 ・蔚州下垵 ・啓明大藏 AD 300
陶質土器					AD 313 ・慶州九政洞 ・金海禮安 ・金海貝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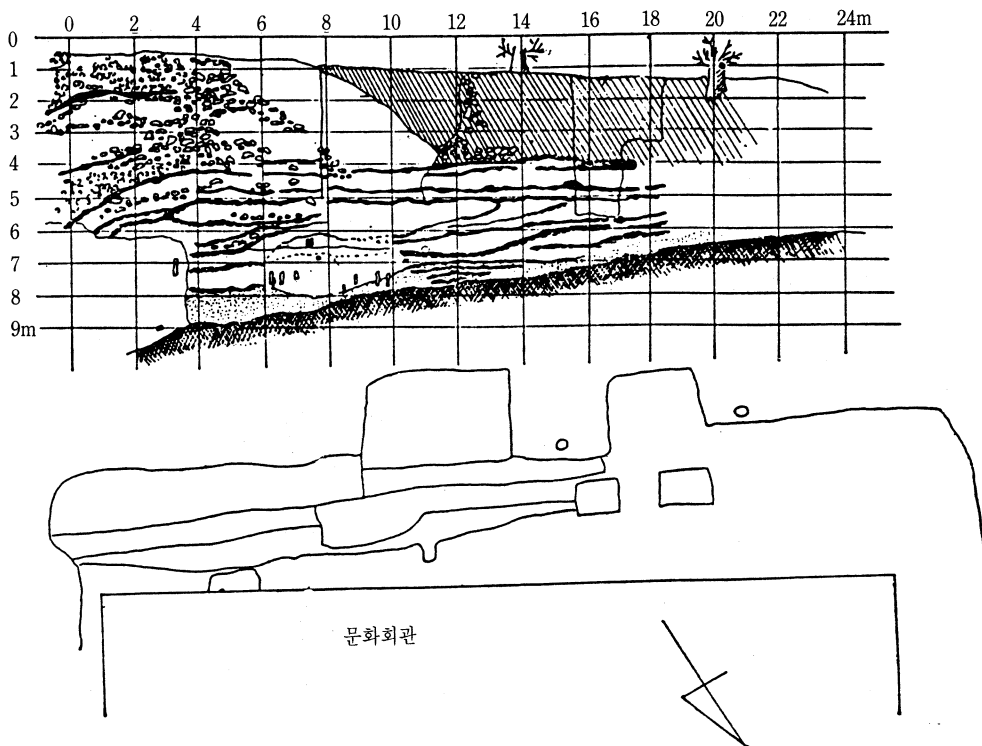
〈圖 4-1〉

와질토기 편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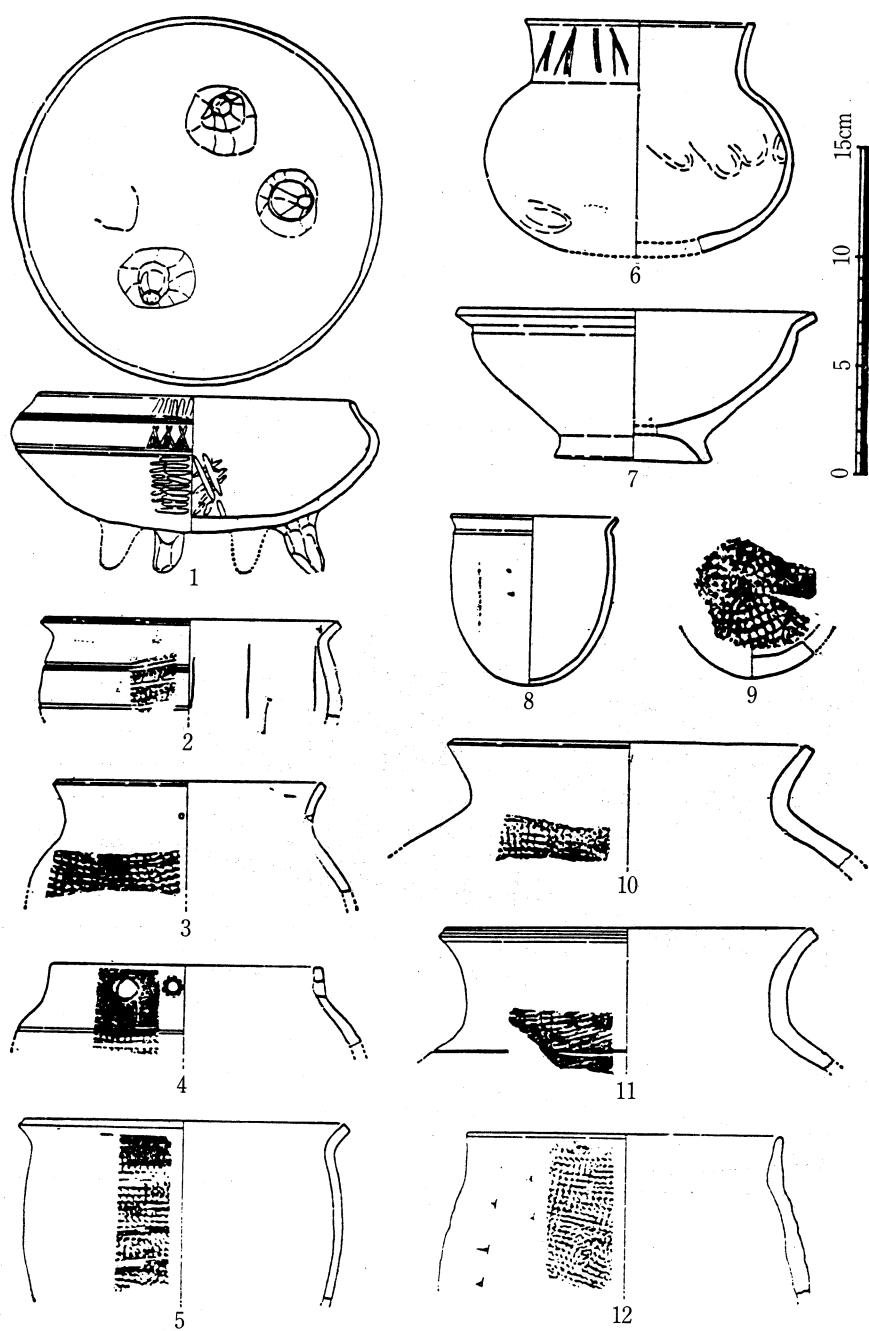
출토품도 3세기로 편년된다. 달성토성의 최하층 출토의 흑색마연4족토기도 3세기로 편년된다. 따라서 달성토성 최하층의 연대를 AD. 3세기 전후로 보아도 될 것이다.

제1~2층에서 출토되는 도질토기중 가장 특징적인 것이 廣口杯이다. 이는 영남지방의 생활 유적과 분묘 유적에서 많이 출토되고 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생활유적으로는 웅천 패총, 고성 패총, 고도 패총, 성산 패총, 김해 부원동 패총 등이고, 분묘 유적으로는 김해 예안리, 화맹동, 복천동 등이다. 이들 유적의 편년에 근거할 때 달성토성의 廣口杯는 A.D. 2세기 이전으로는 소급할 수가 없고, 토기토기의 발생연대를 감안할 때 A.D. 3세기 말경으로 볼 수가 있다. 따라서 제2층의 하한을 A.D. 3세기 말경으로 편년할 수가 있다.

제1층은 완전히 도질토기만 출토되고 있다. 그 가운데 高杯와 甃台가 가장 대표적인 기종이다. 교차투공고배는 복천동 8호분 출토의 고배와 유사하여 A.D. 5세기 초로 볼 수가 있다. 제1층의 토기들은 황남동 109호 3·4막의 출토품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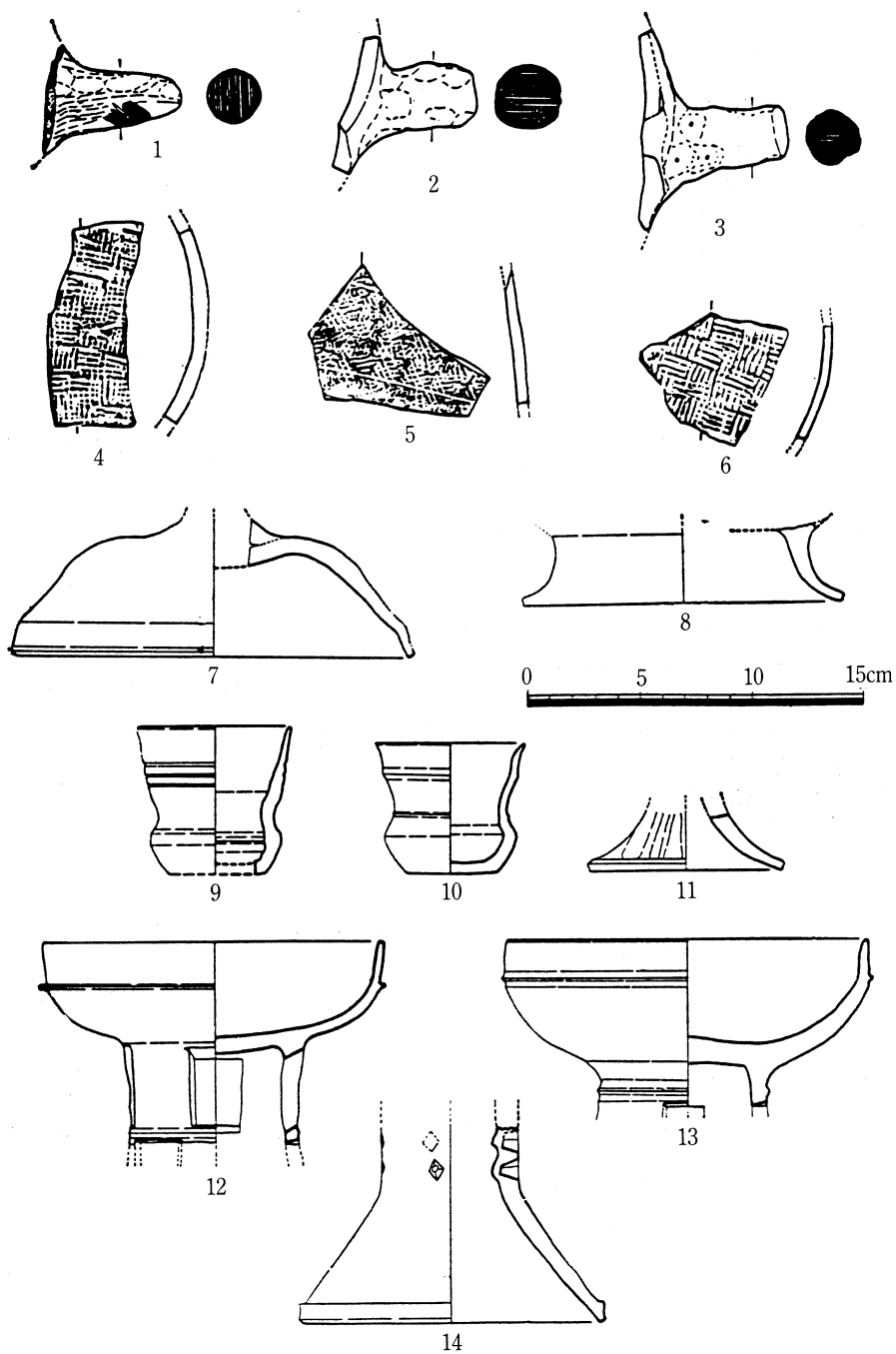


〈圖 4-2〉 달성토성 절단부의 측면과 평면 (《한국사학》11, 19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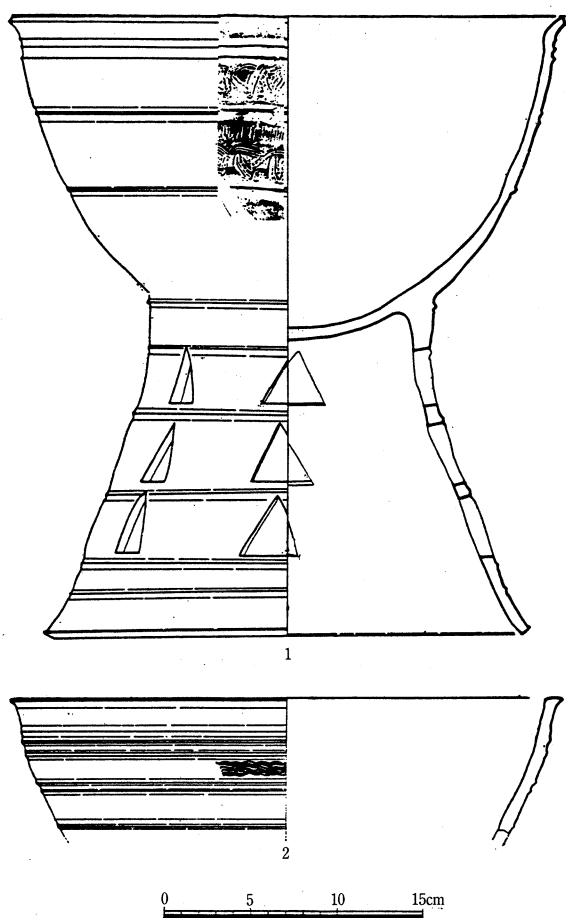
〈圖 4-3〉

달성토성 출토유물 (《한국사학》11, 1990)



〈圖 4-4〉

달성토성 출토유물 (《한국사학》11, 1990)



〈圖 4-5〉 달성토성 출토유물

지대라 하더라도 해발 약 500로 낮아서 선사인의 생활처로는 적합한 지형을 이룬다. 토광묘는 금호강안에서 능선을 따라 약 200m가량 올라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이 일대는 토광묘 이외에도 옹관묘, 석곽묘가 유존하고 있다. 이 유적에서 목곽묘는 모두 17기가 조사되었다. 대표적인 몇 개의 목곽묘를 소개하기로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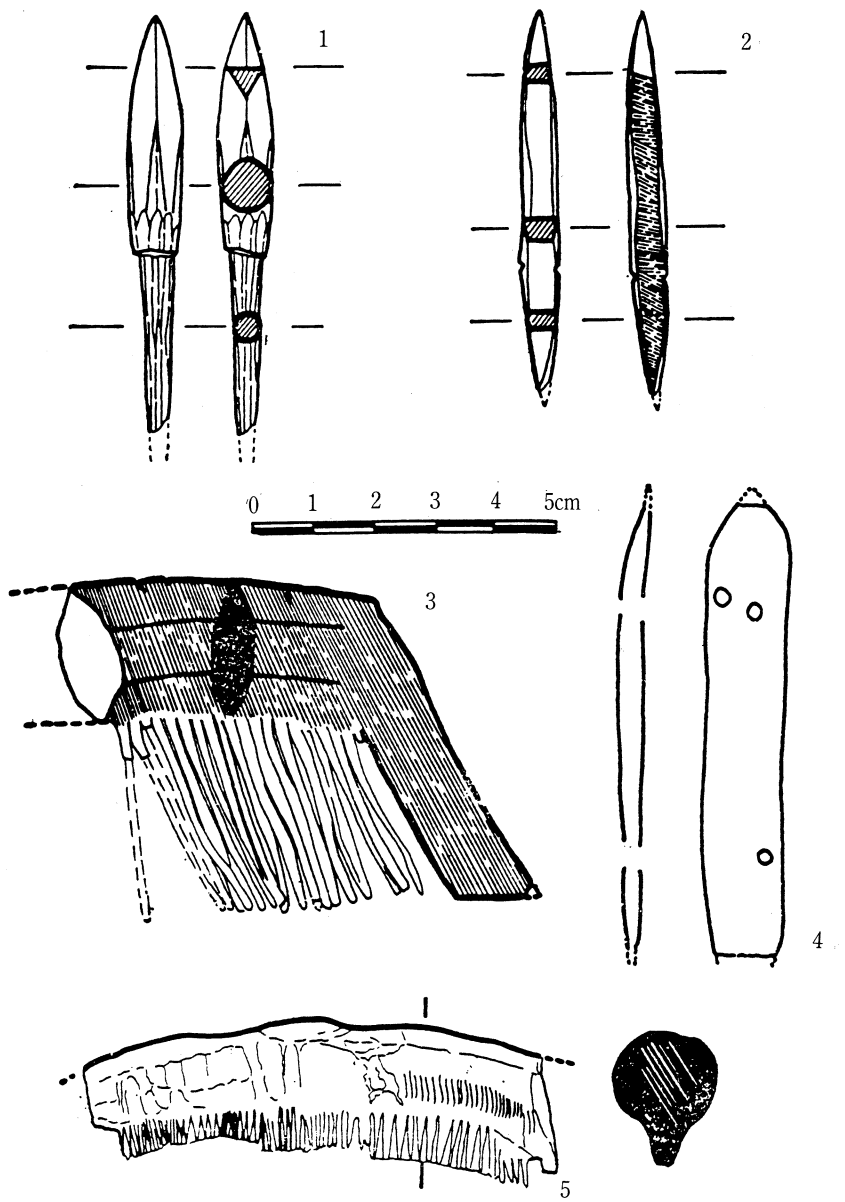
달성토성에서 4세기의 고식도질토기의 출토가 없어서 달성토성의 성벽은 5세기 이전에 축조되었다고 볼 수가 없다.

2. 八達洞 遺蹟

이 유적⁹⁴⁾은 대구시 북구 팔달동 산151번지 일대로서 대구시가지의 북쪽을 벗어난 금호강변의 구릉이다. 대구에서 팔달교를 건너면 서울로 가는 국도 우측에 자리잡고 있는 구릉이 있다. 이 구릉은 금호강변에서 북쪽으로 1km쯤 떨어진 함지산에서 남서쪽으로 뻗은 支脈의 끝부분에 해당된다. 주위 자연환경을 보면 팔공산 서쪽에서 흐르는 八溪川이 이 유적이 분포하는 구릉의 서편에 흐르고, 구릉의 남쪽 끝에는 금호강이 흐른다. 또 구릉의 동편은 완만한 경사를 이룬 나직한 구릉들이 금호강을 따라 형성되어 있다.

목곽묘가 발견된 구릉은 팔계천을 따라 형성된 지맥 끝부분이 구릉 정상부이고, 금호강변에서 약 300m되는 지점까지 유적이 분포되어 있다. 유적의 북쪽 높은

94) 尹容鎮 등, 《大邱八達洞遺蹟》 1993.



〈圖 4-6〉 달성토성 출토유물 (《한국사학》11, 19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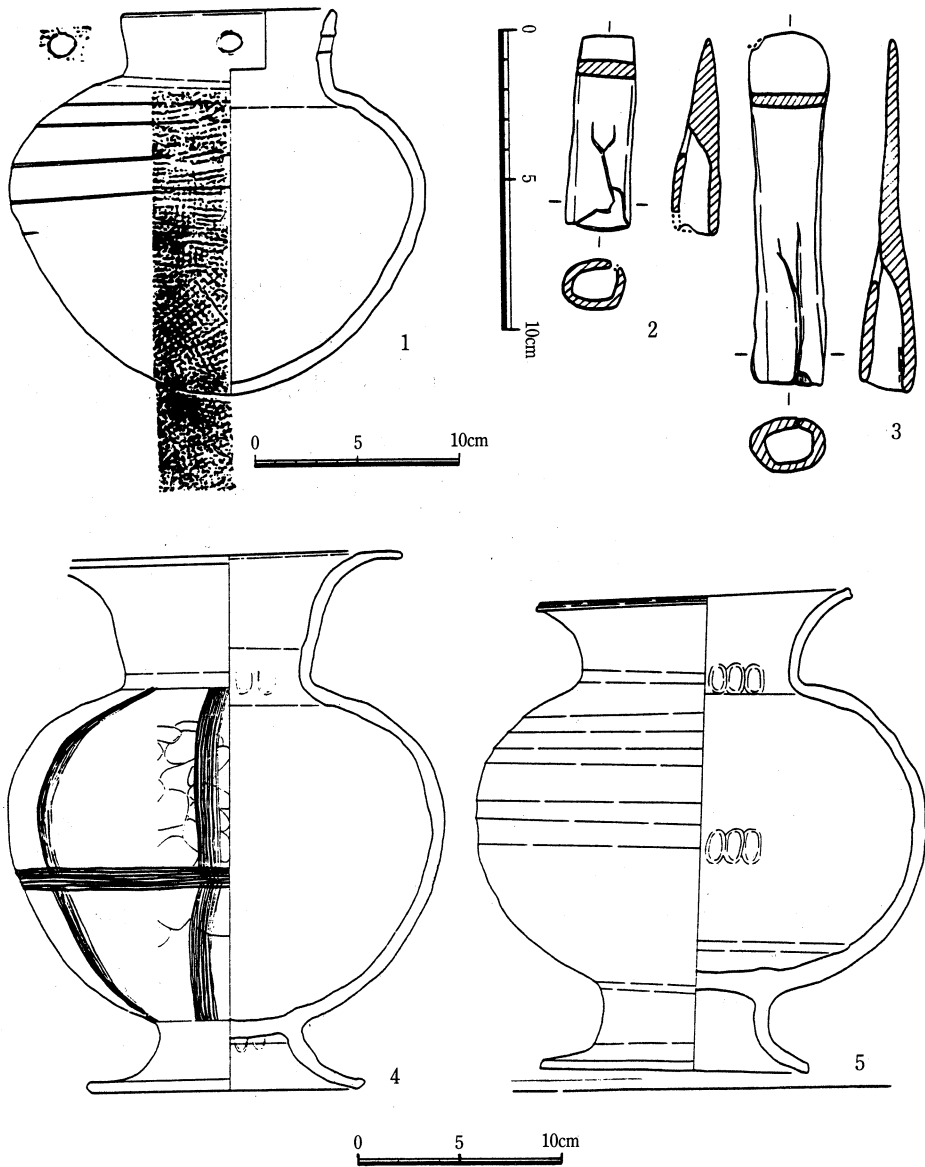
1) 1호 목곽묘

발굴조사된 구역 가운데에서 가장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동쪽으로 약 3m간격을 두고 7호 목곽묘가 있고, 서쪽으로 1.5m간격을 두고 2호 토광묘가 있다. 표토층이 얇아서 제거 과정에서 철검과 철촉 등이 바로 노출되었다. 토광의 장축 방향은 N-42°-W로서 등고선 방향과 나란하다. 토광의 어깨선은 대부분 자연 유실로 인해 낮아져 암반상에서 확인되었다. 경사면에 위치한 서쪽과 남쪽의 일부는 나무 뿌리에 의한 교란구덩이와 자연 유실로 거의 바닥까지 교란되어 있었다. 목곽과 토광사이의 공간은 사질토를 채워넣어 보강하였다. 목곽의 규모는 길이 291cm, 너비 80~94cm인데, 남동쪽으로 갈수록 그 너비가 넓어지는 형태이다. 목곽의 규모는 길이 172cm, 너비 66cm인데, 동쪽에서는 안과 밖의 구분이 없이 한 선상에 겹쳐져 있었다. 피장자의 두향은 瑪瑙玉과 유리구슬의 출토 위치로 보아 남동쪽으로 추정된다.

2) 6호 목곽묘

이 토광묘는 1호목곽묘에서 서쪽으로 10m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장축 방향은 N-43°W이다. 토광의 규모는 길이 448cm, 너비 155cm이고, 현재 깊이는 10~20cm이다. 토광은 자연경사를 따라 동쪽의 높은 곳을 ㄴ자 모양으로 깎아내어 만들었다. 토광의 바닥은 굴곡면은 흙으로 깔아 정지하였다. 토광내에는 목관과 목곽선의 구분이 있다. 목곽과 토광 사이에는 암반에서 떼어낸 돌이 섞여 있는 보강토가 채워져 있다. 목곽의 규모는 길이 182cm, 너비 68cm이고, 목곽의 규모는 길이 340cm, 너비 95~115cm이다. 목곽은 관의 중앙에 안치되었고, 북쪽의 목곽과 토광 사이에는 토기 부장칸이 마련되어 있다.

북쪽의 부장 공간에서는 直口短頸壺 1점(圖 4-7), 台附長頸壺 4점(圖 4-7)이 출토되었다. 관의 내부에서 소형철부 1점(圖 4-7)이 놓여 있었고, 관과 곽 사이에도 소형철부 1점(圖 4-7)이 부장되어 있었다.



〈圖 4-7〉 팔달동 6호목곽묘 출토 유물 (《대구 팔달동 유적》, 1993)

第5章 三國時代의 大邱

第1節 新羅의 成長과 大邱

三韓社會에서는 3세기 후반에서 4세기 중반에 걸치는 시기에 큰 정치 사회적인 변동을 겪은 결과 百濟, 新羅와 加耶가 성립하게 되었다.¹⁾ 이 기간 동안 馬韓의 54개 邑落國家 가운데 하나였던 伯濟國이 百濟로, 辰韓 12개국 가운데 하나였던 斯盧國이 新羅로 발전하였으며, 弁韓의 읍락국가들이 加耶 諸勢力으로 재편되었던 것이다.²⁾ 삼한사회에서 그와 같은 정치적 재편이 행해지게 된 계기나 원인에 대해서는 명확하지가 않다.

삼한사회에서 새로운 政治的 統合運動이 일어날 수 있었던 배경으로 먼저 손꼽을 수 있는 것은 삼한 자체의 社會經濟的인 성장이다. 그 중 農業生産力의 향상은 주목해 볼 만하다. 이 시기의 농업생산력 향상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土地肥美 宜種五穀及稻 曉蠶桑 作縑布(《三國志》권 30, 魏書 東夷傳 韓條)

라 하여 오곡과 함께 벼농사가 활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蠶桑을 이용하여 겹포를 생산한 사실이다. 토지 자체가 비옥하였다는 것은 자연적인 데서 말미암는 것이기도 하겠으나 그 외에 새로운 농기구나 농업기술의 발전에 따른 地力의 향상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점이 전제되지 않고서 자연적인 조건만으로는 토지가 비옥하여 오곡과 벼의 생산에 적합하다는

- 1) 《三國史記》에 의하면 백제가 馬韓을 통합하는 시기가 기원 전후이며, 辰韓의 邑落國家들이 신라에 복속하는 시기가 2세기에서 3세기에 걸치는 시기로 되어 있는 만큼 《三國志》의 서술과는 상당한 차이가 난다. 기왕에 이에 대해서는 논자들 사이에도 의견의 차이를 보여 왔다. 필자는 일단 신라가 주변세력을 병합하는 시기는 《삼국지》가 보여 주는 3세기 三韓의 이후라 생각하며 그 과정은 《삼국사기》의 연대조정을 전제로 할 때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 말하자면 《삼국사기》의 初期記錄도 몇 周甲 끌어내리면 과정이나 紀年上 取信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 여기서는 이와 같은 입장에서 新羅의 주변 읍락국가통합을 3세기 중반에서 4세기 중반에 걸치는 시기로 이해하였다. 그 근거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한다.
- 2) 일반적으로 馬韓에서 百濟가, 辰韓에서 新羅가, 弁韓에서 加耶가 나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보아 타당하다고 생각되지만 이들을 곧바로 연결시키기에는 문제가 없지 않다. 특히 진한과 변한을 신라와 가야로 보는 것은 그 중심세력만을 고려할 때 타당하지만 진한, 변한이 政治的 聯盟體라고 한다면 신라는 그 속에서 새로운 정치재편의 결과 탄생되었으므로 그 領域이나 構造에서 상당한 변동을 거쳤을 것이기 때문에 진한 12국이 곧 신라가 되었다거나, 변한이 가야라는 인식은 再考되어야 한다.

표현을 하기 어렵다고 본다. 농업생산력의 향상과 관련하여 이 시기 벼농사의 급속한 발달은 눈여겨 볼 만하다.

삼한에서는 5월에 播種한 후와 10월의 추수를 끝내고 귀신에 제사 지내는 이른바 추수감사제를 행하였다고 한다.³⁾ 5월에 파종하여 10월에 추수하는 것은 다른 오곡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지만 특히 벼농사 기간과 그대로 일치한다. 이를 보면 이 시기에 벼농사가 농업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높았으며 상당한 수준에까지 발전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것은 廉斯鑑說話에서 漢人인 戶來란 인물의 행위에서도 알 수가 있다.

戶來는 王莽 新代(9~23)의 地皇年間(20~22)에 樂浪郡에 거주한 漢人으로 동료 1500인과 함께 辰韓에 伐木하러 왔다가 붙잡혀 奴隸가 된 인물이다. 이들은 3년 동안 밭에서 참새를 쫓는 등 農業勞動에 종사하고 있었다.⁴⁾ 이는 기원후 1세기초에 삼한에서도 이미 농업에 대량의 노예노동을 투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 주거니와 그들 중 3년 동안 죽은 사람이 500명이나 되었다는 사실은 그 노동의 強度를 보여 준다. 게다가 낙랑군이 염사치의 先導로 진한을 협박하여 진한으로부터 戶來와 함께 잡혔던 漢人 5百名이 사망한 댓가로 진한인 五千인과 弁韓布⁵⁾ 만오천필을 받아내었다고 한다. 이 5천명도 교환의 대상으로 취급되었다는 점에서 바로 노예노동이나 그와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것임이 분명하다. 이와 같은 노예노동의 대량투하와 강도높은 노동으로 새로운 農耕地가 開墾되어 농업생산력이 향상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호래가 참새를 쫓고 있었다는 사실은 물론 그 대상에 다른 곡식도 포함되었겠으나 벼농사가 주류를 이루지 않았을까 싶다.⁶⁾ 그리고 이와 함께 농업생산력의 향상을 가져온 또 하나의 요인으로 빠뜨릴 수 없는 것은 鐵製農器具의 광범한 보급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고고학적인 발굴성과에 의하면 이 시기에는 다양하지는 않지만 鐵製武器들과 함께 農器具들이 적지않게 출토되고 있다. 철제무기들의 발달은 곧 제철기술의 수준을 반영하며 따라서 필요로 하는 농기구도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졌음을 의미한다. 농기구의 제작이나 새로운 농업기술의 습득은 보다 선진적이었던 漢의 낙랑군과의 접촉을 통하여 알게 되었을

3) 《三國志》권 30, 魏書 東夷傳 韓條.

4) 위와 같음.

5) 원문에서는 牟韓이라 되어 있으나 이는 일반적으로 弁韓의 잘못으로 보고 있다.

6) 이 시기의 벼농사는 아직 물과 관련된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陸稻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물론 水田農業의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이는 대부분 제방 등을 이용하였다기 보다는 늪지 등 자연적인 조건들을 그대로 이용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기원 전후한 시기에 진행된 노예노동을 이용한 농지개간은 벼농사의 경우 陸稻地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후 3, 4세기에 築堤에 관련한 기록들이 보이는 것도 이와 관련지워 이해해야 할 듯하다.

것이다. 漢郡縣과의 交易은 삼한사회가 새로운 문물을 수용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하였다. 交易 그 자체는 농업생산력의 향상과 함께 삼한사회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삼한의 漢郡縣과의 활발한 교역활동은 다음의 기록에서 확인된다.

國出鐵 韓濊倭皆從取之 諸市買皆用鐵 又以供給二郡(《三國志》권 30, 魏書 東夷傳 韓條)

이 기사에 보이는 사실을 종래 흔히 弁韓에만 한정되는 것으로 이해하여 왔으나 이에 앞서 기록된 내용이 변한과 진한 양자에 관련되는 기록임을 고려하면 그렇게 단정짓기는 어렵다. 鐵을 생산한 대상에는 弁韓과 함께 辰韓도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이 기사의 國은 어느 특정한 하나의 國만이 아니라 이 기록에 바로 앞서 나열된 24개국을 전부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진한과 변한 모두에서 鐵을 생산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⁷⁾ 이렇게 보면 위 기사에서의 韓이란 馬韓에 한정시켜 이해하는 것이 좋을런지도 모르겠다.⁸⁾ 따라서 이 기사는 辰韓과 弁韓에서 생산하는 鐵을 馬韓, 濊(東濊), 倭에서 수입하여 가져간 것으로 보는 것이 순조로울 듯하다. 진한과 변한의 읍락국가 가운데 對外交易의 중심지로서 鐵의 集散地 기능을 한 것이 바로 지리적으로 유리한 곳에 위치한 拘邪國(金海)이었다. 交易이 沿岸航海를 중심으로 행해졌을 시기에 拘邪國은 남해안과 동해안을 따라 진한 변한의 해안지대나 東濊 등에게까지 나아갈 수 있었으며 바다 건너 倭와도 상호 교통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이었을 뿐만 아니라, 洛東江의 內陸水路로 들어가는 길목이었다. 이로 말미암아 진한 변한 지역에서 생산한 鐵을 集散하여 韓, 濊, 倭와 교역함으로써 中間貿易의 이득을 획득할 수가 있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교역에서 鐵이 중시되었음은 그것이 돈으로 기능할 정도로 가치기준의 척도가 되었다는 점이다.⁹⁾ 따라서 진한과 변한 그 가운데 특히 拘邪國은 이와 같은 교역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그를 통해 많은 富를 축적함으로써 加耶聯盟¹⁰⁾의 유력세력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7) 文暉鉉, 〈辰韓의 强盛과 鐵産〉《大丘史學》7·8, 1973; 《新羅史研究》, 1983, pp. 172~178에서 진한이 강성하게 된 것은 철에 바탕한 것이라 한다. 그렇다면 당시 진한 지역에서의 철생산도 무시 못할 정도였음을 알 수가 있다.

8) 《삼국지》의 韓의 사용례를 검토하면 크게 三韓을 통칭하는 경우와 삼한 각각을 칭하는 두 경우가 있는데 후자의 경우 삼한 중 마한을 칭하는 사례가 가장 많다. 아마도 이는 청동기문화에 바탕한 韓이 원래 선주민으로서 마한을 이루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9) 실제 삼한시대의 墳墓에서 板狀鐵斧가 출토되고 있는 바 이를 삼한에서 鐵이 교환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증거로 보는 견해가 있다.

10) 金泰植, 〈加耶諸國聯盟의 成立과 變遷〉, 서울大 博士學位論文, 1992, pp. 29~91.

한편 위의 기사에서 2郡에 대해서도 鐵을 供給하였다는 점이 주목된다. 여기서 2군이란 곧 樂浪郡과 帶方郡을 지칭하며 漢이나 魏에서 필요로 하는 鐵을 변한과 진한에서 공급하였다. 이는 진한과 변한의 철이 중요한 교역대상 품목이었음을 의미하거나와 한군현과의 교역을 통하여 선진문물이 수용되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진한과 변한 지역에서 구야국은 선진문물을 수용하는 窓口로서 기능하였다고 하겠다. 이러한 교역을 직접 담당하는 것은 바로 下戶였다. 이들은 渠帥들이 한군현로부터 邑君, 邑長의 칭호와 함께 받았던 印綬衣幘을 빌려¹¹⁾ 이를 근거로 한군현과 교역을 하였던 것이다. 당시 한군현과 교역하는 하호들의 수가 1000여명에 달하였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활발한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었는지를 증명한다. 요컨대 삼한은 농업생산력의 향상과 교역을 통하여 급속하게 발전하였으며 특히 교역은 선진문물을 수용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2세기 후반인 후한 말엽 桓帝와 靈帝 때에 ‘韓濊強盛 郡縣不能制 民多流入韓國’¹²⁾이라 하여 漢郡縣이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三韓은 성장하고 있었다. 後漢의 정치적인 혼란으로 말미암아 樂浪郡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고 그에 따라 그 지배 아래에 있던 民이 三韓社會로 유입되는 현상이 일어났다. 이 시기에 遼東지역의 霸者로 군림한 公孫氏 세력이 낙랑군을 장악한 후 民의 유출을 막기 위하여 낙랑군의 남쪽지역에 帶方郡을 설치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民의 유입은 三韓社會에 새로운 문물이 대량으로 移入되는 기능을 하였을 것이다. 이 때에 韓이 2군과 군사적인 충돌까지 한 것으로 보면 그 동안 삼한의 성장 정도를 알 수가 있다. 한군현이 읍락국가들의 거수들에게 관작과 인수를 지급하였다거나 下戶를 대상으로 하는 교역을 승인하였던 것은 그 자체 삼한사회의 정치적인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터이지만 자체의 성장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제약은 이제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상과 같이 삼한 사회는 꾸준히 자체 내의 성장을 거듭하여 왔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한 가운데 북방지역에서 일어난 큰 정치적인 변동은 성장 발전하고 있던 삼한사회의 재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듯하다.

3세기에 이르자 중국에서는 後漢이 쇠퇴하고 三國이 정립하였으며 그 후 삼국의 쟁패를 거쳐 魏에 의해서 통일되었다가 다시 晉으로 교체되는 변동이 있었다. 이와 같은 시기에 북방에서는 塞外民族들인 이른바 五胡들이 점차 中原으로 침투하여 갔다. 이로 말미암아 晉은 南遷하지

11) 《三國志》에 下戶들이 印綬와 衣幘을 좋아 하였다는 것은 곧 이것이 교역의 證明書의인 기능을 하였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12) 《三國志》 권 30, 魏書 東夷傳 韓條.

않을 수 없었다. 농경사회인 북중국에 대한 유목민족인 오호의 침입은 동시에 高句麗 세력의 南下를 유발하였다. 고구려는 남하하여 313년에는 오랫동안 漢의 東方政策의 前哨基地로 기능하여 왔던 낙랑군을 복속시키고 314년에는 대방군마저 장악하였다. 이러한 변동이 기존의 삼한사회에도 파급되었을 것임이 분명하다.

첫째, 낙랑군과 대방군의 지배층이나 그 隸下에 있던 民들의 대량적인 南下가 있었을 것임이 예상된다. 이 流移民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삼한사회에서는 적지않은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각 지역이 이들 유이민을 받아들이면서도 동시에 보다 강력한 結集體의 필요성을 提高시키는데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둘째, 그와 함께 기존의 交易網의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왕에는 연안항로를 중심으로 하는 무역체제에서 중국측 交易窗口는 樂浪郡과 帶方郡이었다. 이 두 군이 창구가 되어 漢의 선진문물이 三韓으로 유입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고구려에 의한 낙랑군과 대방군의 멸망으로 이와 같은 기존의 교역체제에 일대변동이 야기되었을 것임은 상상키 어렵지 않다. 이로 인한 교역체제의 혼동은 곧 자체 내의 새로운 질서 재편 움직임으로 나타났다. 그것은 각지에 산재한 강력한 정치적인 求心體를 중심으로 하는 통합의 움직임이었을 것이다. 이 시기에 각 지역 정치세력 간의 무력적 대립이 격화되었던 것도 이러한 데에서 연유하는 바가 컸을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낙랑군과 대방군의 멸망에 의한 유이민 파동으로 정치적인 영향을 받고 또한 교역망 체계의 혼란으로 야기된 정치적인 통합운동에서 辰韓지역의 최후의 승자는 斯盧國이었던 것이다.

정치적인 통합운동은 먼저 각 邑落國家가 자체의 결속력을 강화시켜 가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을 것이다. 國邑과 邑落이 느슨하게 연결된 상태였던 읍락국가는 대외적인 위기의 식으로 말미암아 보다 강하게 결속하게 되었을 것이며 동시에 보다 강력한 세력은 이를 발판으로 주변의 읍락국가에 대한 복속을 시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¹³⁾ 지금까지 읍락국가 사료국에 의하여 복속된 것으로 기록된 국가들, 예컨대 音汁伐國(安康으로 비정하는 전해가 유력하나 未詳), 悉直國(三陟), 押督國(慶山), 伊西國(淸道), 召文國(義城), 甘文國(金陵), 骨伐國(永川), 沙伐國(尚州) 등은 一段階에서 주변의 정치세력을 아우른 읍락국가들로서 이들이 결국 사료국에 의해 병합된 것이다. 다른 지역에서도 정치세력들이 존재하였을 것이나 그들은 사료국에 의해 병합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록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

13) 이에 대한 사례로는 《三國史記》 권 44, 列傳 居道傳에 脫解尼師今代에 복속된 于尸山國(蔚山), 居柒山國의 사료에 의한 병합이나, 比只國, 多伐國, 草八國 등 이른바 浦上八國의 존재는 각 지역에서 읍락국가들이 정치적인 결속을 꾀하고 있던 사례들이다.

국가들에 대한 통합이 대체로 2세기대에 진행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삼국지》를 토대로 할 때 그 편년을 그대로 따르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3세기에서 4세기에 걸치는 시기로 늦추어 잡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사로국이 정치적 통합과정에서 최후의 勝者가 되었던 특별한 요인은 잘 알 수가 없다. 그 요인을 製鐵技術의 발달이나 또는 강력한 군사력에 바탕한 遊牧騎馬族의 남하에 의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사로국이 그 이전부터 꾸준히 자체 성장을 거듭하여 왔는데 왜 하필이면 遊牧騎馬族이 사로국에 정착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지배세력이 남하하여 왔다면 왜 그 전부터 사용되던 國名을 그대로 계속하여 사용하였는지 등에 대한 문제가 해명되지 않은 한 그러한 견해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차라리 경주지역의 4, 5세기대 고분에서 출토되는 유물에서 기마족적인 요소가 보이는 것은 그와 같은 정치적 군사적인 필요에 의해서 북방지역의 외래문물을 다른 지역보다도 더욱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거나 또는 선진문물을 경험하였던 이주민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포용하였던 결과라 해석하는 편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다.

사로국 중심의 정치적 통합운동이 일단락되었던 것은 4세기 중반 奈勿麻立干(356~401) 때였던 듯하다. 그것은 다음의 몇 가지 사실에서 짐작이 가능하다. 첫째, 이때에 王名이 尼師今에서 麻立干으로 바뀌는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니사금은 金大問의 해석처럼 齒理이며¹⁴⁾ 이는 年長者라는 뜻으로서 따라서 그 속에는 聯盟長이라는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 그에 비하여 麻立은 宗, 頭의 의미이며 麻立干은 宗干, 頭干이라는 뜻이다. 干이 일반적으로 族長 또는 지배자로서 고구려의 加에 해당함은 주지의 사실이거니와, 독립된 소국의 長들도 干이라 불리웠던 듯하다. 그러므로 마립간은 그 아래에 다수의 干을 포괄하는 지배자에 어울리는 칭호라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4세기 중반에 니사금에서 마립간으로 王號가 바뀌었다는 것은 곧 그 동안 추진된 정치적인 변화의 결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金氏世襲體制가 이후 확립된다는 사실이다. 그 이전에는 朴, 昔, 金의 3姓이 交立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지배체제가 확립되지 못하였던 연맹단계에 어울리는 王位交替의 한 형태이며 따라서 주변지역을 복속하여 강한 지배체제를 구축한 시기에도 존속될 수 있는 현상은 아니라 생각된다. 이제 奈勿麻立干 이후 왕위계승에서 金氏의 독자적인 世襲體制가 확립된 것은 王位 자체의 성격이 바뀌었음을 뜻하며 왕위의 변모는 곧 그 동안 진한사회의 정치사회적인 상황이 바뀐 결과라 해석된다.

셋째, 신라가 처음으로 中國에 통교하였다는 사실이다. 奈勿麻立干은 377년과 381년 2

14) 《三國史記》권 1, 新羅本紀 儒理尼師今 即位年條.

차례에 걸쳐 前秦에 사신을 파견하였는데 이때의 사절과견이 고구려의 안내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신라사회의 변모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점이다. 특히 《三國史記》권 3, 新羅本紀 奈勿麻立干 26年(381)條에 보이듯이 신라 사신 衛頭와 前秦王 符堅의 대화는¹⁵⁾ 신라사회 변화의 일단을 반영한다.

二十六年 遣衛頭入符秦 貢方物 符堅問衛頭曰 卿言海東之事 與古不同 何耶 答曰 亦猶中國時代變革
名號改易 今焉得同

사신인 衛頭가 신라사회에서 진행된 모종의 변화를 말하자 符堅이 그 구체적인 내용을 물었을 때 중국에서 시대변혁이 있고 그에 따라 名號가 바뀌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변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가 없지만 이전까지 부견의 신라사회에 대한 이해는 분명히 《삼국지》의 수준이었을 것이나 위두의 말이 그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으므로 그는 그 변화의 내용을 물었던 것이 아닌가 싶다. 여하튼 이 기록은 신라사회에 큰 변화가 있었음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으로 이해하여도 좋겠고 그것이 곧 사로국에 의한 주변세력의 통합이 아니었을까 싶다.

그 다음은 고고학적으로 이 시기에 高塚古墳 특히 경주지역에서는 여타의 지역과는 전혀 다른 積石木槨墳이 조성된다는 사실이다. 이 적석목곽분의 系統, 경주에만 이러한 분묘가 조성되는 이유, 최초의 축조시기 등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아 의견의 일치를 보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를 마립간시대의 대표적인 묘제로 보는 데는 거의 모든 논자들이 동의한다. 그런데 주변 여타의 세력들이 조성한 竪穴式石室墳과는 그 규모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며 또한 고분내의 부장품에서도 현격한 차이가 난다. 적석목곽분의 外形이나 築造方式 또는 出土遺物은 사로세력의 위상에 그 전까지와는 전혀 다른 변화가 있었음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 신라영역에서 적석목곽분이 유독 경주에만 조성된 것은 出字型金冠이 이곳에서만 출토되는 사실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볼 때 적석목곽분을 축조한 집단은 스스로를 여타의 주변세력과 구별하려는 강한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하튼 적석목곽분의 내부구조가 특이할 뿐만 아니라 그 규모면에서도 같은 시기에 주변지역에서 조성된 竪穴式石室墳 등과는 다르며 또한 출토유물의 내용에서도 현격하게 차이난다는 것은 적석목곽분 축조단계의 사로국이 주변지역과 지배 피지배관계였음을 웅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 이전의 진한연맹체 단계에서 斯盧國이 그 맹주였다고 하더라도¹⁶⁾ 그것은 대등한 가운데 일인자에

15) 《三國史記》의 기사는 《太平御覽》과 《資治通鑑》의 관련 기사를 인용한 것이다.

16) 《삼국사기》에 의하면 그와 같은 이해가 가능하나 《삼국지》에서는 그러한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다.

지나지 않았던 것과 비교하여 보면 엄청난 변화라 하겠다.

3세기 후반에서 4세기초에 걸치는 시기에 진한사회의 읍락국가들은 경주지역에 위치한 邑落國家인 斯盧國을 중심으로 征服戰爭에 의해 또는 聯合에 의해 各個 복속됨으로써 新羅로 재편되는 과정을 밟았다. 이제 주변의 세력들은 독자성을 상실하게 된 것이며 어떤 형태로건 중앙에 예속되는 형태로 변모하였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도 신라가 이들 복속된 지방에 대해서 즉시 지방관을 파견하여 직접적인 지배를 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그 이유는 피복속지역의 結束力이 여전히 강고하였을 것이기 때문이었으나 그를 해체시켜 일원적인 지배체제를 확립할 수 있을 정도로 신라의 집권력이 아직 확립되지 못하였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그 까닭으로 지방관을 파견하여 직접 복속지에 대한 지배를 실현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의 경과를 기다려야 하였다.

지방관을 파견하여 복속지역에 대해 직접지배를 실현하는 것은 5세기 후반부터 부분적으로 시작된 듯하며 6세기에 들어와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5세기 후반 이전에는 이들 복속지역에 대한 지배는 기본적으로는 貢納을 바탕으로 한 自治가 허용된 간접적 지배였으면서도 지역에 따라 다양한 형태들이 존재하였던 듯하다. 그것은 복속지역의 정치적 사회경제적인 형편이 한결같지는 않았기 때문이며 따라서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儀禮의인 貢納 등으로 중앙정부에 대해 臣屬을 표하고 거의 완전한 自治를 허용받는 경우이다. 이와 같은 형태의 전형적인 사례는 6세기초 오늘날 울릉도인 于山國을 복속시킨 후 신라가 취한 조치에서 엿보인다.¹⁷⁾ 그러나 이는 피복속 지역의 種族的인 기반이 다를 경우나 혹은 극히 초기적인 형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둘째 유형은 피복속 지역의 자치는 허용하되 당해 지역의 유력세력에 대해서는 중앙에 의해 일정한 재편의 과정을 거친 경우이다. 이들 지역의 지배층은 중앙정부에 대해서 공납 등으로 신속을 표시하면서 기존의 전통적인 권위에 대신하여 중앙정부로부터 지배권위를 부여받았다. 대체적으로 干 등 중앙이 부여하는 직책을 받았던 것이다.¹⁸⁾ 셋째 유형은 피복속지역의 유력세력을 중앙으로 이주시켜 이들을 貴族으로 편입시키고 원래의 지역을 그의 食邑으로 삼아 이들을 통하여 간접지배하는 유형이다.¹⁹⁾ 넷째 유형은 피복속지역 가운데 군사적인 요충지라 판단되는 경우에 중앙에서 직접 軍官을 常駐하게 한 경우이다. 이들 軍官은 외적의 침입에 군사적으로 대처할 뿐만 아니라 당해 지역의 재지세력의 활동을 감시, 제약하기도 하였을 것이다.

17) 《三國史記》권 4, 新羅本紀 智證麻立干 13年條.

18) 이러한 유형이 상당히 일반적이었다.

19) 助賁尼師今 7年 骨伐國王 阿音夫가 신라에 來降하여 왔을 때 그에게 第宅과 田莊을 지급하고 그곳은 郡縣으로 삼았다는 사례나 532년 金官加耶가 신라에 복속된 후 취한 사례 등이 그에 해당한다.

沾解尼師今 15년(261)에 城을 쌓고 奈麻 克宗이 城主가 되었다고 하는 達伐城이 대구로 비정될 수 있다면 대구지역은 4, 5세기에 넷째 유형에 속하는 지배를 받았음을 뜻한다. 城主로 임명된 克宗이 奈麻란 관등을 소지한 것으로 미루어 짐작하면 그는 중앙에서 파견되었음이 틀림없다. 따라서 대구지역은 중앙으로부터 군사적인 요충지로 생각되었던 듯하다. 그것은 대구가 바로 가야와 인접한 지역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요컨대 대구지역은 사로국에 복속된 후 自治權을 인정받았으면서도 가야와 인접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군사적인 요충지로 평가되어 중앙에서 軍官이 파견되었으며 이로 말미암아 상당한 제약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간접지배시기에 기본적으로 지방에 대한 자치가 허용되었지만 그러나 이들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統制와 監視體系도 마련되어 있었다. 가령 國王이 특정지방을 부정기적으로 巡狩하기도 한 것은 다양한 목적이 있었을 터이지만²⁰⁾ 在地세력의 중앙에 대한 복속을 확인하고 감시하려는 것도 중요한 목적의 하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수시로 臨時監察官을 파견하는 경우이다.²¹⁾ 이는 국왕의 순수만으로 지방을 통제하는데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취해진 방법이였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재지세력을 중앙으로 불러들이는 경우도 있었다.²²⁾ 이들을 중앙의 정치에 자문한다는 형식을 취하였을 터이지만 실제로는 재지세력을 통제하고 감시하기 위해서 중앙으로 불렀을 것이다.

이처럼 지방에 대해서 간접지배를 행하였더라도 그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약을 가하고 있었다. 가령 재지세력은 軍事權이나 外交權, 交易權 등의 권한을 박탈 당함으로써 중앙의 제약을 받았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제한적인 자치였다고 하겠다. 지방에 대한 감시체계를 마련하려 하였던 또 다른 목적은 여기에 있었다. 재지세력은 이와 같은 제약을 받기는 하였으나 한편 대내적인 문제에서 그들이 차지하는 전통적인 지위는 온존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의 租稅體系가 갖추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그들이 가지는 경제적인 역할은 클 수밖에 없었다. 중앙에서 행사하는 力役動員의 중심도 그들이였을 것이다. 따라서 그들도 중앙의 통제 아래에 놓이기는 하였지만 4, 5세기의 農業生産力의 향상을²³⁾ 통하여 꾸준히

20) 金瑛河, 〈新羅時代 巡狩의 性格〉《民族文化研究》14, 1979 참조.

21) 예를 들면 味鄒尼師今 7年(268) ‘又遣使五人 巡問百姓苦患’에서 그러한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22) 《三國史記》 권 45, 列傳 朴堤上傳.

23) 최근 4, 5세기 고분발굴에서 농기구의 출현 등을 통하여 이 시기 농업생산력이 향상이 지적되고 있다(全德在, 〈4~6세기 농업생산력의 발달과 사회변동〉《역사와 현실》4, 1990 및 金在弘, 〈新羅 中古期の 村制와 地方社會構造〉《韓國史研究》71, 1991). 특히 牛耕도 6세기초에 처음 시작된 것이 아니라 4, 5세기에 시작되어 오던 것이 6세기에 국가의 장악 아래에 놓이게 된 것을 그렇게 표현하였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성장하고 있었다. 그것은 이미 신라에 의해 복속된 지역의 재지세력이 조성한 고분의 규모나 그로부터 출토되는 유물의 質量으로부터도 유추할 수 있다. 가령 대구지역의 경우에도 4, 5세기에 飛山洞, 坪里洞을 위시하여 花園이나 不老洞 등지에 계속 高塚古墳이 조성되고 있었다. 이는 이 지역의 독자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라에 예속된 상태에서 재지세력이 정치적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재지세력은 비록 독자적인 지배권을 상실하였지만 여전히 지배권은 신라 중앙으로부터 보장을 받았던 것이다. 이는 이들 지역에서 출토되는 金銅冠을 통해서 추정이 가능하다.

5세기를 중심으로 하는 시기에 경주의 積石木槨墳에서는 다량의 금속제와 함께 金冠이 출토되고 있다. 이곳에서 출토되는 금관은 모양이 특이하여 出字型金冠이라 불리운다. 이러한 형태는 인근의 가야지역이나 백제지역에서의 그것과는 모양이 판이하다. 그러나 金製가 아닌 金銅冠으로서 또 出字의 段은 낮지만 그와 유사한 모양의 것이 문헌상으로 신라의 영역으로 편입된 지역, 예컨대 義城의 塔里, 慶山의 林堂洞, 大邱의 飛山洞 등지에서 출토되었다. 이들 지역에서 출토된 금동관은 형태상으로 보아 경주출토의 금관을 모방하여 제작된 것이라는 점은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지방에서 자체 제작한 것이냐 아니면 중앙에서 제작하여 재지세력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한 것이냐의 문제는 논란되어 있다. 그것은 금동관이 출자형이란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구체적인 면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출자형을 모방한 금동관이 문헌상으로 신라에 편입된 지역에서만 한정적으로 출토되고 있는 점에서 중앙에서 제작하여 지급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구체적인 모습에서는 차이가 나는 것은 재지세력과 중앙과의 차이나 재지세력의 위상의 차이나 혹은 제작시기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여하튼 지방의 재지세력이 출자형금동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중앙에 대한 臣屬을 의미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들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었음을 반영한다. 이 시기에 고총고분의 축조가 가능하였던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다.

요컨대 대구는 3세기 후반에서 4세기초에 걸치는 어느 시기에 사로국에 의해 복속됨으로서 독자적인 읍락국가로서의 기능은 상실하였다. 그러나 아직 신라가 당시로서는 이들 지역을 직접지배할 만큼 체제가 갖추어진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복속지에 대해서 지방관을 파견하지 못하고 대신 재지세력을 통한 간접지배 형태를 취하였다. 대구지역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대구의 경우 가야지역과 가까웠다는 점에서 군사적인 요충지로 인정되어 중앙으로부터 達伐城이 축조되고 軍官이 파견되었다. 이처럼 중앙의 통제 아래에 놓이면서 軍事權·外交權·交易權 등은 박탈 당하였으나 재지세력은 당해 지역에 대한 경제적인 지배권을 중앙으로부터

승인받고 있었다. 따라서 대구지역의 재지세력들도 4, 5세기 농업생산력의 향상을 바탕으로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었다고 하겠다. 그것은 이 지역에서도 여전히 고총고분을 축조하였으며 그로부터 출토되는 유물들에서도 입증된다. 그러나 이들은 出字型金銅冠의 제작에서 유추되듯이 독자적인 정치세력은 아니었다. 이처럼 半獨自의인 세력을 형성하여 발전하고 있던 대구지역에도 지방관이 파견되면서 또 다른 변모를 겪게 된다.

第2節 新羅의 地方統治 實態와 大邱地域의 支配

위에서 보았던 것처럼 4, 5세기에 걸쳐 신라는 복속지역에 대해서는 貢納을 매개로 하는 間接統治를 실시하였다. 그러다가 5세기 후반에 이르러 부분적이기는 하나 지방관을 파견하기 시작함으로써 直接支配로 전환하기 시작하였다. 지방에 대한 직접지배를 실현하게 된 계기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된다.

하나는 農業生産力의 향상에 따른 村落共同體의 分解현상이었다. 4세기 이후 새로운 농기구와 牛耕 등 농업기술의 보급으로 농업생산력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그로 말미암아 촌락에 대한 지배권을 둘러싸고 기존의 在地勢力 간의 갈등이 표면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503년에 세워진 迎日冷水里新羅碑에서 확인된다.²⁴⁾ 농업생산력의 향상에 따른 촌락공동체의 변화로 말미암아 재지세력 간의 대립이 표출되었으며 이는 국가권력이 지방에 직접 침투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중앙정부의 입장으로는 재지세력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나아가 생산력의 증대에 따른 剩餘의 收取를 위하여 이제 재지세력을 매개로 한 간접통치가 아니라 직접적인 지배로 전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하나는 中央執權力 자체의 강화이다. 기왕에 지방에 대해 간접적인 통치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었던 일차적인 요인은 역시 중앙집권력이 지방을 직접지배할 만큼 정비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斯盧가 주변 邑落國家를 복속함으로써 그 領域과 人民이 몇 배로 늘어났지만 지배 체제는 기존의 그것에서 그렇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게다가 實聖麻立干이나 訥祗麻立干的 즉위에서 알 수 있듯이 왕위계승체계가 확립된 것도 아니었다. 이러한 실정이었으므로 지방을 직접

24) 迎日冷水里新羅碑는 503년에 세워졌으며 이는 財를 둘러싼 재지세력 간의 대립을 國家가 개입하여 해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財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으나 村落과 관련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그런데 재지세력 사이의 갈등이 표면화되기 시작한 것은 이 비가 세워진 6세기초가 아니라 5세기 전반 實聖麻立干(402~416)과 訥祗麻立干(417~457) 때였다.

지배하기 위해서는 支配體制의 정비기간이 필요하였다. 奈勿麻立干 이후 중국과의 교섭이나 高句麗의 도움 등으로 서서히 지배체제를 정비하여 간 듯하다. 그 결과 5세기 후반에 이르러 어느 정도 중앙집권체제가 정비되었던 것이 아닐까 싶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드러나지 않으나 慈悲麻立干 12년(469) 京都의 坊里名을 정하였다²⁵⁾는 사실에서 부분적으로 확인된다. 京都의 정비는 곧 기존체제에 대한 어떤 변화를 암시하며 이는 지배체제 정비의 결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4, 5세기에 걸쳐 진행된 일련의 변화 속에 地方官을 파견하기 시작하였다. 종래 智證王 6년(505) 悉直州에 軍主가 파견된 것²⁶⁾과 관련하여 이를 지방관 파견의 효시라 생각하여 왔으나 503년의 浪守里비에서 지방관명인 道使의 존재가 확인됨으로써 지방관 파견시기를 이보다 소급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지방관 道使의 파견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照知麻立干 9년(487)에 처음으로 四方에 郵驛을 두고 所司로 하여금 官道를 수리하게 하였다는 사실이다.²⁷⁾ 사방에 郵驛을 둔 것은 곧 지방관 파견을 의미하며 官道를 수리한 것은 王都와 地方의 교통을 원활히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照知麻立干 19년(497)에는 群官으로 하여금 牧民官를 1인씩 추천하도록 조치한 것도²⁸⁾ 바로 이 시기에 진행된 지방관 파견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5세기 후반에 이르러 三年山城 등 변경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에 걸쳐 활발한 築城을 추진한 것도 지방관 파견을 위한 整地作業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지방관이 파견되어 지방에 대한 지배를 강화해간 결과 보다 많은 剩餘物資들이 왕도에 집결하게 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照知麻立干 12년(490)에는 왕도에 처음으로 市肆가 開設되었던 것이다.²⁹⁾

그런데 5세기 후반에 이르러 지방관 道使가 처음 파견되었다고 하더라도 전국의 모든 지역이 대상이었던 것은 아니었다. 아마도 이 단계에서는 정치적 군사적으로 중요한 거점지역 몇몇에만 한정적으로 파견되었고 이후 점차적인 과정을 거쳐 지방관 파견지역이 확대되어 갔던 듯하다.

지방관 파견에서 주목되는 것은 역시 智證王 6년(505)의 軍主 파견이다. 軍主는 統一 이후에 성립되는 9州의 장관인 都督의 前身으로서 이 때에 처음으로 두어졌다. 軍主란 명칭이 처음 보이는 것은 伐休尼師今 2년(185) 左右軍主를 두었다는 것으로³⁰⁾ 그 年代를 그대로 믿을 수는 없지만 軍主란 명칭이 신라에서 처음 사용되었던 것은 6세기 이전으로 소급 가능할 듯하다.

25) 《三國史記》권 3, 新羅本紀 慈悲麻立干 12年條.

26) 《三國史記》권 4, 新羅本紀 智證麻立干 6年條.

27) 《三國史記》권 3, 新羅本紀 照知麻立干 9年條에 ‘九年 三月 始置四方郵驛 命所司修理官道’라 하였다.

28) 위의 책, 新羅本紀 照知麻立干 19年條에 ‘十九年 秋七月 旱蝗 命群官 舉才堪牧民者各一人’이라 하였다.

29) 위의 책, 新羅本紀 照知麻立干 12年條.

30) 《三國史記》권 2, 新羅本紀 伐休尼師今 2年條.

그러나 이 軍主는 지방에 파견되었던 것이 아니라 중앙에 머물던 軍官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지증왕대에 지방에 파견된 군주와는 그 명칭은 동일하나 성격을 달리한다고 하겠다.

軍主는 지방에 파견되어 주로 군사활동을 하였다. 그런데 군주에 대해서는 이를 地方官으로 보는 견해와 軍官으로 보는 견해로 크게 나뉘어 있다. 군주의 주된 임무가 군사활동이었다고는 하나 그가 수행하는 임무 자체를 지방지배와 떼어놓고 이해하기 곤란하다. 군주의 군사활동은 지방관과의 상호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가령 군사활동의 대상이 된 당해 지방의 地形이나 軍需物資에 대한 문제 등은 특정 지방에 상주하는 지방관의 협조를 받지 않고서는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방의 거점 지역에 파견되었던 지방관은 그의 관할 아래에 놓여 있었다고 하겠다. 524년에 건립된 蔚珍鳳坪新羅碑에 悉支(江原道 三陟)軍主와 함께 悉支道使를 비롯한 2인의 道使가 보이는 것은 이를 방증한다. 그런 의미에서 군주는 지방관으로 보는 편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다만 그의 주된 활동은 行政인 것이 아니라 군사적인 것이었다. 軍主는 그 수가 늘어나면서 각기 일정한 범위 즉 軍管區에서 활동하였다.

군주의 군사적인 활동을 통하여 安定圈에 들어온 지역이 늘어나면서 자연 지방관이 增置되었다. 6세기에 들어와 영토가 확장되면서 자연 軍主의 파견지역이 늘어났고 게다가 지방지배 강화의 필요에서 據點地域에 파견되던 道使의 수도 증가하여 갔다. 도사의 파견지가 늘어나면서 군주가 그들을 모두 직접 장악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새로이 중간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지방관의 설치가 불가피하였다. 그러한 필요에 의하여 두어진 행정단위가 바로 郡이었다.

郡에 파견된 地方官名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지만 550년 무렵의 丹陽新羅赤城碑³¹⁾와 561년의 昌寧眞興王巡狩碑에 의하면 幢主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할 듯하다. 이로써 中古期(514~653) 지방통치체제의 基本骨幹은 갖추어지게 되었다. 이후 加耶의 복속이나 漢江流域 진출 등으로 영토가 확장되지만 이 때에 마련된 지방지배체제의 기본적인 틀은 변함이 없었다. 아래에서는 이 시기에 형성된 신라지방지배체제의 大綱과 特徵을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하겠다.

지방지배의 가장 기본 바탕에는 聚落이 존재하였다. 이 취락은 자연적인 조건에 따라 그 규모는 상당히 달랐을 것이다. 이와 같은 취락이 다수 결합된 것이 自然村이었다. 이 자연촌은 중앙에서 파악하는 행정단위는 아니었지만 그 자체 하나의 共同體로 기능하였다. 따라서 이 자연촌은 정치적인 기능을 하는 최소 단위로서 계급문화가 본격화되기 이전 원래는 氏族共同

31) 丹陽新羅赤城碑의 건립 연대에 대해서는 크게 550년 이전으로 보는 설, 그 이후로 보는 설, 550년으로 보는 설로 엇갈려 있다.

體였다고 생각된다.³²⁾ 자연촌은 그 영역이나 인구에서 상당한 차이가 나고 그곳에 거주하는在地勢力의 정치적인 위상도 달랐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自然村이 다수 결합하여 구성된 것이 바로 行政城村이었다. 이 行政城村에는 지방관으로서 道使가 파견되었으며 지방행정 기초단위였다. 行政城과 行政村은 당해 지역의 官廳所在地가 城에 있었던가 그렇지 않는가에 의해서 村과 구분되었을 따름이지 양자의 본질적인 차이는 없었다. 행정성촌을 구성하는 여러 자연촌 가운데 中心自然村에 지방관이 파견되었으므로 결국 行政城村名은 이 中心自然村名에서 유래하였던 것이라 생각된다. 6세기 金石文上에서 보이는 城村이 행정성촌이나 아니면 자연촌이냐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다. 이 행정성촌은 원래 邑落國家의 邑落(國邑도 포함)이었다. 말하자면 도사가 파견된 지역인 행정성촌은 읍락이었으며 읍락은 원래 자연촌과는 달리 地緣共同體로 기능하였다.³³⁾

이와 같은 행정성촌의 수가 증가하자 그를 묶어 주는 상급행정단위가 필요하였고 따라서 그를 위해 설치된 것이 郡이었다. 다수의 행정성촌으로 구성된 郡은 대체적으로 복속 이전의 國을 단위로 설정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³⁴⁾ 邑落國家의 國邑과 邑落의 관계를 이용한 것이 郡이었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郡의 영역범위는 대체로 읍락국가의 그것과 일치하며 郡治는 國邑에 두어졌을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물론 그렇다고 郡治와 行政城村 간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양자는 어떠한 지방관이 파견되었느냐에 따라 구별되었을 따름이다.

신라의 영역이 확장되고 지방지배가 정비되면서 군주의 파견도 증가되었다. 군주가 파견된 지역은 州로 불리웠다. 軍主는 독자적인 軍團을 거느리면서 州를 하나의 단위로 하여 군사활동을 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州는 일종의 軍管區로 기능하였다고 하겠다. 군주가 통솔한 군단이 주둔한 城村 즉 州治는 停으로도 불리웠다.

이상과 같이 신라에서는 5세기 후반에 지방의 중요거점이 城村으로 정비되면서 지방관 道使가

32) 《三國志》권 30, 魏書 東夷傳 濊條에 ‘其俗重山川 山川各有部分 不得妄相涉入 同姓不婚’이라 하여 山川에는 각기 부분이 있어 서로 멋대로 침입하지 않으며 同姓은 혼인하지 않는다는 이 집단은 바로 氏族共同體를 의미한다고 생각되거나와 신라의 自然村의 전신은 바로 이것이 아닌가 싶다.

33) 이러한 모습을 추정케 하는 것은 《三國志》권 30, 魏書 東夷傳 濊條에 보이는 다음의 기록이다. ‘其邑落相侵犯 輒相罰責生口牛馬 名之責禍’, 濊에서는 읍락 사이에 서로 지역경계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를 어겼을 경우에 責禍라 하여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 보아 읍락은 그 자체 폐쇄적인 경제적인 共同體이면서 동시에 정치적인 공동체로 기능하고 있었다고 생각되거나와 다수의 自然村으로 구성되었던 만큼 地緣共同體였으리라 생각된다.

34) 木村誠, 〈新羅郡縣制의 確立過程と村主制〉《朝鮮史研究會論文集》13, 1976, pp. 13~14. 李宇泰, 〈新羅의 村과 村主〉《韓國史論》7, 1981, pp. 100~101. 朱甫墩, 〈新羅 中古期の 郡司와 村司〉《韓國古代史研究》1, 1988, pp. 42~44.

처음으로 파견되고 6세기에 들어와 州가 설치되어 이곳에 軍主가 파견되었으며 城村을 몇 개 묶는 郡이 설치되어 이곳에 幢主가 파견되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점차 지방통치조직이 정비되어 갔다. 당시의 지방통치체제는 몇 가지 점에서 다른 시기와는 다른 특징을 보인다.

첫째, 郡을 하나의 행정단위로 설정하면서 기존 邑落國家의 기반을 완전히 해체하여 새로이 편제한 것이 아니라 그를 거의 그대로 溫存시킨 위에 지방관을 파견한 점이다. 그 까닭으로 中古期의 지방통치에서는 기존 邑落國家 내부의 支配秩序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고 하겠다. 둘째, 통일 이후와는 달리 郡의 하급행정단위가 縣이 아니라 城村이었다는 점이다. 이 城村은 여러 개의 자연촌으로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자연촌과는 달리 지방관이 파견되는 곳으로서 뒷날 縣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독립된 행정단위였다. 셋째, 지방통치조직이 軍事的인 성격을 강하게 띠었던 점이다. 中古期에는 지방통치조직 자체가 軍制와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었다. 地方軍制와 地方行政制는 아직 分化되지 못한 상태였다.³⁵⁾

중고기 지방통치제의 정비는 곧 在地세력에 대한 통제를 수반하였다. 기왕에 半獨立의인 상태에 있던 지방은 이제 정치적 경제적으로 중앙의 강한 統制力 아래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그들의 位相에는 큰 변화가 있었다. 재지세력은 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外位體系에 편입됨으로써 官僚에 준하는 존재가 되었다.³⁶⁾ 이로써 재지세력의 반독립적인 위치는 거의 상실되고 사실상 지방의 下級官僚로서 지방관을 보좌하는 역할로 轉落되었다. 재지세력의 정치적, 경제적인 지위는 그만큼 약화되고 중앙에 강하게 예속하게 된 것이다. 가령 智證王 3년(502)의 牛耕을 처음으로 시작하였다는 것은³⁷⁾ 지금까지의 고고학적인 발굴 결과로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이 때에 거의 일반화되다시피한 牛耕을 국가의 통제 아래에 두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는 우경에 가장 필요한 牛와 農器具를 장악함으로써 지방에 대한 경제적인 통제를 강화해 간 것이다. 智證王 6년(505)의 舟楫之利를 제정하였다는 것도³⁸⁾ 곧 지방에 대한 水路運送手段을 국가가 일괄 장악하였다는 의미로서 경제적인 지배의

35) 朱甫墩, 〈統一期 新羅 地方統治體制的 整備와 村落構造의 變化〉《大丘史學》37, 1989, pp. 31~32.

36) 신라에서는 官等制가 京位와 外位로 二元化되어 있었다. 京位の 기본은 17等으로서 王京人에게만 주어졌다. 이는 王京人을 대상으로 하는 身分制인 骨品制와 맞물려 운용되었다. 말하자면 골품구조 속에 편입된 자만이 京位를 소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한편 그와는 달리 外位는 地方民에게만 지급된 것이었다. 지방민은 骨品에서 제외된 骨品外的인 존재로서 그들만의 독자적인 신분체계가 마련되었다. 그와 같은 사정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外位制라 하겠다. 外位는 嶽干, 述干, 高干, 貴干, 撰干, 上干, 干, 一伐, 一尺, 彼日, 阿尺의 11等體系로 구성되었으며, 干 이하 다섯의 기본체계는 6세기초에 성립되었으나 그보다 상위의 외위는 6세기 전반 지방통치의 확대와 체제 정비과정에서 완성되었다.

37) 《三國史記》권 4, 新羅本紀 智證麻立干 3年條에 ‘三月 分命州郡主 勸農 始用牛耕’라 하였다.

38) 위의 책, 新羅本紀 智證麻立干 6年條.

한 방법으로 나온 것이었음을 보여 준다.³⁹⁾ 지증왕 10년(509) 京都에 東市를 설치하였다는 것은⁴⁰⁾은 지방에 대한 경제력 통제의 강화 결과였다고 하겠다. 이처럼 지방에 대한 통제 강화와 관련하여 주목을 끄는 것은 智證王 5년(504)의 喪服法 제정이다.⁴¹⁾

이 喪服法의 구체적인 내용은 짐작하기 어려우나 그것이 왕도에만 한정하는 규정이 아니라면 在地勢力에 대한 통제에도 이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아마도 그 속에는 中央의 貴族들 뿐만 아니라 재지세력이 그 동안 마음대로 古墳을 그들의 위상 과시의 한 방편으로 이용하여 왔던 것을 제약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지 않았을까 싶다. 이로 말미암아 재지세력은 고분축조의 규모나 내용 등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그보다 앞서 지증왕 3년(502)에 행해진 殉葬의 금지에 대한 後續措置였다. 고고학적인 연구성과에 의하면 6세기 이후 대규모의 封墳을 가진 고분의 축조가 쇠퇴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 상복법 제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하튼 喪服法의 제정은 外位制를 통한 지방 지배 강화와 맥락을 같이하는 정치적인 조치의 하나라 생각된다.

5세기 후반에서 6세기에 걸치는 신라의 지방통제를 이상과 같이 파악할 때 대구의 경우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었는가가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대상이다. 앞서 보았듯이 통일 이후 대구지역은 1개의 郡(壽昌郡)과 4개의 縣(大丘縣, 八里縣, 河濱縣, 花園縣)으로 구성되어 있었다.⁴²⁾ 이 지명들은 景德王代에 그렇게 고정된 것으로 원래는 喟火郡, 達句火縣, 八居里, 舌火縣이었다 한다. 7세기 중엽에는 縣制가 수용되었으므로 그 이전에는 이들은 모두 行政城村들이었던 셈이다. 統一期에 들어와 지방은 대대적인 정비과정을 거쳤으므로 이들을 소급하여 통일 이전에도 이들 다섯 지역이 그대로 하나의 郡을 구성한 行政城村이었던 지 어떤 지는 단정하기 어렵지만 현재 5세기대의 古墳分布로 보아 이들의 관계가 크게 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⁴³⁾ 다만 앞서 언급하였듯이 원래는 達句伐에 郡治가 있었으나 神文王(681~691)대인 689년에 이 지역의 정치적인 중요성을 고려하여 천도하려다가 실패한 이후 郡治를 위화군으로 바꾸었던 변화가

39) 安秉佑, <6~7세기의 토지제도>《韓國古代史論叢》4, 1992, pp. 285~286.

40) 《三國史記》권 4, 新羅本紀 智證麻立干 10年條.

41) 위의 책, 新羅本紀 智證麻立干 5年條.

42) 《三國史記》권 34, 地理志 尚州條.

43) 《新增東國輿地勝覽》권 26, 大丘都護府 姓氏條에 ‘壽城古有三城 壽大郡一名壤城 其姓賓 勾具城其城羅 仍助伊城 其姓曹枯’란 기사에 근거하여 이를 경덕왕대의 사정을 전하는 것으로 파악하여 壽城郡이 壤城, 勾具城, 仍助伊城이 3개의 ‘地域단위로서의 城(村)’으로 구성되었다고 본 견해도 있다(盧重國, 《百濟政治史研究》, 1988, pp. 283~284). 그러나 그 연대는 판별하기가 어렵다. 城들이 姓과 관련지워 이해되고 있는 것으로 보면 오히려 羅末麗初에 각 지방의 독자성이 고조되고 그에 따라 재지세력이 稱姓하는 것과 관련지워 이해하면 그 연대는 내려올 가능성이 많다고 보아 여기에서 고려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로 말미암아 達句伐의 정치적인 중요성은 감퇴되었다. 그와 같은 변화가 있었지만 통일 이전에도 기본적으로는 대구가 이들 다섯개의 城村으로 구성되었던 점에는 변함없지 않았을까 추정한다. 말하자면 이들 다섯 지역이 城村으로서 하나의 郡을 이루고 있었으며 그 郡治는 達句伐이었다고 보아도 그렇게 어긋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6세기에서 8세기에 걸치는 시기의 대구지역의 모습을 추정할 수 있거니와 대구 지역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문헌사료는 거의 남아 있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6세기 대구지역 모습의 일단을 전하는 大邱戍戍塢作碑(이하에서는 塢作碑라 약칭함)는 주목해 볼 만하다.

이 비는 1946년 大邱市 中區 大安洞에서 발견되고 1958년 처음으로 학계에 공식적으로

IX	VIII	VII	VI	V	IV	III	II	I	
文	起	□	塢	居	道	大	人	戊	1
作	數	助	玠	毛	尺	工	者	戌	2
人	者	只	此	村	辰	尺	都	年	3
壹	三	彼	只	代	□	仇	唯	十	4
利	百	日	村	丁	生	利	那	一	5
兮	二	此	□	一	之	支	賓	月	6
一	十	塢	□	伐	□	村	藏	朔	7
尺	二	大	□	另	□	壹	阿?	十	8
	人	廣	一	冬	村	利	尺	四	9
	功	廿	尺	里	□	力	干	日	10
	夫	步	□	村	□	兮	都	另	11
	如	高	□	沙	夫	貴	唯	冬	12
	十	五	一	木	作	干	那	里	13
	三	步	尺	乙	村	支	慧	村	14
	日	四	另	一	筆	□	藏	高?	15
	了	尺	所	伐	令	上	阿	□	16
	作	長	□	玠	一	□	尺?	塢	17
	事	五	一	得	伐	壹	干?	作	18
	之	十	伐	所	奈	利		記	19
		步	伊?	利	生	干		之	20
		此	此	村	一			此	21
		作	木	也	伐			成	22
			利	得				在	23
			一	失				□	24
			尺	利					25
				一					26
				伐					27

소개되었으며⁴⁴⁾ 지금은 그 내용의 중요성으로 보물 516호로 지정되어 경북대학교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참고로 그 전문을 소개하면 위와 같다.⁴⁵⁾

이 비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 상대적으로 이동이 용이하여 발견지점이 곧 原碑가 소재하였던 곳이라 斷言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곳으로부터 그렇게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옮겨온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으며 아마도 대구분지내에서 이동된 것으로 보는 것이 무방할 듯하다. 따라서 본비는 達句伐(城, 혹은 村) 일대의 사정을 전하는 것으로 보아도 되겠다.

이 비의 첫머리에 보이는 戊戌年은 비슷한 시기의 다른 비문과의 비교검토를 통하여 대체적으로 新羅 眞智王 3年(578)으로 추정되고 있다. 另冬里村에 위치한 塢(저수지)를⁴⁶⁾ 축조하고 동원된 재지세력들의 人名과 塢의 크기, 동원 人夫의 수, 동원된 날짜 등이 기록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578년 11월 2일에 塢의 축조를 시작하여 13일이 소요되었으며 저수지의 규모는 넓이(大廣)가 20步, 높이(高)가 5步 4尺, 길이가 60步로서⁴⁷⁾ 동원된 인력은 312人이었다 한다. 그 내용이 塢의 築造와 관련된 것이므로 지금까지 6세기 신라 力役動員體制의 실상을 이해하는 사례로서 널리 이용되어 왔다. 한편 역역동원이 대구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이 지역 촌락구조의 한 실태를 보여 주는 것으로도 이해된다.

그런데 이 塢作碑의 성격을 究明하기 위하여 591년에 건립된 南山新城碑와 비교하면 동일한 力役動員이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면에서 차이가 난다. 첫째, 塢作碑에는 역역동원의 책임자로서 지방관이 보이지 않고 대신 都唯那란 僧職 및 阿尺干이란 관등을 가진 2인의 승려가 총책임자로 보인다는 점이다. 이 승려의 존재는 본비의 역역동원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南山新城碑에는 城과 村이 함께 보이나 이 비에서는 城이 전혀 보이지 않고 村만 보인다는 점이다. 이는 오작비의 역역동원을 생각하는데 빠뜨릴 수 없는 문제이다.

44) 任昌淳, 〈戊戌塢作碑小考〉《史學研究》1, 1958.

45) 비문의 상태가 그렇게 양호하지 못하기 때문에 판독자 간에 의견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 적지 않다. 여기에서 소개하고 있는 판독문은 한국고대사연구회에서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조사하여 판독한 것을 정리한 것으로 그 원문은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에서 1992년 출간한 《譯註 韓國古代金石文》2(新羅加耶篇)에 수록되어 있다.

46) 이 塢를 처음 소개한 논고에서는 군사적인 방어시설로 이해하였으나 그 후 永川靑堤碑의 발견으로 수리시설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李基白, 〈永川靑堤碑貞元修治記의 考察〉《考古美術》102, 1969; 《新羅政治社會史研究》, 1974, p. 286).

47) 당시 1步는 6尺, 1尺은 약 30센티였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길이를 대략 짐작할 수 있다.

이 오작비의 역역동원의 성격에 대하여 승려가 보이는 점에 着目하여 이를 香徒組織과 관련지워 이해하려는 견해가 있다.⁴⁸⁾ 香徒란 일반적으로 불교신자들의 신앙활동을 위해 조직된 신도들의 結社를 일컫는다. 그러나 당시가 신라 불교수용의 초기였고 따라서 지방에까지 향도조직이 만들어질 정도로 불교가 널리 유포되었을까 하는 점 등에서 꼭 향도조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塢가 있던 지역이 중앙에 소재한 國家的 寺刹에 주어진 祿邑地였고 따라서 녹읍의 생산력을 높일 목적으로 승려가 파견되어 축조한 것이 아닐까 하는 견해도 있다.⁴⁹⁾ 여하튼 塢를 위한 역역동원은 일반행정계통을 통하지 않았음이 주목된다.

이 오작비에는 승려들 외에도 관등을 소지한 13인의 이름이 확인된다. 이들이 소지한 관등은 貴干, 干, 一伐, 一尺 등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들 13인은 모두 출신지가 같지는 않았다. 오작비에 보이는 村은 仇利支村, 夫作村, 居毛村, 另冬里村, 玠得所利村, 塢玠此只村 등 6개 村이다. 말하자면 외위를 소지한 13인은 6개의 다른 村 出身者였다. 그런데 이 村을 行政城村으로 보는 견해와 自然村으로 보는 견해로 나뉘어져 있다. 행정성촌으로 본다면 6세기 당시 그 중 하나가 達句伐이 되는 셈이며 다른 5개는 그 부근의 行政村(城)이 되는 셈이다. 그러나 이들 6개의 村들을 각각 行政城村으로 간주하기에는 남산신성비에 비교하여 재지세력이 가진 관등이 너무 낮다는 점, 정작 塢가 소재한 另冬里村의 재지세력은 1명 뿐이며 그가 가진 관등도 겨우 一伐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이들 村들은 하나의 行政城村을 구성하는 自然村들이었다고 하겠다.⁵⁰⁾ 그렇다면 이는 대구가 위치한 지역의 行政城村인 達句伐을 구성하는 自然村이 될 수밖에 없다. 물론 達句伐이 이들 6개의 自然村만으로 구성되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이밖에 다른 자연촌도 존재하였을 것이다. 여기에 기록된 자연촌은 저수지의 축조 당시 外位所持者가 소속된 자연촌들이며 따라서 외위소지자가 없었던 자연촌은 기록에서 빠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재지세력의 외위소지는 자연촌의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났다. 그런 의미에서 위의 6개 자연촌 가운데 가장 높은 외위 소지자가 있는 仇利支村이 일단 中心村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단정은 할 수 없지만 塢를 축조하기 위한 역역동원이 달구벌이라는 行政城村 단위로 행해졌다면 仇利支村이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의미에서 행정 중심지라고 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

요컨대 6세기 대구지역에도 신라의 지방 편제에 따라 지방관이 파견되었는데 達句伐이 中心

48) 盧重國, 앞의 책, p. 299.

49) 朱甫噉, 앞의 논문, 1988, p. 58.

50) 朱甫噉, 위의 논문, pp. 58~59.

行政城村으로서 이 지역의 郡治였다. 여기에 포함된 行政城村의 수는 4개 내외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중 달구벌은 仇利支村을 비롯한 적어도 6개 이상의 自然村으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하겠다.

第3節 佛教의 傳來·發展과 大邱

I. 佛教의 傳來와 受容過程

신라의 불교는 대구 서북쪽의 一善郡(善山)에서 시작되어 大邱의 八公山 지역으로 들어오고, 여기서 다시 신라의 서울 金城(慶州)으로 전파되었다. 따라서 대구지역의 불교 전래는 선산 지방에서의 佛教初傳과 그것이 경주지역으로 파급되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그 실상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신라의 불교 전래와 그 수용과정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있었다. 그러나 너무 지배층 중심으로 이해하려 한다면, 민간 및 왕실을 구분하지 않은 채 불교 전래 및 수용을 논하였고, 불교의 전래·수용·공인의 의미도 불분명하게 사용하는 등의 문제가 없지 않았다. 여기서는 민간에 전래된 불교가 왕실에 전파되고 마침내 국가의 공인을 받았음에 주목, 전해주는 쪽에서의 불교 전래, 받아들이는 쪽에서의 불교 수용, 국가의 법제적 조치로서의 불교 공인을 구분하는 입장에서 신라 불교의 정착과정을 살피고자 한다.⁵¹⁾

우리 나라에 불교가 들어온 것은 삼국시대의 일이며, 그중 북방의 고구려는 가장 먼저 불교에 접할 수 있었다. 서기 366년에 죽은 晉僧 支遁道林(314~366)이 지금은 이름을 알 수 없는 고구려 승려에게 편지를 보내 竺潛(僧 法深, 284~374)을 찬양한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⁵²⁾ 물론 이것이 晉에서 고구려로 보낸 편지인지 중국에 가 있던 고구려 승려에게 보낸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그러나 고구려인 중에 이미 불교 관계자를 내었다는 사실은 고구려에서 4세기 전반 불교가 전래되었음을 긍정케 한다. 그러다가 소수림왕 2년(372) 前秦王 苻遣이 보낸 사신을 따라 僧 順道가 와서 佛像과 經文을 전하였고, 374년에는 僧 阿道가 왔다고 한다. 이는 민간에 전해졌던

51) 이같은 문제의식은 崔光植, 〈新羅의 佛教 傳來·受容 및 公認〉《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12, 1991에 잘 나타나 있다.

52) 《梁高僧傳》권 4, 義解 竺潛傳 및 《海東高僧傳》권 1, 釋亡名傳.

불교가 왕실에까지 전래되었음을 말할 것이다. 그 이듬해인 왕 5년(375)에는 肖(省)門寺와 伊弗蘭寺를 지어 순도와 아도를 그곳에 거처하게 하였다. 이제 받아들이는 주체가 사원을 창건하였으므로 이때 불교는 비로소 수용되었고, “崇信佛法求福”할 것을 下敎한 고국양왕 8년(391)에 이르러서는 마침내 법제적으로 국가의 공인을 받게 되었다고 하겠다.⁵³⁾

백제의 경우도 고구려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고구려보다 다소 늦은 침류왕 원년(384) 바다 건너 晉으로부터 불교가 전래되었다. 즉 胡僧 摩羅難陀가 오자 왕은 그를 궁내에 맞아 禮敬하였다고 하므로, 이때 왕실에 불교가 전래되었다고 하겠다.⁵⁴⁾ 그 다음 해인 왕 2년(385)에는 漢山에 사원을 창건하고 10인이 승려가 되는 것을 허락한 바 이때 불교는 수용 단계에 접어들었고, “崇信佛法求福”을 下敎한 아신왕 즉위년(392) 마침내 공인을 받게 된 것이다.⁵⁵⁾

신라는 고구려나 백제보다 자료가 비교적 많이 남아 있으나 불교의 전래 및 수용과정을 단계적으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신라의 불교 전래에 대해서는 기본자료에서부터 異說이 있지만,⁵⁶⁾ 訥祗麻立干을 전후한 시기 고구려로부터 一善(善山)으로 전파된 것이 시초가 아닌가 한다.⁵⁷⁾ 《三國史記》권 3, 新羅本紀 法興王 조에는 異次頓의 순교 설화를 설명하면서 金大問의 《鷄林雜傳》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처음 訥祗王 때에 墨胡子란 중이 고구려에서 一善郡(지금의 善山)에 오자 郡人 毛禮가 집안에 窟室을 지어 모셨다.

위의 사료에서는 신라에 불교가 전래된 것이 5세기 초 눌지왕대(417~457)였음을 밝히고 있다. 눌지왕대는 고구려의 장수왕대(413~491)에 해당하는데, 장수왕 前代 광개토왕이 步騎 5萬을 보내어 신라에 침입한 倭兵을 내쫓았다고 하는 바⁵⁸⁾ 이미 불교가 수용·공인되었던 고구려의

53) 崔光植, 앞의 논문, p. 110. 《삼국사기》正德本에는 왕 9년의 사실로 되어 있으나 이 해는 광개토왕 2년이므로 맞지 않는다. 李丙燾 校勘本(乙酉文化社, 1977)에서는 8년으로 수정하고 있다.

54) 민간의 전래는 이보다 빠를 가능성이 있다. 許興植, 〈國師·王師制度和 그 機能〉《高麗佛教史研究》, 一潮閣, 1986, p. 392에서는 海路를 통한 전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55) 崔光植, 위의 논문, p. 111.

56) 味鄒王 2년(263) 설(《三國遺事》所引〈阿道本碑〉 및 《海東高僧傳》所引《殊異傳》의 설), 梁 大通 元年(법흥왕 14년, 527) 설(《海東高僧傳》所引〈古記〉의 설), 訥祗王代說(《三國史記》所引《鷄林雜傳》의 설) 등이 있는 바 연구자의 사료를 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나오고 있다.

57) 李基白, 〈三國時代 佛教 受容과 그 社會的 意義〉《新羅思想史研究》, 一潮閣, 1986, pp. 8~9. 미추왕 2년(263) 설은 고구려·백제에 불교가 들어오기 전이라는 점에서, 梁 大通 元年(법흥왕 14년, 527) 설은 불교의 初傳이 아닌 이차돈의 순교가 있었던 해라 하여 부정하고 있다.

58) 韓國古代社會研究所, 〈廣開土王陵碑〉《譯註 韓國古代金石文》, 1992, 참조.

실정을 감안하면, 신라의 불교 전래 시기는 눌지왕대보다 소급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하겠다.⁵⁹⁾ 墨胡子是 고구려로부터 일선군에 이르러 모례의 집을 근거로 포교활동을 하였다고 하므로, 신라의 불교 전래 경로는 고구려를 통한 것이며, 이로서 민간에 불교가 전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고 하겠다.

《삼국사기》신라본기에는 위의 기사에 이어 또 다음과 같은 기사를 전하고 있다.

당시 梁나라가 신라에 사신을 보내어 의복과 향을 바쳤다. 그러나 君臣이 香名과 사용법을 알지 못하여 향을 가지고 전국을 돌면서 물었다. 이에 墨胡子가 이를 보고 물건의 이름을 알려주고 말하기를 “이것을 피우면 향기가 아름답게 퍼져 神聖에게 정성을 통할 수 있으며, 이른바 神聖은 三寶에서 더 지나갈 것이 없으니, 三寶는 첫째 佛陀요, 둘째는 達磨요, 세째는 僧伽이다. 만일 이것을 피워서 祝願을 드리면 반드시 영험이 있으리라”고 하였다. 이때 王女가 갑자기 病으로 위독하여 王이 胡子로 하여금 향을 피워 축원을 드리게 하였더니 王女의 病이 곧 나았다. 王이 매우 기뻐하여 胡子에게 禮物를 후히 주었다. 胡子는 나와서 毛禮를 보고 下賜받은 물건을 주며 말하기를 “나는 이제 갈 곳이 있다”하고 작별 인사를 하더니 얼마 아니하여 간 곳을 모르게 되었다.

위의 기록을 통해 민간에 전래되었던 불교가 이제 왕실에까지 전래되었음을 알 수 있겠다. 즉 梁의 사신이 옷과 향을 가져왔으나⁶⁰⁾ 군신이 향명과 그 쓰임새를 몰라 목호자에게 물어보게 되었다. 또한 이때 왕녀의 병이 심하여 왕이 목호자로 하여금 향을 피워 빌게 하였더니 왕녀의 병이 나았다. 왕은 매우 기뻐하여 답례를 극진히 하였으나 목호자는 모례를 만나 얻은 물건들을 주고는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다. 이는 불교가 한때 왕실에 의해 환영을 받았으나 수용되기 어려웠던 사실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와 같이 눌지왕대에 민간과 왕실에 불교가 전래되었다면, 신라의 불교 전래 자체는 고구려나 백제에 비해 반드시 크게 뒤진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59) 李基白, 〈三國時代 佛教 受容과 그 社會的 意義〉, 앞의 책, p.9.

60) 梁은 502년에 건국된 왕조이므로 문맥상 맞지 않는다. 뒤 시기의 사실이 눌지왕대에 들어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으나, 아마 눌지왕 무렵 왕실에 불교가 전래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는 경주지역 출토 遺物들에서 방증이 되는데, 辛鍾遠은 415년(實聖王 14)에서 멀지않은 시기에 축조된 것으로 여겨지는 壺杆塚 출토 異形靑銅器의 뚜껑에 蓮花紋이 새겨져 있다든가 皇南大塚(98호분) 北墳 출토 漆器(六朝 초기의 黑褐釉小瓶)에 3종의 연화문이 그려진 사실을 근거로 5세기 전반 왕실에서는 불교와 접촉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특히 씨는 후자의 유물을 백제를 통한 남방불교 전래의 근거로 이해하고 있다. 辛鍾遠, 〈新羅佛教의 傳來와 受容〉 《新羅初期佛教史研究》, 民族社, 1992, pp. 131~138.

一善(善山) 지역은 炤知王(毗處王) 때 阿道和尚이 와서 포교함으로써 불교 수용의 단계로 접어들게 되었다. 이는 앞서의 기사에 이어지는 다음 사료에서 짐작할 수 있다.

毗處王代에 이르러 阿道(我道)란 和尚이 侍者 3인과 함께 또한 毛禮의 집에 왔다. 그의 외양이 墨胡子와 비슷하였다. 수년 동안 住錫하다가 병도 없이 죽었다. 그 侍者 3인이 남아 있어서 經律을 講하니 왕왕 信者가 생기었다.

목호자가 불교를 전래한 一善 지역에 다시 아도화상이 왔다고 한다. 그리고 아도화상이 사라진 뒤에도 신앙활동이 계속되어 백성들은 불교를 信奉하였다고 한다. 이는 이전보다 민간의 불교 포교가 용이해져⁶¹⁾ 민간에서 주체적으로 불교를 수용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민간에 수용된 불교는 다시 왕실에 수용되었다. 《三國遺事》 권 3, 興法 3, 阿道基羅 조에는 〈阿道本碑〉를 인용하여

그 나라 서울 안에 7군데 伽藍터가 있다. 一은 金橋 동쪽의 天鏡林이고, 二는 三川岐이고, 三은 龍宮의 남쪽이고, 四는 龍宮의 북쪽이며, 五는 沙川尾이고, 六은 神遊林이며, 七은 媚請田이다. 모두 前佛時代 伽藍터로 法水가 長流하던 땅이다. 네가 그곳으로 가서 大敎를 전파하면 釋祀가 東으로 향할 것이다.

라 하였거니와, 이중 天鏡林에 대해서는 細註에

지금의 興輪寺다. 金橋는 西川橋이니 俗語로 술다리라고 전한다. 이 절은 我道가 처음 터를 잡은 것인데, 중간에 폐지되었다가 法興王 丁未年(527)에 시작하였고, 乙卯年(535)에 크게 開役하여 眞興王 때에 낙성되었다.

라 하였기 때문이다. 아도는 마침내 신라의 서울 경주로 진출하여 흥륜사의 창건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고 한다. 이는 한때 불교가 왕실에 수용되었음을 말할 것이다. 왕실의 불교 수용은 《삼국유사》 권 1, 기이 1, 射琴匣 조에서 더욱 분명하게 살필 수 있다.

61) 아도의 전도에 앞서 불교탄압으로 민간에는 이미 여러 순교자가 발생한 듯하다. 《海東高僧傳》 소재 《古記》의 다음 기록이 참고된다. “阿道가 一善郡에 오니 天地가 진동했다. … 毛禮가 나가보고 깜짝 놀라 말하기를 ‘지 난날 고구려 僧인 正方이 왔을 때 君臣이 상서롭지 못하다고 괴이하게 여겨 의논하여 죽였고, 滅垢玼라는 중이 뒤를 이어 왔으나 또한 죽임을 당했다. 당신이 지금 무엇을 구하러 여기 왔소. 빨리 문안으로 들어와 이웃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하시오’ 하고 密室에 숨기고 공양했다.”

제21대 毗盧王 즉위 10년 戊辰(488)에 왕이 天泉亭에 행차하였다. 이때 까마귀와 쥐가 와서 울더니 사람처럼 말을 하여 이 까마귀가 가는 곳을 찾아보라 하였다. 王이 騎士에게 명령하여 뒤쫓게 했다. 기사가 남쪽으로 避村에 이르러 두 돼지가 싸우는 것을 서서 보다가 문득 까마귀가 간 곳을 잊어버리고 길가에서 헤매고 있었다. 이때 한 老人이 못 속에서 나와 글을 올리니 걸봉에 써어 있기를 “이를 떼어보면 두 사람이 죽을 것이고, 떼어보지 않으면 한 사람이 죽을 것이다”고 하였다. 기사가 돌아와서 왕에게 드리니 왕이 말하되 “두 사람이 죽는 것보다는 떼어보지 않고 한 사람만 죽는 것이 낫겠다”고 하였다. 日官이 아뢰되 “두 사람이란 것은 庶民이요, 한 사람이란 것은 王입니다.” 왕은 그렇게 여겨 떼어보니 그 글에 “琴匣을 쏘라”하였다. 왕이 곧 궁에 들어가 琴匣을 쏘니 그곳에는 內殿에서 焚修하던 중이 宮主와 相奸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마침내 伏誅되었다. 이로부터 나라 풍속에 해마다 正月 上亥, 上子, 上午日에는 모든 일을 조심하여 움직이지도 않고, 15일을 烏忌日이라 하여 찰밥으로 제사지내니 지금도 행하고 있다.

즉 21대 비처왕(소지왕) 10년(488)에 왕이 天泉亭에 행차하였을 때 까마귀와 쥐가 와서 울면서 까마귀 가는 곳을 쫓으라 하였다. 왕이 기사를 시켜 이를 따르게 하였으나 마침 까마귀 간 곳을 잊어버렸다. 이때 老人이 못에서 나와 글을 받들었는데, 글 중에 ‘琴匣을 쏘아라’고 쓰여져 있어 궁궐에 들어가 이를 쏘니 內殿 焚修僧과 宮主가 잠통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소지왕 10년(488) 궁궐 안 內殿에 焚修僧이 존재하였다는 것은 이미 그 이전에 불교가 왕실에 수용되었음을 웅변해 주는 사례일 것이다.⁶²⁾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하여 마침내 법흥왕은 불교를 공식적으로 수용하려고 하였다. 법흥왕은 왕실불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미 백성들이 수용하고 있는 불교를 공인함으로써 백성들을 통치하고, 또한 백성들과 연결하여 귀족세력들을 누르려고 한 것이다.⁶³⁾ 그러나 법흥왕의 이러한 시도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음과 같은 이차돈의 순교 설화는 이러한 사정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법흥왕이 또한 불교를 일으키려 하니 群臣은 믿지 아니하고 입으로 떠들기만 하므로 王은 주저하였다. 近臣 異次頓이 아뢰기를 “청컨대 臣의 목을 베어 衆議를 정하소서”하니, 王은 말하기를 “본시 道를 일으키려 하는데 無罪한 사람을 죽일 수 없다”고 했다. 異次頓이 대답하기를 “만일 道가 행해질 수 있다면, 臣은 죽어도 유감이 없습니다”라고 했다. 왕은 이에 群臣을 불러 물으매 모두 말하기를 “지금 보면 중들은 머리를 깎고 이상한 옷을 입고 言論이奇怪하고 거짓스러워 보통의 道가 아니오니, 만약 지금 이것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62) 눌지왕 이후의 왕호인 慈悲王·炤知王·智證王 등이 불교 술어에 가깝다는 점을 방증의 근거로 들기도 한다. 辛鍾遠, 〈三國時代 佛教 傳來와 그 受容過程에 대한 再檢討〉《白山學報》22, 1977, pp. 159~168.

63) 崔光植, 앞의 논문, p. 117.

혹 후회가 있을지 모릅니다. 臣들은 비록 重罪를 입을지라도 감히 御命을 받들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異次頓만은 홀로 말하기를 “지금 群臣의 말은 옳지 못합니다. 대개 非常한 사람이 있는 然後에 비상한 일이 있는 것입니다. 듣건대 불교는 그 뜻이 깊다 하오니 불가불 믿어야 하겠습니다”고 하였다. 왕은 “여러 사람의 말은 깨뜨릴 수 없고 너 혼자 議論이 다르니 둘 다 좇을 수는 없다”하고 드디어 刑吏에게 명을 내리어 장차 목을 베려 하였다. 異次頓이 죽음에 임하여 말하되 “나는 불법을 위하여 刑을 받음이니 佛이 만일 神靈이 있다면, 내가 죽은 뒤 반드시 이상한 일이 있으리라”고 했다. 그를 목베니 피가 웅숭웃쳐 뿔뿔이 젖과 같이 희었다. 여러 사람들이 보고 이상하게 여기어 다시는 佛事를 반대하지 않았다.

위의 사료는 《계림잡전》의 기사로 앞서 인용한 《삼국사기》에 이어지는 것이다. 법흥왕과 이차돈이 불교를 일으키려 하였다 함은 궁궐 밖 天鏡林에 홍륜사의 창건을 시도한 사실을 말한다. 그러나 이는 귀족들의 반대에 부딪치고 마침내 이차돈은 순교했다. 종래에는 이차돈의 순교를 불교의 공인으로 이해하였으나, 이는 불교를 일으키려다 박해를 당해 실패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을 뿐인 것이다. 고구려나 백제는 왕실에서 사원을 창건하여 불교를 수용하였으나, 신라에서는 법흥왕의 홍륜사 창건 의도가 좌절되었다. 따라서 이때에는 아직 불교의 공인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홍륜사의 창건 공사로 이차돈이 순교하였지만, 얼마 뒤 홍륜사의 창건 공사는 다시 재개되었다. 《삼국유사》 권 3, 興法 3, 原宗興法 毘闍滅身 조의 興輪寺에 대한 細註에

國史와 鄉傳에 의하면, 실상 法興王 14년 丁未(527)에 開役하고 22년 乙卯(535)에 크게 天鏡林을 採伐하여 工役을 시작하였는데, 棟梁의 材를 다 거기서 넉넉히 취하였고, 階礎와 石龕도 다 갖추었다. 眞興王 甲子(554)에 절이 낙성되었으므로 甲子라 한 것이니 僧傳에 7년이라 한 것은 잘못이다.

라 하고 있다. 법흥왕 14년(527)에 공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이차돈의 홍륜사 창건을 말하겠지만, 그는 群臣의 반대로 처형되었으므로 사원의 창건은 중단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왕 22(535)년에 창건 공사가 재개되었으므로 이 무렵에는 왕실에 불교가 공식적으로 수용되었다고 하겠다.⁶⁴⁾ 그러나 국가의 법제적 조치로서의 공인은 홍륜사가 완성된 진흥왕 5년(544)이었다. 《삼국사기》 권 3, 신라본기 진흥왕 5년 조에는

64) 李基白, 〈三國時代 佛教 受容과 그 社會的 意義〉, 앞의 책, p. 13. 씨는 이 해를 불교 공인의 해로 파악하고 있다.

2월에 興輪寺가 낙성되었다.

3월에 사람들이 出家하여 僧尼가 되고 奉佛함을 許하였다.

라 한 조치는 불교가 국가적으로 공인되었음을 나타낸다고 하겠다.⁶⁵⁾

이상과 같이 처음 지방에 전래된 불교는 왕실에 전파되고 마침내 국가의 공인을 받게 되었다. 이제 정치·문화의 중심인 수도에서 소화·정립된 불교는 다시 逆流하여 각 지방으로 전파되는 경로를 밟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신라에서는 큰 사찰이 창건되고, 수많은 불경이 수입되고, 국가의 발전을 비는 법회가 열리고, 西學하는 승려가 많이 배출되어 명실상부한 國家佛教로 성장하게 되었다.

그럼 여기서 대구지역의 불교 수용과 전래의 시기는 언제였을까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물론 삼국시대를 통털어 대구지역에 불교가 수용되었다는 분명한 증거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불교가 국가적으로 공인된 진흥왕 5년(544) 이후에는 이곳 대구에도 불교가 수용되었고, 사원도 여럿 창건되었을 것임은 미루어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夫人寺(符仁寺)의 경우 善德女王代(647~654)에 창건되었다는 寺傳이 있다든가,⁶⁶⁾ 대구시 중심가인 大安洞 발건 戊戌塢作碑(眞智王 3년, 578 건립 추정)에 寶藏·慧藏 등 승려가 등장한다는 사실⁶⁷⁾ 등은 대구지역 불교 수용을 방증해 주는 사례가 아닐까 한다. 그렇다면 불교의 처음 전래 시기는 언제였을까? 종래에는 공인 이전의 불교는 공백기로 이해하였지만, 민간에서 시작된 불교가 마침내 국가의 공인을 받게 되었고, 大邱가 善山과 慶州의 중간에 위치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인 이전에도 불교가 전래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상정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桐華寺事蹟》·《朝鮮寺刹史料》·〈桐華寺蹟碑銘〉 등에서는 桐華寺의 創建을 炤知王 15년(493)으로 전하고 있다. 이들은 후대의 자료라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를 크게 감소시키지만, 고대 대구지역 불교계 이해에 시사하는 바 없지는 않다고 할 것이다.

65) 崔光植, 앞의 논문, p. 119.

66) 文暉鉉, 〈八公山과 佛教〉《八公山》, 대구직할시·경북대학교, 1987, p. 238, 그의 桐華寺의 金堂塔이 眞平王代에 始創되었다는 설도 있다. 《朝鮮寺刹史料》上, 朝鮮總督府, 1911, p. 396.

67) 〈大邱 戊戌塢作碑〉《譯註 韓國古代金石文》II, 1992 참조. 오작비의 원 위치나 寶藏·慧藏 등 승려의 이력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오작비의 처음 소재지는 대략 대구분지 내가 아닐까 추정되고 있다. 尹容鎮 〈大邱의 沿革과 관련된 古代記錄 小考〉《郷土文化》7, 1993.

II. 原始信仰의 佛教的 變容

신라에 불교가 전래되면서 사머니즘의 原始信仰은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되었다. 종래 원시 신앙이 차지해오던 지위는 점차 불교신앙으로 대체되어 갔지만, 불교의 수용이 순조롭지 않았던 사실에서 양자간에 상당한 마찰과 갈등이 있었음도 짐작할 수 있다. 그리하여 불교가 수용되었다 하더라도 전통문화 속에 뿌리박고 있는 원시신앙을 완전히 구축할 수는 없었으며, 원시신앙 역시 선진문화를 대변하는 불교를 외면할 수 없었다. 따라서 양자 사이에는 타협과 절충 그리고 공존이 모색되게 되었다. 예컨대 圓光이 중국으로 유학한 것은 三岐山神의 권유에 의한 것이라든가,⁶⁸⁾ 통일 뒤 中岳 山神이 心地로부터 계율을 받고 桐華寺를 건립할 자리를 점지해 주었다는 설화,⁶⁹⁾ 또한 仙桃山 聖母가 安興寺의 佛事を 도왔으며 이 절의 탕화에는 五岳神君이 그려져 있었다는 설화⁷⁰⁾ 등은 원시신앙과 불교의 공존의 한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바 불교 사원에 山神閣 등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곧 이를 말한다고 하겠다.⁷¹⁾ 특히 불교 수용 이후 蘇塗와 같은 원시신앙의 聖地가 불교 사원으로 변모되어 가는 모습은 삼국시대 불교의 확산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범흥왕과 이차돈이 건립하고자 한 興輪寺의 창건터가 天鏡林이었다는 사실은 주목된다고 하겠다.

어머니가 [아도에게] 말했다. 그 나라 서울 안에 7군데 伽藍터가 있다. 一은 金橋 동쪽의 天鏡林(지금의 興輪寺다. 金橋는 西川橋이니 俗語로는 松橋라 부른다. 절은 我道가 처음 터를 잡았다. 그러나 중간에 폐허가 되었다가 범흥왕 丁未年에 처음으로 짓기 시작하여 乙卯年에 크게 공사를 벌여 진흥왕대에 마쳤다)이고, 二는 三川岐(지금의 永興寺다. 興輪寺와 동시에 開創했다)이고, 三은 龍宮南(지금의 皇龍寺다. 진흥왕 계유년에 開創했다)이고, 四는 龍宮北(지금의 芬皇寺다. 선덕왕 갑오년에 開創했다)이며, 五는 沙川尾(지금의 靈廟寺다. 선덕왕 을미년에 개창했다)이고, 六은 神遊林(지금의 四天王寺다. 문무왕 기묘년에 개창했다)이며, 七은 孀請田(지금의 曇嚴寺다)이다. 모두 前佛時代의 가람터로 法水가 長流하던 땅이다. 너가 그 곳으로 가서 大敎를 전파하면, 釋祀가 東으로 향할 것이다.

68) 《三國遺事》 권 4, 義解 5, 圓光西學.

69) 《三國遺事》 권 4, 義解 5, 心地繼祖.

70) 《三國遺事》 권 5, 感通 7, 仙桃聖母隨喜佛事.

71) 崔光植, 〈古代祭儀와 佛教의 融和〉 《韓國古代의 祭儀研究》, 고려대 문학박사학위논문, 1989.

위의 기사는 《삼국유사》 권 3, 興法 3, 阿道基羅 조에 인용된 〈阿道本碑〉의 일부분이다. 그런데 아도의 母에 의하면, 前佛時代의 가람터로 天鏡林·三川岐·龍宮南·龍宮北·沙川尾·神遊林·婿請田 등 7곳이 있었다고 한다. 이는 신라가 전부터 불교와 인연이 깊은 곳이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후 실제 사원이 건립된 사실로 보아 무의미하게 열거된 지명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들 지역은 天鏡林·神遊林 등의 명칭으로 미루어 古代信仰에 있어서의 神聖地域, 삼한시대 蘇塗로 불리우던 지역이었던 것이다.⁷²⁾ 법흥왕이 이러한 곳에 사원을 창건코자 한 것은 종래 원시신앙이 차지하던 지위를 불교로 하여금 대신케 하려 하였기 때문이다.⁷³⁾ 이같이 고대 원시신앙의 연고지에 사원이 건립된 사실은 원시신앙의 신성지역이 불교의 수용으로 불교적 신성지역으로 변용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前佛時 7가람터에서와 같은 현상은 《三國遺事》 권 4, 義解 5, 慈藏定律 조의 다음 기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慈藏이] 만년에는 서울을 하직하고 江陵郡에 水多寺를 세우고 그곳에 살았는데, 北臺에서 본 것과 같은 형상을 한 異僧이 꿈에 나타나 말하기를 “내일 大松汀에서 그대를 만날 것이다”라고 했다. 놀라 일어난 자장은 일찍 나가서 松汀에 이르니 과연 문수보살이 감응하여 온지라 法要를 물으니 “太伯山 葛蟠地에서 다시 만나자”고 하고는 자취를 감추었다. 자장이 태백산으로 가 그를 찾다가 큰 구렁이가 나무 밑에 서리어 있는 것을 보고 侍者에게 “이곳이 이른바 葛蟠地다”라 하고, 이곳에 石南院(지금의 淨巖寺다)을 세우고 大聖이 강림하기를 기다렸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太伯山 葛蟠地라는 곳이다. 葛蟠地는 ‘취녕쿨이 우거진 곳’의 뜻이지만, 단순히 취녕쿨이 우거진 곳이 아니라 큰 구렁이가 나무에 蟠結해 있는 곳으로서, 삼한시대 蘇塗와 같은 존재임이 밝혀지고 있다.⁷⁴⁾ 즉 한국 고대에 있어 山岳은 天上의 존재가 내려오는 기착지 내지 天上과 地上의 교통로로 여겨지고 있고, 갈반지의 큰 구렁이가 반결해 있는 나무 역시 그러한 성격을 띤 聖樹로 여겨지므로, 갈반지는 원시신앙의 소도와 성격이 같다는 것이다. 종교적 성격이

72) 李基白, 〈三國時代 佛教 受容과 그 社會的 意義〉, 앞의 책, p.29. 특히 林·川이 붙은 지명은 더욱 종교적 聖域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金宅圭, 〈新羅 및 古代 日本의 神佛褶合에 대하여〉 《韓日古代文化交渉史研究》, 乙酉文化社, 1974, p.260 참조.

73) 李基白, 〈三國時代 佛教 受容과 그 社會的 意義〉, 앞의 책, pp.29~30. 씨는 이러한 巫佛交代 현상은 양자 사이의 충돌과 융합과정이기도 했다고 하였다.

74) 徐永大, 〈佛教受容과 土着宗教〉 《韓國古代 神觀念의 社會的 意味》, 서울대 문학박사학위논문, 1991, pp.281~285.

같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大木을 세우고 북과 방울을 달아 鬼神을 제사하는 곳이 아닌 산중의 큰 나무에 큰 구렁이가 반결해 있는 것으로 기록된 것은, 《삼국지》 동이전의 소도 기사가 한국 고대인의 종교적 세계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중국인의 드러난 현상 자체에 대한 기술인데 비해, 《삼국유사》의 자료는 한국 고대인의 문화인식 방법에 입각한 내면적 기술인 데서 오는 차이 때문이었다.⁷⁵⁾ 다시 말해 이는 동일한 현상의 각기 다른 면을 기록한 것일뿐 실체는 같다는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 葛蟠地에 石南院(淨巖寺)이 세워지고 있다. 이는 경주의 前佛時 7가람터가 불교 사원으로 전환한 것과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며, 원시신앙의 聖地가 불교적 변용을 거치는 또 하나의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불교는 기존 신앙체계의 일방적 부인 위에 수용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능한 한 포용하고 또 그것과 타협하면서 수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기존 신앙체계에서의 신성지역과 별도로 사원이나 불교의 신성지역을 설치함으로써 양자간 대립이 있었고, 또 그 결과로서 불교가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라, 상호 연속성 속에서 기존 신앙체계와의 타협 위에 불교가 수용되어 갔음을 나타낸다고 하겠다.⁷⁶⁾ 그리고 이와 같은 현상은 대구지역의 초기 창건 사원의 경우에도 나타나고 있었으리라 짐작된다.

III. 國家佛敎의 成長

삼국시대 대구지역에도 불교 사원과 승려가 존재했을 것이지만, 그 존재를 명확히 제시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당시 대구지역 불교의 성격은 신라 불교계의 전반적인 추세에 비추어 그 위치를 추정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삼국시대의 신라 불교는 護國的인 성격이 강하다는 데 특징이 있다. 물론 질병을 고친다든가 자식 낳기를 구한다든가 하는 개인의 現世利益을 비는 경우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국가의 발전을 비는 호국신앙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에 따라 護國經으로 유명한 《仁王經》이나 《法華經》은 매우 중시되었다. 특히 《仁王經》(護國品)에는 “국토가 어지러워지고, 여러 災難이 일어나고, 外賊이 침입하였을 때, 道場을 장엄히 하여 백 개의 佛像, 백 개의 菩薩像, 백 개의 羅漢像을 모시고, 백 명의 比丘衆을 청해다가 《仁王經》을 들으면, 각종 재난이 사라질 것이다”고 하였는데, 이 설에 따라서 대외적인 전쟁에서의 승리, 민란 진압, 국왕의

75) 徐永大, 〈佛敎受容과 土着宗教〉, 앞의 논문, p. 281.

76) 崔光植, 〈古代祭儀와 佛敎의 融和〉, 앞의 논문 및 徐永大, 〈佛敎受容과 土着宗教〉, 앞의 논문 참조.

병환 치료 등을 위한 《인왕경》 강독 법회가 자주 행하여졌다. 이와 같은 의식을 百座講會(仁王道場)라 하는데, 이는 眞興王이 고구려의 승려 惠亮을 僧統으로 삼아 개최한 이후 매우 성대하게 행하여졌다. 백좌강회 외의 호국적 법회로 八關會가 있었다. 이는 八戒를 받는 법회로서 본래 宗教的·禁欲的·修行的 의의를 갖는 것이었으나, 호국적 의미를 가지고 백좌강회와 함께 혜량에 의해 시작되었다.

신라의 수많은 사원들도 모두 佛法 자체만을 위한 목적으로 창건된 것은 아니었다. 물론 그 대부분이 개인의 冥福을 빈다든지, 傳道의 중심지를 마련한다든지 하는 목적에서 만들어졌을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최대의 규모를 자랑했던 皇龍寺는 창건 동기가 護國의 靈場을 마련하는데 있었다. 이는 진흥왕 14년(553) 月城 동쪽에 新宮을 지으려다 黃龍이 나타나자 佛寺로 고쳐 17년간의 공사끝에 완성하였다. 그후 신라 최대 규모의 丈六像·金堂·九層塔 등이 차례로 조성되었는데, 장육상과 9층탑은 眞平王의 玉帶와 더불어 신라의 護國三寶였고, 백좌강회는 이곳에서 베풀어졌다.⁷⁷⁾ 또한 花郎은 彌勒佛이 下生한 것이라는 신념 등도 이같은 호국신앙의 표시였다.

신라 불교계에서 승려들이 지켜야 할 생활 기준으로서의 戒律을 중시한 것이라든가, 國統·州統·郡統 등의 僧官을 두어 전국의 佛寺와 승려를 통제한 것도, 이같은 불교의 호국적 성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慈藏은 이러한 경향의 대표적 인물로, 그는 선덕여왕대에 入唐하였다가 귀국 皇龍寺의 寺主로서 大國統이 되었고, 다음과 같이 신라의 전불교계를 총괄하였다.

朝廷이 의논하기를, 불교가 동방에 들어온지 비록 오래되었으나 그 住持의 修奉하는 법이 없으니, 통괄하여 다스리지 않으면 바로잡을 수 없다 하여, 啓勅으로 慈藏을 大國統으로 삼아 僧尼의 모든 규범을 僧統에게 위임하여 주관케 하였다. 慈藏이 이런 좋은 기회를 만나 용기를 내어 佛法을 널리 전하였다. 僧尼五部に 각기 舊學을 더 증가하고 반달마다 戒를 풀이했으며, 겨울과 봄에 시험하여 승려의 犯戒를 알게 하며, 官員을 두어 관리·유지케 했다. 또 巡使를 보내어 지방의 사원을 차례로 검사하여 승려의 과실을 경계하고, 불경과 불상을 엄중히 정비하여 恒式으로 삼았으므로 한 시대의 불법을 보호함이 이때에 가장 성했다. 마치 孔子가 衛로부터 魯로 돌아와 음악을 바로잡아 雅와 頌이 각기 그 마땅함을 얻음과 같았다.⁷⁸⁾

77) 황룡사는 창건 뒤 왕실의 願堂이 됨으로써 더욱 호국적 사원이 되었다고 추측된다. 李泳鎬, 〈新羅 成典寺院의 成立〉《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14, 1993 참조.

78) 《三國遺事》권 4, 義解 5, 慈藏定律.

또한 그는 황룡사에 9층탑을 세우도록 건의하였으며, 신라의 왕실이 釋迦와 마찬가지로 刹帝利種(크샤트리아)이라고 주장함으로써 佛法과 王法을 일치시키고, 護國을 위한 전쟁이 護法을 위한 싸움이라고 정당화하고 합리화하였다. 그의 圓光은 신앙의 세계와 세속의 세계를 분명히 구분하는 입장에서 진평왕의 명령을 받들어 ‘乞師表’를 쓰기도 하였으며, 전쟁에 있어서 용감하기를 권하는 臨戰無退 등 世俗五戒를 제정하기도 했다. 그밖에도 승려들은 呪術家·戰略家로서도 활동하였고, 戰士團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花郎徒에 승려들이 반드시 섞여 도의면의 교육을 맡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호국적·현세이익적 신앙으로서의 불교는 삼국시대 말 淨土信仰의 발생과 觀音信仰의 유행으로 점차 내세적 불교로 바뀌게 되었다.

한편 승려들은 당시 사회에서 가장 높은 지식층이었던 만큼 문화적 활동도 주목되고 있다. 그들은 漢字의 보급·발전에 기여했을 뿐 아니라, 예술 방면에도 크게 활동하여 삼국시대 문화 발달에 절대적인 역할을 다하였다. 大書省·小書省 등 문서를 다루는 관직에 승려가 임명되었고, 圓光처럼 외교문서를 도맡아 쓰기도 하였다. 또 그들이 문학 방면에 활동한 것은 慧星歌를 지은 融天師의 경우로 알 수 있다. 또한 이들은 조각·회화·서도·음악 등 예술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도 활동하였는데, 良志는 예능 방면에 두루 능한 예술가로서 靈廟寺·法林寺·四天王寺 등의 壯麗는 그에 힘입은 바 컸다고 한다. 그는 筆札에 능하여 寺額을 썼으며, 자신이 만든 기와로 殿塔을 쌓았고, 三千佛을 비롯한 많은 불상을 조각하였다. 또 淡水는 화랑도의 歌曲으로 짐작되는 捺絃引을 작곡하였다. 그의 大邱 大安洞에서 발견되고 경북대학교 박물관에 보관된 戊戌塲作碑에는 본래 僧官職이었던 都唯那가 공사감독자로 나타나 승려들 가운데는 토목 기술자도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⁷⁹⁾

삼국시대 대구지역의 불교는 대개 이상과 같은 신라 國家佛教의 추세 속에서 성장하고 있었다고 하겠다.

第4節 遺蹟·遺物로 본 大邱地域의 社會와 文化

I. 國家의 形成

삼한시대에 뒤이어 삼국시대가 도래된다. 삼국시대는 고구려·백제·신라가 동시에 등장하는

79) 都唯那로서 寶藏阿尺干·慧藏阿尺干이 나타나고 있으나 승려가 阿尺干이란 관등을 가진 사례는 본비 외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것이 아니라 각각 출현의 시기를 달리하고 있다. 고구려가 태왕대인 1세기경에 국가의 체제를 정비하였고, 뒤이어 백제는 고이왕 때인 3세기에, 가장 늦은 신라는 내물왕대인 4세기에 각각 국가 체제를 정비하기 시작했다. 보통 삼국시대라고 하는 것은 4세기이후를 가리킨다.

이시기 국가체제 정비에 대해서는 몇가지의 구비 조건이 있다. 정복적인 성격, 율령 체제, 불교 전래, 왕권 강화, 자연적인 사회로의 전환 등을 들 수 있다. 고고학에서는 어떤 요건들을 갖추어야 국가로 지칭할 수 있느냐에 대한 해답은 아주 분명하며, 고대 국가 발생의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高塚古墳의 출현이다.

여기에서 고총고분이란 고총고분 또는 고분은 단순히 오래된 무덤이란 뜻은 아니나 그것은 정치력이 집중되어서 큰 봉토를 갖은 지배자의 무덤을 가리킨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古代王者의 무덤을 고분이라 불러도 좋을 것이다. 이 시기의 고분은 부장품의 질과 양적인 면에서나 입지 조건, 외관상 모습 등이 일반적인 민중의 무덤이나 그 이전 시대의 지배자의 무덤과는 뚜렷하게 구분되고 있다. 이에 관한 예가 고구려의 基壇式積石塚, 한반도 남부 지역인 백제, 신라, 가야 등에서는 높은 封土를 가진 무덤 등이다.

이렇게 고총고분이 고대국가의 시발을 잡는 증거가 될 때 여러가지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 6세기에 고구려에 동합된 왕의 존재까지 《三國志》東夷傳에 뚜렷하게 명기된 扶餘의 고분에 대한 증거가 없는 점이다. 《三國史記》·《三國遺事》에 나오는 伊西國에 관련된 고분이 현재의 慶北 淸道 지역에는 거의 없는 점이나, 金冠伽耶가 있었던 金海지역에 봉토가 큰 고총고분이 없는 점 등이다.

현재까지 고고학적인 자료와 국가 형성의 대비에는 위와 같은 자료적인 한계가 있음이 분명하다. 신라의 경우는 국가 형성의 지표가 현재까지 경주시내에 남아있는 積石木槨墳이다. 이 적석목곽분의 상한 문제는 신라·가야 지역의 국가의 출현과 직결되고 있다. 지금까지 발굴된 적석목곽분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에 편년되는 고분이 황남동 109호 3·4곽이다. 이 황남동 109호 3·4곽의 연대에 근거해 신라나 가야 전체의 고분 출현 시기를 잡아야 되느냐 아니면 경주에 남아있는 적석목곽분 가운데 이보다 훨씬 앞선 고분이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유를 갖고서 그 연대를 보다 신중성 있게 잡아야 되느냐하는 문제이다. 지금까지 고고학적인 연구 성과로는 접근이 어려우나 후자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 출현의 지표로 고총고분 이외에 다른 자료는 전혀 없을까? 고총고분을 축조한 사람들이 살던 시대에는 끝없는 정복전쟁이 여러 곳에서 일어났다. 전쟁에서는 창, 칼, 활, 갑옷 등의 무기나 말의 사용이 중요했지만 외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성곽 시설이 필요하다. 이 성에 대한 자료는 대구 분지에서 비교적 많이 조사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 좀더 조사해 보자.

대구분지 안에는 인간이 일찍부터 취락을 형성할 수 있는 자연지리적인 요건이 갖추어진 곳이 많았다. 그래서 선사 시대부터 많은 취락이 생겨나고 그들이 남긴 유적과 유물도 많았다.

이러한 배경속에 삼국 시대 개시 전후에 성이 축조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이후 시대와 기능에 따라서 그 입지와 축조 모습이 달라지게 되었다.

대구 지역의 성은 낮은 구릉상에 축조된 것과 높은 산의 정상에 축조된 것이 있다. 성의 종류에는 모양이나 축조 위치 등에 따라 여러가지로 나누고 있다. 그 가운데 성벽의 재질상으로는 토축, 토·석혼축, 석축으로 나눌수가 있다. 성벽의 재질의 변화는 다분히 전투 방법의 변화와 관련된다고 판단된다. 말을 탄 기병이나 활의 사용, 특히 중국에서 들어온 弩機사용에 따라 성벽은 보다 견고하고 높은 위치에 있어야 할 필요가 요구되었다.

석기 시대나 청동기 시대에도 활의 존재가 있었지만 삼국 시대에 들어와 활의 사용은 보편화된 듯하다. 화살을 담는 호록이 고분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고구려 안악 3호분의 벽화나 무용총 벽화 등에는 그 구체적인 모습이 그림으로 남아있다. 위의 예들에서 보면 철기 시대에 들어와서의 활의 사용은 쉽게 짐작이 간다. 나아가서 전투 방법의 변화도 상정되며, 그에 따른 성벽의 발달도 쉽게 추정할 수가 있다. 낮은 구릉상에 있던 토성보다는 높은 산의 정상부에 있는 석성을 보다 선호했다고 판단된다.

낮은 구릉상에 축조된 성으로는 達城土城, 龍頭山城, 檢丹土城, 鳳舞土城, 孤山土城 등을 들 수가 있다. 이들 성들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낮은 구릉 정상부를 따라서 토성을 구축했다. 둘째로 이들 토성은 그 주위에 반드시 사계절 물이 흐르는 시내가 있다. 셋째로 이들 토성 가까이에는 고분군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달성토성은 비산·내당동 고분군, 검단토성은 복현동 고분군, 봉무토성은 봉무동 고분군, 고산토성은 상동 고분군과 각각 인접해 있다. 지금까지 대구내에서 조사된 성은 다음 <表 5-1>과 같다.

<表 5-1> 大邱盆地内の 城

城 名	所 在 地	築 造 方 法
達 城 土 城	中 區 達 城 洞	土 築
龍 頭 土 城	壽 城 區 鳳 德 洞	土 石 混 築
鳳 舞 土 城	東 區 鳳 舞 洞	土 築
檢 丹 土 城	北 區 伏 賢 洞	〃
孤 山 土 城	壽 城 區 城 洞	土 石 混 築
龍 岩 山 城	東 區 道 洞	〃
八 莒 山 城	北 區 鳩 岩 洞	〃
大 德 山 城	南 區 大 明 洞	石 築

위의 자료에서 볼때 대구지역 성의 가장 큰 특징은 대구 분지 전체를 방어하기 위한 성의 축조가 아니라는 점이다. 경주 지역의 경우는 도시 전체에 나성이 없는 대신에 명활산성, 서형산성, 부산성 등이 경주 전체를 방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한다.⁸⁰⁾ 대구지역 전체를 방어하는 성의 배치가 없는 까닭이 대구 지역에서 통일된 정치 세력이 성장되기 이전에 신라에 병합된 까닭인지 아니면 대구 지역의 성들이 인근 지역의 고분 축조와 관련된 사람들의 보호기능만 했는지 불분명하다. 대구지역에서 국가형성과 시기에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큰 성들을 소개하기로 하자.

1. 達城土城⁸¹⁾

대구시 중구 달성동 294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달성은 대구의 고명인 達句火 또는 達句伐에서 유래된 이름이라고 한다. 달성은 경주의 月城처럼 대구분지의 서쪽에 위치해서 범람원과 접하는 낮은 구릉에 축조된 토성이다. 성은 5각형으로 둘러진 능성을 따라 바깥쪽에서 쉽게 올라가지 못하게 높고 가파르게 성벽을 쌓았고, 성내는 조금의 기복이 있기는 하나 비교적 넓은 평지로 되어 있으며, 동쪽에는 성문을 마련했다. 성벽의 길이는 약 1.3km이고, 높이는 바깥에서는 낮은곳이 5m, 높은 곳이 12m정도이다.

달성이 처음 축조된 시기는 불분명하나 5세기경으로 판단된다. 성벽아래의 포함층에서 그 이전에 사용되었던 와질토기가 출토된 점으로 보아서 무문토기 말기부터 이곳에 취락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후 삼국시대에 성곽이 축조되었고, 조선시대 초기까지 여러번 수축되고 또 대구현의 관아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2. 鳳舞土城⁸²⁾

이 성은 대구시 동구 봉무동에 위치한다. 이 곳은 대구에서 팔공산 동화사로 가는 길목의 금호강 북단에 위치하며, 대구 분지 북쪽에 형성된 한 구릉에 축조되어 있다.

토성과 인접한 유적으로는 성에서 남동쪽으로 0.5~1km떨어진 낮은 구릉에 위치한 봉무동 고분군과 불로동 고분군이 있고, 토성이 위치하는 구릉의 주봉인 학봉에서는 有肩銅斧가 출토된 바 있으며⁸³⁾ 고분의 존재도 확인되고 있다.

80) 朴方龍, 〈新羅 王都의 守備〉《新羅文化》9, 1992.

81) 尹容鎭 등, 《大邱의 先史遺跡》先史·古代, 1990, pp. 213~218.

82) 尹容鎭 등, 위의 책, 1990, pp. 225~224.

83) 尹武炳, 〈大邱 發見의 青銅斧〉《考古美術》5-6·7合.

토성의 형식은 금호강과 접해서 형성된 말발굽 모양의 구릉을 이용해서 축조한 소규모의 포곡식산성이다. 성곽의 길이는 400m미만이고, 북쪽만은 골짜기를 가로 질러 성벽을 축조하였고 그 밖에는 모두 말발굽 모양의 능선을 따라 성벽을 축조하였다.

성의 내부는 좁은 면적이기는 하나 소규모의 취락이 형성될 수 있는 넓이이고, 또 성벽에 가려서 시각적으로도 외부로부터 보호되는 지세이다. 그리고 성의 내부에 와질토기편이 많이 흩어져 있다. 이 성도 달성토성처럼 취락 보호를 위한 자연발생적인 토성이라고 판단된다.

3. 孤山土城⁸⁴⁾

이 성은 대구시 수성구 성구 성동 산 1~50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다. 이 곳은 지금은 대구시에 편입되어 있으나 구 행정 구역으로는 경산군 고산면이며, 협의의 대구 분지에서는 벗어난 지역이다.

성이 축조되어 있는 곳은 금호강과 그 지류인 남천의 합류지역 주변에 형성된 넓은 충적 평야에 접하고 서쪽 일부에만 계곡을 두고 금호강변을 따라 형성되어 있는 구릉과 접한다. 성의 둘레는 약 1.5km이며, 포곡식과 최퇴퇴이 결합된 형태이다. 이것이 처음부터 이러한 모양으로 축조된 것인지 아니면 2차적으로 결합된 것인지는 지금의 외형만으로는 파악하기가 힘들다. 성이 있는 구릉의 남쪽에는 고산 고분군이 있고, 동쪽에 접하여 흐르는 남천을 따라 1km가량 올라간 상류쪽 구릉에는 옥수동 고분군이 있다. 또 남천 지역에는 지석묘가 다수 분포한다. 그리고 성안에는 무문토기와 도질토기가 분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이 구릉에는 축성이 되기 이전부터 인간의 집단 취락이 형성되어 있었고, 삼국시대에는 토성이 축조되었다고 추정된다. 성벽은 계곡쪽만을 제외한 다른 쪽은 경사면을 깎아서 片築法으로 쌓았고, 모산뿔이 있는 남쪽은 계곡을 가로지르는 夾築式으로 쌓았다.

4. 檢丹土城⁸⁵⁾

이 토성은 대구시 북구 북현동 산 1~5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이 성은 대구 분지의 북쪽을 흐르는 금호강의 강변 구릉에 위치하며, 동쪽 토성과는 금호강을 사이에 두고 있다. 성의 둘레는 1.3km인데 동편은 금호강과 접해서 형성된 자연 단애를 이용하였고, 북쪽과 남쪽은 구릉의 능선을 따라 성벽을 쌓았으며, 서쪽은 넓은 침식곡을 가로질러서 쌓은 포곡식이다. 현재는 도로 공단으로 인해 서쪽은 파괴되어 그 흔적을 잃고 있다.

84) 尹容鎭 등, 앞의 책, 1990, p. 225.

85) 위와 같음.

점단 토성도 낮은 구릉을 따라 남으로 1km미만의 거리에 복현동 고분군이 있고, 또 가까운 하안의 구릉 지역에 무문토기나 석기가 산재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 일대에는 선사 시대부터 하나의 집단 취락이 형성되어 있었고, 그 집단이 이 토성을 축조한 것으로 생각된다.

토성의 내역에는 취락이 형성되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넓은 공지가 있다. 실제로 성내의 저 지대와 구릉 사면에서 무문토기, 석기 그리고 도질토기편이 산재하고있는 사실로 미루어 이 토성이 삼국시대 초기에 처음 축조되었다고 판단된다.

II. 4世紀의 大邱

일반적으로 4세기에 대한 고고학적인 연대 설정이나 성격 규명등은 아직까지 뚜렷한 결론에 도달되지 못하고 있다. 4세기대의 초기의 유구에서는 와질토기와 병행하다가 후기가 되면 器種이 다양해지면서 거의 古式陶質土器만이 출토되고 있다.

이 시기의 고식도질토기와 공존되는 와질토기로는 유개대부장경호, 유개대부직구호, 각종의 단경호, 대소형의 노형토기, 고배 등을 들 수가 있다. 이러한 유적으로서는 부산 노포동, 김해 예안리, 경주 황성동 유적 등을 들 수가 있다.

시기가 보다 내려 오면 와질토기는 사라지고 고식도질토기만 나오는 유적이 출현하게 된다.

유개고배, 단경호, 노형토기, 광구소호 등이 이 시기의 대표적인 토기이다. 4세기대의 고식도질토기가 신라와 가야 지역에서 공동 양식인가⁸⁶⁾ 아니면 지역색을 갖고 있느냐⁸⁷⁾하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4세기의 고식도질토기 자료가 부산·경남 지역에서 많이 발굴조사될 때에는 지역색설이 우세한 듯하지만, 경주 月城 해자에서 이 시기의 토기가 많이 출토되어 공동 양식설이 보다 설득력이 있는 듯하다.

대구 지역에서는 4세기의 고식도질토기의 예는 거의 보고가 없으나 최근에 들어와 두산동에서 단경호 3점등이 알려져 있다.⁸⁸⁾ 앞으로 달성토성, 봉무토성 등에서 정밀 조사를 실시하여 이 시기의 자료가 많이 증가되었으면 한다.

86) 李凡泓, 〈斯廬國地域의 3~4世紀代 土器研究〉《韓國上古史學報》10, 1992.

朴光烈, 〈琴湖江流域 古墳의 編年과 性格〉《嶺南考古學》11, 1992.

87) 安在皓·宋桂鉉, 〈古式陶質土器에 對한 약간의 考察〉《嶺南考古學》1, 1986.

88) 朴光烈, 위의 논문, 1992, p. 71 등

III. 5~6世紀의 大邱

1. 重要 遺蹟

1) 大明洞 古墳群

이 고분군은 대구직할시 남구 대명동 311번지와 315번지일대, 15번지와 17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다.⁸⁹⁾ 대구 분지의 남부 지역은 분지의 남쪽을 병풍처럼 둘러싼 大德山에서 대구시의 중심부인 新川 범람원으로 완만한 기복을 이루며 나직한 구릉들이 연속되어 있다. 이들 구릉 가운데 영남대학교부속병원, 대구교육대학, 대구여상이 대구상수도사무소 자리하는 구릉이 연결되어 동서로 긴 능선을 이루고 있는 곳이다. 지금은 이 일대가 주거밀집지역으로 변해 있으나 도시화가 되기 이전에는 야산이었다. 이 능선 일대에는 대형고분이 분포하고 있으나 1938년에 조사된 후로는 전혀 조사가 없었고, 고분군은 그 뒤에 점차 소멸되어 버렸다.

1938년에 조사된 기록을 보면 대명동고분군은 南丘陵古墳群과 北邱陵古墳群으로 구분하였다. 남구릉고분군은 영남대학교부속병원 대구고등학교, 대구교육대학이 자리잡고 있는 쪽의 구릉 지역에 분포하는 고분군이고, 북구릉고분군은 대구고등학교 동쪽 능선을 따라 靈仙市場, 상수도사무소, 대구여상을 잇는 구릉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남구릉고분군에 대해 먼저 소개하기로 한다. 이쪽의 고분군은 1938년 조사때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新池洞 남쪽 사면(현 영남대학교 부속병원)에 10여기가 분포하고 있으며, 대개 경작과 도굴로 인해 봉토는 붕괴되고 그 원형을 잃어가고 있다.

이 남구릉고분군 가운데 중요한 고분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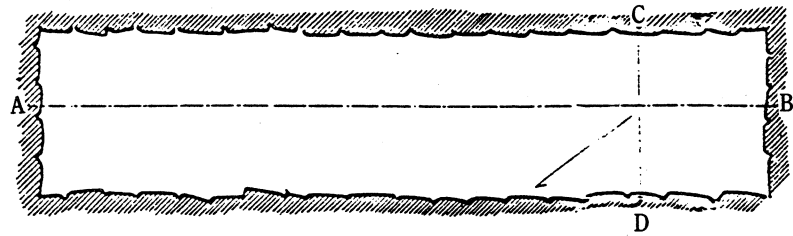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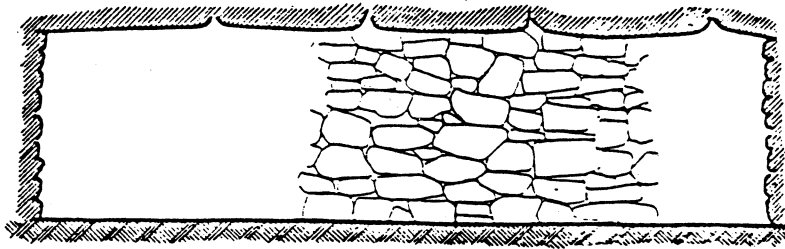
(1) 1號墳(北丘陵)

봉분의 외형은 남북으로 긴 타원형을 이루며, 북쪽과 동쪽은 斷崖를 이루며, 논과 접해 있다. 봉분은 적갈색의 山土로 쌓였으며, 크기는 남북 길이 12.5m, 동서 길이 7m, 높이 2.3m이다. 석실의 구조는 수혈식이며, 장축 방향은 N-21, W이다. 석실의 크기는 길이 3.35m, 너비 0.85m, 높이 0.81m이다. 벽은 割石을 이용하여 석재의 장축면이 벽면이 되도록 쌓았다. 개석은 길이 1.5m, 너비 0.8m, 두께 0.3m 크기의 玢岩系板石 6매를 사용하였다. 床面은 지반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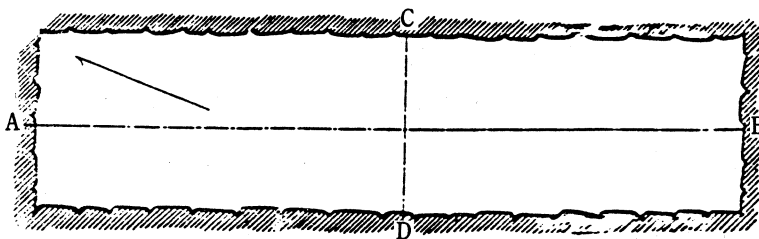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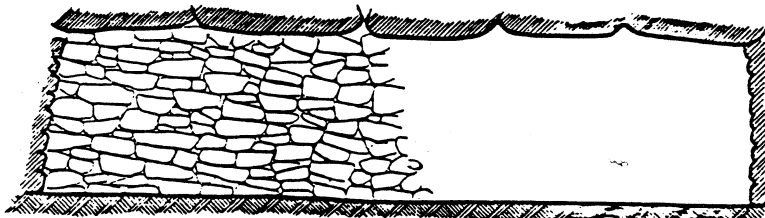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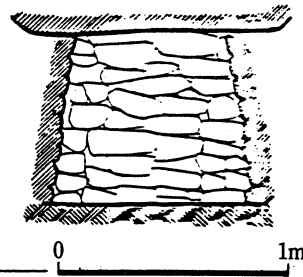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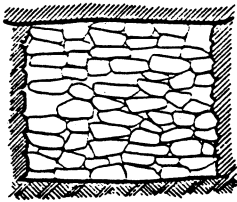
유물은 거의 도굴되었고, 壺 2個分, 轡, 鐵鉞 1set만 남아 있었다. 그 밖에 두개골편이 출토되었는데, 출토 상황으로 볼 때 南枕으로 추정되었다.

89) 齊藤忠, 〈大邱府に於ける古墳の調査〉《1938年度 朝鮮古蹟調査報告》, 1940, pp. 47~61.

北丘陵
8號墳



南丘陵
1號墳



〈圖 5-1〉

大明洞 古墳

(2) 2號墳(北丘陵)

구릉의 정상 부근에 위치하는 2기가운데 1기이며, 조사전에 이미 도굴과 경작으로 인해 봉분은 원형을 잃고 있다. 남아있는 봉분의 크기는 남북 길이 15m, 동서 길이 1.5m, 높이 3m이다.

봉분은 점토로 쌓아올렸으며, 동북편에 護石으로 보이는 8매의 川石이 정연하게 놓여 있었다. 광의 방향은 N-5°-W向이고, 그 크기는 너비 1.5m, 높이 1.3m이다. 호석의 직경은 半破되어 정확하지는 않으나 3.5m 전후로 추정된다. 석곽의 벽은 사람 머리 크기 정도의 川石으로 축조하였으며, 壁石사이에는 잡석과 할석을 채웠다. 床面은 암반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출토유물은 장경호, 고배, 鐵刀子, 鐵鋌, 轡片 등이다.

다음은 北丘陵古墳群에 대해 살펴 보기로 하자. 북구릉고분군은 남구릉고분군에서 동북으로 약 800m 떨어진 구릉에 위치하며, 남쪽경사면에 大形古墳 10여기가 분포되어 있었다. 1938년도에 여기에서 조사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2號墳(南丘陵)

봉분의 크기는 남북 길이 25m 전후, 동서 길이 15m정도이며, 내부에서 3기의 석실이 확인되었다. 主石室의 크기는 길이 4m, 너비 1.5m이고, 벽은 할석으로 쌓았다. 天井石은 3매를 덮었다. 주석실과 접해 있는 석실의 크기는 길이 2.7m, 너비 1.2m로 副室로 추측된다. 다른 하나의 석실은 길이 2.7m, 너비 1.3m, 높이 2.4m이다. 이들 석실은 모두 수혈식이며, 석실의 주벽을 적석목곽분처럼 川石으로 석축한 점이 주목된다.

(4) 7號墳(南丘陵)

2호분에서 서쪽으로 약 7m 떨어져 위치하며 봉분은 많이 삭평되었다. 봉분의 크기는 동서 길이 12m, 남북길이 14m이다. 석실의 장축 방향은 N-25°-E이고, 크기는 길이 4m, 너비 1.65m이다. 측벽은 川石으로 쌓았으며, 벽석 사이에는 점토로 채웠다. 바닥은 고운 모래를 깔아 床面을 마련하였다. 개석은 4매였다.

출토 유물은 環頭大刀, 鐵地銀張金具片, 耳飾, 土器片 등이다.

2) 飛山洞·內唐洞 古墳群

이 고분군⁹⁰⁾은 대구직할시 서구 비산동과 내당동 일대에 소재하고 있다. 이 고분군은 達城土城과 연결하여 그 남서쪽의 구릉에 분포되어 있다. 고분군 주변의 지형을 살펴 보면, 이

90) 野守健·小泉顯夫, 〈慶尙北道達城郡達西面古墳調査報告〉《1923年度 朝鮮古蹟調査報告》第1冊, 1931.

金廷鶴, 〈達丘伐 時代의 大邱〉《大邱市史》1, 1973, pp. 59~72.

곳에서 서쪽으로 5km가량 떨어진 臥龍山에서 뻗어내려오는 능선 중 가장 동쪽에 위치하는 구릉으로, 구릉의 북쪽은 달성토성과 접해 있으며, 동쪽에는 冲續平野가 넓게 펼쳐져 있다. 고분군은 이 구릉의 능선과 동쪽 斜面에 남북으로 길게 분포되어 있었으나 지금은 주택가로 변해 그 흔적은 찾아 볼 수가 없다.

이 고분군은 1923년 10월에 조사되어 그 내용이 비교적 상세히 알려져 있다. 이 고분군은 분포 지역에 따라 크게 두 지역으로 나누어진다. I 群은 달성토성 남서쪽에 연결된 구릉상에 분포하여 6號~33號까지의 28기가 있다. II 群은 I 群의 동쪽 낮은 구릉에 분포하여 34號~70號까지 37기가 있다. 그 밖에 달성토성 서쪽에 접해 1~5號까지 5기가 있다. 그리고 서쪽과 서북쪽에 있는 17기를 포함하여 이 지역에는 모두 87기의 고분이 조사되었다.

이 고분군중 중요한 고분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飛山洞 37號墳

달성 토성의 남서쪽에 접한 구릉에 약 20기가 분포하는데 이들 고분중 북단에 위치한다. 봉토의 기저부 직경이 약 19.7m이고, 그 안 두개의 석실이 있다. 석실을 진흙으로 덮고, 그 위에 할석을 섞은 진흙으로 봉토를 만들었다.

제1석실에는 평면이 장방형으로서 길이 4.27m, 너비 1.22m, 높이 1.56m이다. 석벽은 화강암의 판석을 세워서 만들었으며, 입구는 넷돌을 3단으로 쌓았고, 그 위에 판석을 내세워 막았다. 바닥에는 넷돌을 깔았다. 천정은 자연 화강암을 판석 3매로 덮었다. 이 석실은 입구가 옆에 있는 횡구식석실이라고 불린다. 개석 위에는 진흙으로 덮고, 그 위에 할석을 섞은 도사로써 봉분을 만들었다. 석실 바닥에는 목관이 썩은 자취가 남아 있었는데, 그 길이가 약 250cm, 너비가 약 70cm였다. 이 목관의 전후에 부장품이 놓여 있었다.

중요한 유물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금동관 2개중 하나는 보존 상태가 좋아서 거의 원형을 알아볼 수가 있다. 정면과 좌우에 얇은 금동관으로 3개의 출자형을 만들어 세우고, 후면과 양측으로부터 2개의 수지형장식을 세웠으며, 전후, 좌우로부터 얇은 금동관으로 궁형을 만들어 십자형으로 교차시켰다. 교차점에는 금동운주를 붙이고, 관대와 입식에는 금동으로 만든 심엽형소요편을 달았다. 관대의 양측에 달았던 금동영락은 부식이 심해 일부만 남아있었다. 금동관 중 다른 하나는 정면과 좌우에 금동관과 같이 금동관으로 3개의 출자형장식을 만들어 세웠으며, 관대와 입식에 심엽요편을 달았다. 관대의 양측에 달았던 금동영락은 거의 다 삭아서 일부만 남았다.

귀걸이는 중공의 금태환에 鐵地鍍金の 세환을 연결하고 이에 수식을 달았던 것이나 이 수식은 삭아서 거의 없어졌다.

환두대도는 도신이 약간 외반하고 환두는 철제품에 은으로 도금을 했는데 모가진 반원형내에 3엽형 장식이 있다. 칼집상부에 환두소도를 잡착시켰다.

도자12개는 모두 直刀式이고, 도신에 칼집목편이 남아 있다. 환두는 3주형이고 자루에는 고리를 이은 것과 같은 돋은 무늬를 낸 금동판을 감았다.

철부는 머리에 쇼케트가 있고, 몸이 아래로 넓어지는 혼한 형식이다.

철검은 날끝이 조금 내만하고 다른 끝은 자루에 착장하기 위하여 끝을 조금구부렸다. 이러한 형식은 복현동 고분에서도 발견된다.

고배 4개는 두껍이 있고, 배신도 거의 완전한 것으로서 회색의 도질토기이다. 뚜껑에는 꼭지가 달려있고 다리에는 2단으로 장방형의 두공을 상하로 엇갈리게 뚫은 것과 1단으로 세장판 투공을 낸 것의 두 가지가 있다.

방추차는 토제로서 주판알 모양의 형태이다.

제2석실은 제1석실의 서북편에 있으며 구조가 제1석실과 거의 같다. 평면 장방형으로서 길이 3.82m, 너비 1.56m이다. 벽은 화암암 판석을 세워 만들었으며, 입구는 높이 약 61cm 판석을 세우고 그위에 할석과 냇돌을 쌓고 그위에 판석을 세워서 입구를 막았다. 바닥에는 천석을 깔았다. 천정의 개석은 화강암 판석 3매로 덮었다. 제2석실에 출토된 주요 유물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관은 백화수피로 만든 것인데, 그 전면에 입식금구가 있다. 입식금구의 하부에 금동판의 소요편을 달았다.

금제 귀걸이는 금제 세환에 작은 고리로써 금소환을 이어 붙여 만든 원통형을 연결하고, 그 원통형에 금제심엽형을 달았다. 이 심엽형에도 다시 작은 심엽형을 2중으로 붙였다.

은제과대금구는 심엽형의 과에 은환을 단 것이 6개이고, 이밖에 장방형의 은판의 일단에 교구를 장치한 것이 있다.

금동신발은 파편뿐이어서 그원형을 알수가 없다. 금동판에 비늘 모양을 돋을 무늬로 나타난 것이 있다.

환두대도는 하나는 환두가 청동제이고, 환내에 3엽장식이 있고, 다른 하나는 환두가 금동제이고, 3루형이다.

단도는 양면에 도자가 각 1본씩을 부착하고 칼집은 옷칠을 한 것이다.

철족은 봉부가 도신형을 이룬 것, 3각형을 이룬 것, 유엽형을 이룬 것 등이 있다.

행엽은 심협형의 철판 위에 엮은 금동판을 놓고, 그 위에 다시 철제품에 은도금을 한 심엽형

장식을 덮고, 6개의 못을 박았다.

기대는 높이 약 65cm인데 아래로 넓어진 대각은 8단을 지어 각 단에 상하 엇갈리게 장방형의 투공을 내었다.

고배는 제1석실의 것과 꼭 같은 형식이다. 곧 2단의 다리에 엇갈리게 장방형의 투공을 낸 것과 1단의 다리에 세장한 투공을 낸 것의 두가지가 있다.

(2) 内唐洞 50號墳

이 고분 앞의 비산동 37호분의 남서쪽으로 55m 떨어진 구릉 위에 있는데, 봉토의 기저부 19.7m, 높이 3.24m이다. 안에는 2개의 석실이 있었다.

1호석실은 봉토의 중앙에서 조금 남쪽으로 치우쳐 있고 평면은 장방형으로서 길이는 3.48m, 너비 0.68m, 높이 1.77m이다. 4벽은 천석을 쌓아서 만들었으며, 위로 올라감에 따라 조금씩 안으로 기울고, 벽면은 진흙으로 발랐다. 천정은 화강암의 판석 9개를 덮고, 석실바닥은 땃돌을 깔았다. 이 석실은 대부분이 토기를 묻은 석실로서 아마 이 고분의 주실이라고 생각되는 2호석실의 부실로 판단된다. 이 석실은 위로부터 부장품을 넣고 나중에 천정의 개석을 덮는 수혈식석실이다. 개석위에 진흙을 덮고 그 위에 할석을 썬 토사로서 봉토를 만들었다. 여기에서 출토된 주요 유물은 아래와 같다.

철제끝 1점, 철제 낫 1점, 철도자 1점, 철부 1점, 유개완 2점, 파수부유개완 27점, 완 5점, 광구소호 8점, 단지 1점, 유개고배 8점, 무개고배 31점, 유대완 2점, 시루 2점, 광구호 1점, 유대단경호 1점, 유대장경호 3점, 삼이부호 55점, 이형토기 1점 등이다.

이들 유물 가운데 중요한 것을 상세히 소개해 보기로 하자.

철제끝은 상당히 길이가 긴 것인데 가운데의 단면은 정방형이다.

철제낫은 37호분에서 출토된 것과 같은 형식으로 낫의 몸부분이 내만하고 다른 끝은 조금 구부러져서 자루를 비껴매 매었던 가죽끈이 남아 있다.

손잡이 달린 파수부 유개완은 27점은 연질토기로서 손잡이가 고사리 같이 위로 말려있다.

고배의 다리는 37호분의 것과 같은 형식이다. 곧 2단으로 장방형 투공을 상하 엇갈리게 낸 것과 1단으로 세장한 투공을 낸 것의 두 가지가 있다.

이형토기는 흑갈색 연질토기이다. 낫은 대위에 한쪽에는 위에 杯部를 이룬 원통형의 토기를 만들고, 다른 쪽에는 아가리가 넓은 단지를 만들어서 원통형의 토기에 접착시키고 杯底로부터 단지에 이르는 작은 구멍을 뚫고 이 杯위에 손잡이 달린 시루를 올려 놓은 채로 발견되었다. 위의 구조로 밀어 볼 때 단지에 물을 넣고 끓여서 그 김이 단지로부터 원통형토기의 밑으로 뚫린

구멍을 통하여 시루에 이르고 그 김이 다시 시루 밑구멍을 통해서 시루안에 넣은 곡식같은 것을 찌도록 한 것이 아닐까 추측된다.

손잡이 달린 시루중 큰 것은 흑갈색의 연질토기이다. 시루 양쪽에 고사리같은 손잡이를 달고 시루의 밑 가운데 있는 圓孔의 둘레에 꽃잎같은 투공을 7개 뚫었다. 앞의 이형토기의 杯위에서 발견되었다.

손잡이 달린 시루중 다른 하나는 앞의 것보다 조금 작으며 흑색의 연질토기이다. 시루 한 쪽에만 소뿔 모양의 손잡이를 달고 바닥에 23개의 투공을 뚫었다.

台脚이 달린 장경호는 모두 회청색의 도질토기이다. 대각의 형태는 모두 37호분의 장경화와 같은 형식으로 2단의 방형투공을 상하 엇갈리게 뚫은 것과 1단의 장방형투공을 뚫은 것이 있다.

三耳附壺는 적갈색 연질토기와 회청색의 토질토기의 두 가지가 있다. 어떤 토기의 기면에도 打印文이 나타난 것도 있다.

2호석실은 이 고분의 주실인데 1호석실과 J자형으로 배치되어 있다. 석실의 길이는 3.9m, 너비는 1.2m, 높이 1m이다. 4벽은 냇돌을 쌓아 만들었으며, 돌 사이에 벼집을 섞은 진흙으로 메우고, 벽면 전체를 진흙으로 발랐다. 석실 천정에는 화강암의 판석 4매를 덮고, 그 위에 다시 진흙으로 발랐다. 석실 바닥에는 역시 냇돌을 깔았다. 2호석실에서는 그 곳에서 발견된 껍씨의 위치로 보아 목관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는데, 목간의 4귀에 크고 납작한 냇돌을 괴인 것이 로남아 있다. 2호 석실도 구조로 보아 위로부터 관과 부장품을 넣고 천정석을 덮은 수혈식석실임을 알 수가 있다.

2호 석실에서는 귀걸이 1쌍, 대도 1점, 도자9점, 행엽 3점, 금동운주편, 교구 2점, 껍쇠 12점, 철제금구편, 접시 3점, 유개고배 7점, 삼이호 2점, 유대단경호점, 방추차 4점 등이 출토되었다.

위의 유물의 각각에 대해 좀더 상세히 살펴 보기로 하자.

귀걸이는 금제태환에 鐵地鍍銀의 세환을 연결하였고, 이에 다른 수식은 삭아서 없어졌다.

대도의 자루에는 금동판을 감았던 모양인데 삭아서 일부만 남았다. 칼집에도 금동환두에 단도를 부착하였던 모양인데, 그 단편만이 남아 있다.

행엽은 심엽형의 철판 위에 금동의 투조심엽형판을 붙인 것인데 상단에는 달기 위한 장방형의 고리를 달았다.

고배의 다리는 모두 2단으로 방형 또는 제형의 투공을 엇갈리게 뚫은 형식이다.

유대단경호는 대각을 2단으로 방형의 투공을 엇갈리게 뚫었고, 다른 것은 1단으로 장방형의 투공을 뚫었다. 방추차는 주판알 모양의 형식이다.

(3) 内唐洞 51號墳

이 고분은 50호분의 서쪽에 편한 같은 구릉의 위에 있다. 봉토 기저부는 동서 약 16.7m, 높이 3.54m로 안에 두 석실이 있다.

1호 석실은 파괴가 심하여 원래의 상태를 완전히 알 수는 없으나 석실의 평면이 장방형으로서 길이 약 3m, 너비 약 0.9m이다. 4벽은 편마암과 이판암의 깎돌로 쌓았다. 벽은 안쪽으로 조금 경사지게 해 천정부가 바닥보다 좁게 만들었다. 바닥에는 냇돌을 깔았다. 피장자의 유골이 석실의 거의 중앙에서 발견되었는데 아마도 관을 쓰지 않았던 듯하며, 바닥에 깔 냇돌 위에 직접 시체를 안치하였던 모양이다.

이 1호 석실에서는 토기 9점과 철제 낫 1개가 발견되었을 뿐이다.

이들 유물에 대해 좀더 살펴보기로 하자.

철제낫은 앞에서 설명한 낫과 같은 형식이다.

고배는 다리의 형식이 앞서 설명한 고배와 같다. 곧 2단으로 된 장방형의 투공을 엇갈리게 뚫은 것과 1단으로 세장한 투공을 뚫은 것이 두가지가 있다.

2호 석실은 1호 석실과 丁자형을 이루어 만들었으며, 평면은 정방형으로서 길이는 4.62m, 너비는 1.03m, 높이 1.1m이다. 4벽은 냇돌로 쌓았으며, 돌 사이는 벚집을 섞은 진흙으로 다지고, 벽면 전체에 진흙으로 발랐다.

여기에서 출토된 유물은 銀製翼狀冠飾片, 금제귀걸이 1쌍, 은제 과대금구 1벌, 환두대도편, 도자 6점, 철부 1점, 낫 1점, 철촉 11점, 행엽 2점, 안교편, 금동운주편, 꺾쇠 10점 등이다.

은제익상관식은 깃 모양을 한 엷은 은판으로 만든 것으로서 관에 붙인 입식이다.

금제귀걸이는 세환의 고리에 심엽형수식을 단 것이다.

은제과대금구는 과판이 24편이고, 그 중 1편에 교구가 붙어 있다. 과판은 방형의 은판에 투조한 것이고, 그 과판에 심엽형 투조의 수식을 달았다. 과판을 9개의 못으로 가죽따기 붙인 것이다.

환두대도는 둘 다 환두만 남은 것으로서 도신은 결실되었다. 환두는 철지도은으로서 환내에 3엽형 장식을 하였다.

철모는 자루를 끼는 소켓트가 있는 일반적인 형식이다. 철부는 칼부분이 부채꼴처럼 넓어지고, 뒤부분은 자루를 끼는 소켓트로 되었다.

행엽은 심엽형의 철판 위에다 철제품을 은으로 도금한 +자형의 장식이 있는 심엽형을 5개의 못으로 접착한 것이다. 윗부분에 달기 위한 방형의 고리가 있다.

고배의 다리는 2단에 장방형 투공을 엇갈리게 뚫은 것과 1단에 세장의 투공을 뚫은 두가지가 있다. 고배의 뚜껑에는 투공이 뚫린 杯狀의 꼭지가 달린 것과 투공이 없는 배상의 꼭지가 달린 것의 두 가지가 있다. 廣口平底盃은 높은 비하여 아가리 부분이 대단히 넓은 것이다.

(4) 内唐洞 55號墳

이 고분은 51호분의 남서쪽 구릉 위에 있다. 봉토의 기저부는 직경 약 18.2m이다. 석실은 하나뿐인데, 평면 장방형으로서 길이 4.56m, 너비 1.67m, 높이 1.97m이다. 양측벽은 큰 판석을 세워서 만들었으며, 판석과 판석사이에는 냇돌로 막고, 그 위에 진흙으로 발랐다. 안벽은 냇돌을 2단 가량 쌓고 그 위에 판석을 세웠으며, 입구는 아래에 냇돌을 2단으로 쌓고, 그 위에 큰 판석을 세워 그 위에 천정 객석과의 사이를 냇돌로 막아서 그 위를 진흙으로 발라서 완전히 막았다.

바닥에는 할석을 깔고, 천정에는 자연의 화강암 판석 3매를 덮고, 그 판석 사이에는 냇돌을 끼우고, 그 위에는 두께 약 61cm의 진흙으로 덮고, 다시 그 위에 할석을 섞은 토사로서 봉토를 만들었다.

이 고분에서는 부장품이 상당히 풍부하므로, 이에 대해서 소개해 보기로 하자.

금동관은 파실이 심하나 出字形立飾의 파편이다.

관모는 파손이 심하나 그의 원형을 찾아볼 수 있다. 상하의 장식금구로 이루어졌는데, 상부와 하부 모두 格子形의 투조로 되어 있다. 좌우 양쪽 날개 사이에 3각을 이룬 장식금구를 중앙에 붙였다. 이것도 격자형의 투조를 하였다. 관모의 전체의 금동요편을 달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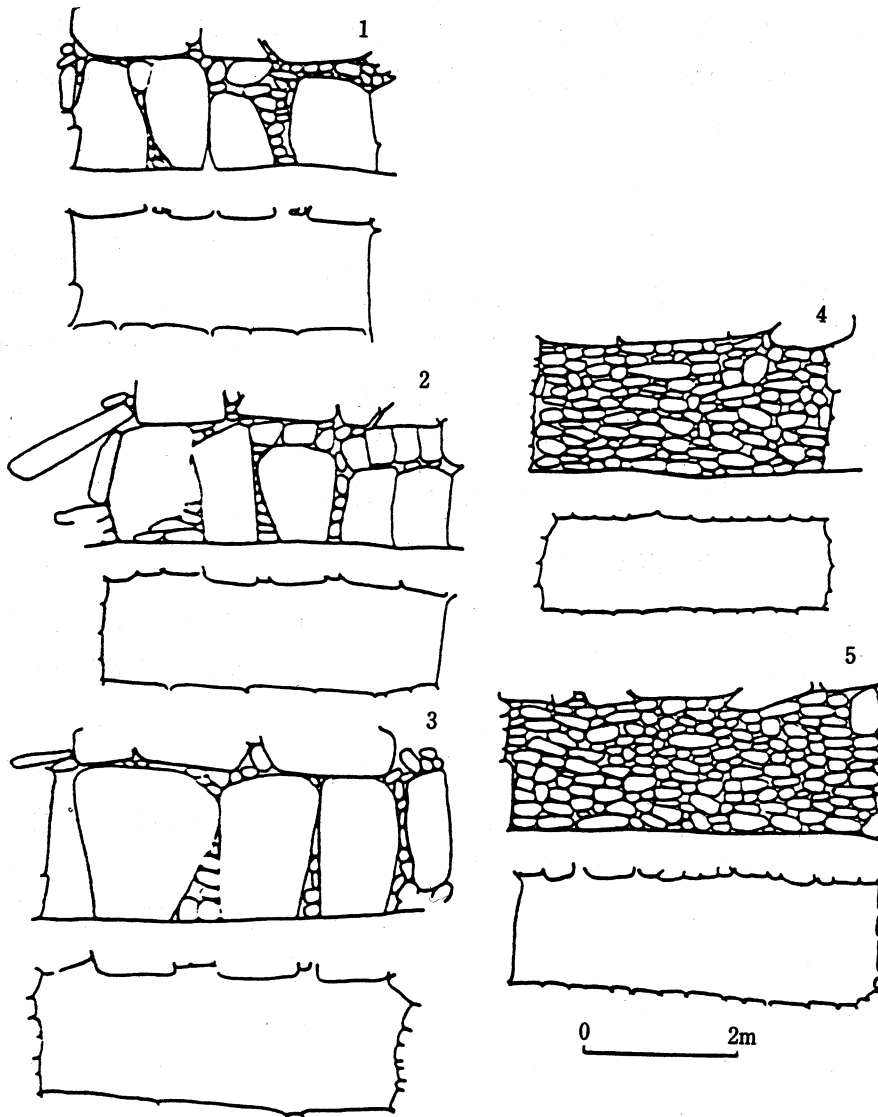
귀걸이 1쌍은 금으로 만든 가운데가 빈 태환에 도금을 한 세환을 연결하고, 이에 수식을 단 것이다. 수식은 심엽형을 이룬 금판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주연과 중앙 한 가운데의 세로선에 金粒細工을 하였다.

은제과대는 51호분에서 출토된 것과 같은 형식이다.

금동신발 1켤레는 금동의 얇은 판으로 만든 것인데, 한 짝은 그의 완형이고, 다른 한 짝은 파편이다.

금동환두대도는 끝이 조금 결실되었다. 이 대도는 환두대도 두 자루가 접착된 특이한 것이다. 각 대도에는 또 하나씩의 환두도자를 붙이고, 그 아래에 또 하나씩의 筭狀의 것을 붙였다. 환두는 다 금동제로서 환내에 3엽형의 장식을 만들었다.

금동투조안교금구 2개는 안교의 전륜과 후륜을 장식한 것이다. 귀갑문 안에 다시 당초문을 투조하였다. 다른 금동안교금구 2개는 전륜과 후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木心에 귀갑문을 장식하였다.



- | | |
|------------------|-----------------|
| 1. 비산동 37호분 제2석실 | 2. 비산동 37호 제1석실 |
| 3. 내당동 55호분 | 4. 내당동 50분 제2석실 |
| 5. 내당동 59호분 | |

〈圖 5-2〉

내당동·비산동 고분군

은제고배 2점은 얇은 은란으로 만든 것이다. 다리는 5개씩의 장방형 투공을 상하 엇갈리게 만들었다.

고배는 다리에 2단으로 장방형 투공을 상하 엇갈리게 낸 것과 1단으로 하여 세장한 투공을 분포하여 6號~33號까지의 28기가 있다. II群은 I群의 동쪽 낮은 구릉에 분포하여 34號~낸 것의 두 가지가 있다.

(5) 内唐洞 34號墳

50호분과 조그마한 길을 경계로 남북으로 마주하고 있다. 봉토 내부에 主石室과 2개의 小石室이 설치되어 있다. 主石室은 길이 3.9m, 너비 1.25m 크기이며, 벽은 川石과 할석을 불규칙적으로 쌓아 올렸다. 小石室 1기로 파괴되었으며, 다른 1기의 크기는 길이 2.73m, 너비 45.2cm, 높이 45.2cm인데, 할석을 이용해서 쌓아올렸다.

출토 유물은 주실에서 銀製箭狀前飾이 딸린 樺製冠帽片, 金製耳飾, 帶金具, 腰佩등이 착장된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그 밖에 馬具, 武器, 土器도 발견되었다.

3) 伏賢洞 古墳群⁹¹⁾

대구시 북구 북현동 산 56, 58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다. 이 곳은 琴湖江에 가까운 한 구릉으로서, 대구 분지를 貫流하는 新川과 금호강과의 사이에 형성된 대구 동부지역의 구릉군 가운데에 있다. 이 구릉의 높이는 해발 40m정도이고 구릉 서북면이 《慶尙道地理志》에 기록된 大佛池와 접하고 있다. 대분지를 지나 구릉을 넘으면 대구 동부의 구릉군의 西北端을 따라 오랜 기간에 걸쳐서 형성되었다고 생각되는 금호강의 범람원이 전개된다. 고분이 남아있는 구릉의 남동면은 오목하게 휘어서 완만한 사면을 이루고 그 아래쪽은 작은 시내를 형성하며, 시내 너머에는 다시 낮은 구릉들이 이어진다. 고분은 대불지에 접한 남동쪽의 양지바른 완만한 사면에 밀집하여 분포하며, 반대쪽 사면은 거의 분포되어 있지 않다.

이 고분군가운데 북현동 산57번지 일대는 I 지구로, 산57번지와 산55번지 사이에 있는 산 56번지는 II 지구로 나누고 있다. 현재까지 101기가 소개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I, II 지구에서 중요한 고분들을 각각 소개하기로 한다.

(1) I - 1호분

이 고분은 북현동 산 57번지 구릉의 중앙부에 위치하며, 전체 고분 가운데 가장 동쪽에 자리하고

91) 尹容鎮 《大邱 伏賢洞 古墳群》, 1989.

있다. 장축 방향은 N-75°E이고, 장방형 수혈식석곽묘이다. 석곽의 규모는 길이 350cm, 너비 55cm, 깊이 40cm이다. 석곽 4벽 가운데 북쪽 장벽의 중앙 일부는 붕괴되었고, 나머지 3벽은 대체로 본래의 모습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다. 곽의 남쪽 장벽은 6매의 얇은 판석을 얹혀서 쌓았으며, 동서쪽 양 단벽도 1~2매의 판석을 얹혀 쌓았다. 북벽의 하부는 수매의 판석을 얹혀 쌓았고 그 윗쪽에는 작은 판석이나 할석으로 얹혀 쌓여서 전체의 높이를 맞추었다. 내부 바닥의 동쪽 절반 가량은 넓적한 판석편을 비교적 정연하게 깔았고, 서쪽 부분은 점토를 깔아서 처리하였다. 개석은 덮혀있지 않았으며, 그 존재 유무를 확인할 수가 없다.

(2) I-15호분

유물은 부장곽을 두지 않았고, 동쪽 단벽 가까이에 고배, 장경호, 단경호 등이 집중적으로 놓여 있고, 서쪽 단벽에 접하여 철제도자, 고배, 호 등이 놓여 있었다.

산 57번지 구릉의 거의 중앙부에 위치한다. 장축 방향은 N-85°-W이다. 석곽의 크기는 길이 334cm, 너비 59~65cm, 깊이 40cm정도이며, 평면이 장방형인 수혈식 석곽묘이다. 석곽 내부에는 서쪽 단벽에서 75cm떨어진 위치에 1매의 판석을 세워 隔壁을 두고, 석곽을 주곽과 부곽을 구획하였다. 주곽의 길이는 256cm이고, 부곽의 길이는 75cm이다.

곽의 축조에는 판석 또는 판석 모양을 한 할석을 사용하였다. 동서 양 단벽은 1매의 대형 판석을 세워서 막음을 했으나, 주곽은 동쪽 단벽에 접한 양 장벽에만 두꺼운 할석 1매를 세웠고, 그 밖에는 길쭉한 할석을 얹혀서 3-4단 정도 쌓았다. 바닥은 넓은 판석편을 비교적 정연하게 깔았으나 부곽의 바닥과 유물이 놓여져 있는 주곽의 동쪽끝 부분은 생토면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전체적으로 바닥은 구릉의 경사에 따라 비스듬하여, 부곽의 바닥이 주곽의 바닥보다 약 9cm정도 낮게 설치되어 있다. 석곽의 동쪽과 북쪽 주위에는 수매의 판석이 산재해 있었다.

이는 석곽의 뚜껑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유물은 대부분 동서 양쪽의 단벽에 치우쳐서 놓여 있었다. 동쪽 단벽 가까이에는 유개고배, 고배, 장경호등이 부장되었으며, 서쪽의 부곽에는 대부호, 대부장경호, 파수완등이 부장되어 있었다.

(3) I-25호분

이 고분은 산 57번지 구릉의 중앙에서 아래쪽에 위치한다. 장축방향은 N-79°-W이다. 석곽의 크기는 길이 245cm, 너비 60cm, rlvdl 40cm인 장방형 수혈식석실이다.

석곽의 축조에는 주로 판석을 이용하였다. 양 장벽은 5-6매의 판석을 세워서 쌓았고, 동쪽 단벽은 판석 1매를 세웠다. 서쪽 단벽은 현재 붕괴되었으나 1매 판석을 세웠다. 바닥은 생토면을 그대로 이용하였고, 개석의 사용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

유물은 대부분 양 단벽쪽에 치우쳐서 배치되었다. 서쪽 단벽 가까이에서는 연길호, 대부장 경호가 출토되었고, 동 단벽쪽에서는 고개, 개, 호 등이 나왔고, 석곽 중앙에서 서쪽으로 치우친 곳에서 철제도자가 출토되었다.

(4) I - 39호분

이 고분은 복현동 산 57번지의 구릉 중앙의 상부에서 조금 서쪽으로 치우친 곳에 위치한다. 장축 방향은 N-49°-W이고, 석곽의 크기는 길이 250cm, 너비 45-60cm, 높이 44cm인 장방형의 수혈식 석곽묘이다.

석곽의 축조에는 판석과 할석이 혼용되었다. 동서 양 단벽은 1매의 판석을 세웠다. 양 장벽은 4~5매의 판석을 일렬로 세우고, 그 위에 다시 할석을 2단 가량을 쌓아서 높이를 조정하였다. 부분적으로는 판석을 세우지 않고 바닥부터 할석을 쌓아 올린 곳도 있다. 바닥은 생토면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개석의 사용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유물은 모두 동쪽 단벽 가까이 놓여 있었는데, 유개고배, 장경호등이 나왔다.

(5) II - 1호분

이 고분은 대구시 복현동 산 56번지에 위치한다. 장축 방향은 N-57°-E이다. 석곽의 크기는 길이 370cm, 너비 75cm, 높이 50cm이며, 평면이 장방형인 수혈식석곽묘이다. 이 석곽의 북서쪽에 인접하여 장축 방향이 비슷한 II-2호분이 있다. 이 2기의 고분은 서로 17m정도 떨어져 나란히 설치된 것으로 보아 원래는 하나의 봉토내에 마련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석곽의 4벽 가운데 서쪽 단벽이 조금 무질서한 점외에 다른 세벽은 모두 정연하게 쌓여져 있다. 석곽의 축조에는 대체로 할석을 이용하였다. 4벽은 모두 할석을 눕혀서 3-4단가량 쌓았다. 바닥은 점토를 깔았다. 바닥의 양 장벽가까이에는 할석편이 안으로 떨어져 들어와 있다. 개석은 덮혀져 있지 않았으나 서쪽으로 치우친 곳에 개석으로 보이는 판석 수매가 흩어져 있는 점으로 보아 개석으로 추정된다.

유물은 모두 양단벽쪽 치우쳐서 유개고배, 대부완, 삼이부호, 대부장경호 등이 놓여 있었다.

4) 不老洞 古墳群

이 고분은 대구시 동구 불로동 산 1~17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다. 이 곳은 대구 분지의 동북쪽 끝부분에 있는 낮은 구릉이다. 주변 지형을 살펴보면 동북쪽으로는 팔공산 능선들이 이어져 있고, 서쪽과 남쪽은 금호강과 不老川이 합하는 지점으로 넓은 충적 평야가 형성되어 있다. 여기에서 동쪽으로 3km 떨어진 곳에는 道洞山城과 고분군이 있다.

고분은 구릉의 남쪽에 동서로 길게 분포하는데 크고 작은 것을 모두 합하면 200여기가 된다. 이들 고분군에 대해서는 1938년에 解顔面古墳이라는 이름으로 2기가 조사되었고⁹²⁾ 1963년에는 경북대학교 박물관에서 不老洞 甲·乙號墳을 조사한 바 있다.⁹³⁾

(1) 解顔面 1號墳

봉분의 크기는 남북 28m, 높이 7m인데, 서쪽에 다른 봉분과 접해 있어 표주박 모양을 이룬다. 석실의 크기는 길이 8.05m, 너비 1.2m, 높이 2.2m이며, 석실의 중앙에 너비 40cm의 間壁을 만들어 2개의 석실을 이루고 있다. 벽면의 축조에는 길이 44cm, 너비 12cm내외의 山石을 이용하였는데 석재의 짧은 면이 벽면이 되도록 쌓았다. 석실은 전실의 경우 수직에 가깝게 쌓아올렸으나, 후실은 위로 갈수록 내경하고 있다. 천정에는 5매의 큰 개석을 덮었다.

유물은 후실에서 토기 등 토기류가 출토되었고, 금동제의 雲珠片도 출토되었다.

(2) 解顔面 2號墳

1호분에서 남동쪽으로 50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봉분의 크기는 직경 21m, 높이 4m정도인데, 山石의 碎片을 쌓아 올려서 적석분의 형태를 띠고 있다. 석실의 구조는 1호분과 마찬가지로 전후실의 형태이며, 크기는 길이 5.5m, 너비 1.2m, 높이 1.9m이다. 천정에는 6매의 개석을 덮었다. 4벽을 너비 34cm, 두께 8cm가량의 山石을 이용하여 장방형으로 쌓았으며, 중간에는 너비 40cm의 간벽을 쌓았다. 전실은 붕괴되었으며, 후실에서만 유물이 출토되었다.

(3) 不老洞 甲號墳

해안면 1호분에서 서쪽으로 30m 떨어져 위치하는데 봉분은 개간으로 인해 삭평되었다. 석실의 크기는 길이 4.5m, 너비 70cm, 높이 1m이고, 장축 방향은 동-서이다. 천정부는 부정형의 괴석을 이용하여 마무리하였고, 바닥은 별다른 시설을 하지 않았다. 벽면은 할석을 이용해서 축조한 수혈식석실이다.

(4) 不老洞 乙號墳

해안면 1호분에서 서북쪽으로 약 30m 떨어져 위치한다. 봉분은 경작과 민묘 조성으로 인해 많이 삭평된 상태이다. 석실의 크기는 길이 4.8m, 너비 0.95m이고 장축 방향은 북동-남서이다. 벽면은 할석을 이용하여 축조하였고, 부정형의 판석을 개석으로 사용하였다. 바닥은 별다른 시설없이 생토면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유물은 북동쪽에서 토기류, 마구류가 출토되었다.

92) 齊藤忠, 앞의 논문, 1940.

93) 金英夏·尹容鎮 《仁洞·不老洞·高靈古墳發掘調查報告》, 1966.

5) 琴湖洞 古墳群

이 고분군⁹⁴⁾은 대구시 북구 금호동 산 97-1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금호강의 북쪽 금호인터체인지에서 새터와 문주 마을로 갈라지는 삼거리와 북동편 능선 서쪽 경사면 일대이다. 이 능선은 남으로는 금호강에 접해있고, 동쪽 능선 너머에는 칠곡들로 이어진다.

이 곳에 9기의 고분이 대구교육대학 박물관에 의해 조사된 바 있다.

(1) 제1호분

장축은 N-20°-E를 향하고 있으며, 단서 단벽은 결실되었다. 현질 석곽은 길이 318m, 너비 52~76cm, 길이 60cm이다. 수혈식 석곽묘로 네벽은 냇돌과 할석을 세운 뒤 그 위에 얹혀 쌓은 것인데 양쪽 장벽은 토압때문에 완전히 내부로 무너졌다. 북서쪽 장벽이 무너진후 남동쪽 장벽도 무너진 것으로 생각된다. 봉토는 원래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개석의 유무는 불분명하다. 묘곽의 내부 바닥은 생토를 그대로 이용하였다.

유물의 부장 상태는 특별히 부곽을 두지는 않았으나 양 단벽에서 30cm의 범위안에 놓여 있었다. 북동 단벽에는 대부장경호, 배, 고배 등을 부장하였고, 남서 단벽에는 적갈색 연질발, 파수배, 대부장경호를 부장하였다.

(2) 제2호분

냇돌과 할석을 세워서 축조한 수혈식석곽이다. 장축은 남북을 향하고 있으며, 현재 남아있는 석곽의 크기는 길이 106cm, 너비 73cm, 깊이 50cm이다. 봉분과 개석의 유무는 알 수가 없다. 유물은 남쪽 남벽에서 1m범위안에 있고, 유해부와의 15~20cm의 돌 흔적이 있고, 유해부가 유물부장처보다 조금 낮았다.

유물은 남쪽 단벽에서 고배, 단경로, 배수배, 발등을 부장하였고, 북쪽 단벽은 개간으로 파괴되어 유물의 부장 상태를 알 수가 없었다.

(3) 제3호분

경작으로 인해 파괴되고 측벽에 세워둔 학석 4~개가 서 있는 상태이다. 현재 남아 있는 것으로 보면 냇돌과 할석을 세워서 축조한 수혈식석곽묘이다. 장축은 N-N°-E를 향하고 있으며, 석곽의 크기는 길이 245cm, 너비 50cm, 깊이 35cm정도가 남아 있다. 바닥은 생토면을 그대로 이용하였으나, 봉분과 개석의 유무는 이미 개간등으로 파실되어 확인할 수가 없었다.

유물은 북동 단벽과 남서 단벽에서 각각 30cm의 범위안에 매납되어 있었다. 북동단벽에서

94) 배한국·박보현, 〈造塔洞 古墳群〉《大邱·春川間 高速道路 建設豫定地域內 文化遺跡發掘調査報告書》, 1991.

단경호, 발 등이 부장되었고, 남서 단벽쪽에서 호, 고배, 두껍등을 부장하였다.

(4) 제4호분

이 고분은 냇돌과 할석을 세워서 축조한 수혈식석곽묘이다. 장축은 $N-20^{\circ}-E$ 를 향하고 있다. 장벽은 모두 냇돌과 할석을 세워서 만들었고, 남서쪽 단벽은 할석 1개를 세워서 만들었고, 북동쪽 단벽은 경작으로 인해 파실되고 없다. 석곽의 크기는 길이 200cm, 너비 67cm, 깊이 47cm 정도이다. 양 장벽은 토압에 의해 내부로 기울어져 있으며, 바닥은 생토면을 이용하였다.

유물은 남서쪽 단벽 40cm범위 안에서만 발견되었다. 적갈색연질호 1점, 단경회점, 무개식고개 2점 등이 출토되었다.

(5) 제5호분

할석을 세워서 축조한 수혈식 석곽묘이다. 남서쪽 단벽은 완전히 결실되었고, 북서쪽 단벽만 남아 있다. 장벽은 남동쪽 벽이 그대로 무너져 개석처럼 덮혀 있었다. 장축 방향은 $N-20^{\circ}E$ 이며, 석곽의 크기는 길이 330cm, 너비 80cm, 깊이 30cm정도이다.

유물은 북동 단벽쪽에서 70cm, 남서 단벽쪽에서 60cm의 범위안에 부장하였다. 북동쪽 벽에서 80cm떨어지고, 북서쪽 단벽에 거의 접해서 동심금판장세찬이식을 부장하였다. 피장자의 두향은 이식의 부장 위치에서 볼 때 북동쪽임을 알 수가 있다.

피장자의 머리 쪽에는 고배류, 개, 대부장경호, 발, 대부직구호, 발, 방추자를 부장하였고, 다리 쪽에서는 단경호, 대부장경호, 개, 고배, 발, 철부등을 부장하였다.

(6) 제6호분

이 고분은 냇돌과 할석을 세워서 축조한 수혈식 석곽이다. 북동쪽 단벽은 결실되었다. 장축은 $N-20^{\circ}-E$ 이다. 석곽의 크기는 길이 약 270cm, 너비 54cm, 깊이 약 46cm이다. 개석과 봉토는 확인할 수 없었으며, 바닥은 생토를 그대로 이용하였다. 유물은 남서 단벽에서 30cm 정도의 범위안에 부장하였고, 북동쪽도 대개 30cm정도의 범위안에 부장하였다. 유해부에서는 남동 장벽에 접해서 남서 단벽쪽에서 130cm되는 위치에 철축의 끝이 남서로 향한채 놓여 있었다. 이 철축으로 볼 때 피장자의 두향은 북동으로 판단된다.

북동 단벽쪽에도 대부장경호, 고배, 발이 부장되었고, 남서 단벽쪽에는 대부장경호, 장경호를 부장하였다.

(7) 제7호분

이 고분은 파괴가 심하여 그 원형의 복원이 어렵다. 북동쪽 단벽과 북서쪽 장벽에는 판석을

세운 돌이 각각 1개씩만 남아있다. 남동장벽쪽에 할석이 놓혀 있었다. 이상에서 보면 이 고분은 판석을 세우고, 그 위에 할석을 놓혀서 쌓은 수혈식석곽묘로 생각된다. 바닥은 생토면위에 점토를 12cm정도 깔고 피장자를 안치하였다. 석곽의 북동쪽으로 110cm떨어진 지점에는 한석으로 호석을 돌린 석열이 나타났는데, 석곽의 윗부분과 40cm정도 낮게 축조되어 있었다. 장축방향은 N-20°-E이며, 남아있는 석곽의 크기는 길이 56cm, 너비 77cm, 깊이 30cm정도이다. 출토 유물은 없다.

(8) 제8호분

이 고분은 다음의 9호분과 근접하여 축조되어 있다. 묘곽의 바닥을 기준으로 하면 8호분이 9호분보다 63.5cm높다. 이들의 선후관계는 토층상에서 8호의 봉토 일부를 잘라내고 9호분의 봉토가 8호쪽에 쏠려 있어서 8호분이 먼저 축조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고분의 수혈식석곽묘이다. 장축 방향은 N-40°-E이며, 크기는 길이 226cm, 너비 61cm, 깊이 60cm이다. 사면을 잘라서 정지를 한 후 할석을 세웠다. 양쪽 장벽은 북동 단벽쪽에서 76cm까지는 할석을 면이 넓은 쪽이 밑으로 가게 세웠고(臥重積), 그 위에 할석을 쌓았고, 나머지 부분은 할석을 면이 좁은 쪽이 밑으로 가게 세웠고(立重積), 그 위에 할석을 쌓아서 전체 높이를 조정하였다. 개석의 유무는 확인할 수 없었으며, 바닥은 생토면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유물은 북동 단벽 40cm의 범위안에 부장하였고, 남서 단벽의 70cm범위 안에 부장하였다. 북동 단벽 쪽에는 대부장경로, 유개대부장경로, 발등이 나왔고, 남서 단벽쪽서는 유개장경호, 유개고배, 방추자, 발 등이 나왔다.

유해부의 길이는 120cm정도 추정되며, 이곳에서는 아무런 유물도 발견되지 않았다.

(9) 제9호분

이 고분은 사면을 잘라서 정지한 후에 축조하였다. 4벽의 아래쪽은 냇돌과 할석을 세워서 축조하였고, 그 위에 할석으로 쌓아서 높이를 조절한 수혈식석곽묘이다. 장축방향은 N-20°-E이다. 석곽의 크기는 길이 210cm, 너비 55cm, 깊이 50cm이다. 북서 장벽이 먼저 내부로 무너진 후 남동장벽이 무너져 내부는 흙과 석재로 가득차 있었다. 바닥은 생토를 이용하였으나 남서 단벽쪽은 숯을 일부 깔았다. 개석은 길이 60~103cm, 너비 33~53cm크기의 판석 4개로 덮었는데, 남서쪽에서 두번째 개석을 결실되었다.

유물은 북동단벽 30cm, 남서 단벽 30cm의 범위안에서 각각 발견되었다. 북동 단벽 쪽에서 대부장경호, 단경호, 고배, 발 등이 나왔고, 남서단벽에서 도끼, 낫등이 나왔다. 그 외 유해부에서 철도자, 철촉 등이 출토되었다.

금호동 고분은 토기의 소성면, 단면색층, 무늬, 기종 세트 등에서 묘곽은 1·2·5호분 단계(3단각부 고배등), 3·4·8·9호분 단계(2단 교배)로 크게 나누어지며, 후자는 무늬에 의해 3·4호분 단계(파상문 단계)와 8·6·9호분 단계(원전문 단계)로 다시 나누어지며, 자연유 분출과 원천문등에 의해 9호분은 보다 늦은 시기로 생각된다. 이상에서 금호동 고분의 상대 연대는 1·2호분→5호분→3·4호분→8호분→9호분의 순서로 축조되었다고 추정된다. 경주지방고분의 편년과 비교할 때 1·2호분은 5세기 후반, 9호분은 6세기 후반으로 각각 추정된다.

2. 編 年

지금까지 대구 지역을 대상으로 한 고분의 편년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나와 있다. 토기를 중심으로 한 견해⁹⁵⁾, 이식의 형식 분류에 근거한 견해⁹⁶⁾, 금공품 등을 기초로 한 견해⁹⁷⁾, 묘제에 근거한 견해⁹⁸⁾ 등이 그것이다. 우선 설명의 편의를 위해 대구지역고분의 편년을 알기쉽게 제시하면 다음의 <表 5-2>와 같다.

아래의 편년 가운데 중요한 것의 하나로 이식의 편년을 들 수가 있다.⁹⁹⁾ 이식은 귀에 다는 귀걸이이다. 신라의 적석목곽분에서는 반드시 귀걸이 1쌍이 출토되어 그 편년의 한 기준이 되고 있다. 이 이식은 착장시에 귀에 붙는 주환의 형태에 따라 태환식과 세환식으로 나누는 경우가 있다. 위의 어느 형식이든시간에 이식의 기본 구조는 주환, 중간식, 미식으로 이루어진다. 연결금구가 중간식을 관통하여 미식을 주환에 연결시키고 있다. 연결금구는 이식의 형식 분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몫을 차지해 왔는데 대개 3가지로 나누고 있다. 대구 지역에서는 금제·은제로 만든 여러 가지 형태의 이식이 발견되고 있다. 이 가운데 내당동 51호 1,2곽은 5세기 후반, 내당동 55호와 내당동 59호는 6세기 전반, 내당동 50호 2곽과 비산동 34호 1곽과 비산동 37호 1,2곽은 6세기 후반에 편년되고 있다.

대구 지역 고분의 편년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것으로 토기 형식의 분류에 근거하여 최근에 제출되었다.¹⁰⁰⁾ 여기에서는 고배, 단경호, 장경호, 내부관, 기대, 접형배, 광구소호등을 기준으로

95) 李殷昌, 〈新界伽倻土器編年에 關한 研究〉《曉星女大論集》23, 1981.

藤井和夫, 〈落東江中流域古墳出土 陶質土器編年試案(Ⅰ)〉《神奈川考古》13, 1982.

朴光烈, 앞의 논문, 1992.

96) 伊藤秋男, 〈耳飾の形式學的研究に基づく 韓國古新羅古墳の編年に關する一試案〉《朝鮮學報》64, 1972.

97) 金基雄, 《伽耶의 古墳》, 1976.

98) 金世基, 〈堅穴式墓制의 研究〉《韓國考古學報》17·18合, 1985.

99) 伊藤秋男, 앞의 논문, 1972.

100) 朴光烈, 앞의 논문, 1992.

〈表 5-2〉 대구지역 고분의 편년

구 분	土 器			耳 飾	綜 合	墓 制
	李 殷 昌	藤井和夫	朴 光 烈	伊藤秋男	金 基 雄	金 世 基
300年			斗山洞 所羅洞			
350年			槐田洞		飛山洞 34號 1槨 内唐洞 5號	
400年	不老洞 甲號				内唐洞 50號 飛山 37號 1槨 鳩岩洞 56號	不老洞 甲號 乙號 内唐洞 51號 1槨
450年			内唐洞 51號 2槨 内唐洞 50號 1槨	内唐 51號 1,2槨	飛山洞 37號 2槨 内唐 55號	飛山洞 37號 1槨 内唐 51號 2槨
500年	鳩岩洞 56號	内唐 51號 1,2槨 不老洞 甲號 不老洞 乙號	不老洞 甲號 内唐洞 50號 2槨 内唐洞 55號 飛山洞 37號 2槨	内唐 55號 内唐 59號		内唐 55號 内唐 59號
550年		飛山洞 37號 1槨 飛山洞 34號 1,2槨	不老洞 乙號 飛山洞 34號 1,2槨 飛山洞 37號 1槨 鳩岩洞 56號	内唐 50號 2槨 飛山 34號 1槨 飛山 37號 1,2槨		内唐 50號
660年		内唐 50號 1,2槨 飛山 37號 2槨 内唐 55號				

이 지역의 고분들을 편년하였다. 내당동 51호, 1,2곽, 내당동 50호 1곽을 5세기 후반에, 불노동 甲호, 내당동 50호 2곽, 내당동 55호, 비산동 37호 2곽은 6세기 전반에, 불노동 2호, 비산동 34호, 1,2곽 비산동 37호 1곽, 구암동 55분은 6세기 중엽이후에 각각 비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대

편년은 내당동 50호분 1,2곽, 비산동 37호 2곽, 내당동 55호분 1,2곽, 비산동 37호2곽, 내당동 55호분을 660년 이후로 편년한¹⁰¹⁾ 종래의 가설에서는 많은 발전을 하였다.

위의 <표 5-2>에 나오는 어느 견해에서나 신라, 가야 지역 고분의 절대연대 설정에는 몇가지 기본 자료가 있다. 이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경주의 호우총에서 「壺杆에 새겨진「乙卯年國」·「罌上廣開」·「土地好太」·「王好杆十」이란 명문을 들 수가 있다.¹⁰²⁾ 호우총의 乙卯年은 이명문의 서체가 광개토왕비와 같은 점등에서 415년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호우총의 유물들은 6세기 이후의 늦은 형식의 것이다. 乙卯年은 신라·가야 고분의 편년에 적극적인 자료가 되지 못하고 있다. 신라·가야의 고분 편년에 중요한 자료로 다음으로는 서봉총 출토의 十字鈕附銀盒 명문을 들 수가 있다. 그 전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壽元年太歲在辛

②三月△太王敎造合杆

③三斤

(銀盒 外底)

①延壽元年太歲在卯三月中

②太王敎造合杆用三斤六兩

(銀盒 蓋內)

이 명문 가운데 延壽元年 辛卯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나와 있다.¹⁰³⁾ 391년설, 51년설, 511년설 등이 그것이고, 이를 또다시 고구려설과 신라설로 나누어진다. 이를 알기 쉽게 제시하면 다음의 <표 5-3>과 같다.

<表 5-3>에서 내물마립간 36년설과 문자왕 20년설을 한번도 거론된 적이 없다. <表 5-3>의 여러 견해 가운데 어느 것이 타당한 지를 당시의 금석문자료를 통해 조사해 보는 방법밖에는 없다. 이 은합 명문에도 「太王」이란 용어가 나오고 있다. 이를 통해 검토해 보자. 이 시기 금속문에서 太王의 용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01) 藤井和夫, 앞의 논문, 1982.

102) 金載元, 《壺杆塚과 銀鈴塚》, 1948.

103) 金昌鎬, 〈古新界 瑞鳳塚출토 銀盒 銘文의 검토〉《歷史教育論集》16, 1991, 참조.

〈表 5-3〉 延壽元年辛卯에 대한 여러 견해

연대 \ 나라	고 구 려	신 라
391 년	광개토대왕 1년	내물마립간 36년
451 년	장수왕 39년	눌지마립간 35년
511 년	문자왕 20년	지증왕 12년

①乙卯年 八月 四日 聖法興太王節

(川前里書石 乙卯銘)

⑥此時共三來另 卽知太王妃 夫乞(支妃)

(川前里書石 追銘)

①…△興太王及衆臣等巡狩管境之時記

③…相戰之時新羅太王…

(北漢山碑)

①…眞興太王巡狩管境刊石銘記也

(黃草嶺碑)

①太昌元年歲次戊子……△興太王巡狩△△刊石銘

(磨雲嶺碑)

천전리서석 을묘명은 법흥왕 22년(535)에 만들어졌다. 북한산비는 561~568년 사이에 작성되었고, 마운령비와 황초령비는 다같이 568년 8월 21일에 만들어졌다. 위의 금석문 자료에 따르면 법흥왕 22년(535)에 처음으로 太王이란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근래에 발견된 울진봉 비에는 牟即智麻錦王이라고 法興王을 표기하고 있어서, 봉평비의 작성 연대인 524년 이전에는 太王이란 용어가 사용되었다고 보기가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391년, 451년, 511년의 어느 때나 은합의 太王이 신라의 왕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서봉총의 은합에 새겨진 글자는 호우총 출토의 호우와 마찬가지로 고구려에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은합의 글자가 고구려에서 새겨졌다면 은합 자체의 제작지도 고구려임이 분명하다. 지금까지 고구려 금석문에 나오는 太王과 王의 예를 제시하면 〈表 5-4〉와 같다.

아래의 〈表 5-4〉에서 광개토대왕비는 414년에 건립된 것이다. 모두루묘지는 문자왕대에

작성된 것으로 보아 왔으나¹⁰⁴⁾ 최근에 와서는 5세기전반에 기록된것으로 본 견해¹⁰⁵⁾가 유력하다. 모두루묘지의 주인공인 모두루는 광개토대왕 당시에 北夫餘守事가 되었고, 그가 마지막으로 갖고 있었던 관등을 大使者였다. 모두루묘지에는 장수왕의 王名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그 작성 연대의 상한은 광개토대왕이 죽은 해인 413년이다. 모두루묘지의 작성 연대도 413년이후로 판단된다.

태왕릉에서는 「願太王陵安如山固如岳」이란 전명이 나온 바 있다. 집안 지역의 와당 편년에 근거할 때¹⁰⁶⁾ 태왕릉의 전은 5세기로 편년된다.

호우총의 乙卯年은 415년임은 전술한 바와 같다.

〈表 5-4〉 高句麗 金石文의 太王과 王의 사용 예

資 料 名	用 字 例	備 考
廣 開 土 太 碑	國置上廣開土境 平安好太王 (1회)	廣開土王지칭
	永樂太王 (1會)	
	國置上廣開土境好太王 (3회)	
	太王 (3회)	
	鄒牟王 (3회)	廣開土王지칭
	儒留王 (1회)	
	大朱留王 (1회)	
	王 (8회)	
	王幢 (1회)	
	祖王 先王 (1회)	
	祖先王 (2회)	
太王陵	願太王陵安如山固如岳 (1회)	
牟頭婁墓誌	鄒牟聖王 (1회)	鄒牟聖王지칭
	聖王 (2회)	
	國置上聖太王 (1회)	故國原王 지칭
	國置上廣開土地好太聖王 (1회)	
壺杆塚	乙卯年國置上廣開土地好太王 (1회)	
	壺杆十	
中原高句麗碑	五月中高麗太王…… (1회)	長壽王지칭

104) 池内宏, 〈高句麗人牟頭婁の墓と墨書の墓誌〉《書苑》1-8, 1937.

105) 武田幸男, 〈牟頭婁一族と高句麗王權〉《朝鮮學報》99・100合, p. 170.

106) 谷豊信, 〈五世紀の瓦に關する若干の考察〉《東洋文化研究所紀要》108, 1989.

중원 고구려비의 건립 연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견해가 있지만¹⁰⁷⁾ 장수왕의 太子인 古鄒大加助多가 죽은 직후로 추정되는 5세기 중엽으로 판단된다.

고구려에서 太王이란 용어가 가장 먼저 사용한 예로는 모두루묘지의 故國原王(國岡上王)을 國罽上聖太王이라고 기록한 것이다. 고구려와 신라의 금석문에서 초기의 太王이란 용어에는 반드시 王名이 앞에 붙고 있다. 모두루묘지의 國罽上聖太王이란 예에 근거해 은합 명문의 國

上聖太王이란 예에 근거해 은합 명문의 太王을 고국양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광개토 대왕비에서도 광개토왕을 나타낼 때, 太王이란 용어가 王이란 용어와 함께 사용되고 있어서 414년 당시에도 王名이 붙지 않고 존재하는 太王을 광개토왕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 중원 고구려비에는 高麗太王이란 용어가 나오는 바, 이 때의 太王은 王名이 없지만 장수왕을 가리키고 있다. 서봉총 은합의 太王도 장수왕으로 보는 쪽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면 延壽元年辛卯는 장수왕 39년(451)이 된다.

이렇게 서봉총 은합의 연대가 결정되면 신라, 가야 고분에서 절대 연대 설정의 기준은 점점 어렵게 되고, 그외의 절대 연대 설정의 자가 되는 자료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신라, 가야 고분 편년의 기준이 애매한 지금 대구 지역 고분의 절대 연대설정은 모험에 가깝지만 후술한 신라 적석목곽분 편년의 문제점 등을 참조하고 대구 지역의 비산동·내당동 고분의 하한이 562년의 대가야 멸망이후로는 내려오지 않으리라는 전제 등에 의해 내당동 51호 2곽과 내당동 50호 1곽은 5세기 전반에, 불로동甲호, 내당동 55호 등을 5세기 후반에, 비산동 34호 1·2곽, 구암동 56호는 6세기 전반에 각각 편년하여 두고자 한다.

IV. 新羅에의 併合

대구 지역이 어떤 국가의 단계를 거쳐서 신라에 통합되었는지를 앞에서 제시한 고분과 성 등의 고고학 자료를 통해 접근해 보기로 하자.

고분이 조성되었던 시기에 있어서 인간의 취락은 강이나 시내의 곁에 물을 구하기가 용이하여 논과 밭의 곡식이나 나무 등이 잘 자라는 곳의 생활 공간이 비교적 넓은 평지에서 이루어졌고, 이러한 평지에서 재배한 농산물이나 과일 또는 목축업을 통한 가축등의 경제적인 풍요를 바탕으로

107) 檀國大學校 史學會, 《史學志》19, 1979.

木下礼仁, 〈中原高句麗碑—その建立年代を中心として—〉《村上四男博士和歌山大學退官記念朝鮮史論文集》, 1981.

金英夏·韓相俊, 〈中原高句麗碑의 建碑 年代〉《教育研究誌》25, 1983.

해서 보다 세련된 계급 사회의 진전의 있었다. 이들 지배자들은 금제·은제 무기와 금공품등의 풍부한 부장품을 그들의 무덤이 고분에 함께 묻어서 그들의 정치 세력을 표시하였고, 지상의 봉분도 크게 축조하고 이른바 고총고분의 시대를 열었다. 아울러 외부의 적 등으로 부터의 방어를 위해 취락지 근처에 성을 구축하였다. 이 고분이 축조된 시기에는 고총고분, 성(토성), 강(또는 시내)가 거의 세트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표식적인 예의 하나가 대구이다. 대구에서 가장 규모가 큰 비산동·내당동고분군과 달성토성, 신천의 지류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대구 지역의 풍부한 고고학 자료에 의지해 이 시기 초기 국가 형성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 성과가 나와 있다.¹⁰⁸⁾ 이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소개해 보기로 하자.

고분의 형성이전인 선사 시대에도 대구 지역에는 지석묘, 청동기유적 등이 대단히 풍부했다. 또 대구 지역은 금호강과 신천의 합류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서 일찍부터 인간의 취락이 형성되었다. 국가 형성기에 들어와서 대구는 석관묘, 석곽묘, 석실묘의 3종류 묘제가 있었다.

이들 묘제들은 신천 범람원 주위의 낮은 구릉에 집중되어 있는 바 다음과 같이 4개의 지역을 들 수가 있다.

첫째로 비산동·내당동의 구릉 일대의 대고분군이다.

둘째로 대명동 구릉의 고분군이다.

세째로 산격동·복현동 구릉의 고분군이다.

내째는 두산동 구릉에 있는 고분군이다.

이들 고분군에서는 비산동·내당동에서는 석관묘와 석곽묘도 있으나 석실묘가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대명동 고분군에서는 석실묘, 석관묘도 있으나 석곽묘가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다. 그밖의 지역은 석관묘가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고 한다.

이를 다시 시대적인 변천과 관련지워서 제시하고 있다. 곧 석관묘 시대에는 앞의 4개 고분군 지대가 함께 공존하고 있었다. 다음의 석곽묘 시대가 되면 두산동의 고분군 지역은 석곽묘가 없어서 그 세력이 되고, 나머지 3개의 고분군 지역의 세력만이 공존하게 된다. 석실묘 시대가 되면 비산동·내당동 지역이 나머지 2개의 지역을 통합하여 하나의 정치세력으로 통합된다고 추정하였다.

여기에서는 《三國史記》 등에 나오는 建元 18年の 신라 사신인 衛頭와 중국 전진의 임금인 符堅사이의 대화를 내당동·비산동의 석실묘 시대와 연결시키고, 나아가서 대구가 신라에 통합된 시기를 5세기말이나 6세기초로 추정하여, 내당동·비산동 고분군의 연대를 신라에의 병합 이전에

108) 尹容鎮 〈大邱의 初期國家 形成過程〉 《東洋文化研究》1, 1974.

형성된 것으로 해석하였다.

위의 가설의 성립 여부는 대구지역의 고분 편년이 어떻게 되는지와 직결되므로, 여기에서는 우선 대구지역 고분의 편년 문제부터 조사해 보기로 하자.

대구 지역의 고분에 대한 편년은 신라나 가야 지역의 고분 연구와 함께 진행되어 왔다.¹⁰⁹⁾ 최근에 들어와 대구·경산·칠곡 지역에만 한정된 연구 성과도 나오고 있다.¹¹⁰⁾ 우선 설명의 편의를 위해 지금까지 제시된 여러 견해들은 앞의 〈표 5-2〉와 같다.

앞의 〈표 5-2〉에 나오는 여러 견해 가운데 비산동 34호분의 경우는 4세기 후반으로 보는 견해나 6세기 후반으로 오는 견해가 각각 있다. 이 두 견해 사이에는 같은 고분에 대해 200년 이상의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 내당동 50호분의 경우는 5세기전반, 6세기전반, 7세기후반으로 보는 각각의 견해가 있어서 역시 200년이상의 연대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연대의 차이는 고분 연대 설정의 근거가 문제가 되므로 이에 대해 먼저 조사해 보자.

우리 나라의 고분의 연구는 일인학자에 의해 시작되어 신라 서봉총 은합의 「延壽元年 辛卯」를 451년 또는 511년으로 보면 신라가야의 고분을 대체로 5~6세기로 보아 왔다.¹¹¹⁾ 이러한 가운데서 북한학계의 영향과 함께 《三國史記》의 초기 기록을 믿는 긍정론이 유행하면서 신라·가야지역의 3세기고총고분의 존재에 대한 가설이 쏟아져 나왔다. 이러한 분위기에 대해 遼寧 馮素弗鑑子를 근거로 신라 적석목곽분의 사한이 400년을 넘지 못한다고 채기를 박는 견해가 나왔다.¹¹²⁾ 이때에 일본도요지 편년에 근거한 신라 적석묘곽분에 대한 상세한 상대연대를 설정한 가설이 나왔다.¹¹³⁾ 이 견해는 현재의 학계 일각에서 따르고 있으나, 그 절대 연대 설정의 근거는 불확실한 점이 다소 포함되어 있다.

이를 테면 98호 남분의 연대를 450년전후로 편년하고 있으나 98호 남분의 이식, 대구, 금공품 등 대한 기왕의 견해에 따를 때¹¹⁴⁾ 500년전후로 판단된다. 이는 신라·가야 지역 고분의 절대 연대 설정의 한 모순점을 노정시키는 예이다. 앞서 살펴본 풍소불등자의 연대가 414년 또는 415년인점에 따라 등기가 벽화에 나타나는 무용총의 상한도 풍소불묘에 준하여 편년해 왔다.

109) 朴光烈, 앞의 논문, 1992, p. 36참조.

110) 朴光烈, 위의 논문, 1992.

111) 金昌鎬, 〈古新羅 積石木槨墳의 400年 上限說에 대한 의문〉 《嶺南考古學》4, 1986참조.

112) 穴沢味光·馬目順一, 〈北燕·馮夷弗墓の提起する問題〉 《考古學ジャーナル》85.

113) 藤井和夫, 앞의 논문, 1979.

114) 이식 편년에서 伊藤秋男, 1972, 앞의 논문과 대비시킬 때 그러한 문제가 생긴다. 또 98호 남분의 연대는 안 교·고배·이식·행엽·出字形관 등을 기왕의 형식분류와 비교할 때 500년 전후로 판단된다. 이는 신라·가야 지역의 대형고총고분이 475년에서 520년경에 집중적으로 편년되는 문제가 다시 노정되는 결과가 생긴다.

그런데 4세기전반에 편년되는 中國 朝陽遠台子墓에서는 실물 등자가 출토되었으나¹¹⁵⁾ 기마 인물상벽화에는 등자가 없어서 풍소불로 근거로 연대의 설정의 위험성을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다.

앞에서의 방법대로 벽화고분과 고분 출토의 유물의 연대를 연결시키려고 하면 오히려 357년에 만들어진 안악 3호분에 나오는 山字形胡籊의 그림에 근거할 때 신라·가야 지역의 고분 출토의 호록을 357년에 준하여 편년해야 될 것이다. 신라·가야 고분 출토의 호록의 연대를 대체로 500년 전후로 보고 있어서 150년 이상의 연대적인 차이가 있다. 일본 고분 편년과 신라·가야 고분의 연결보다는 오히려 신라·가야 고분을 고구려 고분과 연결시키는 쪽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는 듯하다.

신라·가야 고분의 편년에서 이렇게 호록을 매개한 고구려 고분과의 연결문제는 가야 고분에서 많이 출토되는 甲冑문제에서도 시사를 얻을 수가 있다. 신라와 가야의 고분에서 갑주의 출토에는 가야쪽 자료가 훨씬 많다. 그런데 실제로 있어서는 가야가 신라를 병합한 것이 아닌가 오히려 갑주자료가 거의 없는 신라가 가야를 정복하였다. 이에 대한 근거 북한산비에 남아 있는바 ‘甲兵之德에 覇主가 되었다’고 명기되어 있다. 신라에서는 6세기에 甲冑가 있었으나 부장품으로 매장되지도 않았다고 해석할 수가 있다.

지금까지 신라·가야 고분의 편년에 있어서 절대 연대의 설정에 대한 몇가지 의문점을 제시하여 보았다. 다시 <표 5-2>로 돌아가서 대구 지역 고분의 연대에 대해 조사해 보기로 하자.

대구 지역의 가장 큰 세력인 내당동·비산동 고분의 연대를 660년 보다 늦게 잡는 견해는 전혀 그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대구 지역의 비산동·내당동 고분군의 하한은 대가야의 멸망인 562년까지에 걸친 것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대구 지역이 신라에 병합된 시기도 500년 전후로 보아 왔다. 대구 지역이 내당동·비산동고분으로 하나의 정치 세력으로 성장되고 나서 신라에 병합되었는지 아니면 통합 세력으로의 태동 과정에 신라에 병합되었는지 아니면 통합되기 이전에 신라에 병합되었는지가 문제가 된다. 대구 지역은 종래에 《日本書紀》, 神功紀 49條등에 나오는 卓淳 또는 喙國으로 비정해서¹¹⁶⁾ 가야 세력 가운데 하나로 보아 왔다. 최근에 들어와 卓淳은 昌原으로 비정한 견해가 나오고 있다.¹¹⁷⁾ 대구가 卓淳이나 喙國과 관계 여부에 상관없이 대구지역은 적어도 5~6세기가 되면 친신라권임은

115) 遼寧省博物館文物隊 등, 〈朝陽袁台子 東晉壁畫墓〉《文物》1984-4, 1984.

116) 鮎見房之進, 《雜攷》7, 上卷, pp. 143~151 및 下卷, pp. 72~74, p. 1939.

117) 金泰植, 《加倭聯盟史》, p.186, 1993.

분명하다.

대구 지역이 친신라권임에는 분명하지만 신라에의 병합 여부를 가늠할 수 있을 정도로 고분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지 못해서 선뜻 해답을 구할 수가 없다. 대구지역은 이 시기의 성주 성산동 고분, 창녕 고분, 양산 고분, 동래 복현동 고분, 경산의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과 마찬가지로 出字形 金銅冠이 출토되고 있다. 위의 지역 고분의 부장품 가운데 당시인의 신분과 가장 긴밀한 관이 신라식인 점은 주목되어야 할 것이다. 이 관은 가야 지역의 금동관과의 분명히 형식상으로 차이가 있다. 왜 이들 지역의 최고 계층들의 무덤에서는 신라식 금동관이 출토되고 있는지가 궁금하다.

위의 고분과 같은 성격이 고분으로 영주 순흥의 於宿知述干墓를 들 수가 있다. 이 명문과 冷水里碑의 七王等이란 관이 출토되고 있다. 출자형금동관의 출토 예에 따르면 경산이나 대구 지역은 6세기 전반까지도 신라에 병합되지 않은 상태로 해석이 가능하기도 하다.

현재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신라·가야지역에서 소국의 중심이 되는 지역의 고분들(동래 복천동, 양산, 성주 성산동, 창녕 교동, 경산 임당동, 대구 비산동과 내당동, 고령지산동, 합천 쌍책 등)의 고분들에 있어서 부장품이 화려한 시기는 475년을 소급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475년 백제의 웅진 천도 이후에 신라와 백제는 낙동강 동안과 서안에 흩어져 있는 여러 소국들에 대해 서로 선심 공세를 펼쳤다고 판단된다. 이들 지역에서 출토되는 자형금동관은 신라측의 선심공세의 증거이고, 용봉문대도, 상감 기술의 보급등은 백제측에서부터 이들 지역에 흘러 들어갔다고 판단된다. 561년에 작성된 구절에 근거할 때 이들 지역의 지배세력들은 신라에의 병합 이후에 신라로부터 嶽干, 述干, 貴干, 撰干, 上干, 干 등의 외위를 받을 수 있는 계층으로 판단된다. 물론 대구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는 신라에 병합되기 전에도 신라 6두품이상의 계층이 착장했던 금동관을 그 지배계층이 착장했다고 상정된다.

대구 지역 고분의 가장 큰 중심 세력인 비산동·내당동 고분의 피장자에 대한 성격이 밝혀져도 대구 지역이 언제 경주에 병합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 늦어도 562년 대가야의 멸망 이전에 이미 대구지역이 경주에 병합되었다는 데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578년에 작성된 대구무술명 오작비는 대구가 신라에 통합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대구 보다 신라에 가까운 押督國이 있었던 경산의 임당동·조영동 고분의 경우에도 6세기까지 내려오는 고분이 있어서 신라에의 병합 시기를 정확히 알 수가 없다. 신라에 보다 가까운 骨伐國이 있던 영천의 경우에도 현재 5~6세기에 편년되는 고총고분이 100여개가 유존하고 있다. 그런데 영천에서는 476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영천청제비 병진명이 발견되어서 고분(고총)의 존재 유무와 신라에의 병합 여부는 별개의 것으로 판단된다. 경주에 가까운 迎日

冷水里의 경우는 443년에 작성된 냉수리비가 존재해 있지만 최근에 6세기의 석실분이 냉수리에서 발굴조사된 바 있다.

이상과 같은 경주 주변 지역에서의 금석문 자료와 고총고분의 유존을 비교할 때 고총고분의 존재 여부로 신라에의 병합 여부를 따질 수는 없다. 경산의 임당동이나 조영동에서는 5세기말과 6세기전반에 해당되는 고분에서 각각 출자형금동관이 출토되고 있고, 대구에서는 6세기 전반의 고분에서 출자형금동관이 나타나고 있다. 이 신라계금동관은 늦은 시기에 나오는 안동, 영춘, 동해 등의 신라계관과 비교할 때 이미 대구 지역이 신라에 정치적으로 병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第6章 統一新羅時代의 大邱

第1節 新羅의 三國統一과 大邱의 變化

I. 郡縣制의 實施와 大邱地域의 郡縣

대구지역에는 6세기대의 州郡制 실시 이후 대체로 喟火郡의 郡治와 예하 3~4개의 城村, 押梁郡 예하의 1~2개 城村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또 그것들은 廣域州인 下州의 영역의 일부로 편제되어 上下 領屬關係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런데 신라왕조는 7세기 후반의 삼국통일전쟁의 수행과 승리 후의 수습과정에서 전면적인 지배체제의 재편성 작업을 추진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¹⁾ 우선 중앙의 정치구조적인 측면에서 和白會議과 上大等の 권력을 제한하여 정치의 前面에서 물러나게 하고, 왕권의 방과제적 기능을 가진 執事部和 그 장관 中侍²⁾의 권력을 강화하는 한편 일반 행정관부 체계와 관원조직을 정비하였다. 이는 진골 귀족의 발언권을 약화시키는 한편 국왕의 專制主義的 지배를 지향하는 것이었다. 다음으로 백제와 고구려의 故土를 포괄하는 보다 확대된 영역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하여 전국을 9개의 州로 나누고, 주요 지방 거점에 5小京을 설치하는가 하면, 州의 예하에 중국의 제도를 모방한 郡縣制를 실시하였다.³⁾ 이는 중앙집권적 지방 지배를 실현할 목적을 지닌 것이었다. 그리고 6세기대 이래 국가적 성장과 정복전쟁의 추진 과정에서 현실적 필요성에 입각하여 비체계적으로 설치해 왔던 군사조직에 대한 전면적인 재정비를 단행함으로써 군사조직의 체계와 모습도 일신한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이와 같은 통일신라기 벽두에 추진된 신라지배체제의 재편성과정에서 대구지역도 적지않은 변화를 겪게 되었다. 특히 신라왕조가 단행한 지방지배체제의 개혁의 물결은 대구지역의 경우에도 예외없이 파급되었다. 9주의 확정과 군현제의 실시라는 지방제도 개편 결과

1) 통일을 전후한 7세기대 신라의 정치 사회적 변동에 대한 개관은 李基白·李基東, 《韓國史講座》, 古代篇 1982, pp. 326~344 참조.

2) 李基白, 〈新羅 執事部の 成立〉《新羅政治社會史研究》, 1974.

3) 이에 대한 선구적인 연구로는 藤田亮策, 〈新羅九州五京攷〉《朝鮮學報》5, 1953.이 있다.

대구지역은 첫째 행정체계상 上位의 領屬關係에 변화가 일어났으며, 둘째 中古期의 성촌이 縣이라는 행정단위로 개편되고 그에 따라 地方官職의 신설과 파견이 있게 되었다. 이제 이러한 변화상을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겠다.

앞에서 논급하였듯이 6세기대 이래의 당시의 신라 영역에 대한 지방지배체제의 정비 과정에서 대구지역에는 지증왕대에 위화군과 예하의 성촌, 압량군 예하의 일부 성촌이 설치되었으며, 이들은 진흥왕 16년 광역주인 하주의 설치와 더불어 하주의 영역으로 편입되어 상하의 영속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런데 대구지역은 기존에 영속되어 왔던 상위의 행정단위인 하주에 변화가 일어나면서 새로운 영속관계를 갖게 되었다.

신라는 백제 멸망 직후인 문무왕대 초반부터 신문왕 5년의 구주확정에 이르기까지 새로이 영토로 편입된 지역과 더불어 기존 신라의 영역에 대해서도 영역조정을 단행하였다. 그 동안에 새로이 확정된 광역주는 적지않은 변화를 겪으면서 신문왕 5년의 ‘始備九州’, 곧 9주체제의 완성을 보게 되거니와, 그 과정에서 등장하는 광역주의 치폐를 정리하여 <표>로서 제시하면 다음 <表 6-1>과 같다.⁴⁾

<表 6-1> 統一新羅期 九州의 成立過程

연대 주명	무열왕 대	문무왕 5년	동 11년	동 13년	동 18년	신문왕 원년	동 5년	동 6년	동 7년	경덕왕 16 개정명
沙伐州	一善州								沙伐州	尙州
靺良州		靺良州								良州
菁 州		居烈州					菁州			康州
漢山州	漢山州									漢州
首若州	牛首州	比列忽州		首若州						朔州
河西州	河西州									溟州
熊川州			所夫里州 湯井州			(州廢)		熊川州		熊州
完山州	(下州)						完山州			全州
武珍州					? 發羅州			武珍州		武州

4) 李文基, <統一新羅의 地方官制 研究>《國史館論叢》20, 1990. 참조.

이상과 같은 구주체제의 성립과정에서 대구지역의 변화와 관련지워 유의할 만한 사실은 기왕에 대구지역을 영속하고 있었던 하주가 소멸되는 대신 새로운 광역주가 편성되고 있는 사실이다. 하주의 소멸을 알려주는 직접적인 자료는 찾을 수 없지만 아래의 자료는 그 변화상을 시사해 주고 있다.

- (1)-① 문무왕 5년(665)에 上州와 下州의 땅을 나누어 歙良州를 설치하였다.((삼국사기》권 34, 지리지1)
- ② 문무왕 13년(673) 9월에 삼랑주의 骨爭峴山城을 쌓았다.(위의 책, 권 7, 문무왕 13년조)③ 신문왕 7년(684)에 사벌주와 삼랑주 2주의 州城을 쌓았다.(위의 책, 권 8, 신문왕 7년조)
- (2)-① 문무왕 5년(665) 겨울에 一善州와 居烈州의 2州民으로 하여금 河西州로 軍資를 수송케 하였다.(위의 책, 권 6, 문무왕 5년조)
- ② (문무왕 12년(672)) 당병이 추격해 오니 居烈州大監 阿珍舍一吉干이 上將軍에게 말하기를 “공들은 힘써 속히 가시오. 나는 이미 나이가 칠십이니 얼마나 더 살 수 있으리오? 이 때가 곧 내가 죽을 날이오”라 하며 창을 비껴들고 적진으로 돌입하여 죽으니, 그 아들 역시 따라 죽었다.(위의 책, 권 43, 김유신전 (하))
- ③ 문무왕 13년(673) 9월에 居烈州 萬興寺山城을 쌓았다.(위의 책, 권 6, 문무왕 13년조)
- ④ 신문왕 5년(685)에 居烈州를 나누어 菁州를 두었다.(위의 책, 권 7, 신문왕 5년조)

위의 자료 (1)과 (2)는 삼랑주와 거열주의 설치 및 존속과 관련된 자료들이다. 먼저 (1)-①에 의하면 상주와 하주의 땅을 나누어 삼랑주가 설치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렇게 설치된 삼랑주는 문무왕 13년, 신문왕 7년에 존속이 확인되고 있어 구주체제의 하나로 자리잡았음을 알 수 있다.((1)-②·③ 참조) 문무왕 5년 삼랑주의 설치는 결국 기존의 광역주인 상주와 하주의 영역상의 변동을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며, 특히 하주의 영역에 일대 변동을 수반한 조치였다.⁵⁾

한편 (2)에서는 또하나의 광역주인 거열주가 문무왕 5년의 시점에서 확인된다. 이는 (2)-②③에서 보이듯이 신문왕 5년(684)에 청주로 변하기까지(자료 2-④) 광역주가 분명하다. 그러면 거열주의 설치시기는 언제일까? 거열주의 주치가 되는 居烈城을 신라가 완전하게 확보한 시기는 문무왕 3년(663)이었다.⁶⁾ 그렇다면 거열주의 설치시기는 문무왕 3년에서 동왕 5년 사이일 것이며, 거열주의 영역 역시 하주의 영역과 중복되고 있는 점을

5) 삼랑주의 대부분 영역이 하주의 그것과 중복되어 있어 이를 알 수 있다.

6) “二月 欽純·天存領兵 攻取居烈城 斬首七百餘級”(《三國史記》권 6, 新羅本紀 6, 文武王 3년조). 한편 《世宗實錄地理志》 晉州牧條에서는 거열주의 설치시기를 문무왕 2년이라고 하고 있으나, 잘못이다.

고려할 때, 삼량주 설치시기인 문무왕 5년이 거열주의 설치시기로 판단된다.⁷⁾ 요컨대 신라왕조는 문무왕 5년 기존의 광역주에 대한 영역조정을 단행하면서 상주의 하주의 일부를 합쳐 삼량주를 설치하였고, 동시에 나머지 하주의 영역을 포괄하는 광역주로 거열주를 創置했던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하주는 소멸되고, 그 영역은 삼량주와 거열주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이상과 같은 변동과정을 거쳐 성립된 삼량주는 그 州治를 梁山에 두고 있으면서, 오늘날 경남지역의 일부와 경북의 慶州郡과 그 부근, 永川市와 永川郡, 達城郡, 慶山市와 慶山郡, 大邱直轄市地域 등을 포괄하는 영역을 갖게 되었다. 이로써 대구지역은 이 삼량주에 영속되었던 것이다.

한편 통일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대구지역에 일어난 또 하나의 변화로는 군현제 실시에 따라 군 예하의 성촌이 현이라는 새로운 행정단위로 편제되었으며, 거기에 맞는 지방관직이 신설 파견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신라왕조의 지방행정단위로 縣制가 실시된 시기에 대해서는 자료상의 혼란으로 서로 다른 의견이 착종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먼저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하겠다.

《三國史記》신라본기와 지리지에는 국가형성기의 신라가 주변지역이나 소국을 취하여 縣을 설치했다는 기록이 보이기도 하고, 또 구체적인 현명이 등장하기도 한다.⁸⁾ 그러나 이는 사실로 믿기는 어렵다. 신라의 지방지배의 실현과정이나, 국가형성기의 중앙집권력의 강도 등의 측면을 보면, 중국적인 지방지배단위인 현이 설치될 단계와는 일정한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증왕 6년의 주군제 시행기사⁹⁾에서도 “王이 친히 國內의 州郡縣을 정하였다”고 하여 현을 설치한 듯이 기록하고 있으나, 역시 사실이 아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다수의 중고기 금석문자료에서 현의 존재는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7세기로 접어들면서 《삼국사기》에는 현과의 관련을 시사하는 縣令의 존재가 등장하고 있어 주목을 끈다. 다음을 보자.

7) 藤田亮策, 앞의 논문, 1953; 《朝鮮學論考》1963. 및 李文基, 앞의 논문, p.14.

8) 몇 예만 보이면 다음과 같다.

① (婆娑尼師今 5년) 南新縣麥連岐(《삼국사기》 권 1)
 ② (伐休尼師今 3년) 南新縣進嘉禾(《삼국사기》 권 2)
 ③ 河曲縣 婆娑王時取屈何火村 置縣(《삼국사기》 권 34, 지리지 1)
 ④ 臨川縣 助賁王時伐得骨火小國 置縣(위와 같음)

9) 《三國史記》 권 4, 新羅本紀 4, 智證麻立于 6년조.

- (1) 奚論은 牟梁人이다. 그 아버지 讚德은 용감한 뜻과 영특한 절개가 있어 한때에 이름이 높았다. 建福 27년 庚午年에 眞平大王이 선발하여 椶峯城 縣令으로 삼았다.(《三國史記》 권 47, 奚論傳)
- (2) 永徽 6년 乙卯 추9월에 庾信이 백제를 침입했다. <중략> 앞서 租未押級食이 夫山縣令이 되었다가 백제에게 포로로 잡혀 佐平 任子의 家奴가 되었다.(위의 책, 권 42, 金庾信傳(中))
- (3) 匹夫는 沙梁人으로 아버지는 尊臺 阿飡이다. 太宗大王이, 백제 고구려 말갈이 脣齒로 비길만큼 서로 친하여 같이 모의하여 침탈해 오자, 忠勇한 인재로 이를 防禦할만한 인물을 구하여 匹夫로써 七重城 아래의 縣令으로 삼았다.(위의 책, 권 47, 匹夫傳)
- (4) 文武王 15년(675) 唐兵이 거란·말갈병과 더불어 와서 七重城을 포위했으나 이기지 못하였다. 少守 儒冬이 죽었다. 말갈이 또 赤木城을 포위하여 멸하였다. 縣令 脫起가 백성을 거느리고 저항했으나 힘이 다하여 모두 죽었다. 당병이 또 石峴城을 포위하여 도려 뽑았다. 縣令 仙伯·悉毛 등이 힘써 싸우다 죽었다.(위의 책, 권 7, 新羅本紀 7)
- (5) 文武王 16년(676) 당병이 와서 道林城을 攻拔하매 縣令 居尸知가 전사하였다.(위와 같음)

위의 사료들은 모두 7세기대의 상황을 전하는 것인데, 현에 파견된 지방관인 縣令((1), (2), (3), (4), (5))이나 少守((4))라는 관직명을 가진 자들이 보이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 그래서 이를 근거로 7세기대에 縣이라는 지방행정단위가 설치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제기되기도 하였다.¹⁰⁾ 그러나 이것만으로 신라에서 縣制가 시행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며, 나아가 신라의 전 영역에 걸쳐 전면적으로 현제가 시행된 것으로 보기는 더욱 어렵다고 생각된다.

그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들 수 있다. 첫째, 591년(진평왕 13년) 당시의 신라 지방통치조직의 일단을 보여주고 있는 <南山新城碑>에서 현이라는 행정구역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다.¹¹⁾ 남산신성비에서는 3~4개의 촌(성)으로 이루어진 郡의 존재만 나타나고 있을 뿐인 것이다. 물론 위의 사료는 남산신성비의 시기와 약간의 시간적 차이를 가진 것이지만, 양 시기의 사이에 현제의 등장과 같은 급격한 지방제의 개편이 있었을 단서도 찾아지지 않는다. 둘째, 위의 사료에서 현령이 파견되어 있었던 곳은 가잠성·칠중성·적목성·석현성·도림성 등으로 여전히 城인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물론 (3)과 같이 ‘七重城下

10) 대표적으로 村上四男, <新羅における縣の成立について>《和歌山大學人文學部紀要》25, 1976;《朝鮮古代史研究》, 1978을 들 수 있다.

11) 남산신성비에 대해서는 아래의 연구가 참조된다.

秦弘燮, <南山新城碑의 綜合的 考察>《歷史學報》26, 1965.

李鐘旭, <南山新城碑를 통하여 본 新羅의 地方統治體制>《歷史學報》64, 1974.

縣令'이라는 표현도 보이고 있어 칠중성을 중심으로 하는 일정한 범위의 지역단위가 상정되며, 그것이 곧 현이었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만약 이것이 현이었다면 필부의 직명은 '七重縣令'으로 기록되었을 것이며, '七重城下縣令'과 같이 막연한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세째, 위의 자료에서 현령으로 기록된 인물들은 지방행정관적인 성격보다는 오히려 일종의 군사지휘관과 같은 느낌을 주고 있다. 백제와의 전투에서 사망한 찬덕, 나당전 쟁과정에서 전사한 탈기와 선백, 혹은 거시지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특히 匹夫의 경우 '忠勇한 人才로서 防禦를 감당할 자'라는 자격으로 칠중성하의 현령으로 선임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夫山縣令이었던 未租押 역시 백제와 근접한 변경지대에 주재하고 있다가 백제의 포로가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사례에서 볼 때 7세기대의 현령은 통일신라기 군현제의 전면적인 시행 이후의 현령과는 그 성격에서 일정한 차이가 있었던 여겨진다. 이들은 변경의 군사적 요충지인 각 성에 파견된 일종의 군사지휘관적 성격이 농후한 지방관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7세기 중엽까지는 현령이라는 관직명이 사용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만으로 지방행정단위인 현이 설치된 것으로 확대 해석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신라왕조는 중국의 지방관명인 현령을 모방한 지방관직을 설치하였지만, 그것은 지방행정단위인 현에 설치된 것이 아니라 변경의 군사적 요충지인 성에 파견된 군사지휘관적 성격이 강한 지방관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설령 현령의 설치가 곧 현의 등장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변경의 일부 지방에 한정된 것이었으며, 신라에서 전면적인 현제의 시행으로 보아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구지역에도 7세기 중엽에 이르기까지는 현제가 시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면 신라에서 본격적으로 현제가 시행된 시기는 언제일까? 이에 대해서는 百濟 故地 地域의 현제 시행과 관련된 다음의 사료에서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

- (1) (문무왕 15년(675)) 그러나 百濟의 땅을 많이 뺏아 高句麗의 南境에 이르기 까지 州郡을 삼았다. (《삼국사기》 권 7, 신라본기 7)
- (2) 神文王 6년(686) 2월에 石山·馬山·孤山·沙平縣의 4현을 두었다. (위의 책, 권 8, 신라본기 8)

먼저 사료 (1)은 문무왕이 백제의 멸망 이후 백제 부흥군과의 전투과정에서 확보한 지역을 점차 직접적인 지배하에 편입시키면서 주와 군을 설치했음을 전하고 있다. 이에 유의하면 아직 백제 고지에는 문무왕 15년(675)까지 현이 설치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료

(2)에는 신문왕 6년(686)에 실질적인 현의 설치기사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보이는 4개 현은 《삼국사기》 지리지에 의하면 백제 고지에 해당하는 웅주 관내의 혜성군·부여군·가림군·임성군의 영현으로 기록되어 있어,¹²⁾ 백제 고지 지역에는 늦어도 686년에 현이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주지하듯이 백제의 고지에는 이들 4현 이외에도 수많은 현이 설치되었다. 이 백제 고지의 현들은 백제의 지방행정단위에 현이 존재하지 않았던 점과, 사료 (1)에서 675년까지 현의 설치가 인정되지 않는 점을 종합해 보면 675년에서 686년 사이에 일제히 설치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면 백제 고지지역에서의 현제의 실시시기는 언제일까?

(1) 무릇 5都督府 37州 250縣을 설치하였다.〈〈唐平百濟碑〉〉

(2) 이제 新羅가 州郡을 建置할 때를 살펴보니 그 田丁과 戶口가 縣으로 삼가에 모자라는 곳은 혹은 鄉을 두고 혹은 部曲을 두어 그 所在하는 邑에 속하게하였다.〈〈新增東國輿地勝覽〉麗州牧 古跡 登神莊條〉

먼저 (1)은 백제를 멸망시킨 660년에 백제지역에 대한 지배 야욕을 가지고 있던 唐이 설치한 행정구역인데, 都督府와 州 예하에 말단 행정단위로 250개의 縣을 설치했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도상계획에 불과하였으며, 현의 경우도 멸망 당시 백제의 성을 현으로 바꾸어 표기한 것으로서,¹³⁾ 이름만 현이었을 뿐 그 실체는 성 그 자체였다. 따라서 이 자료를 토대로 660년 당시에 백제 고지 지역에서 현제가 실시되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이와 비슷한 성격의 자료로 《三國史記》地理志 4의 소위 ‘李積奏狀’에 보이는 백제 고지 지역의 행정구역을 들 수 있다. 이는 總章 2년(669) 당이 고구려와 백제 지역을 당의 직할지로 편입시킬 목적에서 확정했던 것으로, 백제 지역에는 1都督府 7州 51縣이 들어간 것처럼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당의 시도는 백제 부흥군의 저항으로 660년에 설정한 5도독부체제가 유명무실해지자, 부흥군 활동의 종식 이후 행정구역 재조정의 필요성에서 이루어진 것인데,¹⁴⁾ 이로써 본다면 백제 고지에는 1도독부체제 시기에 당에 의해 일시적으로 현제가 실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당이 실시한 현제는 이후 통일신라의 행정구획 설정과

12) 《三國史記》 권 46, 地理志 3, 熊州條.

13) 《新唐書》에는 백제 멸망 당시의 행정구역을 5部 37郡 200城이라 하고 있는데, 이는 대체로 〈唐平百濟碑〉의 5도독부 37주 250현에 대응되고 있다. 따라서 〈당평백제비〉의 기록은 백제의 지방제를 중국적인 군현으로 대치한 것에 불과하다.

14) 末松保和, 〈百濟の故地に置かれた唐の州縣について〉《靑丘史草》, 1965 및 盧重國, 《百濟政治史研究》, 1988, pp. 249~250. 참조.

정에서는 거의 이용되지 않고 폐기되었으므로,¹⁵⁾ 이러한 한시적인 현제가 백제 고지에서의 현제 시행으로 파악될 수는 없다. 앞의 자료에서 보았듯이 신라는 675년(문무왕 15년)까지 백제의 고지를 확보하여 주와 군만을 설치했음을 명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아 올 때 백제 고지지역의 현제의 시행시기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 위의 자료 (2)이다. 자료 (2)는 지금까지 특수한 지방제도인 鄕과 部曲의 기원과 관련하여 많은 주목을 받아 온 것인데, 취신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없지 않았으나, 근래 이를 신빙성 높은 자료로 인정하는 견해가 보편화되고 있다.¹⁶⁾ 그런데 이 자료를 세밀하게 음미하면 향과 부곡의 성립문제 뿐만 아니라 현의 성립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선 ‘新羅가 州郡을 建置할 때에’라는 기준 시점이 보이며, 다음으로 ‘田丁과 戶口가 縣에 미달할 경우 鄕과 部曲을 설치한다’라는 행정구역의 설정기준이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따를 때 신라에서의 현의 설치는 향과 부곡 성립의 전제가 되었으며, 그 시기는 ‘주와 군을 건치할 때’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신라의 주와 군의 건치시기로는 지증왕 6년의 주군제 실시 시기와 신문왕 5년의 구주체제 성립시기 두 가지를 상정해 볼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전술했듯이 현의 설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보다 가능성이 큰 것은 후자의 시점이다. 이는 특히 675년에서 686년 사이에 현의 설치가 있었을 것이라는 앞서의 추측에 부합하고 있다. 따라서 백제 고지 지역에서의 전면적인 현제의 시행은 구주체제의 정비시기인 신문왕 5년(685)으로 볼 수 있으며,¹⁷⁾ 이는 모든 신라 영역의 경우로 확대해도 무리가 없다. 다시 말하면 신라왕조는 685년 구주체제의 정비에 즈음하여 전국적으로 현제를 시행하여 군현제적 지방지배구조를 갖추게 되었던 것이다.

이상의 장황한 논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신라왕조는 통일을 달성한 후 지배체제의 재편성과정에서 신문왕 5년부터 전국적으로 군현제를 실시하였다. 그 일환으로 하부의 새로운 행정단위로 현을 설치하였는 바, 그것은 이전의 성촌을 재편한 것이었다.¹⁸⁾ 이러한 지방제의 개편과정에서 대구지역에도 현제가 실시되기에 이르렀다. 기존의 성촌이 어떤 기준에 의해 현으로 설정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현제의 실시에 따라 새로 편성된 대구지역의 행

15) 이에 대해서는 盧重國, 〈統一期 新羅의 百濟故地支配〉《韓國古代史研究》1, 1988에 자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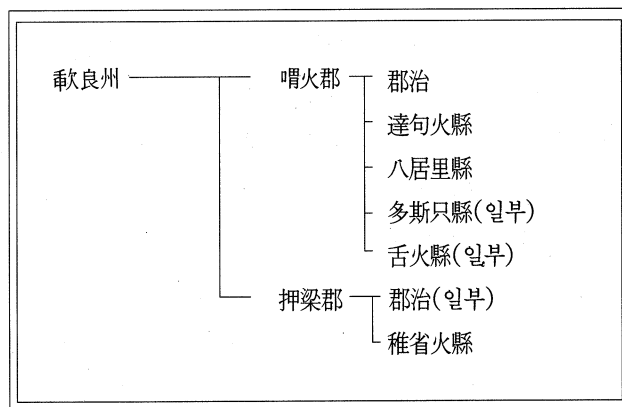
16) 대표적으로는 朴宗基, 〈高麗時代 鄕·部曲의 變質過程〉《韓國史論》6, 1980, pp. 72-75.를 들 수 있다.

17) 李文基, 앞의 논문, p.16.

18) 中古期の 城村이 통일신라기에 이르러 縣으로 개편된 사실은 李宇泰, 〈新羅의 村과 村主〉《韓國史論》7, 1982.

에서 자세하게 논증되고 있다. 단 그 시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이 없다.

정단위는 현재의 대구지역을 기준으로 하면 대체로 아래의 〈圖 6-1〉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圖 6-1〉 통일신라기 대구지역의 군현편성

이상과 같은 대구지역의 군현을 현재의 대구지역과 결부시켜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먼저 대구분지의 중앙을 貫流하는 新川을 경계로 그 동쪽은 위화군의 郡治地域이었으며, 신천의 서쪽은 達句火縣으로 편성되었다. 그리고 금호강을 경계로 팔공산 기슭에 해당하는 그 동북쪽의 東村지역 일원은 押梁郡 稚省火縣으로 편성되었으며, 현재 대구직할지역에 편입된 孤山地域은 압량군의 郡治의 일부를 형성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대구지역의 서쪽과 북쪽지역 가운데 月背地域은 舌火縣의 일부였으며, 城西地域은 多斯只縣의 일부, 漆谷地域은 八居里縣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각각의 군현에는 《삼국사기》 직관지 외관조에 규정된 바와 같은 지방관이 파견되었을 것이다. 곧 郡에는 郡太守 1인과 外司正 1인이, 縣에는 縣令 (혹은 少守) 1인이 파견되어 당해 지역 출신의 村主들의 도움을 받아 지방지배를 실현해 나간 것으로 여겨진다.

II. 達句伐 遷都計劃과 大邱地域의 位相

통일신라기로 접어들어 군현제가 실시되는 등의 변화를 겪었던 대구지역은 그 과정에서 정치 사회적 비중이 높아져 신문왕대에 이르면 드디어 새로운 도읍의 후보지로 부각되어 천도의 시도가 있게 되었다.

- (1) 神文王 9년(689) 王이 서울을 達句伐로 옮기려 하다가 실현시키지 못하였다. (《삼국사기》 권 8, 신라본기 8)

위의 자료에는 신문왕 9년에 신라왕조가 달구벌로 도읍을 옮기려 했다가 결국 좌절되고 말았던 사실이 극히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을 뿐, 나머지의 자세한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그런데 국가적으로 정치·경제·사회의 腹心이라고 할 수 있는 수도를 옮긴다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전 시기에 추진된 바 있었던 고구려 장수왕의 평양성 천도나¹⁹⁾ 백제 성왕의 사비성 천도²⁰⁾의 사례에서 보면 수도의 천도란 절박한 국가적 필요와 주도면밀한 사전 준비가 요청되는 大役事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문왕의 달구벌 천도 시도도 고구려 장수왕이나 백제 성왕 시기에 못지 않는 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이러한 신문왕의 갑작스러운 달구벌로의 천도 시도와 관련하여 우리는 몇 가지의 의문을 갖게 된다. 첫째 건국 이후 700년 이상 특별한 문제가 노출되지 않았던 왕도(현 경주)를 버리고 새로운 도읍지로 옮기려 했던 배경은 무엇일까 라는 점이다. 신라왕조의 복심인 도읍을 달구벌로 옮기려 한 데는 반드시 그래야만 할 모종의 절실한 정치적·사회적 필요성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검토는 또 한편으로 신문왕의 의욕적인 천도의 시도가 결과적으로 좌절되고 말았던 이유에 대한 해명도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천도가 지닌 중차대한 정치·사회적 의미를 생각하면 천도의 시도와 좌절이란 이를 둘러싼 세력집단 간의 갈등에서 기인되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둘째 달구벌로의 천도 시도가 일시적이거나 즉흥적인 조치는 결코 아니었음을 고려하면, 천도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 어떠했을까 하는 점이다. 앞서 지적한 고구려와 백제의 천도에 있어서도 주도면밀한 사전 작업이 있었음을 보면 신문왕의 천도 시도에도 그와 흡사한 사전 정지작업은 반드시 필요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검토는 사실 통일신라기 대구지역의 역사복원에 있어 간과될 수 없는 부분이 된다.

세째 왜 하필 대구지역이 천도의 후보지로 지목되었는지도 의문이다. 그 이유를 밝혀내는 것 역시 통일신라기 대구지역의 역사복원에 긴요한 작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상과 같은 몇 가지의 의문에 답해 주는 관련사료는 더 이상 발견되지

19) 長壽王의 평양천도 顛末에 대해서는 徐永大, 〈高句麗 平壤遷都의 動機〉《韓國文化》2, 1981. 참조.

20) 盧重國, 앞의 책, pp. 162~191 및 金周成, 《百濟 泗泚時代 政治史 研究》, 全南大博士學位論文, pp. 26~45. 참조.

않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우회적인 방법이지만, 당시의 상황에서 유추될 수 있는 정황 증거를 통해 이상의 의문에 접근할 수 밖에 없다.

먼저 신문왕의 천도 시도의 배경에 대해 살펴보자. 이에 대해서는 통일을 달성한 이후의 신라 판도를 고려할 때, 경주가 지리적으로 너무 동남쪽으로 편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대구지역으로 천도를 계획한 것이라는 지리적 입지를 중시한 견해가 제출된 바 있다.²¹⁾ 경주지역이 신라 전체 영역면에서 동남쪽으로 편재되어 있었음은 부인될 수 없으므로 이 주장은 일단 청중할만하다. 그러나 한편 천도의 후보지였던 대구지역 역시 통일신라 전체 판도면에서 본다면 그 지리적 입지가 경주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대구는 하대의 왕위쟁탈전과정에서 선명하게 드러나듯이 경주와 거의 직결된 교통로상에 위치하고 있어²²⁾ 지역적 편재성 극복이라는 효과면에서 경주와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신라왕조는 대구로의 천도 시도 이전인 신문왕 5년(685)까지 이러한 수도입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정치적 요지에 이미 5소경을 설치한 바 있다.²³⁾ 그러므로 경주지역의 지리적 입지가 가진 한계만으로 천도의 배경을 설명하기에는 미흡한 구석이 남아 있는 것이다.²⁴⁾

이러한 시각을 가질 때 우리는 왕경 천도의 배경으로 모종의 정치적인 이유를 떠올리게 된다. 고구려 장수왕의 평양천도 목적 가운데는 구래의 5부귀족세력을 억압하고, 왕권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개재되어 있었던 사실²⁵⁾에서 추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먼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천도의 배경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천도를 시도한 신문왕대를 전후한 시기는 무열왕계 왕실이 전제주의 왕권을 추구해 나가고 있었던 시기였다. 지금까지의 귀족연합적인 지배방식을 극복하고, 전제주의적 왕권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자연히 왕권과 귀족세력의 대립과 갈등이 야기되기 마련이었다. 무열왕계의 본격적인 왕권강화는 문무왕대 부터 시작되었다.²⁶⁾ 그는 우선

21) 1943년에 편찬된 《大邱府史》에서 특히 이 점을 강조하고 있다.

22) 이에 대해서는 본장 III. 下代社會의 變動과 大邱地域의 情勢에서 상론된다.

23) 林炳泰, 〈新羅小京考〉《歷史學報》35·36 合.

24) 尹容鎮, 〈大邱의 沿革과 關聯된 古代記錄 小考〉《東洋文化研究》2, p. 7.에서도 천도의 배경으로 지리적 편재성 극복이라는 사실 이외에 당시의 정치정세, 대구지역 지방세력자의 존재 등을 지적하고 있어 시사하는 바 크다.

25) 徐永大, 앞의 논문 참조.

26) 중대 초에 추진된 무열왕계 왕실의 왕권강화와정에 대해서는 金壽泰, 《新羅 中代 專制王權과 眞骨貴族》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pp. 10~41 참조.

통일전쟁의 수행과정에서 親唐分子의 거세를 명분으로 진골귀족세력에 대한 탄압을 전개하였으며, 특히 그들의 군사적 기반을 박탈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일찌기 장군직을 역임하여 병부령에까지 이른 眞珠에 대한 숙청작업은 그 대표적 사례가 된다.²⁷⁾ 이러한 진골귀족에 대한 탄압과 전제주의 왕권의 추구는 결국 진골귀족세력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으며,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발생한 상징적 사건이 신문왕 원년(681)에 일어난 김흠돌의 난이었다.²⁸⁾ 이에 관한 자료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1) (8월) 8일에 蘇判 金欽突·波珍食 興元·大阿食 眞功 등이 모반하다가 伏誅되었다.《三國史記》 권8, 新羅本紀 8, 神文王 元年條)
- (2) 18일에 왕이 敎書를 내려 말하기를 “〈중략〉 股肱의 臣과 더불어 邦家を 편안케 하려 한 바인데, 喪服 중에 亂이 서울에서 일어날 줄을 누가 생각하였으랴. 賊首인 흠돌·흥원·진공 등은 그 벼슬이 재주로 높아간 것도 아니며, 실은 王恩으로 올라간 것인데, 〈중략〉 관료를 모멸하고 상하를 속이며 매일 그 無厭의 뜻을 나타내고 포악한 마음을 드러내어, 凶邪한 자를 불러들이고 近堅와 交結하여 화가 내외에 통하고, 같은 惡人들이 서로 도와 기일을 약정한 후 亂逆을 행하려 하였다. 〈중략〉 다행히 종묘의 도움을 받아 악이 쌓이고 죄가 가득한 흠돌 등의 죄가 드디어 발로되니 이는 곧 人神이 共棄한 것이요, 천지간에 용납치 않게 되었다. 〈중략〉 이리므로 兵衆을 모아 그 梟鏡과 같은 나쁜놈을 없애려 하니 혹은 山谷으로 도망가고 혹은 闕庭에 歸降하였다.〈중략〉 지금은 이미 그 요망한 무리가 廓清되어 원근에 虞患이 없으니 소집하였던 兵馬는 속히 돌아가게 하고 사방에 포고하여 이 뜻을 알게 하라.”고 하였다.(위와 같음)
- (3) 이십팔일에 伊食 軍官을 誅하였다. 그 敎書에 가로대 “上을 섬기는 법은 盡忠으로 근본을 삼고 官에 있어서의 義는 不二를 으뜸으로 삼는다. 兵部令 伊食 軍官은 班序로 인연하여 드디어 상위에까지 오른 자로 능히 拾遺補闕하여 조정에 본분을 다하지도 못하고, 또 명을 받아 재물을 잊어버리도록 사직에 赤誠을 드러내지도 못하며, 이에 賊臣 欽突 등과 관계하여 그 역모의 사실을 알고도 일찍 고하지 아니하였다. 〈중략〉 마땅히 여러 棄市 罪人과 한가지로 하여 후진을 경계하여야 할 것이나, 軍官과 그 嫡子 1인에게만 自盡케 하고 遠近에 포고 하여 두루 알게 하라”고 하였다.(위와 같음)

신문왕 원년에 발생한 김흠돌의 반란으로 불리는 이 정치적 사건에서 국왕에 의해 처형된 인물로 金欽突·金興元·金眞功·金軍官 父子 등이 확인된다. 그러나 이들은 반란의 주도세력에 해당할 것이며, 이외에도 梟鏡·凶邪·惡人·近堅 등으로 표현된 존재들이 확인되므로 상당한 숫자의 동참세력을 유추할 수 있다. 이들이 반란을 도모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뚜렷하게

27) 申澄植, 〈新羅의 國家的 成長과 兵部令〉《韓國古代史의 新研究》, pp. 166~167.

28) 金壽泰, 앞의 책, pp. 11~30.

부각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주도 인물들의 과거 歷官을 살펴볼 때 이들이 모두 유력 진골 귀족이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먼저 김흠돌은 문무왕 원년(661)의 백제 부흥군 토벌 작전과 동왕 8년(668) 고구려 공격에서 大幢將軍을 역임한 인물이며,²⁹⁾ 신문왕이 태자였을 때 딸을 출가시켜 太子妃의 父가 된 대표적 진골귀족 가운데 하나였다. 다음으로 김홍원과 김진공 역시 문무왕대의 통일전쟁 과정에서 각각 장군으로 활동하였음이 확인되며,³⁰⁾ 마지막으로 김군관의 경우 이미 문무왕대에 兵部令과 上大等を 겸직하였다가³¹⁾ 신문왕대에도 여전히 병부령의 지위에 있었던 일급의 유력 진골 귀족이었다. 이러한 지위에 있었던 이들이 반란을 도모하였던 이유는 문무왕대 이래의 왕권 전제화에 대한 불만 때문으로 볼 수 밖에 없다.³²⁾

이와 같은 진골귀족의 왕권에 대한 도전은 사료에서 보이는 바 처럼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았지만, 신문왕에게는 적지 않은 위협으로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자료 (2)에서 보이듯이 이들의 세력은 近堅로 지칭되는 국왕 친위세력과도 연결되어 있을 정도였고,³³⁾ 그 禍가 内外에 통했다고 실토하고 있듯이 완강한 뿌리를 갖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신문왕은 반란의 직후에 시위부에 대한 전면적인 재편을 단행하였고, 이어 다양한 군사조직을 정비하였으며, 국학을 설치하고, 문무관료전을 지급하는 등 진골귀족을 억압하고 왕권 전제화 추구하는 개혁정치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³⁴⁾ 그리하여 왕권이 우위를 확보하게 되었지만, 전통적으로 경주에 근거를 가진 보수적인 진골귀족의 위협은 비록 약화된 상태였지만 지속되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신문왕은 이러한 보수 진골귀족의 위협에서 완전히 탈출하기 위한 의도에서 동왕 9년 천도를 시도하였던 것으로 추측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천도의 배경에 당대의 정치 사회적 상황이 개재되어 있다는 것은 앞에서 가졌던 또 다른 의문인 천도가 좌절된 이유에 대해서도 약간의 시사를 던져주고 있다. 사실 경주를 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도읍을 옮긴다는 것은 오랫동안 그 곳에 근거를 가져온 진골귀족의 기반을 송두리채 박탈하는 의미가 내포된 극단의 개혁조치라고 할 수 있다. 신문왕은 이 점을 노려 개혁정치의 연장선상에서 천도를 시도한 것이지만, 적지 않은 잠재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진

29) 《三國史記》 권 6, 新羅本紀 6, 文武王 元年條 및 同王 8년조.

30) 위의 책, 문무왕 8년조.

31) 李文基, 〈新羅時代의 兼職制〉《大丘史學》26, 1984.

32) 金壽泰, 앞의 책 참조.

33) 이는 王妃와 연결된 近侍勢力과 侍衛府를 지칭했을 가능성이 크다.(李文基, 〈新羅 侍衛府의 成立과 性格〉《歷史教育論集》9. 참조)

34) 金壽泰, 앞의 책, pp. 30~41.

골귀족의 위기의식과 반발을 극복해 내기에는 힘에 부친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천도의 좌절은 신문왕대의 왕권이 진골귀족의 전통적 기반을 박탈하기에는 미흡했던 저간의 사정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³⁵⁾

그런데 이와 같은 정치 사회적 측면 이외에도 신문왕의 천도 시도의 배경으로 경주가 이 시기에 이르러 왕도로서의 기능 수행에 일정한 한계를 나타내게 된 사실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물론 斯盧小國의 영역으로 출발한 이래 이 시기에 이르도록 지속적으로 王京으로 기능해 왔던 경주지역이 首都로서의 기능면에서 어떤 한계를 보였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사료를 통해 찾아지지 않는다. 그러나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나당전쟁에 승리하여 삼국통일을 이룩한 이후인 문무왕 21년(681)에 王京을 一新하려 했던 다음의 기록은 이와 관련하여 주목을 끈다.

- (1) (文武王 21年) 王이 京城을 一新케 하려고 浮圖 義湘에게 문의하였던 바, 그가 말하기를 “비록 草野茅屋에 있더라도 正道만 행하면 福業이 장구할 것이요, 만일 그렇지 못하면 비록 사람을 수고롭게 하여 城을 쌓을지라도 아무 이익이 없을 것입니다”라고 하니 왕이 곧 役事를 그쳤다.《삼국사기》 권 7, 신라본기 7)

위의 사료에 의하면 문무왕은 왕정에 대한 전면적인 일신작업을 계획하고 일단 그 작업에 착수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왕정의 일신작업은 비록 중지되고 말았지만, 이미 동왕 14년(674)의 雁鴨池의 축조와 같은 맥락을 가진 役事로써 여기에는 왕권의 위엄을 과시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개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³⁶⁾ 그러나 왕정 일신작업의 배후에는 그러한 정치적 목적 이외에도 삼국통일의 달성이라는 커다란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한계를 드러낸 왕정 자체의 문제가 개재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 하나의 문제로 통일전쟁 이후의 왕정의 급격한 인구 증가현상을 지적해 볼 수 있다. 주지하듯이 신라의 왕정은 새로이 흡수한 백제와 고구려 귀족들의 왕정 거주허용, 유공 지방민들에 대한 왕정 이주 포상책의 실시, 전쟁을 통해 확보한 진골귀족 소유 노비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급격한 인구 증가 현상을 나타내게 되었다. 이러한 인구 증가는 경주 분지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신라 왕정의 자연조건과 관련시켜 볼 때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하여 문무왕은 왕정 일신작업을 계획하였던 것이지만, 의상의 만류로 중지하고

35) 尹容鎮, 앞의 논문, 에서도 이와 비슷한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

36) 文化財管理局, 《雁鴨池》, 1978 pp. 5~12.

말았던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문무왕대에 이미 한계를 드러낸 왕경의 문제는 신문왕대에 여전히 지속되었을 것이 틀림없다. 그래서 신문왕은 유서깊은 경주지역을 버리고 새로운 곳으로 천도를 시도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요컨대 신문왕의 천도 시도의 배경에는 우선 이와 같은 왕경 내부의 문제 해결이라는 사실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음으로 앞에서 제기한 두번째 의문인 달구벌 천도를 위해 사전 정지작업이 진행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하자. 이와 관련하여 백제의 사비성 천도에 앞선 정지작업이 주목된다. 이에 대한 근래의 연구성과³⁷⁾에 의하면 백제 聖王 16년(528)에 단행된 사비 천도는 東城王大 이래 성왕에 이르기까지의 몇 차례에 걸친 사비지역에 대한 田獵과 사비지역 출신의 沙氏勢力의 지원 등을 토대로 가능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백제의 경우를 참조할 때, 신라의 달구벌 천도 시도에서도 이와 흡사한 사전 조치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1) (신문왕 9년) 윤구월 26일에 獐山郡에 幸行하였다.

위의 자료는 비록 간략하지만, 달구벌 천도 시도가 있기 직전의 신문왕의 동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주목을 끈다. 사료에 의하면 신문왕의 지방에 대한 순행활동은 대체로 문무왕의 散骨處를 중심으로 하는 동해변에 집중되어 있어,³⁸⁾ 장산군으로의 순행에는 모종의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도 무리는 없다. 그리고 그 정치적 목적이란 다름아닌 그 직후에 시도된 달구벌로의 천도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신문왕은 달구벌의 인근지역인 장산군으로의 순행을 구실로 천도에 앞선 예비답사를 행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국왕의 순행에 앞서 달구벌 지역에는 천도를 위한 준비작업이 일정하게 진행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구체적인 준비작업이 무엇이며, 달구벌에 대한 사전 배려가 어떤 것이었는지는 자료의 부족으로 확인할 길이 없다.

마지막으로 왜 하필 대구지역이 천도의 후보지로 지목되었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사실이 점을 명백히 하는 것은 사료의 부족으로 거의 無望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구 지역의 지리적 입지조건과 당대의 정치적 상황 등을 통해 한 두가지의 가능성을 지적해 두기로 한다. 우선 대구가 방어에 유리한 분지지역이라는 사실이다. 신라는 일찍부터 경주를 수도로

37) 盧重國, 앞의 책 및 金周成, 앞의 책 참조.

38) 《三國史記》에 보이는 巡行기사나 《三國遺事》 萬波息箇條에 보이는 바처럼 신문왕의 순행활동은 주로 文武王之 散骨處인 大王岩을 중심으로 한 동해변에 집중되어 있다.

삼아오면서 羅城을 축조하지 않고, 주변의 산성을 수도의 방어시설로 활용해 왔다.³⁹⁾ 이러한 경험에서 보자면, 대구지역 역시 나성의 축조와 같은 그리 큰 토목공사를 통하지 않고도 산성을 이용한 방어가 용이할 수 있는 분지라는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 점이 천도 후보지로 지목된 하나의 이유가 아닐까 생각된다. 다음으로 대구가 낙동강 수계와 연결되어 있어 수운의 편리함을 보장받을 수 있었고, 또 소백산맥을 넘어 서북방과 서남방으로 진출하기에 편리한 주요 교통로 상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대구지역의 교통로상의 위상은 후일 왕위쟁탈전 과정에서 반란군과 왕군의 치열한 격전지가 되었던 사실이나, 경주를 약탈한 후 전주로 귀환하던 후백 제군과 신라를 도우러 개성을 출발했던 고려의 왕건군이 팔공산에서 조우하고 있는 사실에서 방증될 수 있다. 그러므로 대구지역은 육운과 수운의 편리함으로 인하여 천도의 후보지로 부각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미 논증된 바 있듯이 대구지역은 구래의 신라 영역 가운데 몇 안되는 농경지대였다.⁴⁰⁾ 따라서 풍부한 농업생산력이 대구지역을 천도의 후보지로 부각시켰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구지역은 신라 오악 가운데 중악 혹은 부악이라고 불렸던 팔공산을 끼고 있는 지역이라는 점이다.⁴¹⁾ 그런데 이 중악이라는 명칭은 영역의 중심지역에 위치한 산이라는 의식이 반영되어 있다. 그러므로 중악을 끼고 있는 대구지역 역시 일종의 영역의 중심지역이라는 인식이 성립될 수 있고, 그것이 천도의 후보지로 되는데 일조했을 가능성이 있다.⁴²⁾ 이상 장황하게 살펴보았듯이 대구지역은 신문왕 9년 왕경의 후보지로 지목되어 천도가 시도되었을 만큼 일시적으로 큰 비중을 가진 지역으로 부각되었다. 그러나 전술했듯이 진골귀족의 반발로 천도가 좌절된 이후는 여전히 군현제적 지배가 관철되는 신라왕조의 하나의 지방으로 존속되었을 뿐이었다. 다만 왕도와 직결된 교통로 상의 요지라는 지리적 입지조건으로 인하여 일정한 중요성은 인정되었을 것이다.

39) 朴方龍, 〈新羅王都의 守備〉《新羅文化》9, pp. 26-32.

40) 이 점을 특히 강조한 것이 尹容鎮, 앞의 논문, 이다.

41) 신라의 五岳에 대해서는 李基白, 〈新羅 五岳의 成立과 그 意義〉《新羅政治社會史研究》, 1974. 참조.

42) 윤용진, 앞의 논문, pp. 97~101에서는 이외에도 대구지역의 지방세력의 존재를 고려하고 있으나, 현존 자료에서 이를 유추하는 것은 무리한 일로 보인다.

第2節 景德王代 地方制度의 再編과 大邱

I. 景德王代의 漢化政策과 大邱地域의 郡縣改編

신문왕 5년의 전국적인 九州體制 시행과정에서 군현제가 실시되었던 대구지역은 8세기 중엽에 景德王代에 漢化政策이 추진되면서 또 한번의 변화를 맞게 되었다. 경덕왕대의 한화정책은 크게 보아 동왕 16년(757)에 추진된 지방제도의 개편과 동왕 18년(758)에 진행된 각종 官府·官職에 대한 개편작업의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 가운데 대구지역의 변화와 관련된 것은 전자의 개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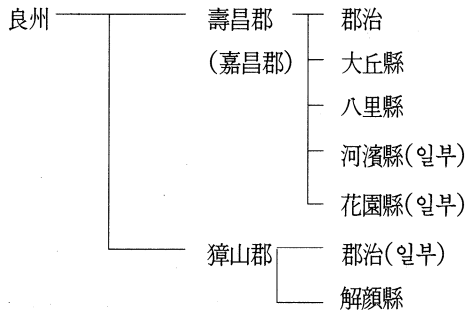
- (1) 12월에 沙伐州를 고쳐 尚州라 하고, 1州·10郡·30縣을 領屬케 하며, 靑州는 康州라 고쳐 1州·11郡·27縣을 領屬케 하며〈하략〉(《三國史記》 권 9, 新羅本紀 9, 景德王 16년조)
- (2) ① 壽昌郡(壽는 嘉라고도 한다)은 본래 喟火郡으로 경덕왕이 개명하였는데, 지금의 壽城郡이며 領縣이 넷이다. ② 大丘縣은 본래 達句火縣으로 경덕왕이 개명하였는데 지금 그대로 따른다. ③ 八里縣은 본래 八居里縣(北恥長里라고도 하고 仁里라고도 한다)으로 경덕왕이 개명하였는데, 지금의 八居縣이다. ④ 河濱縣은 본래 多斯只縣(沓只라고도 한다)으로 지금 그대로 따른다. ⑤ 花園縣은 본래 舌火縣으로 경덕왕이 개명했는데 지금 그대로 따른다.(위의 책, 권 34, 地理志 1, 良州條)
- (3) ① 獐山郡은 祗味王때에 押梁小國을 攻取하여 郡을 두었는데, 경덕왕이 개명하였다. 지금의 獐山郡으로 領縣이 셋이다. ② 解顔縣은 본래 雉省火縣(美里라고도 한다)인데 경덕왕이 개명하였으며 지금 그대로 따른다.〈하략〉(위와 같음)

위의 자료 (1)에 보이는 바와 같이 경덕왕은 전국의 지방행정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단행하였다. 이 개혁의 내용은 우선 지방행정구역의 명칭을 개정하는 것이었다. 그 개정은音を 고친 경우·訓을 고친 경우·雅化한 경우·뜻을 고친 경우·글자를 생략한 경우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행해졌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邑格의 조정과 領屬關係의 변화 등 지배체제에 대한 약간의 조정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였다.⁴³⁾ 이러한 지방행정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은 그 2년 후의 관직 관부제도에 대한 개혁⁴⁴⁾과 더불어 중국적인 체제 재정비를

43) 木村誠, 〈新羅郡縣制의 確立過程と村主制〉(《朝鮮史研究會論文集》 13, 1976 참조.

44) 이에 대해서는 李基白, 〈新羅 惠恭王代의 政治的 變革〉(《新羅政治社會史研究》, 1974, pp. 238~247에서 자세하게 살핀 바 있다.

통한 왕권과 중앙집권력의 강화를 목표로 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대구지역의 군현 역시 자료 (2)와 (3)에 보이듯이 지명의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다만 영속관계의 변화와 같은 지배체계는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대구지역의 개정된 군현 명칭의 앞서의 방법을 준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圖 6-2〉 景德王代 대구지역의 郡縣編成

이와 같은 경덕왕대에 개정된 지명은 후대에 까지 仍襲된 대구지역 지명의 원형이 나타났던 점에서 일정한 역사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 특히 이 때 처음으로 사용된 大丘라는 지명은 당시에는 壽昌郡에 領屬된 하나의 縣名에 불과했지만, 이후 대구는 성장과 변천을 거듭하여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덕왕대의 개정된 지명이 자료 (2)와 (3)의 기록처럼 이후 계속하여 사용된 것은 아니었다. 혜공왕 12년(776)에 추진된 복고정책⁴⁵⁾에 의하여 다시 원래의 지명으로 환원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삼국사기》 지리지에서는 나타나지 않으나, 신라본기에서 쉽게 확인되고 있으며, 한편 후대의 자료인 《世宗實錄地理志》에서도 부분적으로 확인된다.⁴⁶⁾ 그래서 후술되듯이 金陽軍과 閔哀王軍의 대결이 벌어진 대구지역의 명칭을 達句伐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45) 李基白, 앞의 논문에서 복고정책의 의미를 전제왕권의 약화와 결부지워 설명한 바 있는데, 근래 이에 반대하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李泳鎬, 〈新羅 惠恭王 12年 官號復故의 意味〉《大丘史學》 39, 1990 참조)

46) 개정지명의 복고와 재사용에 대한 주이는 金泰植, 〈三國史記 地理志 新羅條의 史料의 檢討〉《三國史記의 史料의 檢討》,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학술토론회 요지, 1993에 자세하게 언급되고 있다.

그런데 복고되었던 지명은 下代에 이르면 다시 경덕왕대의 개정지명으로 바뀌어져 갔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과의 활발한 교섭의 과정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여지며, 늦어도 文聖王대에 이르면 일반적인 경향으로 정착되어 갔다.⁴⁷⁾ 그래서 후술되는 10세기 초의 대구지역의 상황을 전하는 자료인 〈新羅 壽昌郡 護國城 八角燈樓記〉에서도 다시 壽昌郡이라는 지명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II. 大邱地域 郡縣의 内部狀況

그러면 이어서 대구지역 군현의 내부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이에 대해서는 비록 후대의 자료이지만 아래의 기록이 참고된다.

- (1) 壽城 賓 羅 曹 慧(註: 周官六翼에 “壽城에 옛날에 3城이 있었는데, 壽大郡 일명 壤城은 그 姓이 賓이고, 句具城은 그 姓이 羅이고 仍助伊城은 그 城이 曹 慧”라 하였다.) (《新增東國輿地勝覽》 권 26, 大丘都護府 姓氏條)
- (2) 解顔 牟 白 河 申 丁(註: 六翼에 또 말하기를 “省火城은 牟이고, 無價城은 申이고, 佛坐城은 白 河이고, 鳴城은 丁”이라 하였다.(위와 같음))

위의 자료는 조선시대 대구도호부의 속현인 壽城縣과 解顔縣의 성씨에 대한 기록인데, 《周官六翼》⁴⁸⁾을 인용한 부분에서 수성현과 해안현의 내부 상황을 간접적으로나마 전해주고 있다. 이에 의하면 수성현은 옛날에 壤城·句具城·仍助伊城의 세개의 성이 있었다고 했고, 또 해안현은 省火城·無價城·佛佐城·鳴城 등 네개의 성이 있었음을 전하고 있다.⁴⁹⁾ 그런데 이 수성현은 곧 위화군의 군치지역이 신라 경덕왕대에 수창군으로 개명되었던 지역이며, 해안현은 신라에서 현재의 실시와 더불어 치성화현으로 되었다가 경덕왕대에 해안현으로 개명된 곳이다. 그러므로 이를 통해 신라시대의 수창군과 해안현의 내부구조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

먼저 《주관육익》에서 ‘옛날(古)’로 표현한 시점이 언제인가가 문제로 된다. 이에 대해서는

47) 金泰植, 앞의 논문, 참조.

48) 《周官六翼》의 사료적 성격에 대해서는 花村美樹, 〈周官六翼と其の著者〉《京城帝大法學會論集》12~3·4合 및 許興植, 〈金社의 選粹集·周官六翼과 그 價値〉《奎章閣》4, 1981 참조.

49) 현재 각 城의 위치는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이들의 구체적인 위치는 고고학적 조사의 진전에 따라 확인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늦어도 경덕왕대로 볼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⁵⁰⁾ 이를 따른다면 대략 경덕왕대를 전후한 시기에 대구지역의 군현인 수창군의 내부에는 3개 성이, 해안현의 내부에는 4개성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설령 시기 설정에 약간의 오류가 있더라도 하나의 행정단위 내에 성으로 표현된 3~4개의 소단위가 내포되어 있었다는 것은 사실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은 대구지역의 나머지 군현으로 확대 적용해도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요컨대 대구지역 군현은 각각 3~4개의 성촌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각각의 성촌은 후일 하나의 성씨를 칭하게 될만큼 혈연성이 강하게 잔존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第3節 下代 社會의 變動과 大邱地域의 情勢

I. 王位爭奪戰의 展開와 大邱地域

신라 (37)宣德王에서 (56)敬順王에 이르는 이른바 下代 155년간은 우리 역사상 유례를 찾기가 쉽지 않을만큼 커다란 변혁의 시대였다. 보다 전제화된 왕권을 토대로 중앙집권적인 지배질서를 유지해 왔던 무열왕의 직계 후손들의 王統이 혜공왕대의 몇번에 걸친 진골귀족의 대란 끝에 단절되었고, 8세기 후반을 고비로 기존의 통치질서가 현저하게 동요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정치사적 측면에서 말하자면 중앙정치세력의 쇠퇴와 지방세력의 대두라는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중앙정치세력의 쇠퇴를 가져온 주된 원인은 진골귀족이 중심이 된 왕위쟁탈전에서 찾을 수 있다. 하대 155년간의 정치과정을 개관하면 진골귀족들의 왕권을 둘러싼 지속적인 경쟁시대로 나타나지만,⁵¹⁾ 특히 그것이 커다란 정치적 사건으로 표면화된 것은 822년의 金憲昌의 亂과 830년대 후반에 전개된 苛熱한 왕위쟁탈전이었다. 이 두 사건은 왕경을 무대로 전개되어 온 왕위쟁탈전이 전국의 거의 모든 지방에까지 확산된 점에서 그 특징이 두드러지며, 이 와중에서 신라의 일개 지방에 불과했던 대구지역도 역사적인 사건의 무대로 등장하였다. 그래서 이 두가지의 정치적 사건과 관련된 대구지역의 상황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50) 盧重國, 앞의 책, 1988, p. 284.

51) 下代의 政治過程에 대한 概觀은 李基東, 〈新羅 下代의 王位繼承과 政治過程〉《新羅骨品制社會와 花郎徒》, 1984. 참조.

822년 반란을 일으킨 金憲昌은 무열왕의 7세손으로 金周元의 아들이었다. 김주원은 무열왕계 왕통이 단절된 직후인 선덕왕대에도 上宰⁵²⁾의 자리에 있는 등 여전히 유력 진골귀족으로서의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후손이 없었던 선덕왕의 유력한 왕위계승 후보자로 지목되고 있었다. 그러나 선덕왕 사후에 일어난 왕위계승을 둘러싼 분류에서 내물왕계인 (38)元聖王(金敬信)에게 패퇴하여 명주(오늘날의 강릉)로 은퇴하고 말았다.⁵³⁾

김주원의 패퇴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손들은 원성왕의 직계후손이 왕통을 이어가고 있는 조정에서 요직을 역임하였다. 김헌창의 형인 金宗基가 원성왕대에 侍中職을 역임하였고, 宗基의 아들인 璋如도 (41)憲德王대에 시중을 지냈다. 김헌창 역시 원성왕대에 이미 官界에 진출한 이후 승진을 거듭하여 헌덕왕대에 武珍主都督을 거쳐 시중직을 역임했으며, 다시 이례적으로 지방관인 靑州都督으로 부임하였다. 다시 821년 熊川州都督으로 부임한 그는 이듬해 그의 父 金周元이 왕위에 오르지 못했음을 이유로 국호를 長安, 연호를 慶雲이라 하여 반란의 기치를 높이 들었던 것이다.

이 김헌창의 반란은 요컨대 원성왕계 왕통에 대한 무열왕계의 도전이었으며, 그 여파가 거의 전국적으로 파급될 만큼 규모 면에서도 이전의 반란사건과는 달랐다. 김헌창은 무진·완산·청·사벌주 등 4개 주의 도독과 중원·서원·금관경 등 3소경의 사신을 위협하여 반란군 지지로 돌리는 등 기세를 크게 떨쳤다. 그러나 靑州都督 向榮과 武珍州 長史 崔雄 등이 전열에서 이탈하여 반란의 소식을 왕정에 전하면서, 국왕측도 대응태세를 갖추게 되었다. 그리하여 왕군과 반란군의 무력대결로 발전하게 되었고, 대구지역은 주요 전장의 하나가 되었다. 다음의 사료가 이를 시사하고 있다.

- (1) 드디어 員將 8인을 뽑아 王都의 8方を 지키게 한 후 군사를 출동하였다. 一吉飡 張雄은 선발로 나가고 通飡 衛恭·波珍飡 梯凌이 그 뒤를 이었으며, 伊飡 均貞·通飡 雄元·大阿飡 佑徵 등이 三軍을 이끌고 나갔다. 角干 忠恭과 通飡 玠膺은 蚊火關門을 지키고, 明基·安樂 두 花郎이 각기 從軍을 청하여 명기는 그 무리와 함께 黃山으로 가고 안락은 施彌知鎮으로 향하였다. 이때 헌창은 그 장수를 시켜 要路에

52) 이 上宰라는 관직은 《삼국사기》 직관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7세기대에 제도화된 재상제도의 범주에 포함되는 상재상을 지칭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木村誠, 〈新羅의 宰相制度〉, 《人文學報》118, 1977)

53) 선덕왕 사후 전개된 왕위계승을 둘러싼 분쟁은 《삼국사기》 권 10, 신라본기 10, 원성왕 즉위조와 《삼국유사》 권 2, 기이 2, 원성대왕조에 자세하게 나오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치한 분석은 李基白, 〈上大等考〉 《新羅政治社會史研究》, pp. 118~119에서 이루어진 바 있다.

雄據하여 기다렸다. 장웅은 적병을 道冬縣에서 만나 격파하였고, 위공과 제룡은 장웅의 군을 합하여 三年山城을 공격하여 함락시켰으며, 군사를 속리산으로 진군시켜 賊兵을 섬멸하였다. 均貞 등은 星山에서 적과 싸워 멸하였다.<하략>《삼국사기》권 10, 신라본기 10, 헌덕왕 14년조)

위의 사료는 반란군의 진압을 위한 王軍의 출동과 전투상황을 전하는 것인데, 이 때 대구지역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는 명기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왕군의 선발대가 반란군을 최초로 격파한 道冬縣은 臨臯郡에 영속된 현으로 곧 오늘의 永川에 해당된다. 또 均貞이 이끈 王軍은 星山에서 반란군을 격파하였는데, 이 성산은 星山郡으로 대구에 인접한 오늘날의 星州이다. 따라서 반란군들이 이미 경주를 향해 진격하여 대구를 둘러싸고 있는 영천과 성주지역까지 진출했음을 알 수 있고, 왕군과의 전투도 바로 이들 지역에서 전개되었던 것이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영천과 성주를 연결하던 교통로의 한 가운데에 위치한 대구지역도 왕군과 반란군의 전투 와중에 휩쓸렸을 가능성이 크다. 영천·대구·성주지역 등지의 초기 전투에서 패배한 반란군은 계속 패퇴하여 드디어 거점인 웅진성이 함락되고 김현창도 자결함으로써 진압되고 말았거니와, 이 김현창의 반란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파급되었고, 대구지역 역시 예외가 아니었던 것이다. 그 이유는 대구지역이 왕경인 경주로 직결되는 주요 교통로상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쨌든 김현창의 반란은 이후 왕위쟁탈전의 양상을 크게 변모시켰다. 즉 반란의 진압과정에서 김현창에 동조했던 무열왕계 세력이 크게 약화되어,⁵⁴⁾ 이후의 왕위계승을 둘러싼 경쟁은 원성왕계 내부로 한정되었기 때문이다. 원성왕계 내부의 치열한 왕위쟁탈전은 흥덕왕이 왕자없이 사망한 836년에 재연되었다. 그리고 대구지역은 또다시 전란의 와중에 놓이게 되었다.

836년 12월 흥덕왕이 후계자에 대한 아무런 언급도 없이 薨去하자 곧이어 격심한 왕위쟁탈전이 전개되었다.⁵⁵⁾ 上大等에 재임 중이던 金均貞이 그의 자 金祐徵·妹婿 金禮徵·金周元의 후손 金陽 등의 후원을 받아 왕을 칭하자, 侍中인 金明은 阿飡 利弘·裴萱伯 등과 함께 자신의 妹夫人 梯隆을 추대하여 무력대결을 꾀하였다. 兩軍은 왕경에서 치열한 시가전을 전개하였고, 그 과정에서 均貞이 김제룡·김명군에게 살해되면서 승패가 가름되었다. 이로써 김제룡이

54) 《三國史記》권 10, 憲德王 14년조에는 金憲昌의 반란에 연좌되어 주살된 자가 宗族과 黨與 239인에 이르렀다고 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宗族으로 표현된 자는 곧 무열왕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5) 《삼국사기》권 10, 桓康王 즉위년 및 같은 왕 2년조. 한편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李基東, 〈新羅 下代の 王位繼承과 政治過程〉《新羅骨品制社會와 花郎徒》, 1980. 참조.

김명 등의 추대를 받아 왕위에 오르게 되었으니, 이가 곧 (43)僖康王이다. 이러한 두 파의 대립을 왕실의 혈족관계에서 보자면, 원성왕의 아들인 仁兼太子系와 禮英太子系의 대립이라고 할 수 있으며,⁵⁶⁾ 김균정과 제룡은 당숙과 당질의 관계였던 것이다. 왕위에 오른 희강왕은 공신인 김명을 상대등에, 阿飡 利弘을 시중에 임명하여⁵⁷⁾ 정국을 운영하게 되지만, 실권은 상대등 김명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즉위후 3년만에 그는 김명 등의 꺾박을 받아 자살하고, 실세였던 김명이 즉위하여 (44)閔哀王이 되었다.

그러나 민애왕이 즉위하자마자 836년의 왕위쟁탈전에서 패퇴한 김우징과 김양 등이 당시 대세력가인 淸海鎮大使 張保皐에게 의탁하여 양자간의 결속이 이루어짐에 따라 새로운 전운이 형성되고 있었다. 836년의 왕위쟁탈전에 패배했던 김우징은 왕경에서 도망쳐 낙동강 수로와 연안해로를 이용하여 청해진에서 거대한 해상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던 장보고에게 몸을 의탁하였다. 한편 그의 우익인 김양도 지방을 전전하다 민애왕의 찬위 소식이 들려오자 私兵을 모아 淸海鎮으로 합류하였다.

일종의 혼인동맹의 약속을 통해 장보고의 군사력의 지원을 받은 김우징 세력은 드디어 민애왕 즉위년(838) 12월에 김양을 平東將軍으로 삼고 오천의 군사로 武州 鐵冶縣까지 진출하였으며, 오늘날의 光州 근교에 해당하는 철야현 전투에서 왕명을 받은 大監 金敏周가 이끈 王軍을 대파하여 기세를 올렸다.⁵⁸⁾ 다시 청해진으로 돌아가 전열을 재정비한 김우징 세력은 이듬해 윤정월 다음과 같이 왕경을 향해 총진격을 감행하였다.

- (1) 閔哀王 2년(839) 閏正月 金陽은 밤낮으로 행군하여 19일에는 達句伐에 이르렀다. 왕이 반란군이 온다는 말을 듣고 伊飡 大昕·大阿飡 允璘·巖勛 등에게 명하여 군대를 이끌고 막게 하였다. 그러나 김양의 군대가 한번 싸워 크게 이기니 王軍의 죽은 자가 반수가 넘었다. 이 때 왕은 西郊의 大樹 밑에 있었는데, 좌우가 모두 흩어지니 홀로 어찌할 줄 모르다가 月遊宅으로 달려 들어갔으나 병사들이 찾아내어 살해하였다. 그러나 君臣이 禮로써 葬事를 지내고 시호를 閔哀로 하였다.《삼국사기》 권 10, 신라본기 10)

위의 자료에서 보듯이 청해진을 출발한 김우징군은 신속히 행군하여 윤정월 19일에 달

56) 李基東, 앞의 논문, pp. 165~166.

57) 《三國史記》 권 10, 신라본기 10, 희강왕 2년조.

58) 위의 책, 권 10, 신라본기 10, 민애왕 즉위년조.

구벌⁵⁹⁾까지 진출하였다. 이에 대해 민애왕측도 국왕 스스로가 王都의 西郊까지 나와 독전하는 한편, 군대를 달구벌로 보냄에 따라 일대 결전이 대구지역에서 벌어지게 되었다. 이는 대구가 당시 왕도인 경주와 연결되는 교통로상의 요해지였음을 말하는 것이거니와, 어쨌든 이 전투에서 왕군은 대패하였고 김우징 세력이 승기를 잡게 되었다.

그런데 위의 자료에는 대구전투 이후 왕군이 그대로 궤멸하여 민애왕까지 곧 살해된 듯이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대구전투 이후에도 왕군의 저항은 집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三國遺事》의 王曆에 의하면 민애왕은 정월 22일에 봉어한 것으로 나오고 있고, 863년에 건립된 〈敏哀大王石塔記〉에는 그의 사망일을 ‘開成己未年 太簇之月 下旬有三日’이라 하여 정월 23일로 명기하고 있다.⁶⁰⁾ 그러므로 민애왕은 정월 19일의 대구 전투로 부터 약 4~5일 후에 사망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대구에서 경주까지의 행군이 승리 후의 평온한 것이었다면 이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없다. 따라서 이 동안 김우징군은 완강한 왕군의 저항을 극복하며 행군하여 드디어 경주의 서교에서 離宮인 月遊宅으로 피신한 민애왕을 살해했던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온당하겠다.

그런데 민애왕이 대구지역을 결전의 장소로 선택한 데는 대구가 교통로상에 위치한 요해지이며 경주 방어를 위한 외곽 요충지라는 점도 있었겠지만, 또 다른 이유도 생각해 볼 수 있다. 咸統 4년(景文王 3년; 863)에 경문왕이 민애왕의 복을 빌기 위해 동화사에 건립한 〈민애대왕석탑기〉에서 석탑을 세운 곳을 ‘願堂之前’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서 약간의 시사를 얻을 수 있다. 여기에 보이는 願堂이란 곧 개인 내지 한 가문의 追福之所로서의 願刹을 말한다. 그러므로 동화사는 곧 민애왕가의 원찰이었던 것이다. 본장의 다른 부분에서도 상론되겠지만 동화사는 (41)헌덕왕의 아들인 심지에 의해 중창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⁶¹⁾ 이 중창에는 민애왕의 父이자 헌덕왕의 弟로서 上大等의 지위에 있었던 金忠恭과 그의 부인의 후원이 컸던 것이며, 그리하여 팔공산 동화사는 閔哀王家의 願刹로 되었다.⁶²⁾ 그러므로 대구지역은 민애왕가를 보호하는 상징적 지역으로 관념되었을 것이고, 이것이 대구지역을 결전의 장소로 삼은 또다른 이유가 아닐까 생각된다. 그리고 어쨌든 동화사를 중심으로 한 사원세력의 지원을 기대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59) 《삼국사기》 권 44, 열전 4, 김양전에도 동일한 상황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大丘라고 표기되어 있다.

60) 黃壽永, 〈敏哀大王石塔記〉《韓國의 佛教美術》, 1974.

61) 《三國遺事》 心地繼祖條.

62) 동화사가 閔哀王家의 願刹이었음은 黃壽永, 앞의 논문에서 논증된 바 있다.

이상 보아 온 바와 같이 대구지역은 하대의 왕위쟁탈전 과정에서 경주로 연결되는 주요 교통로상에 위치한 지리적 입지로 인하여 몇 차례 전란에 휩쓸리게 되었다. 비록 기록을 통해 확인되지는 않지만, 이러한 전란으로 대구지역은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대구지역의 이후의 변화상은 자료의 부족으로 더이상 알기가 어렵다. 다만 곧 후술되듯이 약 70년 후 대구를 근거로 반독립적인 호족이 성장하여 존재하고 있는 점에서 보면, 신라의 지배체제가 동요하는 틈을 타서 새로운 지방세력이 점진적인 성장을 거듭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II. 大邱地域 豪族의 實體와 그 行方

앞에서 논급한 바와 같이 왕경을 중심으로 진골귀족의 왕위를 둘러싼 분열과 정쟁이 계속되어 중앙집권체제가 동요해 가는 와중에서, 지방사회에서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소위 호족으로 불리는 새로운 지방세력의 자립화가 그것이다. 이는 곧 거의 1000년을 이어온 신라왕조의 해체과정에 다름아니거니와, 이러한 변화는 822년의 김헌창의 반란과 840년대 청해진대사 장보고의 반란 시도를 거치면서 서서히 전국적 현상으로 확산되어 갔다.

새로이 등장한 지방의 호족들은 그 출신면에서 다양함을 보여주고 있지만,⁶³⁾ 역시 주류를 이루었던 것은 지방사회에서 단단한 토착적 기반을 가졌던 촌주출신이었다.⁶⁴⁾ 호족들은 일반적으로 私兵을 양성하여 군사적 기반으로 삼고,⁶⁵⁾ 官班組織⁶⁶⁾을 통해 1개 군현 규모 정도를 지배하는 반독립적인 세력가들이었다고 이해되고 있다. 그리하여 城主나 혹은 將軍을 자칭하며 각 지방에 웅거하고 있었던 이들은 고대적 사회체제인 골품체제의 구각을 깨트리고 새로운 질서가 지배하는 새로운 사회를 지향하고 있었던 것이다.⁶⁷⁾

이와 같은 전국적인 호족의 자립 추세 속에서 대구지역에서도 유력한 호족이 성장하고 있었다. 《三國史記》와 《高麗史》를 비롯한 官撰史書에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는 대구지역 호족의

63) 金哲垓, 〈文人階層과 地方豪族〉《한국사》3, 1978, pp. 602~603에서는 호족의 출신 유형을 海商勢力·軍鎮勢力·村主勢力·徒黨勢力 등으로 나누고 있다.

64) 尹熙勉, 〈新羅下代の 城主·將軍〉《韓國史研究》39, 1982.

65) 李基白, 〈新羅私兵考〉《新羅政治社會史研究》, 1974.

66) 金光洙, 〈羅末麗初의 豪族과 官班〉《韓國史研究》23, 1979.

67) 申滢植, 〈羅末의 社會變動〉《新羅史》, 1985.

실체는, 신라말의 대학자인 崔致遠이 撰한 <新羅 壽昌郡 護國城 八角燈樓記>에서⁶⁸⁾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이 자료는 제목이 보여주는 바 처럼 壽昌郡 護國城에 건립된 八角燈樓의 記文으로, 대구지역 호족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은 아니다. 그래서 그 중 호족의 실제 파악에 도움이 되는 부분을 적기하면 아래와 같다.

- (1) 天祐 5년(908년; 효공왕 15년) 戊辰 冬十月에 護國義營都將 重關榮 異才가 南嶺에 八角燈樓를 세웠다. 나라의 경사를 빌고 전쟁의 화를 물리치기 위한 까닭이다.
- (2) 모든 땅이름을 붙인 것은 대개 하늘 뜻에 부합된다. 이 堡의 서방(兌位)에 못이 있어 佛佐라 하며, 동남방(巽位) 모퉁이에 못이 있어 佛體라 하고, 그 동쪽에 따로 못이 있어 天王이라 불리고, 서남방(坤維)에 古城이 있어 達佛이라 하며, 성의 남쪽에 산이 있어 佛山이라 한다.
- (3) 重關榮은 훌륭한 大夫이다. 기회를 타서 뜻을 발휘하여 일찌기 풍운 속에서 민활한 역량을 시험하였고, 이제는 생각을 바꾸어 몸을 수양하며 水土(강과 육지 곧 영토)에서 은혜를 갚을 생각을 가졌다. 범처럼 나타나 국가의 세가지 해(三害)를 아울러 제거하였고, 뱀처럼 도사리고 들어앉아 더욱 인격의 수양을 쌓았다. 이미 나쁜 무리들을 제거하였으니, 곧 반드시 시골로 다시 돌아갔다. 살고 있는 곳이라면 사람들이 감화할 것이니 어디에 산들 좋지 않으리요. 드디어 높은 언덕을 택하여 義堡를 쌓았다.
- (4) 이에 이르러 왕도의 서쪽(西畿)을 靜守하며 농사에 종사하였다. 지방의 주민을 편안히 돌보고 친구들을 맞아 잘 접대하니 찾아오는 자가 구름같았는데도 바다같은 아량으로 그들을 받아 들였다.
- (5) 關榮은 진실로 기동 집안의 큰 선비이며, 위대한 본국의 충신이다. 불법으로 방패와 창을 삼고 진리로서 甲冑를 삼아 능히 한 경내를 편안히 하여 겨우 십년이 지났다.<중략> 이에 龍年 羊月 庚申日 밤에 꿈을 꾸었는데, 達佛城 북쪽 麻頂溪寺의 都一大 불상이 앉은 蓮花座가 하늘 끝까지 솟고, 왼쪽의 補處菩薩의 높이도 역시 그러하였다. <중략> 또 성 남쪽의 佛山 위를 보니 일곱 彌勒像이 몸을 포개고 어깨를 밝으며 북으로 향해 섰는데, 그 높이가 하늘에 닿았다. 며칠을 지난 뒤 다시 꿈을 꾸니 성의 동쪽 獐山에 羅漢僧이 보였다.
- (6) 그해 孟冬에 燈樓를 세우고 11월 4일에 이르러 公山桐寺의 弘順大德을 청하여 座主로 삼고, 齋를 베풀어 慶讚하였다. 泰然大德, 靈達禪大德, 景寂禪大德, 持念禪大德, 興輪寺의 融善呪師 등의 고승이 다 모여들어 법회를 장엄하게 하였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대구지역 호족의 실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은 天祐 5년(효공왕 15년; 908) 무렵에 壽昌郡 護國城을 근거로 ‘護國義營都將 重關榮 異才’라는 호족이 존재했음을 보여준다. 여기에 보이는 수창군은 곧 신라의 군현제 편성에서

68) 이 글은 《東文選》 권 64, 記 및 《崔文昌侯全集》 권 1, 記에 수록되어 있다.

대구분지의 新川 以東 지역에 설치된 행정단위이므로, 그가 대구지역의 호족이었음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護國義營都將’이라는 칭호는 이 시기 호족들이 일반적으로 城主나 將軍을 자칭하고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역시 장군 칭호의 일종으로 생각된다. 또 ‘重關梁’이라는 관등은, 원래 신라에서 六頭品 신분만이 가지는 重位制의 하나이지만,⁶⁹⁾ 이 시기 이미 말기적 상황을 보여주던 신라 통치체제의 현실을 고려하면, 異才가 반드시 육두품 신분이었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아마 異才는 (3)에서 ‘시골로 다시 돌아갔다’는 표현에서 본다면 원래 대구지역 출신의 지방민이었으며, 특히 촌주의 신분을 가졌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요컨대 대구지역 출신인 異才는 10세기 초 무렵 ‘護國義營都將 重關梁’을 자칭한 호족으로, 대구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둘째, (1), (3), (5)를 관련지워 볼 때 그의 정치적 성격의 일면이 간파된다. 이미 그가 웅거한 城을 護國城이라 하고, 護國義營都將이라는 칭호를 가졌던 사실에서도 드러나고 있지만, (3)에서 국가의 세가지 해악을 제거하였거나 (5)에서 ‘本國 忠臣’으로 특기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그의 정치적 성격이 親新羅的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당시의 일반적인 호족의 정치적 성격이 반신라적 색채를 농후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에 비하면 이례적이라 할만하다. 이러한 정치적 성향이 당대의 최고 지식인으로 조정의 文柄을 장악한 바 있었던 최치원이 한 지방세력가가 건립한 누각에 기문을 짓게 된 所以일 것이다.

세째, (2), (5), (6) 등을 통해 그의 세력권에 대한 이해를 얻을 수 있다. (2)에서는 佛佐池·佛體池·天王池·達佛城·佛山 등의 못이나 산, 성의 이름이 보이는데, 이 가운데서 대략적인 위치나마 확인이 가능한 것은 불좌지·달불성·불산이다. 佛佐池는 《新增東國輿地勝覽》에서 〈周官六翼〉을 인용하여 解顔縣에 소속된 城의 이름으로 나오는 ‘佛佐城’과 일치하고 있으므로,⁷⁰⁾ 해안현에 위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달불성은 곧 오늘날 공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달성이며, 불산은 현재의 앞산 곧 毗瑟山일 것이다. 그렇다면 異材의 세력권은 대체로 대구분지를 포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점 (4)에서 慶山의 古名인 獐山이 보이는 것이나, 八公山 桐寺의 승려들과 밀접한 관계를 시사하는 (5)를 참조할 때, 어느 정도 방증을 얻을 수 있다.

네째, 위의 자료를 통해 異才의 사상적 배경과 지배논리에 대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

異才는 대구지역을 불교와 깊은 인연을 가진 땅으로 인식하였다. (2)에서 들고 있는 몇개의

69) 邊太燮, 〈新羅官等の 性格〉《歷史教育》1, 1957.

70) 《新增東國輿地勝覽》권 26, 大丘都護府, 姓氏條.

지명이 모두 불교적이라는 점이나, 호국의 목적으로 팔각등루를 세우고 있는 점, 특히 (5)에서 팔각등루의 건립을 기념하는 齋에 동화사의 승려와 멀리 왕경의 興輪寺 소속 승려까지 참여하고 있는 점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리하여 異才는 ‘般若를 干戈로 삼고, 菩提를 甲冑로 삼아 한 境內를 편안히 하였다’는 (4)에서 명확히 드러나듯이 그 자신 불법의 수호자를 자처하며, 불교와 인연이 깊은 대구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다섯째, (3)과 (5)를 종합하여 볼 때, 그의 세력기반에 대한 일면을 간파할 수 있다. 우선 (4)에서 농사에 종사했다거나, 주민들을 편안하게 돌보았다는 데서 보면, 그는 대구지역의 농업경제를 바탕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주민들을 안정적으로 지배했음이 드러난다.

이점 성주지역의 호족이었던 碧珍將軍 李恩言이 “群盜가 四方에서 일어날 새, 恩言이 城을 굳게 지키고 있으니 백성들이 편안히 살 수 있었다”⁷¹⁾라는 상황과 매우 흡사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일단 이재의 세력기반으로는 대구지역의 주민과 농업경제가 바탕이 되었다고 하겠다. 그런데 (4)에서는 또 찾아오는 사람들이 구름같이 많았다고 하고 있다.

이는 정치 사회적 혼란을 견디지 못해 유민화된 무리들을 받아드린 사실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재는 유민들을 포섭하여 그의 세력기반으로 삼기도 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목되는 것이 八公山 桐寺의 寺院勢力이다. 나말의 사원이 적지않은 경제력과 무력적 기반을 가진 유력세력이었음은 해인사의 경우를 통해 증명되고 있는데,⁷²⁾ 八公山 桐寺 역시 閔哀王家의 願刹로 유지되어 왔고, 특히 9세기 후반의 경문왕대에는 국왕에 의해 민애왕의 원탑이 건립될 만큼 왕실의 비호를 받은 사찰이었다. 따라서 桐寺는 유력한 세력을 가진 사원이었음에 분명하며, 이는 異才의 세력기반 가운데 하나로도 기능했을 것이다. 자료 (5)에는 이 팔공산 동사의 사원세력과 이재와의 밀접한 관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 崔致遠이撰한 〈新羅 壽昌郡 護國城 八角燈樓記〉에서 확인되는 대구지역의 호족의 실체를 다섯가지 측면에서 정리해 보았다. 그러나 이후 護國義營都將 異才라는 대구지역 호족의 행방에 대해서는 자료의 부족으로 알기 어렵다. 다만 이 보다 20년 후인 927년에 대구의 팔공산에서 벌어진 후백제의 견훤과 고려의 왕건의 일대 결전 과정⁷³⁾에서도 대구지역 호족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고 있어, 그 사이에 쇠미의 길을 걷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요컨대 10세기 초

71) 《高麗史》 권 92, 列傳 1, 李恩言傳

72) 李弘植, 〈羅末의 戰亂과 經軍〉《韓國古代史의 研究》, 1971.

73) 이에 대해서는 次篇에서 상론된다.

수창군 호국성을 근거로 친신라적 경향을 가졌던 대구지역 호족인 ‘護國義營都將 重關榮異才’는 그 이후 후삼국의 대립과 고려의 건국과 같은 급변하는 정치 사회적 환경에 더이상 적응하지 못하고 고려와 후백제의 대립이 본격화되는 920년대에 이르면 더이상 세력을 유지하지 못한 채 쇠약해지고 말았던 것으로 보인다.

第4節 佛教의 隆盛과 大邱

I. 敎學佛教의 發達과 禪宗의 登場

삼국시대에 전래된 불교는 통일신라시대에 이르러 미증유의 융성을 보게 되었다. 많은 승려가 中國이나 印度로 유학하였고, 유학을 하지 않더라도 불교에 대한 많은 연구로 敎理에 대한 이해가 한층 깊이를 더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불교에 대한 저술이 허다하게 나타났고, 이는 우리 나라 불교사상 전무후무한 일이기도 했다. 그들의 저술은 내용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이해의 수준이 높아 중국 및 일본에도 교리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또한 신앙의 면에서도 불교는 일반 민중에까지 확산되어 사회의 지배이념이 되고 있었다.

이러한 佛教 敎理에 대한 이해는 한편으로 교리상의 대립을 가져왔고, 또 이에 따르는 敎派의 分立 현상을 가져왔다. 그리하여 唐으로부터 전래된 여러 종파를 중심으로 涅槃宗·戒律宗·法性宗·華嚴宗·法相宗 등 敎宗의 5敎가 성립된 것으로 흔히 이해하고 있다.⁷⁴⁾ 그러나 최근에는 교리상의 대립이 반드시 宗派의 성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가 강하게 제시되고 있다.⁷⁵⁾ 어떻든 이 시기의 승려들 사이에는 교리상의 주장에 차이가 있었고, 또 이에 따른 분열과 대립의 현상도 나타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華嚴宗과 法相宗은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통일신라 불교계에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華嚴思想을 크게 일으켜 ‘海東華嚴의 初祖’로 일컬어지고 있는 승려는 義湘(625~

74) 金映遂, 〈五敎兩宗에 對하여〉《震檀學報》8, 1937.

75) 許興植, 〈宗派의 起源에 對한 試論〉《高麗佛敎史研究》, 一潮閣, 1986.

金煥泰, 〈五敎九山에 對하여〉《佛敎思想史論》, 民族社, 1993.

金在庚, 〈新羅 佛敎史의 大勢〉《大丘史學》45, 1993 등 참조.

702)이었다. 그는 唐에 유학, 중국 화엄의 제 2祖인 智儼으로부터 화엄학을 배웠으며, 그와 함께 동문수학하여 스승 智儼의 계승자가 된 중국 화엄의 제 3祖 法藏의 존경을 받았다. 智儼이 法藏을 文持, 義湘을 義持라 하여 대비시킨 사실은 유명하거니와, 의상이 귀국한 뒤에도 이 두 사람의 교류가 계속되었다는 것은 당시의 신라 화엄학이 중국과 같은 수준에 있었음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의상은 귀국한 뒤 文武王 16년(676) 太伯山에 浮石寺를 세우고 悟眞·智通·表訓 등 많은 제자들을 길러 내었다. 그리고 五岳을 비롯한 각지의 名山에 화엄 계통의 사원을 세워 傳敎케 하였는데, 大邱 八公山의 美理寺를 비롯하여 智異山의 華嚴寺, 太伯山의 浮石寺, 加耶山의 海印寺, 鷄龍山의 岬寺, 毘瑟山의 玉泉寺 등 이른바 ‘華嚴十刹’이 그것이다.⁷⁶⁾ 이들은 모두가 그의 활동시에 세워진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⁷⁷⁾ 화엄종 세력의 확대와 아울러 화엄 교학의 유행을 강조해 주는 사례라 할 것이다.

그의 저술로는 〈華嚴一乘法界圖〉·〈白花道場發願文〉이 현재 남아 있고, 〈入法界品鈔記〉·〈華嚴十門看法觀〉·〈阿彌陀經義記〉 등의 저술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의 화엄사상을 가장 잘 대변해 주는 것은 7言 30句 모두 210字로 이루어진 〈華嚴一乘法界圖〉였다. 그는 이 속에서 一은 곧 多요, 多是 곧 一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우주의 다양한 현상이 결국은 하나라고 하는 사상으로서 중앙집권적 통치체제를 뒷받침하였다고 한다.⁷⁸⁾

法相宗의 대표적 승려로는 圓測(613~696)을 꼽을 수 있다. 그는 唐에 들어가 玄奘에게서 新唯識學을 배워 법상종 승려로서 확고한 위치를 굳혔고, 玄奘의 제자인 窺基와 교리상으로 대립하여 규기의 慈恩學派에 대해서 西明學派를 성립시켰다. 원측의 사상은 유식학뿐 아니라 다른 여러 사상들을 섭렵하여 이들을 포용하려는 것으로, 중국에서는 자은학과로부터 이단시되고 배척을 받았지만, 티벳 불교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원측은 중국에서 활동하였기 때문에 신라 불교계에 끼친 영향은 제한적이었지만, 聖德王代 道證의 귀국에 의해 원측의 유식학이 본격적으로 전수되고, 마침내 景德王代(742~765) 太賢에 의해 집대성됨으로써 法相宗으로 성립되게 되었다.⁷⁹⁾

76) 崔致遠, 〈唐大薦福寺法藏和尚傳〉《崔文昌侯全集》, 成均館大 大東文化研究院, 1972, p. 275. 《三國遺事》 권 4, 義解 5, 義湘傳敎 조에도 華嚴十刹의 일부가 열거되어 있으나 양자간에 약간의 출입이 있다. 한편 華嚴十刹의 ‘十’은 반드시 열 곳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無量·多의 뜻이라 한다. 金相鉉, 〈新羅 華嚴宗의 僧侶 및 그 寺院〉《新羅華嚴思想史研究》, 民族社, 1991, p. 86.

77) 802년에 창건된 海印寺가 포함된 사실로도 증명된다.

78) 安啓賢, 〈新羅佛教의 敎學思想〉《韓國佛教史研究》, 同和出版公司, 1982, pp. 79~80.

79) 金南允, 〈新羅中代 法相宗의 成立과 信仰〉《韓國史論》 11, 1984.

유식학 연구에 중점을 둔 太賢系 法相宗이 성립된 뒤, 그보다 약간 늦은 경덕왕 말 또는 그 이후의 시기에는 占察法과 참회의 實踐行을 중시한 法相宗이 眞表에 의해 성립되었다. 태현계 법상종이 수도인 경주지역에서 세력을 떨친 데 비해, 진표계 법상종은 金山寺·俗離山·冥州 등 통일신라의 중심지인 古新羅 지역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방에 퍼져 있어, 경주지역의 귀족들에게 널리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⁸⁰⁾ 이는 아마 眞表가 백제계 유민으로서 反新羅의 성향을 띠고 있었기 때문으로 추측되기도 한다.⁸¹⁾

이상과 같이 義湘과 太賢·眞表 등에 의해서 화엄종과 법상종이 각각 독자적으로 발전하였지만, 이 시기 불교계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元曉의 和靜思想 내지 通佛敎思想으로 특징지워 진다. 원효(617~686)는 敎判에 있어서 《華嚴經》을 최고의 경전으로 보았고, 이 敎判이 중국 화엄종의 法藏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 때문에 화엄종의 승려로 간주되기도 하고, 혹은 瑜伽僧(法相宗 僧) 등으로 간주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어느 종파에도 구애되지 않는 융합적 입장이었다. 그는 《華嚴經》뿐 아니라 《法華經》·《涅槃經》·《無量壽經》·《中觀論》·《三論》·《成唯識論》 등 주요 經論에 대한 宗要和 論疏를 지어 각각의 근본정신과 세부적인 절목을 정리하였고, 특히 《大乘起信論疏》와 《十門和靜論》에서는 和靜思想을 제시하여 서로 모순·대립하는 것처럼 보이는 각 경전의 불교 사상을 하나의 원리로서 會通시키려 하였다. 이와 같은 원효의 불교는 이후 신라 승려들에게 계승되어 신라 불교의 중요한 전통이 되었다.

원효의 화쟁사상은 불교의 종합화를 추구하였을 뿐 아니라 불교의 民衆化를 주장하였다. 원효는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는 기본 원칙 하에서 화쟁을 주장하였으므로 그것은 지배자 중심이 아닌 민중을 중심으로 한 화합의 사상이었다. 따라서 원효가 민중불교라 할 수 있는 淨土信仰을 널리 전파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淨土信仰이란 어려운 불교경전을 이해하지 못하여도 阿彌陀佛께 귀의 한다는 뜻의 ‘南無阿彌陀佛’을 외는 것만으로 이미 타불이 산다는 西方淨土 즉 極樂에 往生할 수 있다는 단순한 신앙이었고, 또한 현세의 苦海에서 벗어나 來世의 왕생을 비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가난하고 무지한 농민들에게서 크게 환영을 받았다. 정토신앙은 통일 전에 발생하였지만, 통일 후 특히 원효에 의해서 크게 성행하게 되었다.

80) 위와 같음.

81) 李基白, 〈眞表의 彌勒信仰〉《新羅思想史研究》, 一潮閣, 1986.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反論도 없지 않다. 金在庚, 〈新羅 景德王代의 彌勒信仰〉《慶北産業大學論文集》3, 1987 참조.

원효는 불교 교학의 면에서 높은 경지에 도달하였을 뿐 아니라, 실제 생활에 있어서도 불교의 대중화에 노력하여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정토신앙을 전파하였다. 그의 전도 이후에 신라인의 심중팔구가 불교를 믿게 되었다고 한다. 이때 원효는 ‘나무아미타불’의 염불만 외면 惡人도 극락에 왕생할 수 있다고 하여 모든 인간이 평등함을 역설하였는데, 이러한 사상은 그가 6두품 출신으로서 가지고 있던 진골체제에 대한 현실적인 불만도 반영되었으리라 추측된다. 그러나 이 시기의 정토신앙은 원효 또는 어떤 특정 종파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불교계 전반의 현상이었다. 화엄종의 本刹인 浮石寺의 金堂이 無量壽殿이고, 그 안에는 화엄종의 主佛인 毘盧遮那佛이 안치된 것이 아니라 阿彌陀佛이 모셔져 있다는 것은 그 한 예이다.⁸²⁾ 또 일반 민중뿐 아니라 위로는 국왕과 진골 귀족으로부터 아래로는 노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정토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만큼, 이는 당시 모든 신라인들의 생활의 일부가 되고 있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대로 접어들면서 불교계에서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것은 곧 禪宗의 등장이었다. 禪宗은 ‘不立文字’라 하여 문자를 세워 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복잡한 교리를 떠나서 心性을 도야하는 데 치중하였다. 신라 말기 선종이 유행할 수 있었던 것은 이같이 선종 그 자체가 가진 민중적이며 혁신적인 성격 때문이었다. 敎宗이 佛教經典에 의거한 학문적인 종파로서 주로 귀족층에 받아들여진 데 대하여, 선종은 문자를 통해 말하지 않고 禪(靜思)을 통하여 佛性을 깨달을 수 있다는 주장이었으므로, 단순한 일반 민중들에게 쉽게 가까와질 수 있었다. 또한 교종이 전통적인 권위를 내세웠는 데 반하여 선종은 신라 사회의 모순에 대한 개혁을 주장하였으므로, 이는 혼란한 신라 말기 사회에서 크게 환영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선종이 처음 들어온 것은 삼국통일 전후의 시기라 하나 별 이해를 얻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9세기 초 憲德王(809~826) 때에 道義가 迦智山派(全南 長興 寶林寺)를 연 후부터 점차 널리 퍼지기 시작하여, 洪陟의 實相山派(全北 南原 實相寺), 惠哲의 桐裏山派(全南 谷城 泰安寺), 玄昱의 鳳林山派(慶南 昌原 鳳林寺), 道允의 師子山派(江原 寧越 興寧寺), 梵日の 閼崛山派(江原 江陵 崛山寺), 無染(朗慧)의 聖住山派(忠南 保寧 聖住寺), 道憲의 曦陽山派(慶北 聞慶 鳳巖寺), 利嚴의 須彌山派(黃海 海州 廣照寺) 등 소위 ‘禪宗九山’이 성립되기에 이르렀다.⁸³⁾ 그러나 이는 당시 선종이 9개의 파로 한정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중 유력한

82) 文明大, 〈景德王代の 阿彌陀造像問題〉《李弘植博士回甲記念韓國史學論叢》, 新丘文化社, 1969.

83) 崔柄憲, 〈新羅下代 禪宗九山派의 成立〉《韓國史研究》7, 1972.

것만을 열거한 것이다.⁸⁴⁾

선종 9산은 대부분 豪族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가령 봉림산파는 金海의 호족인 金律熙(蘇律熙)의 후원을 받았고, 사굴산파는 溟州(강릉) 호족인 王順式的 후원을 받았으며, 수미산파는 松岳(개성) 호족인 王建과 관계가 깊었다. 또 9산을 처음 연 승려들도 호족 출신이 많았다. 비록 그 선조가 중앙 귀족인 경우라 하더라도, 그들 자신은 이미 낙향하여 호족화한 인물들이었다. 그러므로 자연히 9산은 모두 그들을 후원하는 유력한 호족의 근거지와 가까운 지방에 자리잡게 되었다.⁸⁵⁾ 이와 같이 신라 말기에는 지방세력을 사회적 기반으로 하면서 각처에서 禪門이 일어나고, 그것은 불우한 민중의 호응을 받아 일세를 풍미해 갔다. 그러나 이들 禪門은 古新羅의 변두리 지역이나 백제·고구려의 故土에 위치하였으며, 大邱나 그 주변에 위치한 경우는 없었다. 이는 후술할 美理寺나 桐華寺가 각각 華嚴宗·法相宗사원이었던 사실과 함께 대구지역이 신라 말기까지 敎宗勢力의 강한 영향하에 있었음을 말해줄 것이다.

II. 心地와 桐華寺 創建

통일신라시대 대구지역에는 팔공산 일대를 중심으로 여러 사원이 분포하고 있었다. 桐華寺·美理寺·夫人寺(符仁寺) 등은 그 구체적 예이거니와, 기타 寺址나 석조유물들의 존재는 보다 많은 사원이 있었음을 짐작케 하고 있다. 그러나 자료의 한계상 창건 경위나 파악할 수 있는 것은 桐華寺에 불과한 형편이므로, 동화사를 중심으로 대구지역의 불교 사원을 살피고자 한다.

대구지역의 대표적 사원인 桐華寺는 東區 道鶴洞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에는 지정된 寶物만 하더라도 사원 입구의 磨崖佛坐像(제243호), 幢竿支柱(제254호), 毘盧庵의 石造毘盧舍那佛坐像(제244호)과 그 앞뜰의 三層石塔(제247호), 그리고 金堂庵 東·西의 三層石塔 2基(제248호) 등이 있고, 이들은 모두 통일신라시대의 작품으로 추정되고 있다. 동화사의 창건과정에 대해서는 《三國遺事》 권 4, 義解 5, 心地繼祖 조에 잘 설명되어 있다. 비교적 길지만 해당 부분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84) 許興植, 〈禪宗 九山派說의 批判〉《高麗佛敎史研究》, 1986.

85) 崔柄憲, 〈新羅末 金海地方의 豪族勢力과 禪宗〉《韓國史論》 4, 1978 참조.

釋 心地는 신라 제41대 왕 憲德大王 金씨의 아들이다. 나면서부터 효도하고 우애가 있으며, 천성이 맑고 지혜로웠다. 15세가 되던 해에 머리를 깎고 스승을 따라 佛道에 근면했다. 中岳(八公山)에 偶居했는데, 때마침 俗離山의 永深公이 眞表律師의 佛骨簡子を 이어받아 果訂法會를 개설한다는 말을 듣고 결심하고 찾아갔으나, 이미 기일이 늦어 法會에 참여함을 허락받지 못했다. 이에 땅에 앉아 마당을 치면서 신도들을 따라 예배하고 참회했다. 7일을 지나자 큰 눈이 내렸는데 心地가 서 있는 곳의 4방 10尺 가량은 눈이 휘날리면서도 내리지 않았다. 승려들은 그 神異함을 보고 堂에 들어움을 허락하였다. [그러나] 心地는 사양하여 병을 핑계하고 방안으로 물러가 있으면서 堂을 향해 가만히 예배했더니, 팔뚝과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려 마치 眞表公이 仙溪山에서 있었던 일과 같았다. [그리고] 地藏菩薩이 날마다 내려와서 그를 위문했다. 法會가 끝나고 팔공산으로 돌아갈 때에 도중에 옷섭 사이에 두 簡子が 끼어 있음을 보았다. 이것을 가지고 되돌아가 永深에게 아뢰니 “簡子が 함 속에 있는데 어찌 그럴 리가 있겠는가”하고 조사해 보았다. 함은 봉한 대로 였으나 열어보니 간자가 없었다. 永深은 그것을 매우 이상히 여겨 간자를 겹겹이 싸서 감추었다. [心地가] 또 가다가 보니 먼저와 같았으므로 다시 돌아가서 아뢰니 永深은 말하기를 “부처님 뜻이 그대에게 있으니 그대는 그 뜻을 받들어라”하고 簡子を 주었다. 心地가 그것을 머리에 이고 팔공산으로 돌아오니 岳神(山神)이 두 仙子を 데리고 나와 마중하여 산꼭대기로 가는 것이었다. [산신은] 心地를 인도하여 바위 위에 앉히고 그들은 바위 아래 엎드려서 삼가 正戒를 받았다. 心地가 말하되 “이제 땅을 택하여 神聖한 簡子を 봉안하려 하는데, 우리들만으로 정할 일이 아니니 三君(山神과 두 仙子)과 함께 높은 데 올라가서 간자를 던져 점을 치자”하고, 神들과 함께 높은 데 올라가 서쪽을 향해 간자를 던지니 간자가 바람에 날려 갔다. 그때에 神이 노래지어 부르기를

막혔던 바위가 멀리 물러나니
 솟돌처럼 편편해지고,
 낙엽이 날아 흩어지니
 앞이 밝아지는구나.
 佛骨簡子を 찾아 내어서,
 정결한 곳에 봉안하여 至誠을 하련다.

하였다. 노래 부르기를 마치자 簡子を 숲속 샘 안에서 찾았다. 堂을 짓고 안치하였으니 지금 桐華寺 鑱堂(참당) 북쪽에 있는 작은 우물이 바로 이곳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桐華寺의 창건은 心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는 中岳 八公山에서 偶居하며 佛道를 닦던 중 속리산의 永深이 스승 眞表로부터 두 佛骨簡子を 인수하여 법회를 한다는 말을 듣고 찾아 갔다.⁸⁶⁾ 그러나 결국 심지가 이를 다시 전수하였고,

86) 眞表의 佛骨簡子是 彌勒菩薩로부터 받은 189개의 간자 중 제8·9간자에 해당되는데, 미륵보살은 이들 간자를 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이 가운데 제8간자는 새로 얻은 妙戒(新得妙戒)를 이름이요, 제9간자는 더 얻은 具戒(增得具戒)를 이

팔공산에 와서 봉안한 것이 창건의 계기였다고 한다.⁸⁷⁾ 心地는 法相宗의 승려 眞表의 계승자였으므로 동화사는 法相宗 사원이며, 법상종의 主尊佛인 彌勒佛이 모셔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⁸⁸⁾ 또한 心地가 헌덕왕의 왕자였다는 사실은 동화사의 창건 시기 추정에 일정한 시사를 준다고 하겠다.

桐華寺의 창건 시기에 대해서는, 비록 후대의 자료이긴 하지만, 《桐華寺事蹟》·《朝鮮寺刹史料》·《桐華寺蹟碑銘》 등을 참고할 수 있다.⁸⁹⁾ 이들 기록은 다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齊武帝 永明 11년 癸酉, 즉 신라 炤知王 15년(493) 僧 普照가 창건하고, 大曆 7년 壬子, 즉 신라 惠恭王 8년(772) 僧 心地가 再創했다는 설이다. 다음 둘째는 신라 炤知王 15년(493) 極達和尚이 창건하여 瑜伽寺라 부르다가, 興德王 7년(832)에 心地王師가 重建할 때 오동나무 꽃이 상서롭게 피어 桐華寺라 고쳐 불렀다는 설이다. 동화사의 창건을 소지왕 15년(493)이라고 한 것은 일치되나, 心地의 再創에 대해서는 시기를 달리 전하고 있다. 혜공왕 8년(772) 僧 心地가 동화사를 再創했다는 설은 心地가 헌덕왕(809~825)의 왕자였음을 고려할 때 성립되기 어렵다. 다음 흥덕왕 7년(832) 心地王師가 重建했다는 설은, 心地를 王師라 한 것은 믿을 수 없다 하더라도,⁹⁰⁾ 중창 연대가 심지의 생존 시기와 맞아들어가므로, 이때를 心地의 동화사 창건 시기로 보는 것은 설득력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심지의 동화사 창건은 832년경이며, 이때 왕실의 후원도 있었으리라 짐작된다.⁹¹⁾

름이다. 이 두 간자는 내 손가락뼈요, 그 나머지는 沈檀木으로 만든 것인데, 모든 번뇌를 이르는 것이다. 너는 이것으로써 法을 세상에 전하여 사람을 구제하는 錀목으로 삼으라”(《三國遺事》 권 4, 義解 5, 眞表傳簡). “이 두 간자는 내 손가락뼈니 始覺과 本覺의 二覺을 이름이다. 또 제9간자는 법이요, 제8간자는 新薰成佛種子이니, 이것으로써 果報를 알지니라. 네가 육신을 버리고 大國王의 몸을 받아 후에 兜率天에 나게 될 것이다”(위와 같음, 關東楓岳鉢淵藏石記).

87) 이를 反新羅의 성향인 眞表의 미륵신앙이 신라의 변방에서 세력을 확대하는 것을 억제하려는 노력의 표현이라 한 견해도 있다. 李基白, 〈眞表의 彌勒信仰〉, 앞의 책, 1986, p. 275.

88) 八公山麓의 龍水洞에서 발견된 “桐華彌勒堂”이란 기와 銘文에서도 방증이 된다. 尹容鎮, 《大邱龍水洞瓦窯址調查報告書》, 대구직할시·경북대학교, 1986 참조.

89) 《桐華寺事蹟》은 조선 英祖 8년(1732)에 간행된 목판본이며, 《朝鮮寺刹史料》·《桐華寺蹟碑銘》은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다. 한편 《桐華寺事蹟》의 〈心地王師行迹〉에는 心地가 신라 헌덕왕의 3자로 출가시 13세였다고 한다.

90) 신라시대에는 國師는 있었지만, 王師는 두지 않았다고 한다. 許興植, 〈國師·王師制度和 그 機能〉《高麗佛敎史研究》, 1986, p. 395.

91) 단 이때가 始創인가 重創인가의 여부는 좀더 신중히 검토될 여지도 없지는 않으리라 생각된다. 한편 신라시대 僧 眞弘이 錫杖을 날려 떨어진 곳에 창건한 것이 동화사란 설도 있으나(李重煥, 《擇里志》卜居總論 山水), 眞弘의 이력, 사원의 창건 시기 모두 미상이다.

동화사의 명칭은 처음 창건되었다고 하는 소지왕대에 瑜伽寺로 불렸다 하나, 法相宗의 성격을 띤 ‘瑜伽’라는 寺名이 이때 이미 사용되었다는 것은 믿기 어려울 것이다. 또 心地가 중창하면서 ‘桐華寺’로 고쳤다 하나, ‘桐華寺’라는 寺名은 신라시대가 아닌 고려시대 이후에 나타나고 있어 의문이 있다. 즉 《三國遺事》 권 2, 기이 2, 後百濟 甄萱 조에는 “桐藪望而潰散”이라 하여 ‘桐藪’라 했고, 景文王 3년(863)에 작성된 〈新羅敏哀大王石塔舍利盒記〉에도 “桐藪願堂”이라 하였다. 또한 신라 말 崔致遠이 지은 〈新羅壽昌郡護國城八角燈樓記〉에는 “桐寺”로 쓰여 있다. 이는 신라시대의 동화사가 桐藪·桐寺 등으로 흔히 불렸음을 말해 준다고 하겠다.⁹²⁾

현덕왕의 아들 心地에 의해 창건된 桐華寺는 신라 왕실의 願堂이었다. 이는 동화사 毘盧庵 三層石塔에서 나온 舍利盒記銘文에 의해 밝혀졌다.⁹³⁾ 명문은 黑漆한 蠟石製의 작은 항아리에 음각되어 있는데, 항아리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 판독이 불가능한 부분도 있다. 그러나 당시 동화사의 성격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전문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國王(景文王)은 삼가 敏哀大王을 위하여 福業을 追崇하고자 石塔을 조성하고 기록한다. 무릇 聖敎에서 설한 바는 利益이 多端하여 비록 8만 4천의 법문이 있다지만, 그 가운데 業障을 없애고 利物을 널리하는 것은 塔을 세우고 禮懺行道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엇드려 생각컨대 민애대왕의 이름은 明이며 宣康大王의 만아들로 今上의 老舅이었다. 開成 己未의 해(839) 정월 23일 蒼生을 버리시니 춘추 23세였다. 장사지낸 후 24년(2紀)에...蓮臺의 업을 숭상하고자 桐藪願堂앞에 石塔을 세우니 童子들이 모래를 모아 탑을 쌓던 뜻을 본받기 바란다. 삼가 원하노니 이 功德으로 五濁의 인연을 떠나게 하여...[모든 일체 중생에 미쳐] 去去生生토록 썩지 말기를 기원한다.

咸通 4년 癸未 9월 10일에 쓰다. 翰林 沙干 伊觀, 專知大德 心智, 同知大德 融行, 唯乃僧 純梵, 唯乃僧 心德, 專知大舍 昌具, 典 永忠, 匠 梵覺.

이는 景文王이 민애대왕의 福業을 追崇하기 위해 석탑을 세우고 작성한 것으로, 민애왕이 죽고 24년이 지난 왕 3년(863, 咸通 4)에 쓰여진 것이다. 이를 통해 민애왕이 宣康王으로 추봉된 伊瀾 忠恭의 長子란 사실과, 23세로 세상을 떠난 사실, 동화사를 당시 桐藪라 하였고 왕실의

92) 文暉鉉, 〈八公山과 佛教〉《八公山》, 대구직할시·경북대학교, 1987, p. 243. 桐藪·桐寺 등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寺名은 대부분 3자씩이고, 桐華寺란 명칭이 일반화된 고려시대에도 ‘桐藪’라 쓴 예가 발견되는 것을 보면(尹容鎮, 《大邱龍水洞瓦窯址調查報告書》, 1986), 정식 명칭은 ‘桐華寺’이나 드물게 사용되었고, ‘桐藪’·‘桐寺’ 등은 별칭이나 오히려 많이 사용되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93) 黃壽永, 〈新羅敏哀大王石塔記〉《韓國의 佛教美術》, 同和出版公司, 1974 참조. 이 舍利盒(舍利壺)은 보물 741호로 지정되어 서울 東國大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원당이었던 사실 등이 새로이 밝혀지게 되었다.

민애왕은 신라 하대의 치열하던 왕위 쟁탈전에서 희생된 왕이었다. 그는 興德王이 죽은 후 金均貞을 옹립하는 金祐徵·金禮徵·金陽의 군대를 격파하고, 마침내 金均貞을 죽인 뒤 자신의 妹夫人 金梯隆을 僖康王으로 옹립하였다. 승리자가 된 그는 21세로 上大等이 되어 실권을 장악하다가 이듬해 희강왕을 협박하여 죽게 하고 敏哀王으로 즉위하였다. 그러나 淸海鎮 大使 張保臯의 군사원조를 받은 金陽의 5천 대군과 왕 2년(839) 이곳 大邱(達丘伐)에서 싸워 패배함으로써 즉위 1년만에 피살되고 말았다. 그의 아버지 忠恭은 元聖王의 太子 仁謙의 아들이며 昭聖王·憲德王·興德王의 아우였다. 헌덕왕 9년(817) 이찬으로 侍中이 되고, 14년(822)에는 上大等에 취임하였다. 민애왕이 達丘伐 패전으로 죽은 뒤 神武王·文聖王·憲安王을 거쳐 경문왕 3년에 桐蔭願堂 앞에 그의 명복을 비는 탑이 세워진 것이다. 이는 동화사가 왕실의 원당이 되었음을 말하는 것이다.⁹⁴⁾

그런데 이 글을 지은이는 翰林 沙干 伊觀, 專知大德 心智 등이었거니와, 心智는 동화사의 창건자인 心地와 같은 사람으로 추정된다.⁹⁵⁾ 이는 그가 헌덕왕 이후 희강·민애·신무·문성·헌안왕 다음의 경문왕대(861~874)까지 생존해 있을 가능성이 없지 않고, 인명표기에 있어 同音異字를 다양하게 사용한 예는 신라시대 흔히 발견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心地는 桐華寺를 佛骨簡子 봉안의 사원으로 창건하여 신라 왕실의 원당으로 만들고, 민애왕을 추복한 장본인이었다고 하겠다.⁹⁶⁾

동화사는 신라 말기에 이르러서도 대구지역의 대표적 사원으로 존재하였다. 이는 다음과 같은 <新羅壽昌郡護國城八角燈樓記>에서 확인되고 있다.

그해 첫 겨울에 燈樓를 세우고, 11월 4일 公山 桐寺의 弘順大德을 맞이하여 座主로 삼고 齋를 베풀어 慶讚하였다. 泰然大德, 靈達禪大德, 景寂禪大德, 持念緣善大德, 興輪寺 融善呪師 등의 고승들이 다 모여 법회를 장엄하게 하였다.⁹⁷⁾

94) 李基東, <新羅 下代の 王位繼承과 政治過程> 《新羅 骨品制社會와 花郎徒》, 一潮閣, 1984, p. 163에서는 동화사를 金忠恭家系의 원당으로 추정하면서 心地의 동화사 창건을 후원한 것도 金忠恭 부부일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다. 그러나 文暉鉉, <八公山과 佛教>, 앞의 책, 1987, p. 246에서는 헌덕왕의 아들 心地가 창건하고 주지하였으므로 헌덕왕가의 원당이며, 나아가 원성왕의 태자인 仁謙家系 즉 소성왕·애장왕·헌덕왕·김충공·민애왕의 원당이라 하였다.

95) 黃壽永, <新羅敏哀大王石塔記>, 앞의 책, 1974.

96) 心地는 헌덕왕의 왕자였으므로 민애왕과는 4촌간이 된다.

97) 崔致遠, 《崔文昌侯全集》, 1972, p. 87. 禪大德은 禪宗 僧(禪師)이 아니라 瑜伽大德 즉 法相宗 僧을 가리킨다고 한다. 金福順, <新羅 下代 華嚴의 盛行> 《新羅華嚴宗研究》, 民族社 1990. p. 97 참조.

위의 燈樓記는 孝恭王 12년(908)경 崔致遠에 의해 쓰여진 것이다. 오늘날 大邱의 일부인 新羅 壽昌郡의 護國城 八角燈樓 낙성 慶讚法會에 여러 고승이 초청되었고, 이때 동화사의 弘順大德은 座主로서 행사를 주관하였다. 護國城이란 명칭이나 경주의 興輪寺의 승려가 참가한 사실 등은 아직 동화사가 신라 중앙정부의 영향하에 있었음을 말해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美理寺는 義湘의 華嚴十刹의 하나라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崔致遠의 〈唐大薦福寺法藏和尚傳〉에는 화엄십찰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海東 華嚴大學의 장소로서 十山이 있었는데, 中岳 公山の 美理寺, 南岳 智異山の 華嚴寺, 北岳의 浮石寺, 康州 迦耶山の 海印寺와 普光寺, 熊州 迦耶峽의 普願寺, 鷄龍山の 岬寺, 朔州의 華山寺, 良州 金井山の 梵魚寺, 毘瑟山の 玉泉寺, 全州 母山の 國神寺, 그리고 漢州 負兒山の 靑潭寺가 있어서 十所였다.⁹⁸⁾

이로 보아 美理寺는 화엄종 사원이라 하겠으나, 그 구체적 창건 시기는 밝혀져 있지 않다. 화엄십찰의 성립 시기를 고려할 때 9세기 무렵에는 창건된 것이 확실하고,⁹⁹⁾ 義湘 당대에 세워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다. 후삼국시대 王建과 甄萱의 公山下 싸움에서 金樂·申崇謙 두 장군이 이 절 앞에서 전사한 것으로 유명하며¹⁰⁰⁾ 위치는 智妙洞 일대로 추정되고 있다.¹⁰¹⁾ 그외 후대의 자료이지만, 《大丘府邑誌》에는 東區 新武洞의 夫人寺가 聖德王에 의해 창건되어 일명 大伽藍이라 불렀다고 하고, 東區 中大洞의 把溪寺는 聖德王 13년(714)에 창건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¹⁰²⁾ 또 《韓國寺刹全書》·《朝鮮寺刹史料》 등에는 南地藏寺가 神文王 4년 甲申(684)에 初創되었다는 설을 전하고 있다.¹⁰³⁾

문헌자료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문헌자료가 불확실할 경우 遺物·遺蹟을 통해 이 시기의 사원임을 밝힐 수 있는 예도 있다. 夫人寺는 그 대표적인 곳으로 이곳에는 통일신라시대의 석탑·석등·당간지주 등이 존재하고 있다.¹⁰⁴⁾ 이는 앞서 《大丘府邑誌》의 사원 창건 기사와도 맞아들여가

98) 崔致遠, 《崔文昌侯全集》, 1972, p. 275.

99) ‘화엄10찰’의 성립 시기는 해인사가 창건된 802년에서 〈法藏和尚傳〉이 씌여진 904년 사이로 추정된다. 金相鉉, 〈新羅 華嚴宗의 僧侶 및 그 寺院〉, 앞의 책, p. 86.

100) 《三國史記》 권 50, 列傳 甄萱. 《三國遺事》 권 2, 紀異 2, 後百濟 甄萱. 《高麗史節要》 권 1, 太祖 10年 9月.

101) 大邱府, 《大邱府史》, 1943, p. 22.

102) 《大丘府邑誌》佛宇. 단 《朝鮮寺刹史料》(朝鮮總督府, 1911) 上, p. 397에는 把溪寺가 哀莊王代 心地國師에 의해 창건되었다고 하나 心地의 연령을 고려할 때 후대의 부회임이 분명하다.

103) 權相老 編, 《韓國寺刹全書》 上, 東國大出版部, 1979, p. 226. 朝鮮總督府, 《朝鮮寺刹史料》 上, p. 398.

104) 尹容鎮, 〈문화재〉 《대구의 향기》, 대구직할시, 1982, pp. 442~443.

鄭永鎬·李明植, 〈八公山の 石造美術〉 《八公山》, 1987, p. 286. p. 313. p. 317.

부인사가 통일신라시대에는 실재했음을 증명해 주고 있다. 또한 東區 道鶴洞의 北地藏寺에는 통일신라시대의 석탑·석조지장보살좌상이 있어,¹⁰⁵⁾ 통일신라시대 이곳에 사원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외 대구시 중심부인 南區 鳳德洞 法藏寺에도 신라 말기의 3층석탑이 존재하고 있다.¹⁰⁶⁾

III. 佛敎와 對立된 思想으로서의 儒敎의 擡頭

삼국시대의 신라는 고구려나 백제에 비해 儒敎의 보급이 늦었고, 유교 교육을 담당할 학교도 아직 설치되지 않았다. 그러나 통일신라시대에 이르러면 유교는 크게 융성하였고, 점차 불교에 대항하는 독립된 사상으로 발전하여 갔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神文王 2년(682)에는 유교 교육기관인 國學이 설립되었다. 국학에서는 3科로 구분하여 교수하였는데, 《三國史記》 권 38, 職官志(上) 國學條에서 그 과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論語》·《孝經》·《禮記》·《周易》

(나) 《論語》·《孝經》·《左傳》·《毛詩》

(다) 《論語》·《孝經》·《尚書》·《文選》

이에 의하면 《論語》와 《孝經》은 3科의 공통의 필수과목이었고, 五經과 《文選》은 科에 따른 선택 과목임을 알 수 있다. 이는 經學이 주가 되고 文學이 부수되어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¹⁰⁷⁾ 國學에 입학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위의 국학 조에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무릇 학생은 位가 大舍 이하로부터 無位에 이르고, 나이는 15로부터 30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에 충당하였다. 9년을 한도로 하되 만약 質이 魯鈍해서 敎化되지 않는 자는 그만두게 하고, 만일 才器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익숙하지 못한 자는 비록 9년이 넘더라도 재학을 허락하되, 位가 大奈麻·奈麻에 이른 뒤에 國學에서 내어보낸다.

즉 京位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가지고 있지 못하더라도 장차 가질 수 있는 자가 학생이 되었으며, 국학에서 業을 마치고 나올 때에는 京位인 奈麻나 大奈麻가 주어졌다는 것이다.

105) 鄭永鎬·李明植, 〈八公山の 石造美術〉, 앞의 책, pp. 293~294. p. 305. 단 석탑에 대해서는 고려시대의 작품으로 보기도 한다. 尹容鎮, 〈문화재〉, 앞의 책, p. 394 참조.

106) 尹容鎮, 〈문화재〉, 위의 책, p. 401. 그러나 이는 다른 곳에서 옮겨왔을 가능성도 있다.

107) 李基白, 〈新羅 骨品體制下的 儒敎的 政治理念〉 《新羅思想史研究》, 1986, p. 226.

이러한 교육기관의 정비를 기초로 하여 元聖王 4년(788)에는 讀書三品科라는 관리채용을 위한 일종의 국가시험제도가 마련되었다. 《삼국사기》 권 10, 신라본기 원성왕 조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왕 4년 봄에 처음으로 讀書三品科를 정하여 出身하게 하니, 《春秋左氏傳》이나 《禮記》나 《文選》을 읽어서 그 뜻을 능통하고 겸하여 《論語》·《孝經》에 밝은 자를 上品으로 하고, 《曲禮》·《論語》·《孝經》을 읽은 자를 中品, 《曲禮》·《孝經》을 읽은 자를 下品으로 하고, 또 혹은 五經·三史·諸子百家의 책을 博通한 자는 超擢하여 등용하기로 하였다. 前日에는 弓衛로서 인물을 선택하였으나, 이때에 이르러 개혁하였다.

즉 독서의 성적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누어 인재를 등용하였는데, 五經·三史·諸子百家의 책에 모두 능통한 자는 순서를 뛰어 등용하였다고 한다. 시험과목이 국학에서 배운 책들임에서 독서삼품과는 국학의 졸업시험과 같은 것이었으며,¹⁰⁸⁾ 종래의 골품 위주의 관리 등용을 지양하고 유교적인 교양에 따른 능력 위주의 제도를 마련코자 한 것이라 하겠다.

국학의 설립과 독서삼품과의 실시는 유교의 발달과 많은 유학자의 배출을 가능케 했다. 그러나 이 시기 유교의 전반적인 성격은 진골 중심의 골품제도와 이를 옹호하는 佛教에 대항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즉 유교를 주로 신봉한 계층은 6두품 출신들이었는데, 이들은 불교의 佛土 중심의 이원적 세계관을 비판하고 현세적인 도덕지상주의를 주장하였다.¹⁰⁹⁾ 통일신라 전반기를 대표하는 強首나 薛聰은 모두 이러한 경향의 유학자들이었다. 中原京 沙梁人으로 任那 출신인 強首는 6두품으로 외교문서 작성에 공이 큰 것으로 유명하지만, 그의 아버지 昔諱가 강수의 뜻을 알아보기 위해 ‘佛을 배우겠는가 儒를 배우겠는가’고 묻자 그는

제가 듣기로는 佛은 世外教라고 합니다. 저는 世俗 사람이온데 어찌 佛을 배우겠습니까? 儒의 道를 배우고자 합니다.¹¹⁰⁾

라 하여 불교를 비판했다고 한다. 또 본래 釜谷의 治匠 집 딸과 정을 통하고 있던 강수가 보다 신분이 나은 집의 여자와 결혼케 하려는 부모에 대해

108) 李基白, 〈統一新羅와 渤海의 文化〉《韓國史講座》古代篇, 一潮閣, 1982, p. 387.

109) 李基白, 〈強首와 그의 思想〉《新羅思想史研究》, 1986, pp. 214~217 및 〈新羅 骨品體制下的 儒敎의 政治理念〉, 위의 책, pp. 223~231.

110) 《三國史記》 권 46, 列傳 強首.

가난하고 천한 것은 부끄러운 바가 아니지만, 道를 배우고 이를 행하지 않는 것은 진실로 부끄러운 바입니다.¹¹¹⁾

라 하여 신분보다 도덕을 중시한 것도 이같은 경향을 말한다고 하겠다.

元曉의 아들인 薛聰 역시 6두품의 신분으로 經史에 널리 통하고 문장에 능하였다고 한다. 특히 그는 神文王에게 올린 〈花王誡〉(諷王書)에서 국왕도 향락을 배격하고 도덕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그 대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花王(牧丹)이 처음으로 오자 佳人인 장미가 아침으로 모시기를 청했으며, 老臣인 白頭翁(할미꽃)이 기운을 補할 良藥과 毒을 제거할 劇藥을 권하였다. 花王이 어느 사람의 청을 따를까 하고 결정하지 못한 채 망설이자 丈夫가 나와 “나는 왕이 총명하여 사리를 아시는 줄로 알고 왔더니 지금 보니 나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무릇 임금이 된 사람은 간사하고 아첨하는 자를 가까이 하고, 정직한 자를 멀리하지 않는 이가 드롭니다”고 말했다. 花王이 이를 듣고 내가 잘못했다고 했다.¹¹²⁾

위의 내용은 국왕이 아첨하는 신하보다 정직한 신하를 가까이 할 것을 권한 것이다. 정치에 있어서 물질적인 욕망보다는 도덕적인 규범이 필요하다는 것은 바로 유교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었다.¹¹³⁾ 그러므로 유교는 진골에 대항하고 있었고 오히려 왕권과 결합하여 성장하여 갔다고 할 수 있다.

도덕적 정치이념을 가지고 점차 그 독자적 위치를 굳혀 가던 유교는 하대가 되면서 정치개혁의 이념으로 부각되었다. 이때에는 渡唐留學이 활발하여 唐의 賓貢科에 합격한 사람들도 많아 여러 유학자가 배출되었는데, 金雲卿·金可紀·崔致遠·崔承祐·崔仁滾(崔彥擥) 등이 곧 그들이었다. 특히 崔致遠은 唐에서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역임한 후 귀국 眞聖女王에게 時務策 10여 조를 올려 정치의 혼란을 시정하려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무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6두품이란 그의 신분으로 미루어 反眞骨의 성격을 띠고 있었고, 이는 곧 전제왕권의 지지였다고 생각되고 있다.¹¹⁴⁾ 당시 불교계에서는 禪宗이 크게 일어나 豪族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 최치원도 불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여러 禪師들의 비문을 짓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111) 위와 같음.

112) 《三國史記》 권 46, 列傳 薛聰 참조.

113) 李基白, 〈新羅 骨品體制下的 儒敎의 政治理念〉, 앞의 책, p. 228.

114) 앞의 책, pp. 232~233.

결코 지방 호족과 결탁하지 않았다.¹¹⁵⁾ 이렇게 그가 反豪族의이었다는 것 또한 중앙집권에 더 관심이 많았다는 증거가 된다. 그의 최후의 저술로 여겨지고 있는 〈新羅壽昌郡護國城八角燈樓記〉는 이점을 잘 말해주고 있다.

天祐 5년(孝恭王 12, 908) 戊辰年 겨울 10월에 護國義營都將 重關祭 異才가 南嶺에 八角燈樓를 세웠다. 국가의 경사를 기원하며 전쟁의 화를 물리치기 위함이다.… 임금의 은혜에 보답할 것을 결심함은 佛事を 높이는 것이다. 바라기는 어두운 곳이 생기지 아니하여 두루 미혹한 무리를 깨우치게 하려면 마땅히 法燈을 높이 달아서 빨리 兵火를 없애는 것이다. 정치 좋은 곳을 택하여 높이 누각을 세우고 등불을 켜서 성 위에 올려 놓고 영원히 佛燈이 빛을 발하여 적병의 침략을 방어하게 하였다.¹¹⁶⁾

최치원은 오늘의 대구인 壽昌郡의 護國城 八角燈樓記를 남긴 것이다. 記文의 내용은 그가 마지막까지 親王的 성격을 견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앞서 그는 진성여왕에게 올린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관직을 버리고 은둔하였거니와, 이는 신라의 대세가 진골 귀족의 골품제 고수와 지방 호족들의 반정부적 행동으로 순수한 유교적 정치이념을 펼 수 없는 상황에서 빚어진 결과였다.¹¹⁷⁾ 그리고 이같은 사상적 혼돈은 당시 유학자 공동의 좌절감이었다. 이러한 결과로 유교는 지방 호족들이 세운 地方學校를 통하여 지방 사회로까지 확산되어 갔다. 그리고 드디어는 유학자들이 새 왕조 고려의 정치이념을 제공하는 구실을 하게 된 것이다.

이상과 같은 유교계의 움직임은 반드시 대구지역의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교계의 동향을 통해 불교 융성의 이면에 감춰진 역사적 사실을 이해하고, 대구지역 불교계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한다.

115) 위의 책, pp. 234~235.

116) 崔致遠, 《崔文昌侯全集》, pp. 83~84.

117) 李基白, 〈新羅 骨品體制下的 儒敎的 政治理念〉, 앞의 책, p. 236.

